



남양주시 역사 문화 길잡이

# 우리 고장 남양주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시 역사 문화 길잡이

# 우리 고장 남양주

남양주문화원



발간사

## 남양주를 안내하는 길잡이 책

우리 고장 남양주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경기 지역에 속하면서 그 문화 또한 한국사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하기에 남양주시에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우리 고장 남양주』는 남양주시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재미있고 흥미있게 서술함으로써 남양주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남양주의 과거와 현재, 현황과 한걸음, 우리 고장이 배출한 인물, 우리 고장의 문화 유산, 우리 고장의 놀이와 전통, 민속, 그리고 우리 고장의 특산물 등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을 비롯하여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내 고장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췌록 이 책이 남양주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이해하여 그 가치를 보존·전승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고 제작하는 데 늘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5월

남양주문화위원장 조원근  
남양주시장 김영희



남양주시청사 전경



다산문화제 중 퇴계원산대놀이 공연 모습



남양주의 미소(건설군 이원 교 문인석)



남양주시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천마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 죽령산



수종사에서 내려다 본 두물머리 전경



삼당댐



세조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조성된 광릉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씨를 모신 홍릉



홍릉과 같이 함제릉의 제도로 조성된 유릉



선조의 후궁 안빈 김씨의 묘인 순강원



중증반첩의 주역인 박원종 신도비



선조의 아버지인 익흥대원군과 그 부인의 묘



풍암궁지 비각 안의 구결유자비



풍암궁지 비각



석실서원도(경재 정선 그림)



덕흥대원군의 원찰인 홍국사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



조선 전기 동종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봉선사 대종



장악을 생가인 여유당 전경



500여 년 동안 보존되어온 자연림인 광릉의 숲길



종합영상지원센터인 서울종합촬영소



18세기 목조기와집인 궁집 내부 전경



계명주(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호)를 만드는 모습

## 일러두기

1. 『우리 고장 남양주』는 남양주시의 학생과 일반인들은 물론 남양주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남양주에 관한 책이다.
2. 책의 내용은 전공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만들었다. 한글을 한자와 병기하였고 내용도 펼 수 있으면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내용과 부합되는 사진을 함께 삽입하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전문적인 용어나 인명 등은 해당 쪽 아랫부분에 부연 설명을 담은 상자를 삽입하였다.
4. 『우리 고장 남양주』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제1장 '우리 고장의 역사' 편에서는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남양주의 연혁이 시기별로 서술되어 있다.
  - ② 제2장 '우리 고장의 현황' 편에서는 남양주의 위치와 넓이, 자연 환경, 인구와 교통, 산업과 경제, 주요 기관 등 우리 고장의 현황이 서술되어 있다.
  - ③ 제3장 '우리 고장의 삶과 문화' 편에서는 남양주지역의 평생의례, 의식주생활, 마을신앙, 각종 놀이문화, 전해 오는 옛이야기, 각 지역의 지명유래, 장터 등이 서술되어 있다.
  - ④ 제4장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편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들 중에서 왕릉·원묘, 선현묘역, 불교유적·유물이 서술되어 있다.
  - ⑤ 제5장 '우리 고장의 자랑' 편에서는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중에서 남양주가 배출한 위인과 광릉수목원 및 관광명소가 서술되어 있다.

## 차례

발간사  
화보  
일려두기

### 제1장 우리 고장의 역사

|                        |    |
|------------------------|----|
| 제1절 선사인들이 살았던 흔적 ..... | 23 |
| 제2절 고리성에서 풍양까지 .....   | 25 |
| 제3절 풍양궁의 설치 .....      | 27 |
| 제4절 양주목에서 양주군까지 .....  | 29 |
| 제5절 의병활동과 3·1운동 .....  | 31 |
| 제6절 남양주사가 되기까지 .....   | 34 |

### 제2장 우리 고장의 현황

|                  |    |
|------------------|----|
| 제1절 위치와 넓이 ..... | 41 |
| 제2절 자연환경 .....   | 43 |
| 제3절 인구와 교통 ..... | 56 |
| 제4절 산업과 경제 ..... | 59 |
| 제5절 주요기관 .....   | 60 |

### 제3장 우리 고장의 삶과 문화

|                  |     |
|------------------|-----|
| 제1절 평생의례 .....   | 73  |
| 제2절 의식주생활 .....  | 87  |
| 제3절 마을의 신앙 ..... | 100 |

|                     |     |
|---------------------|-----|
| 제4절 놀이문화 .....      | 111 |
| 제5절 전해오는 옛이야기 ..... | 122 |
| 제6절 지명유래 .....      | 136 |
| 제7절 장터 .....        | 172 |

#### 제4장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                       |     |
|-----------------------|-----|
| 제1절 왕릉과 원묘 .....      | 179 |
| 제2절 선현들이 남긴 발자취 ..... | 201 |
| 제3절 불교문화 .....        | 226 |

#### 제5장 우리 고장의 자랑

|                          |     |
|--------------------------|-----|
| 제1절 훌륭한 인물 .....         | 257 |
| 제2절 500년을 지켜 온 광릉숲 ..... | 289 |
| 제3절 관광의 명소 .....         | 305 |
| 찾아보기 .....               | 340 |

제1장

# 우리 고장의 역사



## 제1절 선사인들이 살았던 흔적

현 남양주지역에서 제일 먼저 터를 잡고 문화를 만들어간 이들은 당연히 선사시대 사람들이다. 남쪽과 동쪽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감안하면 현 남양주지역에 다양한 선사문화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양주시의 선사시대 유적은 수석리, 도농동, 지금동, 가운데, 금남리, 도곡리 등 한강유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인접한 미사리유적지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널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양주는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시대 문화가 번영을 이루던 지역이었음이 분명하다.

구석기시대 유적지는 정식으로 발굴된 것은 없고 지표조사에서 얻어진 유물만이 있다. 남양주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유적지는 와부읍 능내리, 삼봉리, 조안면 송촌리 두촌유적, 진중리 마진유적, 능내리 마재유적, 화도읍 금남리, 검터 등이 있다. 하지만 중앙구 면목동과 양명군 병산리 등 주변에 한강을 끼고 많은 유적이 발굴,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나올 것이라 전망된다.

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인 정착생활은 집자리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구석기시대에 이동생활을 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미 생활방법상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양주지역과 인접한 한강변에 하남의 미사리유적과 강동구의 암사동유적에서 대단위 집단 취락지가 발견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암사동 혹은 미사리와 서로 왕래가 있었음을 상정해 볼 때 이 지역에서도 향후 집자리가 발견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선사시대 집자리는 정밀 지표 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로 발견되는 것인데, 남양주지역은 최근에 처음으로 지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견된 예는 매우 적은 편이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 유적지는 수석동 선사 집자리와 가운데 선사 집자리가 있으며, 최근 조사된 수동면 지둔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고미집

집자리는 아니지만 3기의 고인돌이 발굴되었다.

특이한 사례로 수석동에 있는 선사유적은 일명 '약물터유적' 이라고도 하는데, 유적이 발견된 곳에서 강변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작은 샘물이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식수원이라고 전한다.

## 제2절 고리성에서 풍양까지

현 남양주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기원전 3세기 전후에 형성되었다는 삼한은 마한·진한·변한을 말하는데, 이중 마한은 현재의 경기, 충청, 전라도 일부 지역을 포괄하면서 약 50여 개의 '소국'을 갖고 있었다. 남양주지역도 그 중 한 곳으로 비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15세기 경에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보면, 현 남양주지역의 일부인 풍양이 고구려 때 고리성 골의노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양주지역은 일찍부터 한강변에 도읍을 정한 백제의 영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력을 강화한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펼쳐 백제의 58개 성과 700개 촌락을 점령하였다. 현재 만주 집안(集安)에 위치한 광개토왕릉비를 살펴보면 광개토왕이 396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고 이단성·고리성 등 총 58개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고리성은 고구려 때 지명인 골의노현과 음이 유사하다. '골의노현'이라는 지명은 '고리성'과 함께 풍양을 가리킨다고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 있다. 즉 골의(gor-i) - 고리(go-ri)가 음이 일치하고 또한 마한의 소국 '고리(go-ri)국(古離國)'과도 음가가 유사하다는 사실로 볼 때 오늘날의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면 일대가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건해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현 남양주지역은 마한의 고리국에서 백제의 고리성으로, 396년 고구려에 점령당한 이후 그 명칭이 골의노현으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광개토왕의 백제도성 침공 이후 남양주지역은 삼국간의 본격적인 쟁패지역으로 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침략하여 개로왕을 죽인 후 백제가 용진(지금의 공주)으로 수도를 옮기자 남양주지역은 고구려의 관할로 들어갔다. 551년 백제의 성왕이 신라군과 연합하여 이곳 한강유역을 되찾았으나,

다시 553년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신라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때부터 남양주지역은 오랫동안 신라에 속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757년(경락왕 16)에 지방행정조직으로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한주의 치소는 광주로 한양군이 있었다. 신라 말 통치체제 전반이 문란해지고, 지방에서는 유력세력들이 독자세력을 구축하는 시대상황이 전개되자 남양주가 속한 한주지역도 신라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력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특히 진성여왕의 뒤를 이은 효공왕(897~911) 때는 궁예와 견훤이 각각 후고려와 후백제를 건설함으로써 신라의 영토는 줄어들었고, 소백산맥 외곽을 벗어나지 못한 정도에 그쳤다.

양주(楊州)라는 지명은 898년 궁예 휘하의 왕건이 양주와 전주(見州 : 지금의 양주군 주내면)를 점령하였다는 기록에 처음 보인다. 이후 궁예정권에 예속되었으며 고려까지 이어졌다.

남양주지역은 궁예가 왕건을 보내 공격하여 지배한 이후 수도인 개경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중앙의 행정력이 직접 미치는 직할지였고, 호족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견훤이 귀부하였을 때 이 지역을 식읍으로 하사할 수 있었다. 결국 호족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남양주지역은 송악에 도움을 고려의 직할지가 되어 중앙정부에 의해 식읍은 물론 전시과(田柴科) 지급대상지가 되고, 나아가 천도의 대상지역으로 검토되는 등 우월한 경제적, 지리적 입지조건에 따라 그 중요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 제3절 풍양궁의 설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했던 풍양궁은 1420년(세종 2)에 설치한 이궁 중의 하나이다. 동이궁(東離宮)이라고도 불렀던 풍양궁은 『세종실록』 지리지 양주도호부조에 “양주의 동남쪽에 있으며 곧 풍양현의 옛터이고, 또한 태종이 거둥하여 계시던 곳”이라 하였다.

풍양궁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특히 한 여름철의 휴식처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태종의 경우 석전회(石戰戲)를 보려고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풍양궁으로 온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풍양궁이 여름 휴식처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풍양궁에 살다시피한 태종이 승하하자 풍양궁에 대한 관리가 점차 허술해졌지만, 중종대에는 왕이 행차했을 때 머무는 장소인 대주정(大晝亭)으로 사용되었다. 중종이 풍양궁을 대주정으로 삼게 된 것은 1523년(중종 18) 흉년으로 광릉을 참배한데서 비롯되었다. 봉선전에서 다례(茶禮)를 거행하고 궁으로 돌아올 때 사냥을 구경하고자 하였는데, 그 때 머물던 곳이 풍양궁이다. 1696년(숙종 22)의 기록에 의하면, 풍양궁은 터만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풍양궁은 이미 건물이 불타고 터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터만 남은 풍양궁에 대한 사용을 중히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종 이후 풍양현이 폐지된 다음 풍양이라는 지명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남양주지역 일대는 여전히 왕실의 강무장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터만 남아 있는 풍양 이궁에 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1755년(영조 31)의 일이다. 영조는 선대의 능을 알현하고 풍양에 거처하려고 하였는데 성조(聖祖)의 옛 궁궐 터에 아무 표식도 없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구궐 유지에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곳이 대궐터였음을 알리는 지명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가 내각리의 비각마을에 행궁을 정하였을 때 왕비 강씨가 임시로 머물렀다고 하여 ‘내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궐리’라는 지명은 태종이 이곳에 행궁을 정했던 곳이라서 붙여진



임조의 명에 의해 세워진 구결유지비

이름이며, 비각을 세운 후로 이 마을은 비각마을이라고 불리었으며, 일명 '대궐터' 라고도 불리었다고 한다.

## 제4절 양주목에서 양주군까지

양주가 고려 지방통치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983년(성종 2)에 설치된 12목 중의 하나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양주목의 규모는 지방행정기관인 남경유수관에 설치된 주·부·군·현 31개의 행정조직과 규모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의 범위는 「고려사」 지리지 남경유수관조에 의하면 3군 6현이었으며, 관할지는 1부 2군 1현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주는 1018년(현종 9)에 목에서 지주사(知州事)로 강등되었다가 1067년(문종 21)에 남경(南京)으로 승격된다. 남경은 서경(평양) 동경(경주)과 더불어 3경 체제를 이루어 당시 지방제도상의 최고의 지위에 있었다. 이후 남경은 1308년(충렬왕 34) 한양부로 개편될 때까지 고려 지방행정의 근간으로 존속한다. 한양부로 바뀐 이후 양주는 3속군 6속현을 지배하는 하급관청으로 지금의 서울·남양주·양주·고양·포천 등 서울과 그 주변 일대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한편 풍양현은 고려 초 그대로 풍양이었는데, '풍덕'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현재의 서울지역이 양주 또는 남경으로 불리면서 군사적 요충지에서 점차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때 양주의 속현으로 진접 일대를 중심으로 풍양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4년(태조 3)에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서울의 주변에 위치하게 되었고, 모든 생활권이 한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 당시 양주에 포괄되었던 광활한 영역은 점차 수도의 외관지역만을 가리키게 되었고, 풍양은 양주의 속현이 되었다.

조선 건국 당시 양주는 치소가 한양부 밖으로 밀려나면서 강등되어 지양주사(知陽州事)가 되었다가 1397년(태조 6)에 부로 승격하여 부사를 두었다. 부치는 견주(옛 양주군 고읍리)로 올렸다. 1413년(태종 13) 양주는 도호부로 되었고 속현으로는 견주·풍양·



『동여도』의 남양주 무리(19세기 중엽)

사천 등 3개가 있었다. 현산군 때 양주목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1511년(중종 6)에 다시 복주되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양주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갑오개혁(1894년) 이후 지방관제 개혁으로 양주군은 경기도에 속하는 3동 군 중의 하나가 되었다. 1896년 8월 6일에 '칙령 제16호'에 의하여 전국 지방관제는 다시 23부에서 13도제로 개편되었으며, 부제가 폐지되어 도제가 마련되었다. 전국은 한설부를 제외하고 모두 13도로 나뉘었고 도는 다시 7부 1목 331군으로 개편되어 신임 관찰사가 발령되었으며, 양주군은 이와 같은 지방제도 개혁에 의하여 경기도에 속하는 일개 군이 되었다.

## 제5절 의병활동과 3·1운동

1905년 11월 일제가 체결한 을사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인 통감이 직접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외적 주권이 상실되어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없게 되었다. 1906년 대한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한 일본은 식민지화 기초작업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재정제도와 헌병경찰제도 확립은 핵심적인 것이었다. 특히 헌병경찰은 식민지 정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에 저항하는 민중을 억압하는 무력적 기반이었다.

남양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금곡(金谷) 및 광릉(光陵)에 수비대가, 별비면(別非面) 퇴계원(退溪院), 초부면(草阜面) 고안(高安), 주포(周浦)에는 헌병분전소가 파견되어 있었고, 여기에 순사대까지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남양주지역이 일본군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남양주의 지역적 특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발한 의병투쟁 때문이었다.

경기지방에서 항일의병이 본격화된 시기는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이다. 시위대 대장 박승환의 자결이 도화선이 되어 시위대의 봉기가 시작되었고, 이어 원주·홍천·충주·강화도 등의 지방에 있는 조선군대도 무장해제를 거부하였다. 군대해산을 반대하는 지방진위대 조선군인들의 반일 봉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8월 9일 진위대 제1대대 강화분견대는 하사 연기우(延基羽) 등의 주도로 봉기하였다.

특히 서울 북쪽 남양주에서는 1908년 3월 박래병(朴來甦)이 이끄는 60~70명의 의병부대가 와공면 등을 근거로 맹활약을 하였고, 그가 전사하자 참모장이던 특무정교 김석하(金錫夏)가 부하를 수습하여 양주·양평·영평 등지에서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1909년 이후 남양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의병의 활동상황으로는 이은찬이 양주·포천 등지에서 50여 명의 의병을 일으켰고, 윤인순이 양주·파주에서 20명의 의병과



조양면 동촌리 3·1운동 기념비

함께 활약하였으며, 특무정교 정용대(鄭用大)는 남양주·포천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이 되면서 의병활동은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의 의병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소부대로 나누어 분산적인 유격전을 펴거나 필요한 경우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일제에 대응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의병장과 부대가 생겨나 의병의 대열을 이어나갔다.

한편, 3·1운동은 강화도조약 이후 위정척사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져 온 합일투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의 시위를 계기로 3월 중순 이후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중남부지방, 면 단위 이하 지역, 심지어 산간 벽촌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경기지역의 3·1운동은 처음부터 민족대표와의 연계가 미약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경찰관서 17개소, 주재소 12개소, 군청 면사무소 35개소, 우편소 12개소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그리고 일본인 및 친일파 가옥 14호도 공격을 받았다.



3·1운동 재현 장면

당시 남양주지역이 속했던 양주군의 3·1운동은 3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친 미금면 평내리 시위를 시작으로, 3월 31일의 진접면 부평리 시위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000명, 시위 횟수 22회에 달하는 독립만세시위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양주군 전체 16개 면 가운데 회천면과 은현면을 제외한 14개 면의 주민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다. 미금면 평내리에서 점화된 독립만세시위의 불길은 3월 15일 1,000여 명이 참가한 와부면 송촌리, 덕소리 시위를 거쳐, 3월 18일 1,000여 명이 참가하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초의 유혈사태를 빚은 화도면 마석우리에서의 만세시위를 정점으로 하여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 26일 이담면 동두천리(현 동두천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이후 3월 31일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30여 명에서 800여 명 규모로 연일 계속된 항일 투쟁이 전개되었다.

## 제6절 남양주시가 되기까지

일제시대는 총독부 통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지방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1910년 9월 30일 일제가 '칙령 제375호'로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여 도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개칭하고 각도에 내무부와 재무부를 두도록 함과 아울러 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군에서 면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리고 1914년 4월 1일에는 전국에 걸친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때 양주군은 16면 148개 리·동으로 구성되었고, 현 남양주지역은 양주군의 몇 개 면과 광주군 초부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같이 1914년에 단행된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일제가 보다 고효율적인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침략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이었다.

1980년 이후 변화과정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촌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사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9년 5월 1일 미금면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들어 현 남양주시의 기틀이 마련되는 구역조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12월 1일 와부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에는 진건면 양지리, 오남리, 팔현리가 진접면에 편입되었다.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 군에서 분리되었다. 4월 1일 와부읍 조안출장소가 조안면으로 승격되고, 퇴계원출장소가 퇴계원면으로 승격되었다.

계속해서 1989년 1월 1일부로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조치와 효율적인 행정편제를 위해서 4월에는 진접면이 읍으로 승격, 1991년 12월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듬해 4월 1일 진접읍 오남출장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1월 1일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오늘날의 남양주시가 신설되었다. 1995년 5월 6일 오남출장소가 오남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3읍 4면 6동 50법정 리를 갖추었다.

이러한 변화 끝에 남양주시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났다. 즉 남양주시는 서울 남북부에 걸친 신도시와 함께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연구는 경기지역을 인천권, 수원권, 평택권, 여주권, 남양주권, 동두천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남양주에 경기 동북부를 대표할 만한 지리적, 문화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로 보인다.

## 남양주의 연혁

| 시 대      | 연 도          | 연 혁                                   |
|----------|--------------|---------------------------------------|
| 삼한시대     |              | 마한 54국 중 고리국(古離國) : 풍양·양주 일대          |
| 삼국<br>시대 | 백제<br>371    | 백제, 아차성 수축                            |
|          | 고구려<br>553   | 골의노현(骨依奴縣) : 진건·진접 일대                 |
| 신라       | 553          | 신라 한강 하류 점령                           |
| 통일신라시대   | 757          | 골의노현, 황양(荒壤) 개칭                       |
| 고려시대     | 898          | 견주(見州) : 현 양주지역, 풍양(豊壤) : 진건·진접지역     |
|          | 935          | 평구 : 남경 소속                            |
|          | 983          | 한양군, 양주(또는 남경)로 개칭 - 양주를 견훤에게 식읍으로 주다 |
|          | 1012         | 양주목                                   |
|          | 1018         | 안무사                                   |
|          | 1067         | 지양주사 감동                               |
|          | 1096~1105    | 남경유수관 승격, 곧 격하                        |
|          | 1308         | 남경 승격, 남경의 직할지 : 풍양현 견주 사현            |
|          | 1394         | 남경, 한양부 격하                            |
|          | 1394         | 한양부, 한성부 개칭                           |
| 조선시대     | 1394         | 양주 치소, 대동리(현 광진구 광성동)로 옮김             |
|          | 1395         | 양주, 지양주사 감동                           |
|          | 1395         | 양주부 승격                                |
|          | 1397         | 양주 치소, 고주내(현 양주군 고음리)로 옮김             |
|          | 1410         | 양주목 승격                                |
|          | 1413         | 양주도호부 감동                              |
|          | 1466         | 양주목 승격, 속현 풍양현                        |
|          | 1504         | 양주목 폐지, 왕의 사냥터가 됨                     |
|          | 1506         | 양주목 복구                                |
|          | 1895         | 양주 치소, 불곡산 남쪽(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으로 옮김     |
| 일제시대     | 1896         | 8도제 폐지, 전국 23부로 구분, 한성부 양주군           |
|          | 1896         | 23부제 폐지, 13도로 개편, 경기도 양주군             |
|          | 1906         | 광주군 초부면(草阜面), 양주군 편입                  |
|          | 1914         | 경기도 양주군(행정구역 통합)                      |
|          | 1963. 1. 1.  | 수동면 신설, 화도면 3리·진접면 1리·가평군 외서면 3리를 통합  |
|          | 1979. 5. 1.  | 미금면, 읍 승격                             |
| 해방 이후    | 1980. 4. 1.  | 남양주군 신설                               |
|          | 1980.12. 1.  | 와부면, 읍 승격                             |
|          | 1983. 2. 15. | 진건면 양지리·오남리·팔현리, 진접면 편입               |
|          | 1986. 1. 1.  | 구리읍, 시 승격 분리                          |
|          | 1986. 4. 1.  | 와부읍 초안출장소, 초면면 승격                     |
|          | 1989. 1. 1.  | 퇴계원출장소, 퇴계원면 승격                       |
|          | 1989. 1. 1.  | 미금읍, 시 승격 분리                          |
|          | 1989. 4. 1.  | 진접면, 읍 승격                             |
|          | 1991. 12. 1. | 화도면, 읍 승격                             |
|          | 1992. 4. 1.  | 진접읍, 오남출장소 설치                         |
|          | 1995. 1. 1.  | 미금시·남양주군 통합, 남양주시 신설                  |
|          | 1995. 5. 6.  | 오남출장소, 오남면 승격                         |

## 남양주시의 상징물



### 시의 상징

세 개의 타원 중 녹색 타원은 광릉숲과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자연을, 청색 타원은 하늘을 표현한 것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및 이상을, 주황색 타원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남양주시민을 상징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주어 현재와 다음 세대가 인간중심의 남양주시를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선진도시로 건설하자는 것을 뜻함



#### 시의 나무 - 소나무

광릉수목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시를 사랑하고 굳고 곧은 강인한 시민정신을 의미함



#### 시의 꽃 - 개나리

꿈과 희망의 따뜻한 시민의 마음을 뜻함



#### 시의 새 - 크낙새

천연기념물 제197호(1968년 5월 3일 지정)로 지정된 희귀조로 광릉수목원에서 서식하고 있음

여 백

## 제2장

# 우리 고장의 현황



여 백

## 제1절 위치와 넓이



남양주시의 위치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포천군, 동북쪽으로는 가평군, 동쪽으로는 양평군, 남쪽으로는 하남시와 광주군, 서쪽으로는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서북쪽으로는 의정부시가 있다.

위도상으로 남양주시의 최북단은  $37^{\circ} 46' 11''$ 로 수동면 내방리이고, 최남단은  $37^{\circ} 30' 32''$ 로 조안면 농내리 마현 앞 한강 한가운데이다. 경도상으로 서쪽 끝은  $127^{\circ} 05' 15''$ 로 별내면 수락산 정상이 되며, 동쪽 끝은  $127^{\circ} 22' 52''$ 로 화도읍 구암리 북한강 중간이 된다. 남양주시청이 있는 곳은 동경  $127^{\circ} 13'$ , 북위  $37^{\circ} 38'$ 이다.

### 남양주의 경·위도상의 위치

| 경도(동경) |         |            | 위도(북위) |         |           |
|--------|---------|------------|--------|---------|-----------|
| 범위     | 지명      | 국점         | 범위     | 지명      | 국점        |
| 서쪽끝    | 별내면     | 127°05'15" | 북쪽끝    | 수동면     | 37°46'11" |
|        | 수리산 정상  |            |        | 내방리     |           |
| 동쪽끝    | 화도읍 구암리 | 127°22'52" | 남쪽끝    | 조안면 능내리 | 37°30'32" |
|        | 북한강 중간  |            |        | 한강 한가운데 |           |

남양주시경 : 동경 127°13' 북위 37°36'

남양주지역이 분리되기 이전에 속했던 양주군은 면적이 광주군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 중에 하나였다. 1963년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떨어져 나갔고, 1981년에는 동두천읍도 떨어져 나갔다. 1980년 양주군의 행정구역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 양주군은 326.09km<sup>2</sup>가 되고, 새로 설치된 남양주군의 면적은 504.1km<sup>2</sup>가 되었다. 1986년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제외되었다. 남양주군이 설치될 때 별내면의 고산·산곡리가 의정부시 관할이 되었고, 1963년에는 노해면의 전 지역과 가평군 외서면의 일부지역이 수동면으로 신설·편입되었다. 1997년 현재 남양주시의 총면적은 460.36km<sup>2</sup>이고, 행정구역별 면적은 표와 같다.

### 행정구역별 면적

(1997년 현재, 단위 : km<sup>2</sup>)

| 읍·면·동 | 면적    | 읍·면·동 | 면적     |
|-------|-------|-------|--------|
| 화부읍   | 49.81 | 오남면   | 25.44  |
| 진접읍   | 65.69 | 호평동   | 9.10   |
| 화도읍   | 71.45 | 평내동   | 7.24   |
| 별내면   | 40.78 | 금곡동   | 6.93   |
| 퇴계원면  | 3.25  | 양성동   | 12.49  |
| 전건면   | 34.74 | 지금동   | 7.36   |
| 수동면   | 72.79 | 도농동   | 2.26   |
| 조안면   | 51.03 | 계     | 460.36 |

출처 : 남양주시, 『남양주시 통계연보』, 1998.

## 제2절 자연환경

### 1. 남양주의 산하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로 백두산이 뻗어내려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이루고 동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달려 내려오다가 철령(鐵嶺)에서 한줄기 서남향으로 천마산·도봉산 등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한북정맥(漢北正脈)이라고 부른다.

남양주시는 한북정맥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남양주시의 중앙에는 천마산과 묘적산이 우뚝 서 있고 북쪽에는 용암산과 운악산이 포천군과 살피를 이루며 축령산과 서리산이 가평군과 경계를 이룬다. 동남쪽으로는 송라산, 문안산, 운길산이 양평군과 마주 보며, 남쪽으로는 조조봉, 적갑산, 예봉산이 하남시와 경계를 이룬다. 서쪽으로는 불암산, 수락산이 서울을 가르고 있다. 이렇듯 남양주시는 온통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야라고는 왕숙천을 따라 내각리, 내곡리 등 개울가 유역이 고작이다.

특히, 천마산(812.4m)은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산이다. 천마산은 시의 중앙에 우뚝 자리잡고 있어서 마치 남양주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이다. 남쪽에서 천마산을 보면 산세가 마치 달마대사가 어깨를 짊어지고 앉아 있는 모양으로 웅장하고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산이 높아 겨울에는 흰 눈으로 덮여 설산(雪山)을 이루고, 봄에는 신록이 아름다우며, 여름철에는 짙푸른 녹색을 띄우고 가을에는 단풍이 그림같아서 사시사철 아름답게 보인다.

남양주시의 시민들은 천마산을 화수분이라 부르고 있다. 화수분은 식물그릇으로, 그 안에 물건을 넣어두면 새끼를 쳐서 끝없이 나온다고 한다. 이는 천마산이 겨울에는 추운 방을 덥히는 땀감을 주고, 봄에는 산나물이 나오며, 봄·가을에는 누에를 칠 때 쓰는 뽕



남양주시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천마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 죽림산

나무있을 대주기도 하는 등 '아낌없이 주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또한 천마산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많은 종류의 식물·동물들이 자생하고 있어서 경기지역의 주요 식생대로서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죽림산(879.5m)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와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조선왕조 개창 후 이성계가 산신제를 지내고 사냥을 했다고 하여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숲이 울창하고 인공조림한 잣나무 숲이 있다. 외진 곳이어서 대체로 숲이 잘 보존되고 다양한 식물의 종류들이 있으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수동천 주변과 마을 근처에 갯버들, 버드나무, 용버들,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의 식재림이 있다. 그리고 내방리 일대에는 잣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고로쇠나무 등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좋은 경관을 이룬다.

불암산(508m)은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바위산이라 수목은 울창하지 않지만 능선이 기암으로 이어지고 봄철 천쪽꽃은 장관을 이룬다. 불암산이라는 명칭은 화강암의 큰 바위로 된 봉우리가 마치 송낙을 쓴 부처의 형상이라 붙여진 것이라 한다. 508m의 우뚝 솟은 바위산인 불암산은 필암산(붓바위산)이라 하여 먹굴,

벼쿠말과 함께 땅의 기운을 꺾는다는 문방사우의 이름을 빌린 풍수지명이었다.

그리고 남양주의 대표적인 산으로 수락산이 있다. 수락산(637.7m)은 불암산과 마찬가지로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경기도 의정부시와의 경계도 이루고 있다. 수락산의 남쪽 기슭에는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묘역이 자리잡고 있어 일명 덕릉이라 불린다. 그 왼창로 흥국사가 있고, 별내면 덕송리에서 서울 상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덕릉고개라 부르고 있다. 내원암에 오르는 계곡은 옥류동·금류동·은선동의 폭포와 연못을 만들었으며 해발 637m를 장식하는 투구, 고속, 오리봉의 장관과 칠성대, 향로봉, 미륵봉의 기이한 모습이 눈을 끈다. 계곡의 곳곳에는 울창한 활엽수림으로 이루어져 가을 단풍이 유명하며 유서 깊은 흥국사, 석림사 등 많은 사찰과 암자를 산록에 감싸고 있다. 한국전쟁 때는 서울 방어선으로 수락산과 불암산전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전재를 입었고, 불암산유격대로 불리는 육군사관생도들이 내원암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 남양주에는 묘척산(589m), 운길산(610.2m), 은악산(234.8m), 갑산(520m), 적갑산(660m), 국사봉(331m), 깃대봉(289m), 퇴퇴산(367.3m), 천전산(393m), 예봉산(683.2m), 철마산(710m), 주금산(813.6m), 서리산(825m) 등 많은 수의 산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남양주시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고개도 많다.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게 된 비탈진 곳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며, 대부분 고갯마루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마치고개(240m)는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던 고개로 46번 도로가 생기면서 넓어졌다. 옛날에는 도둑이 많아서 한낮에도 무리를 지어서 넘어가야만 되는 험준한 고개였다고 한다. 그리고 물박고개(710m)는 남양주에 있는 고개 가운데 가장 높은 고개이며, 진접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외에도 수레 넘어고개(240m), 먹치고개(210m), 새재고개(240m), 새우젓고개(350m), 잣고개(250m), 전도치고개(170m), 덕릉고개(150m), 순화궁고개(100m), 숫돌고개(110m) 약 대울고개(120m) 등 남양주는 많은 산만큼이나 고개도 많다.

## 2. 한강이 만나는 곳

남·북한강은 남양주시에서 만난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상교통의 요지였으며, 두물머리라는 이름은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남양주시지역에는 많은 산이 있고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과 한강의 지류들이 꽤 산포되어 있다.

남양주시의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북한강이 흐른다. 남양주에는 왕숙천, 구운천, 묵현천 3개의 큰 하천이 모두 한강으로 합류되며 이 하천에 딸린 지류들이 모여 한강 수계를 이룬다.

북한강은 남양주시 경내에서는 화도읍 구암리에서 시작되어 조안면까지 흐르며, 길이는 17.3km의 직할하천이다. 구운천, 신기천, 월산천, 묵현천, 아양천, 삼봉천, 시우천, 진중천, 조안천이 모여 북한강 수계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구운천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굴운천(窟雲川)으로 표기되어 있을 만큼 오래된 하천이다. 서리산 서쪽 해발 500m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화도 구암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이 구운천은 하천 주변에 약간의 농경지가 분포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 경관 또한 매우 아름다워서 현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경관



팔당댐

유원지로 활용되고 있다.

한강은 남양주시의 남쪽을 흐르며 길이는 12.7km이다. 특히 한강에서 특이한 것은 두물머리이다. 두물머리는 두갈래의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이며, 다른 지방에서는 '아우라지'라고도 한다. 두물머리는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 광주군의 남종면이 서로 만나게 되는 곳으로 북한강물과 남한강물이 합수된다.

한강은 조안면 농내리에서 시작되어 팔당댐에서 호수를 만들고 와부읍 팔당과 덕소를 지나며 양정동과 지금동 남쪽으로 흐른다. 한강에서 대표적인 지류로는 왕숙천이 있다.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는 왕산천(王山川)으로 표기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상경하다가 이곳에서 여드레 밤을 묵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순수 우리 말로는 왕산내인데 한자로는 왕산천(王山川)으로 표기하다가 '왕이 머물렀다'는 의미의 왕숙천으로 변화였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속한 한강의 지류에는 위에서 말한 왕숙천을 비롯하여 흥릉천, 일패천, 읍석천, 월문천, 궁촌천 등이 있어서, 풍부한 한강의 수계를 더하고 있다.

한편, 남양주에는 서울지역 한강의 수위를 결정하는 팔당댐이 있다. 1974년에 조안면 농내리 봉안에 건설된 것으로 댐의 높이 32m, 댐의 길이 545m의 콘크리트댐으로 설비

용량 8만 km<sup>3</sup>이다. 총저수량은 2억 4400만 m<sup>3</sup>이고 만수면적은 2만 3718km<sup>2</sup>이다. 이 댐은 특유한 지낙차형으로 설계하여 홍수 때에는 상류에 미치는 배수의 영향을 완화하고, 수문 개방으로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발전용 댐이지만 수도권외 상수도 주요 수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

### 3. 풍수로 본 내 고장

풍수사상이란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지형과 기후, 풍토 등 자연에 대한 해석방법이다. 풍수사상은 중국의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문사상(天文思想)에 자연승배 및 도교·유교·불교의 종교사상이 정립된 것이다. 이것은 산과 땅의 형태를 기본으로 삼아 집터(陽宅)와 묘자리(陰宅)를 잡은 것으로서 현실세계의 길흉화복을 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사상은 신라시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풍수지리에는 기가 흠어지지 않은 곳을 말하는 장풍론, 산세의 흐름·모양 등의 형국으로 판단하는 형세형국론, 동서남북 중앙의 방향에 따른 방위론 등이 있다. 그런데 산이 많은 곳에서는 형세형국론을 사용하는 반면, 산이 별로 없는 평지에서는 주로 방위론을 사용하기도 한다.

남양주지역은 주로 산이 많으므로 형세형국론에 의한 풍수지리로 명당을 해석하고 있다. 수석동 석실마을의 학혈(鶴穴)과 자산리의 학비형(鶴飛形)은 동룡형태로 파악되었고, 와부읍 덕소 5리 석실마을의 옥호계수형(玉壺階水形)은 옥병같은 물길형으로, 삼배동 명구마을의 박녕굴형은 싹뿔형으로, 와부읍 도곡 1리 안골마을의 인형혈(人形穴)은 인물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은 우리나라 8개 명당 가운데 하나라는 '옥호계수형(玉壺階水形)'의 명당이 있다. 즉 이곳의 샘김새가 옥병에 물을 담은 모양인데 덕소리 쪽이 병입구 모양을, 장산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을석리 쪽에서 봉우리를 뿜으면서 병마개 모양을 하고 있다. 안동김씨(安東金氏) 김번(金孺)의 산소가 병 입구의 중심에 있다. 덕소

### 금계포란형 풍수혈국도



리 쪽을 안룡안, 울석리 쪽으로는 박룡안이라고 부는데 능터의 안쪽, 능터의 바깥쪽이라는 뜻으로 이곳이 능터였다고도 한다.

이 지역의 풍수지리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안동김씨가 입향하기 전에 석실마을 일대의 산이 모두 남양홍씨의 천산이었다. 그 때 남양홍씨가 딸을 안동김씨 집안으로 출가시켜 두 가문은 사돈지간이 되었다. 안동김씨가로 출가한 홍씨 부인은 마침 친정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고향으로 갔는데, 안동김씨가에서는 지관(地官)을 불러다 홍씨 부인 아버지를 안장시킬 묘자리를 봐 두었는데, 그 자리가 옥호저수형 즉 옥병에 물을 담은 명당자리였다. 이 말을 들은 홍씨 부인은 밤새 광중에 물을 길어다 부어서 자신의 아버지 시신을 안장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3년 후에 홍씨 부인은 이미 죽은 남편인 김번을 옥호저수형의 땅에 면례(緘禮)시켰는데 그 후로 안동김씨 일가에는 고관대작과 문장, 충신이 수없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삼계동 평구마을은 박녕굴형의 땅모양을 하고 있다. 평구마을은 천마산 줄기로 주룡과 지룡 중에 주룡이 평구마을로 내려오며, 주룡의 용줄기를 따라 사방으로 자그마

한 봉우리가 모여 있다. 지관들은 이를 '박널굴행'이라 한다. 따라서 박널굴처럼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고 한다.

평구마을에는 이와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데, 청풍김씨(淸風金氏)의 입향과도 관련이 있다. 기묘사화(1519년) 이후 경상도 거창에서 자살한 김식(金晷 : 1482~1520)의 묘는 원래 그의 아버지 숙필(叔弼)의 묘가 있는 경북 선산에 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거창 현감과 조정의 배려로 김식의 유해는 서울로 옮겨지게 되었다. 서울로 유해를 운반하던 중 삼패동 평구마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김식의 관을 덮었던 명칭(銘旌)이 지금의 묘자리에 떨어졌다. 그 때 사람들이 기이한 일이라 여겼고, 그 일대를 살펴보니 부처님이 앉아 있는 형국의 가슴자리에 해당되는 명당자리였으며 자손이 번성한다는 '박널굴행'이었다. 또한 이곳에 묘자리를 쓰면 부처님 찾가슴에 해당하게 때문에 후손들이 번성하는 학자집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이후 청풍김씨의 후손들은 학자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 4. 남양주의 식물

남양주는 천마산, 죽령산, 묘적산, 운길산 등 높은 산과 남-북한강이 있어서 일찍부터 임상(林相)이 발달해 있었다. 특히 현재 수목원이 있는 장릉숲 일원과 자연휴양림이 있는 죽령산 일대, 그리고 약용식물이 특히 많이 자생하는 천마산지역은 남양주 식물상의 풍부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죽령산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와 가평군 상면 행현리의 경계를 이룬다. 숲이 울창하고 인공조림한 잣나무 숲이 있다. 내방리에서 허고개에 이르는 수동천을 따라 길가와 마을 근처에 갯버들, 버드나무, 용버들, 오리나무, 저작나무, 개암나무 등이 분포한다. 산기슭에는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은사시나무 식재림이 있다. 전지라골에서 산에 오르는 등산로에는 양버들, 풀오리나무, 생강나무, 진달래 등이 있으며 부락 근처에는 은행나무, 전나무, 오동나무 등이 분포한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주변에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느릅나무, 산뽕나무 등이 있으며 계곡을 따라 락비들, 고리비들, 개박달나무, 까치박달, 소태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 키크래나무, 귀룽나무, 팔배나무 등이 분포한



남양주의 야생화들

다. 산 정상 가까이에는 철쭉꽃, 산철쭉이 분포한다. 전지라골의 왼편 뒤쪽 능선부터 전지라골 오른쪽 앞 능선까지 참싸리, 다릅나무, 자귀나무, 초피나무, 산초나무, 불나무, 개웃나무, 헛개나무, 오갈피나무, 엄나무, 작살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산꼭대기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붉은 참나무류와 소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울창한 숲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내방리 일대에는 굴참나무, 초록싸리, 아까시나무, 신나무, 고로쇠나무, 쥐똥나무 등이 분포한다. 정상 가까이의 해발 500m 이상에는 철쭉꽃, 산철쭉, 때죽나무 등이 많으며 능선을 따라 붉은 소나무가 여러 그루 눈에 띈다.

이와 같이 축령산은 산 전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산 전체가

일종의 식생대이다. 그래서 이들 나무를 이용한 772ha의 자연휴향림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천마산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자라고 있다. 대학의 생물학과와 약학과에서 식물과 곤충채집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천마산에는 69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물상을 보면 교목은 참나무류, 서나무, 층층나무, 산벚나무, 소나무 등 다양하다. 관목은 진달래, 철쭉나무, 비둘강아지, 노린새나무, 생강나무, 딱총나무, 국수나무, 울피불나무 등이 있다. 야생화는 일레지, 앉은부채, 치녀치마, 복수초, 평의 바람꽃, 노루귀 등이 있고 약용식물로는 도라지, 더덕, 오갈피, 복령 등이 있다.

천마산에는 해발 400~710m 서북사면에 신갈나무군락, 200~300m 동남사면에 굴참나무군락, 200~400m 동남사면에 상수리군락이 분포한다. 심신수련장의 안내표지판에 의하면 주요 임상요소로 소나무, 소태나무, 시어나나무, 작살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병꽃나무, 물푸레나무, 괴불나무, 쪽동백, 개암나무, 당단풍, 신나무 등이 자생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졸참나무, 울나무, 사릅나무, 생강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남양주의 약용식물

| 과 구분 | 식물 이름  | 자생지        | 효능                  |
|------|--------|------------|---------------------|
| 고비과  | 고란초    | 불암산        | 이노채, 임질약            |
|      | 고비     | 천마산, 광릉    | 강장제, 이노채            |
| 고사리과 | 관중     | 광릉         | 손중 구제약              |
|      | 고사리    | 천마산, 축령산 외 | 고혈압                 |
| 백합과  | 은방울꽃   | 천마산, 광릉    | 강심이노제               |
|      | 일레지    | 천마산, 광릉    | 이질, 연골, 강장제, 구토, 허제 |
|      | 중의우뚝   | 광릉         | 자양강장제               |
|      | 원추리    | 천마산, 축령산 외 | 이노, 지혈, 소화, 간질환     |
|      | 개백문동   | 광릉         | 치조평가제, 천해, 자양제      |
|      | 왕동굴라   | 광릉         | 강장제, 지사약            |
| 벼과   | 여로     | 광릉         | 비듬치료제               |
|      | 피      | 광릉         | 이노채, 지혈제            |
| 천남성과 | 두루미천남성 | 불암산        | 거담, 이노, 진통, 강장, 침성  |
|      | 질박이천남성 | 광릉         |                     |
|      | 높은잎천남성 | 광릉         |                     |
| 난초과  | 천마     | 천마산        | 진경, 중풍, 강장, 현기증, 두통 |
| 홍나무과 | 환삼덩굴   | 광릉         | 고미진위약, 이질, 이노약      |
| 재비꽃과 | 동근탈재비꽃 | 천마산, 광릉    | 통경                  |

### 남양주시 조직 현황

| 과       | 구분 | 식물이름    | 자생지          | 효능                        |
|---------|----|---------|--------------|---------------------------|
| 미나라아재비과 |    | 복수초     | 천마산, 광릉      | 강심, 이뇨                    |
|         |    | 송마      | 광릉           | 발한, 해열, 해독, 두통            |
|         |    | 자주조화물   | 광릉           | 치병, 건위, 거담                |
|         |    | 노루귀     | 천마산, 광릉      | 장질환치로익, 두통, 해수            |
|         |    | 진교      | 광릉           | 진경, 진통, 살충약, 신경통, 중풍      |
| 매자나무과   |    | 할미꽃     | 천마산, 광릉      | 이질, 소염, 수렴                |
|         |    | 매자나무    | 광릉           | 지사, 이질                    |
| 양귀비과    |    | 삼지구엽초   | 천마산          | 보정, 강장, 음위, 진망, 동물정액제     |
|         |    | 애기현호색   | 광릉           | 정혈, 진통, 지통, 복통, 월경 등      |
|         |    | 들현호색    | 광릉           | .                         |
|         |    | 현호색     | 광릉           | .                         |
|         |    | 빛살현호색   | 천마산, 모작산, 광릉 | .                         |
| 장미과     |    | 피나물     | 천마산, 광릉, 명내  | 거풍습, 지통, 지혈               |
|         |    | 범무      | 광릉           | 이노제                       |
| 오갈피나무과  |    | 떡지꽃     | 광릉           | 아메바성적리, 해열, 통경, 지혈        |
|         |    | 가시오갈피나무 | 광릉           | 강장, 정력증진, 고혈압, 당뇨, 신경통    |
| 미나라과    |    | 진입바디    | 천마산, 광릉      | 신경통, 중풍, 요통, 두통           |
|         |    | 흰바디나물   | 광릉           | 두통, 진통, 진정                |
|         |    | 참당귀     | 천마산          | 보혈, 빈혈증, 산후복통, 진통, 건위, 진정 |
|         |    | 뫼미나라    | 천마산, 광릉      | 신경통, 중풍, 진정, 진통           |
|         |    | 어수리     | 광릉           | 신경통, 중풍, 요통, 두통           |
| 노루발과    |    | 노루발물    | 광릉           | 이노, 금청출혈, 절상독증            |
| 용담과     |    | 자주쓰물    | 천마산          | 소화불량, 식욕부진, 김기, 설사, 구충제   |
| 마면초과    |    | 누런나물    | 천마산, 광릉      | 피임제, 이노제, 기관지염, 복통        |
| 순형과     |    | 조개나물    | 광릉           | 이노, 연주창, 임질, 치창, 골근통      |
|         |    | 향유      | 광릉           | 발한, 해열, 이노, 소염, 복통, 토사    |
| 국회과     |    | 큰영경귀    | 광릉           | 정력제                       |
|         |    | 배꼭채     | 광릉           | 해열, 해독, 항암증 유증            |

등이 자생하고 있다. 해발 350m까지는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등이 분포하며, 그 위로는 갈참나무가 대부분이고 사이사이 쪽동백이 있다.

이렇게 남양주의 산에는 교목·관목·꽃나무·야생화 등이 식생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 외에도 약용식물 또한 대단히 많이 있다. 남양주의 약용식물은 옛날부터 민간 사약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서울 한약자원의 주요한 공급원이었다.

한편 남양주에서 수령이 오래되어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모두 63그루이다. 수종으

보는 느티나무가 33그루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 11그루, 향나무 9그루, 소나무 6그루, 실수리나무 2그루, 피나무 1그루, 소나무 1그루인데 모두 7종이다. 그 중에서도 수령이 526년이나 된 양지리 향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5. 남양주의 동물

### 1) 포유류

남양주에 서식하는 동물은 10과 13종 정도가 알려졌다. 천마산에는 포유류 7종 14개체가 서식하는데 멧돼지, 청설모, 족제비, 너구리, 하늘다람쥐, 오소리, 노루 등의 흔적을 찾아낼 바 있다. 멧돼지, 노루, 오소리, 족제비는 개체수가 극히 적어졌고 여우, 늑대는 50여 년 전에 멸종되었으며 너구리 역시 드물어졌고 살(괘양)도 멸종되었으며 멧토끼, 다람쥐, 청설모, 하늘다람쥐 등은 약간의 개체가 활동 중이다. 고슴도치, 두더지 등은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 2) 조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조류는 약 300종이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그 수가 줄어들어 220여 종 정도이다. 그 중 텃새가 58종, 겨울철새 117종, 여름철새 64종, 나그네새 103종이며 우리나라를 통과하다가 길을 잃고 그냥 눌러 사는 미조는 53종이다.

남양주시에 서식하는 조류는 약 31과 69종에 이른다. 그 중 텃새 33종, 여름철새 35종, 겨울철새 14종, 나그네새 7종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크낙새, 원앙, 독수리, 밀푼가리, 매, 황조롱이, 두견이, 소쩍새, 슬부엉이 등 7종에 이른다.

새들은 우리의 생활터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편이다. 왕속천은 수량도 줄어들었고 그나마 수질오염으로 물고기가 살 수 없어 새들의 먹이가 없어지고 있으며, 수동

면의 구운천 수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 3) 어류

어류는 고대로부터 식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원시인들은 사슴, 멧돼지, 노루 등을 잡는 수렵생활과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로생활로 생명을 이어갔다. 물고기는 인간에게 식량자원으로서 무척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모두 900여 종에 이른다. 많은 종류들은 바다에서 사는 것들이고 민물에서 사는 것은 바다어류에 비해 훨씬 적다.

남양주에는 북한강 수계의 구운천과 한강 수계의 왕숙천이 있어 물고기가 많이 있었으나 수량이 부족해지고,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물고기들의 생활환경이 파괴되어 가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남양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담수어류는 8과 17종에 이른다. 뱀장어과의 뱀장어, 붕어과의 잉어, 붕어, 쉬리, 모래무지, 벵들치, 피라미, 끄리, 기름종개과의 미꾸라지, 미꾸리, 기름종개, 메기과의 메기, 통가리과의 통가리, 송사리과의 송사리, 농어과의 꺾지, 쏘가리, 가물치과의 가물치 등이 있다.

### 4) 양서류와 파충류

환경청에서는 천마산의 양서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로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산개구리, 옹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환경청에서 천마산을 중심으로 파충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로 표범장지뱀, 유희목이, 능구렁이, 무자치, 살모사, 쇠살모사 등이 보고되었다.

## 제3절 인구와 교통

남양주시의 인구는 1998년 12월 31일 현재 총 30만 7천 명(2000년 4월 기준으로 약 34만 명)을 넘었고, 세대수는 10만 709세대이다. 그 가운데 남자는 약 15만 5천 명, 여자는 약 15만 1천 명을 넘어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조금 많다. 지역별로는 화도읍이 5만 4천 명, 와부읍이 4만 4천 명, 진접읍이 3만 5천 명, 진건면이 2만 7천 명, 오남면이 2만 5천 명, 금곡동이 2만 4천 명을 넘었다.

남양주의 인구는 조선시대 양주에 속하여 있다가 1980년 분리될 당시 약 10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1995년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약 23만 명으로 늘어나고, 1997년 27만 명, 2000년 4월 현재 34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진접 향원지구, 오남 양지지구, 진건 사릉지구, 화도 창원지구, 와부 덕소지구 등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양주시에 대단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유는 서울 근교의 편리한 교통 여건 때문이다. 이러한 아파트의 건설로 인하여 주택의 형태도 1960년대 초가집에서 1980년대 현대식 양옥으로, 1990년대 이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변화하였다.

### 1. 남양주의 교통입지

남양주시는 수도권의 동북부지역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의정부시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쪽으로는 경기도 양명군·가평군, 남북쪽

## 남양주의 인구

|       |        |        |        |        |        |        |        |         |
|-------|--------|--------|--------|--------|--------|--------|--------|---------|
| 지역    | 외부읍    | 진접읍    | 화도읍    | 별내면    | 퇴계원면   | 진건면    | 수동면    | 조안면     |
| 인구(명) | 50,219 | 41,530 | 56,514 | 18,452 | 23,404 | 31,418 | 6,345  | 3,695   |
| 지역    | 오남면    | 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양정동    | 지금동    | 도농동    | 출인구     |
| 인구(명) | 29,608 | 4,491  | 14,723 | 24,214 | 6,421  | 13,338 | 16,565 | 340,937 |

(2000년 3월 31일 현재)

## 인구 증가 추이

|       |         |         |         |         |         |         |         |         |
|-------|---------|---------|---------|---------|---------|---------|---------|---------|
| 년도    | 92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
| 인구(명) | 214,374 | 220,862 | 227,262 | 237,398 | 254,106 | 278,939 | 306,553 | 334,551 |

으로는 각각 경기도 포천군과 하남시에 접해 있어 이들 각 지역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 구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접권역 중 서울의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측권역이 주요 교통발생권역으로서 동쪽의 양평·가평·강원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서울 동부지역 외곽 교통요충지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망의 경우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동서간선축인 국도 46호선의 경춘가도, 국도 6호선, 남북간선축인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은 남양주시내 지방도·군도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광역적·국지적 이동성과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남양주시의 총도로연장은 272.3km(동지역·화도·진접·외부읍 합계)이고, 도로율은 9.41%로 주변 도시에 비해 매우 낮고, 86%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 도로시설 현황

|        |       |        |        |        |         |         |
|--------|-------|--------|--------|--------|---------|---------|
| 구분     |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군도    | 계       | 비고      |
| 연장(m)  | 1,700 | 85,773 | 95,200 | 89,600 | 272,273 | 도로율     |
| 포장률(%) | 100.0 | 100.0  | 88.0   | 70.7   | 89.0    | (9.41%) |

한편, 시내구간의 가로망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합쳐 총 28개 노선이 있다.

### 시내구간 도로현황

| 구분     | 고속국도    | 일 반 국 도 |          |          |          |          | 지방도  | 시군  | 군도   |
|--------|---------|---------|----------|----------|----------|----------|------|-----|------|
|        |         | 6번국도    | 43번국도    | 45번국도    | 46번국도    | 47번국도    |      |     |      |
| 구간     | 수석동~도농동 | 도농동~조안면 | 퇴계원면~별내면 | 조안면~진중리~ | 도농동~삼거리~ | 퇴계원면~진접읍 | 6개   | 2개  | 14개  |
|        |         | 진중리     | 청학리      | 화도읍 구암리  | 화도읍 구암리  | 필마리      | 노선   | 노선  | 노선   |
| 연장(km) | 1.7     | 23.4    | 9.9      | 16.7     | 19.7     | 16.1     | 96.2 | 7.7 | 81.9 |

남양주시는 중앙선, 경춘선 권도가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9개 역에서 1일 78회 운행되고 있다.

### 철도시설 현황

| 구 분 | 연장(km) | 통과역             | 역   |
|-----|--------|-----------------|-----|
| 중앙선 | 21.74  | 도농~역소~팔당~농내     | 4개역 |
| 경춘선 | 26.46  | 퇴계원~사능~금곡~평내~마석 | 5개역 |

남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년 12월 현재 총 7만 2237대이며, 승용차가 4만 9998대로 전체 차량 중 69.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차량등록 현황

| 연도    | 계(대)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전년대비 증가(%) |
|-------|--------|--------|-------|--------|----|------------|
| 1995년 | 46,494 | 30,751 | 4,414 | 11,258 | 71 | 19.4       |
| 1996년 | 55,885 | 37,906 | 5,115 | 12,790 | 74 | 20.2       |
| 1997년 | 66,094 | 45,659 | 6,070 | 14,282 | 83 | 18.3       |
| 1998년 | 72,237 | 49,988 | 6,834 | 15,328 | 77 | 9.3        |

## 제4절 산업과 경제

1998년 2월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공장 수는 총 659개 업체로 종업원 수는 약 1만 2천 명이다. 업종별로는 가구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조립, 금속, 비금속, 기계장비 등의 업종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농산물을 살펴보면, 서울 근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 등 첨단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한 근교농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난초, 먹골배, 영지버섯, 포도 등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도기계 중앙연구소는 기계, 전기 전자, 재료, 시험연구 등의 분야를 중점 연구하며, 국산 신기술 마크(KT) 인정을 1993, 94, 95년에 각각 획득하고, EMI 시험검사 공인기관으로 1994년에 지정받는 등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마석 성생가구단지는 천마산스키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여 개의 공장과 80여 개의 공장직영매장에서 국내 유명 가구업체로 납품되는 고품질 가구를 공장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고객의 취향에 맞게 맞춤가구로 특수 제작하고, 전국유통망 구축과 평생보상책임제도를 통한 신뢰창조로 고객을 위한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오남가구단지는 포천 광릉수목원 방향의 발섬유원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고품질 제품을 30~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전국 각지의 배달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양주에는 빙그레공장, 수동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생수공급업체, 각종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신신상사 등이 있다.

## 제5절 주요기관

### 1. 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1995년 1월 1일 기존 남양주군과 비금시가 통합되어 신설되었다. 현재 시청의 위치는 금곡동 185-10번지에 있으며, 제2청사는 지금동 159-7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남양주시의 구성은 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4국, 2담당관, 20과, 8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립도서관·환경사업소·종합복지회관 등의 사업소가 있다.



시청사 전경

| 구분     | 부서명     | 담당업무                         |
|--------|---------|------------------------------|
|        | 경영정책담당관 | 경영정책, 경영수익, 국제협력             |
|        |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 예산, 감사, 조사               |
| 자치행정국  | 총무과     | 총무, 시정, 자치행정, 법무             |
|        | 행정지원과   | 홍보기획, 보도지원, 시민운동, 민방위        |
|        | 회계과     |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
|        | 세무과     | 시세1, 시세2, 도세, 세무조사, 징수, 세외수입 |
|        | 정보전산과   |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통신, 통계         |
| 인원복지국  | 민원처리과   | 민원관리, 행정민원, 위생환경민원, 건설민원, 병무 |
|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
|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 관광육성, 체육육성             |
|        | 건축녹지과   | 건축, 건축지도, 녹지관리, 녹지지도         |
|        | 토지관리과   |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적민원, 부동산관리      |
| 경제환경국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실업대책      |
|        | 환경보호과   | 환경기획, 환경지도, 오수관리, 환경시설       |
|        | 청소행정과   | 청소, 재활용, 청소시설                |
|        | 농림과     | 농장, 농지관리, 공원녹지, 산림조성, 산림보호   |
|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       |
| 건설도시국  | 건설과     | 건설행정, 지역개발, 도로건설, 도로관리, 보상   |
|        | 도시과     |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시설             |
|        | 치수과     | 치수행정, 치수시설, 하수정비, 재난관리       |
|        | 수도과     | 업무, 공무, 급수                   |
|        | 주택과     | 주택행정, 주택1, 주택2               |
| 보건소    | 보건사업과   | 보건행정, 방역, 의학, 위생             |
|        | 의무과     | 방문보건, 가족보건, 진료, 건강증진, 지역보건팀  |
|        | 보건지소    | 남양주, 별내, 진건, 수동, 조안, 진접, 오남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진흥과   | 농정기획, 유통, 경영상담, 인력육성, 생활개선   |
|        | 기술보급과   | 환경농업, 경제직물, 식량직물, 축산, 기술개발   |
| 사업소    | 중합복지회관  |                              |
|        | 시립도서관   | 관리, 사서열람                     |
|        | 환경사업소   | 관리, 시설운영                     |

(2000년 4월 22일 현재)

## 2. 남양주시의회

시의회는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청에서 하는 중요한 일을 심의·결정하고 행정

사무에 관한 조례(자치입법)를 제정하며 시청 공무원이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고 지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조정하는 우리 고장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있다.

## 1) 구성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내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 2) 의회운영

### (1) 본회의

#### - 정기회의

집회: 매년 11월 25일

회의기간: 35일 이내

주요안건: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예산결산 승인 등

#### - 임시회의

집회: 필요시

회의기간: 45일 이내(1회기 15일 이내)

소집: 시장 의원 1/3 이상의 소집시(연간 총회의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원회

#### - 상임위원회

소집: 위원장,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회기 중)

본회의 의결, 의장,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배회시)

기능: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

#### - 특별위원회

구성: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소집: 위원장,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시



시의회 전경

기능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

### (3) 의회의 권한

- 의 결 권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열거하는 사항 의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 감사조사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및 서류의 제출과 당해 자치단체장,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자 율 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여받지 않는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의원의 자격, 징계 등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갖고 있다.
- 선 거 권 :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 위원 선임,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

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 3. 남양주경찰서

지금동 20-15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1980년 4월 1일 양주군 관할이던 구리·미금읍과 별내·진접·수동·화도·와부면이 남양주군으로 분군·신설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서 관할하던 이 지역의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통령령 제9831호(1980. 3. 31.)에 의거 남양주경찰서를 신설하였다. 신설 당시에는 구리읍 소재의 구리지서와 수택지서·갈매파견소, 미금읍에 소재해 있던 비금지서·도농파견소, 진접면에 소재해 있던 진접지서, 진접면의 진접지서, 화도면의 화도지서, 수동면의 수동지서, 와부면의 와부지서·조안지서, 별내면의 별내지서와 덕송경비소, 도농·퇴계원검문소 등 7개 지서, 2개 파견소와 1개 경비소, 2개 검문소를 관할하였다.

현재의 지금동 산 20-15번지에 관공서 부지를 매입하여 1980년 1월 7일 남양주경찰서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80년 10월 21일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새 청사로 입주하였다. 청사규모는 대지 1811평에 건평 792.42평이다.

남양주경찰서 조직·인원 현황

| 과 명   | 계 명   | 담 당 업 무             |
|-------|-------|---------------------|
| 청문감사관 | 청문감사관 | 민원인 고충 해결           |
|       | 감 찰   | 경찰 공무원 비리           |
| 경무과   | 경무계   | 인사·상훈·복지·교육         |
|       | 경리계   | 경리·청비·운전            |
|       | 정보통신계 | 통신·정보화              |
|       | 민원실   | 민원접수·재송             |
| 방범과   | 기동순찰대 | 방범 112신고            |
|       | 지도계   | 홍포·도검·화약류·소년사건·추경심판 |

| 과 명    | 계 명     | 달 당 업 무         |
|--------|---------|-----------------|
| 수사과    | 수사1계    | 유치장·송치          |
|        | 수사2계    | 기획·수사           |
|        | 조사계     | 고소·고발사건 처리      |
| 형사과    | 관리계     | 우범자관리·서류송치      |
|        | 형사계     | 형사사건 처리         |
| 경비 교통과 | 경비작전계   | 경비 업무           |
|        | 교통사고조사계 | 교통사고 조사         |
|        | 교통지도계   | 범칙금스티커 관리       |
| 정보 보안과 | 정보1계    | 정보 수집·처리        |
|        | 정보2계    | 정보 수집           |
|        | 보안계     | 간첩·외사범죄 단속      |
| 검문소    | 도농      | 범죄용의자 및 용의차량 검거 |
|        | 퇴계원     | .               |
|        | 교문리     | .               |
|        | 아천리     | .               |

#### 4. 남양주교육청

남양주교육청은 남양주시 지금동 158-3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남양주교육청은 1980년 4월 1일에 2과 7계로 개청하였다. 1980년 10월 7일에 교육청사 본관을 준공하였으며, 1981년 11월 19일에 교육청사 별관을 준공하였다. 1991년 4과 11계로 직제 개편을 하였고, 1999년 현재 남양주교육청은 학무과·사회교육체육과·관리과·재무과의 4개 과와 10개 계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교육청의 교육지표는 '미래를 선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이며, 교육의 기본 방향은 도덕성 함양 교육과 창의성 계발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의 5가지 주요 시책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구현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구현중점으로는 민주시민생활의 정착을 위해 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추진 ② 바른생활 훈련기회의 확대 ③ 청소년 수련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힘쓰며, 세계화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① 전통문화 계승교육과 ②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통일대비 교육의 충실을 위해 북한실상 바로알기교육과 통일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는 기초교육의 충실을 위한 구현중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해 ①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②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강화 ③ 연구 시범 학교 운영내실을 꾀하고 있다.

#### 관내 초등학교 현황

|           |             |        |
|-----------|-------------|--------|
| 가곡초등학교    | 남양주월문초등학교   | 오남초등학교 |
| 기암초등학교    | 담내초등학교      | 장현초등학교 |
| 광릉초등학교    | 덕소초등학교      | 조안초등학교 |
| 금남초등학교    | 마석초등학교      | 진건초등학교 |
| 남양주금곡초등학교 | 마석초등학교북촌분교장 | 창현초등학교 |
| 남양주동곡초등학교 | 별내초등학교      | 관내초등학교 |
| 남양주미곡초등학교 | 수동초등학교      | 봉양초등학교 |
| 남양주송촌초등학교 | 수동초등학교송천분교장 | 화집초등학교 |
| 남양주임정초등학교 | 심석초등학교      |        |

#### 관내 중·고등학교 현황

|          |         |          |
|----------|---------|----------|
| 광동중학교    | 미금중학교   | 진건중학교    |
| 금곡중학교    | 수동중학교   | 퇴계원중학교   |
| 덕소중학교    | 삼석중학교   | 화광중학교    |
| 동화중학교    | 연세중학교   |          |
| 마석중학교    | 오남중학교   |          |
| 광동종합고등학교 | 동화고등학교  | 화광공업고등학교 |
| 금곡종합고등학교 | 심석고등학교  |          |
| 덕소고등학교   | 퇴계원고등학교 |          |

## 5. 남양주문화원

남양주문화원은 1982년 11월 전통문화계승 및 전승,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개원

되었다. 문화원 주도의 문화행사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화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지역의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중추역할을 하였다.

전통문화는 지역의 가치를 지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중요하며 이것은 곧 지역사회의 공동체 분위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문화원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행사는 그 의미가 충분하다. 남양주문화원은 지역문화 축제인 다산문화제를 매년 개최해 오면서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문화향수를 충족시켜주는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남양주문화원은 금곡동 소재 새마을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이사와 6명의 고문, 그리고 회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 ○ 지방문화원에서 행하는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과 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과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 ○ 전통문화계승 문화행사

##### - 다산문화제

조선 후기 대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업적과 실학사상을 기리는 지역축제이다. 그 내용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 백일장, 휘호,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관내 유관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에 봉사하는 다산목민대상을 선정·수여하여 다산의 일을 받들고 있다. 또한 다산사상강연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다산의 실학사상을 전파하고 시민축제로 승화시켜 전통예술공연, 각종 전시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산문화재 중의 희계원신대놀이 공연 모습

#### - 문화유적 답사

수도권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을 일깨우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 - 향토사료 조사연구

남양주의 민속 생활상, 매장문화재 등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답사·고증한 후 책을 엮어서 기록보전과 후세 교육자료로 삼고 전통문화를 발굴, 선양한다.

#### - 남양주역사인물 학술발표회

남양주 출신의 역사인물을 발굴, 재조명하여 지역을 빛내고 선열의 생애와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다.

#### - 남양주문화지 『천마산의 맥』 발간

문화원의 활동과 각종 사업 및 문화 관련 논단 등 한해의 결실을 모아 기록,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자료로 남긴다.

- 문화학교 운영

시민에게 용이한 문화접근과 문화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사진연구반과 향토사연구·답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 퇴계원산대놀이 복원·전승 공연

문화원 산하에 전통민속예술연구소를 개설해 남양주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인 퇴계원산대놀이를 복원, 전승하고자 재현하고 공연을 갖고 있다.

- 기타

사진전시회, 음악회, 전통혼례식 재현, 학술세미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 백

제3장

# 우리 고장의 삶과 문화



여 백

# 제1절 평생의례

## 1. 결혼식

남양주에서 결혼을 할 때에는 옛날부터 언에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대개는 주위 분들 중에서 할머니들이 중매를 한다고 한다. 남자 측과 여자 측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중매는 집안 어른들이 한다고 한다. 중매를 해준 사람을 '중신이' 라고 한다.

선을 본 후에 남자 측이 사주를 써서 여자 측으로 전달하는데 창호지에 신랑이 될 사



전통혼례 모습(사진제공 : 안태호, 외부음 덕소리)

랍의 생년월일 등을 적은 것으로 봉투를 만들어 넣고 보자기 안에 싸서 중매한 사람이 여자 측에 전달한다. 보자기 안의 사주는 청실홍실로 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청실홍실이 따로 담겨져 있기도 하다. 사주를 받고 나면 혼례날을 정하는데, 날은 대개 여자 측에서 정한다. 여자 측이나 남자 측에서 날을 정하면 중매를 한 사람이 양측에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날을 정한 것을 '날택일'이라고 한다. 혼례일이 되기까지는 신랑이 될 남자는 오고가지면 신부될 여자는 오고갈 수 없었다. 혼례일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마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온다. 신랑이 가마를 타고 신부집으로 올 때는 가마를 맨 사람 두 명과 합친 사람 한 명, 그리고 신랑의 삼촌이나 형이 함께 온다. 이들을 '황'이라고 하고 '황 간다'고 한다.

함을 가져올 때는 나무로 만들어진 기러기를 힘겨게 가져온다. 함은 신부의 아버지께 받고 나무기러기는 집안 여자 어른이 행주치마에 빈아 혼례가 끝날 때까지 쌀독 위에 보관한다. 혼례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시댁으로 갈 때 기러기를 가지고 돌아가 마을에 보관하거나 다음 혼례를 할 남자에게 준다고 한다.

함을 지고 오는 사람을 '함진에비'라고 하며 함진에비를 하려면 아들을 낳고 부인이 살아 있어 잘 살고 있는 남자가 해야 한다고 한다. 함을 지고 오면, 마루에 삼으로 떠놓아 신부의 아버지가 그 위에 함을 받아 내려놓고 세일 먼저 열어본다.

함을 열어 옷감을 꺼낸 뒤 신부는 방 안에서 불과 이피에 연지런지를 찍는 등 치장을 한다. 신부의 복식은 빨간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고 큰 땃기를 세 갈래로 갈라 두 가닥은 앞쪽으로 늘어뜨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뒤로 늘어뜨린다. 또 손을 포갠 후 맞잡고 큰수건으로 손을 가리는데, 색깔은 흰색이다. 신랑의 복식은 '정복'이라고 불리는 푸른색 관복과 검정색 '사모'를 쓴다.

혼례 당일이면 마당에는 명석을 깔고, 일반적인 음식상보다 두세 배 정도로 높은 '대례상'을 차린다. 혼례상에는 과일을 올려 놓고 붉은 팥 한 그릇, 콩 한 그릇, 용매 두 그릇 등을 차려 놓는다. 닭은 상 위에 올려 놓지 않고 상의 양쪽에 한 사람씩 각각 서서 닭을 안고 있다가 대례가 끝나면 날리듯이 던진다. 신부와 신랑은 상 앞에 나란히 마주 보고 서 있다가 신부가 먼저 삼 배를 하면 신랑이 두 번 배를 절을 한다. 대례가 끝나고 나면 신부와 신랑은 각각 방으로 들어가 앉아 어른들이 차려다 주는 음식을 먹는다.

혼례를 치른 후 시댁이 멀면 친정집에서 햇날밤을 지내고 가지만 빌지 않으면 그 날로 시댁으로 간다. 음식은 시댁에서 준비하여 신부와 신랑이 절을 하고 술을 따라 드리는 것을 '피박(배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을 드리며 인사드리는 것이다. '피박'을

할 때는 어른들에게 큰절을 한 뒤 술잔을 따라 드리면 절을 받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아들을 낳으라든가 잘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뒤, 대추나 밤 등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준다.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첫날밤에는 문 밖에서 '신방지킨다'며 창호지문을 뚫어보거나 한다.

혼례 후에는 신랑만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를 '재행' 혹은 '재향'이라고 하며, 이때는 신부집에서 신부의 아버지나 오빠가 신랑을 데릴러 온다. 신랑이 친정으로 가면 잔치 음식들을 준비하고 송편을 빚어 대접한다. 이날 저녁이면 친정 동네 청년들이 모여들어 신랑의 발목을 붙잡아 거꾸로 들고는 발바닥을 때리는데 이를 '신랑 달아먹는다'고 한다. 친정에 간 신랑은 하룻밤 정도를 묵고 돌아오며 신부는 1년이나 3년 정도 지나서야 친정집에 갈 수 있다.



## 2. 회갑잔치

회갑례는 집안의 어른이 60세가 되면 치르는 생일잔치로서 환갑례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잔치상을 차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눠 먹



회갑연 모습(사진제공: 안태호, 최부음 덕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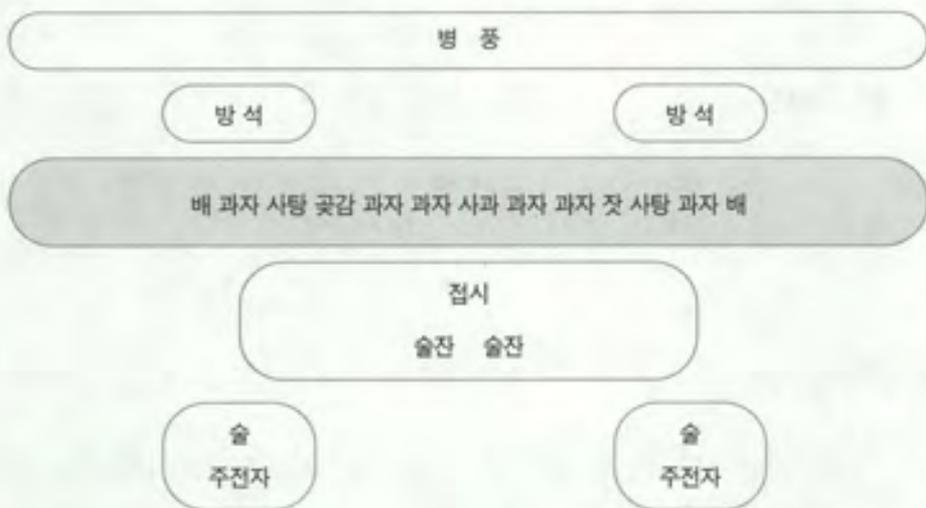
으며 치렀지만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뷔페식당에서 많이 한다. 회갑잔칫날 전에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쇄된 초대장을 보낸다.

집에서 회갑례를 치르는 경우는 마을 잔치를 여는 것처럼 많은 음식을 마련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대접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회갑을 맞은 당사자인 주인공을 축하하며 함께 논다. 회갑을 맞은 할아버지는 바지 저고리에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고 배우자 또한 새로 마련한 옷을 입는다. 이는 며느리나 아들이 해주는 것이다. 주인공이 받는 회갑상이 다 차려지면 주인공의 배우자도 함께 상 뒤에 앉아 자손들의 절을 받고 술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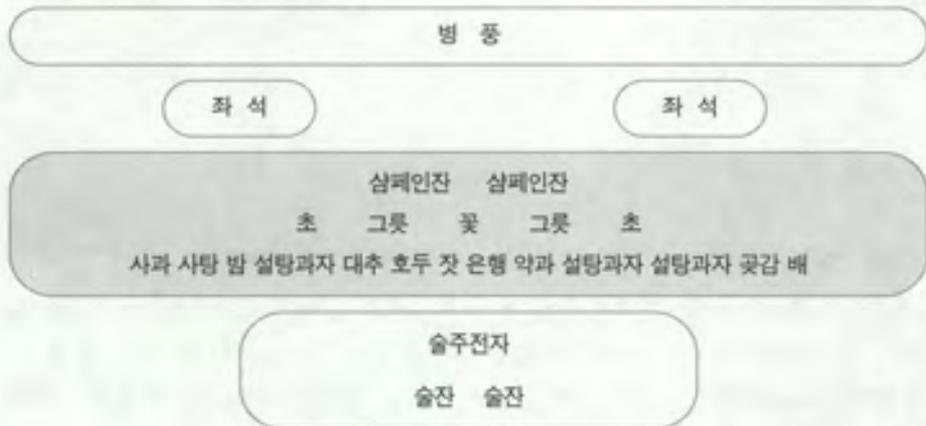
잔치음식은 대개 국수나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삶은 고기를 얇게 썰어 김치 등과 내놓으며, 떡은 절편이나 인절미 등이다.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끼리 아들들은 아들끼리 같은 색의 옷을 새로 해 입어 회갑례 당사자의 자손들임을 나타낸다.

### 집에서 하는 회갑 상차림



### 식당에서 하는 회갑 상차림



### 3. 장례

#### 1) 입종(臨終)

임종이 가까워 오면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던 방으로 옮겨 편안히 모신다. 혹은 평소 사랑채에서 기거를 하였더라도 안방으로 모셔 운명케 한다.

#### 2) 수세거두기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살주들은 곡을 한다. 그리고 엄를 하는 사람이 바로 햇솜으로 입과 코, 귀 등을 막고 손발을 곧게 펴는데 이를 '수세(收屍) 걷는다', 혹은 '수시 거둔다', '손발 걷는다'고 한다. 시신이 굳기 전에 양팔과 다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가지런히 하여 옥암복이나 잔지를 곧 끈으로 양 손끝과 발끝을 가지런히 붙들어 맨다.

그런 다음 멧짚으로 고침을 세 개 만들어 그 위에 칠성판(七星板)을 놓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 흙이불로 덮어놓는다. 그리고 병풍을 쳐 시신을 가린다. 수세를 거두고 나면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놓는다.

#### 3) 초혼 부르기

수세를 거두고 나면 돌아가신 분의 혼을 부르는 의식을 지행한다. 이를 '초혼 부른다', 혹은 '복(復)'이라 한다. 복은 마당에 나가 북쪽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른다. 대체로 망인의 주소와 관등성명을 부르고 끝에 북! 북! 북! 세 번 외친 후 "○○○ 씨 최삼가져가시오."라고 외친다. 초혼은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부른다.

초혼은 떠난 혼을 다시 불러들여 몸으로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소생을 영원한 행위라 하겠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부르는 것을 북쪽에 죽은 자를 원장하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 4) 사자밥상 차리기

수새를 거두고 나서 복을 부르고 나면 안에서는 사자밥을 차린다. 사자밥은 매(밥) 세 그릇, 나물 세 그릇, 짬신 세 컹레, 노갯돈 동전 세 닢 등을 차려 대문밖에 둔다. 사자밥은 발인할 때 함께 가지고 가다가 다리를 지나면서 버린다.

#### 5) 발상(發喪)

사자밥을 차리고 복을 부르는 동안 상주들은 머리를 풀고 장신구 등을 빼고 곡을 해 초상이 났음을 표시한다. 이를 발상이라 한다. 상주는 아직 상복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오른쪽 소매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왼쪽 소매를 꿇지 않는다.

#### 6) 염(斂)

염은 소렴과 대렴으로 나뉜다. 시신을 향물로 씻기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를 소렴이라 한다면, 이를 묶어 관에 넣는 것을 대렴이라 한다.

염습은 대개는 마을에 염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거나 장의사집에 부탁을 하여 행한다.

그 순서는 살펴보면 먼저 수의를 쟁기고 가로매 7쪽을 놓은 다음 장대를 늘어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놓는다. 그리고 흰천을 시신 위에 덮고 옷을 벗긴 다음 씻긴다. 대개 향을 삶은 물이나 축물로 전신을 씻긴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고 빗질하여 나온 머리카락을 다섯 개의 주머니(爪髮囊: 조발낭)에 담아 입관시 손톱은 양손이 있는 곳에, 발톱은 발치쪽에, 머리카락은 머리쪽에 놓는다. 그런 다음 염의(殮衣)로 갈아 입힌다.

염의는 수의(壽衣)라고 한다. 홑천으로 된 요 위에 수의를 옷웃은 옷웃끼리, 아래웃은 아래웃끼리 서로 끼워 시신에게 입힌다. 손에는 악수(장갑)를, 발에는 버선을, 머리에는 명목(검정 수건)을 씌운다. 마지막 명목으로 얼굴을 가리기 전에 반함을 한다. 반함(飯含)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입에 떠넣으면서, '천석이요', 두 번 떠넣고 '이천석이요', 세 번째는 '삼천석이요' 하고 외친다. 그리고 저승갈 때 식량이나 노자로 쓰

라고 반토막 낸 동전 세 닢을 입에 물린다.

흔뻐은 흰 비단이나 처포를 집어 중심결로 묶은 것으로 채백을 떠낸 끈이 묘직에 안찰하고 신주를 받들어 봉안할 때까지 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흔뻐은 시신을 안치한 후 우제 때 신주로 대치한다. 사당이 있거나 감실을 둔 집안에서는 시신을 안장한 후 우제 때 신주로 바꾸고 흔뻐은 태우거나 묘에 매안하지만, 대부분 일반 민들은 신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흔뻐을 상청에 봉안한다.

수의를 다 입히면 이뿔(地訕)로 시신을 싼 다음 시신 전체를 양 옆으로 싸면서 배들을 짓지 않은 채로 단단히 싸어 안으로 꿰 넣는다. 배들을 짓지 않은 것은 당기면 저절로 풀리도록 한 것으로, 이는 혹 시신이 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절로 풀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렴(大殮)은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이다. 원래 죽은지 3일째 되는 날 하나 대개는 3일장의 경우 사망 다음날 습과 소렴을 한 후 바로 이어 대렴을 하고 입관을 한다. 먼저 관을 방안에 놓고 관속에 관요를 깔고 끈숨을 넣어 만든 베개를 놓고 시신을 관내에 넣은 후 관이탈로 시신을 덮는다. 그리고 시신을 넣고 양 옆 빈공간에 생전에 입던 옷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광목과 같은 것으로 관을 싸서 밧줄로 묶는다. 이렇게 검습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이나 짚·베개 또는 칠성판을 깔고 관을 안치한 후 명공으로 가린다.

그리고 영좌를 설치한다. 명공 앞에 명점을 내리고 향상과 간단한 상을 차려 흔뻐을 올려놓는다. 흔뻐은 초혼할 때 사용하면 옷의 소매로 접거나 베로 접기도 한다. 보통 배 한 폭을 가지고 여덟 겹으로 접어 쓰는데 상하를 구분하기 위해 위쪽에 상(上)이라고 쓴다. 묘소용은 흔뻐을 장의사에서 가져다 쓴다. 중부 충청, 경기지방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매장시 탈관을 하기 때문에 줄은 관을 쓰지 않고 종육으로 한 막관을 쓴다.

## 7) 상복

입관을 마치면 상주들은 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를 '성복'이라 한다. 성복은 할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참취(3년)·재취(1년)·대공(9개월)·소공(5개월)·시아(3개월)의 5종류에 배의 굵기가 다른 옷을 입었다고 한다.

원래 입관은 죽은 지 삼일만에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도 3일장이라도 돌아가신 날 배

로 입관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고 행한다.

죽은지 삼일만에 대립하는 이유는, 첫째 소생을 바라는 효자의 마음 때문이고, 둘째 상장에 필요한 상복이나 각종 상장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멀리 있는 친척이 부음을 듣고 오는 시간을 기다려 장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후사라도 다시 소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삼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최소한 삼일은 지나야 입관을 하였다.

양주지역에서는 입관이 끝나면 상주를 비롯한 복인들은 상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먼저 마당에 물이 든 물동이를 상 위에 놓고 그 옆에 상복을 놓는다. 평복을 한 맞상주가 맨 앞서면 상주들이 물동이를 중심으로 둘러 선 다음 우로 세 바퀴 좌로 세 바퀴 돌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서로 인사가 끝나면 다시 물동이를 중심으로 서서 앞서 행한 것처럼 다시 물동이를 중심으로 집안의 웃어른께 절을 하고 좌우로 세 바퀴씩 돌며 동서남북을 향하여 절을 한다. 상복은 맞상주부터 갈아입는데, 맞상주가 끝나면 다음 상주 순으로 차례로 돌며 절을 하고 갈아입는다. 상주들이 상복을 모두 갈아입으면 방안으로 들어가 영좌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재를 지낸다. 이를 성복제라 한다.

그리고 상주들은 지팡이를 짚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지팡이(竹杖)를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부상(父喪)에 죽장을 짚는 것은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여 아버지를 가리킨 것이고, 오동나무 지팡이가 모가 난 것은 땅을 상징하여 어머니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오례에 의하면 부상(父喪)에 죽장을 사용하는 것은 대나무처럼 사시사철 변함 없이 효를 다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를 위하여 오동을 사용하는 것은 같음(同)을 말한다. 이는 속마음으로 슬퍼함이 아버지와 같음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지팡이의 크기는 요질(허리춤)과 같게 한다.

## 8) 발인(發靛)과 치장(治葬)

부모가 돌아가시면 먼저 장일(葬日)과 장지(葬地)를 정한다. 장기(葬期)는 통상 3일장이나, 돌아가신 분과 일진이 맞지 않으면 장삿날을 하루 앞당겨 2일장으로 하거나 하루 더 늘려 4일장을 하기도 한다.



상여행렬 모습(서간재군 : 한때는, 파주시 역으로)

장지는 선영이나 공동묘지를 이용한다. 묘역은 발인 전날에 미리 마을 주민이 장지가 작업을 한다. 광중을 파기 전에 먼저 간단한 제물을 백지에 위에 놓고 산신제를 지내고 작업에 들어간다. 무덤 속의 광중은 외광(外曠)·내광(內曠)을 판다.

남양주지역은 거의가 관을 댄 채 시신만 매장하는 탈관(脫棺)을 하기도 하지만, 관 채물을 때는 좋은 관재를 쓴다. 그리고 광중 내부에 석회를 뿌려 나무뿌리나 뱀·개구리 같은 파충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시신 안치방향은 남좌여우로 상석 위치에서 보아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에 오도록 안치한다.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것을 발인이라 한다. 장사날이 되면 아침부터 서둘러 출상(出喪) 준비를 한다. 상두꾼(상여 메는 사람)들은 곳집(상여막)에서 상여를 갖다 상주집 마당에서 조립한다. 상여는 마을에 목상여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번 쓰고 태워버리는 꽃상여를 쓴다. 나무 상여는 대개 12인용과 16인용, 24인용이 있는데, 요즘은 때에 따라 10명이 메기도 한다고 한다.

상여가 완전히 조립되면 상주들은 관을 빈소로부터 운구하여 상여에 실어 묶는다. 빈소에서 출관할 때 방 문지방 앞에 엮어 놓은 바가지를 밟아서 깨고 나온다. 이는 액을 푸

는 것이라 하는데, 상사(喪事)로 인하여 집안에 생겼던 모든 액이 출판시 바가지를 켜므로서 없어진다고 한다.

운구불 마치면 상여 앞에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깔아 상을 편 후 재물을 진설한 다음 재물을 지낸다. 이를 발인제라 한다. 발인제를 마치면 여기에 차렸던 재물로 상두꾼들을 대접한다. 이어 상여는 장지를 향하여 출발한다. 상여가 집을 떠날 때 상주들이 상여 앞에서 절을 하면 상여를 세 번 들었다 놓으며 하직인사를 한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상여를 내려놓고 노제를 올린다. 상여행렬이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를 해체하고 빈소를 마련하여 문상을 받는다. 그리고 상두꾼과 산역꾼,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하관시간이 되면 지관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광중에 내린다. 이때 지관은 일진을 보아 하관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되는 나이를 부르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살 맞는 다', '죽 맞는 다'고 하여 잠시 자리를 피한다. 시신이 안치되면 백지로 덮고 시신과 광중 사이의 빈 공간을 고운 흙으로 채운다. 이어 시신 위에 명정을 덮는다. 명정을 덮고나면 예단드릴 가슴부의만 남긴 채 횡대(홍대라고도 함)로 내광을 덮는다. 예단은 시신 가슴 양쪽에 하나씩 안치하고 홍대를 덮는다. 부모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예단을 드릴 때 이므로 가장 슬프다고 한다. 예단드리기를 마치면 이어 맞상주가 세 번 취토를 하고 나면 산역꾼들이 광중작업에 들어간다. 광중을 덮는 흙은 백회를 섞어 물에 약간 뿌려 개이 광중을 3분의 1쯤 메운다. 광중을 메울 때는 석회를 쓰는데 흙과 섞어 단단하게 밟아 다진다. 이를 '달구질' 또는 '희다지'라 한다. 달구질은 보통 초벌, 재벌, 세벌까지 한다. 상두꾼들로 구성된 달구꾼 여러 명이 상여를 뺄 때 쓰는 어깨걸이용 장대(이를 연수대라 함)를 들고 광중에 들어가서 선소리꾼의 선창에 맞추어 서로 등을 마주 대었다가 돌아서서 마주보는 동작과 함께 서로 발을 맞추며 바닥을 세게 밟는 동작을 반복한다.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달구꾼들이 "희~다지 달~공"이라는 후 창을 하면서 달구질을 한다.

광중에 흙을 채워 땅과 평평해지거나 봉분이 완성되면 평토제 혹은 성분제를 지낸다. 평토제를 마치면 상주들은 혼백과 명정을 들고 상여가 왔던 길로 집으로 돌아간다.

## 9) 반혼(返魂)과 우제(虞祭)

평토제를 지내고 나면 삼주들은 혼백상자와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반혼이라 한다. 반혼 행렬은 밭인 때의 행상행렬 때와 같다. 장지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반혼하는 산을 맞을 준비를 한다. 삼주들이 집에 도착하면 즉시 곡을 하고, 혼백을 영좌에 봉안하고 곡을 한다.

우제는 장사 후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우(虞)란 위안한다는 뜻으로 사자의 신령을 면안케 하는 동시에 생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안위의 제사이다.

우제는 시신을 묘에 안장하고 혼백을 집으로 모시고 지내는 제사이다. 삼중에 지내는 제사이기에 흉제라고도 하는데, 우제는 초우·재우·삼우가 있다. 초우는 장사날에 거행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늦어지면 저녁 상식에 겸하기도 한다. 재우는 을(乙)·정(丁)·기(己)·신(辛)·계(癸)일인 유일(柔日)에 지내는데, 권차는 초우 때와 같다. 삼우는 갑(甲)·병(丙)·경(庚)·임(壬)일인 강일(剛日)에 지낸다. 바로 재우 다음날이다.

삼우제를 지낸 뒤 강일을 택하여 출곡제를 지낸다.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아침저녁에만 한다. 비록 아침과 저녁 사이에 슬픔이 있어도 곡을 하지 않는다. 출곡은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것이며, 출곡(卒哭)을 삼사(成事)라고도 하는데, 이는 출곡에서부터 길제(吉祭)로 삼제(喪祭)가 대치되어 점차 길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 10)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유교식 상상의례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상 후 만 1년이 되는 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소상이라 한다. 만 2년째가 되면 다시 제사를 지내는데 대상이라 한다. 즉 대상은 만 2년인 25월에 지낸다. 대상 때까지는 굴전제목을 그대로 입다가, 대상을 마치면 탈상을 하고 상주가 쇠였던 치팡이와 상복을 모두 태운다.

\* 삼년상이란 자식이 태어나 혼자 먹고 활동할 수 있는 유아기의 한 2년 동안 돌면서 걸러온 은혜에 대한 모반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곡신을 맞아 놓고 혼백이 깃든 신주(神主)를 모시고 사당에 탈상 때까지 안치하여 만 2년간 갖 매번 10리씩 공간에서 부살과같이 모시는 것을 이른다. 그래서 공자는 자식의 전효(轉孝)·근후(根後)·사묘(思廟)의 뜻이 깊어진 초상 제도는 천하의 공통된 것으로 통하기 때문에 비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대상을 지냈다고 하여 즉시 부모의 상을 잊고 평소의 생활로 차마 돌아올 수 없다고 하여 한 달이 지난 다음 담제(禫祭)를 지내고 상을 마친다. 담제는 대상 후 두 달 만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이 지난 뒤 지내는 것이다. 담이란 담담하고 평안하다는 뜻으로 제복제(除服祭)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상례를 끝내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제사라 하겠다.

그러나 요즘은 탈상은 빠르면 3일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49제로 하거나 100일 탈상을 한다. 100일 탈상인 경우는 49제가 소상이 되고 100일제가 대상이 된다.

## 4. 제사

### 1) 기제사(忌祭祀)

기제는 삼년상을 마친 다음해부터 돌아가신 전날 자정(子時)을 전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 고조까지 지낸다고 하여 4대봉사(四大奉祀)라 한다. 5대조 이상은 묘사(시제 또는 시향이라 함)로 지낸다. 요즘은 기제도 4대까지 지내지 않고 3대 증조부모까지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통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자정을 전후하여 지내지만,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와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앞당겨 8~10시에 편법으로 지내는 집안도 있다.

제삿날이 돌아오면 제수를 준비하고 지방과 축문을 준비한다. 지방을 쓰는 법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다.

제물은 가문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제상 맨 앞줄은 삼색실과를 비롯한 과일류가 놓이고, 두 번째 줄에는 식혜와 포 그리고 소채 등을 차리고, 셋째 줄은 탕을 놓는데 대개 3탕이다. 네 번째 줄은 적류와 떡을, 맨 끝줄은 메와 갯, 술잔을 진설한다.

제상은 제주쪽에서 보아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으로 여긴다. 진설원칙은 대개 홍동백서(紅東白西)·조율이시(棗栗梨柿)·좌포우혜(左脯右醢)·어동육서(漁東肉西)·동두서미(東頭西尾) 등과 같이 한다. 제상 앞에는 향상과 모사그릇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집안 대대로 행해온 대로 지내는 집도 많다. 때는 양친이 다 돌아가신 경우는 대개 양의합설로 하여 두 그곳을 차리는데, 거의가 양의합설을 한다.

## 2) 시제(時祭)

5대조 이상 조상에겐은 시제(시향, 묘제라고도 함)라 하여 10월 상달에 묘제를 지낸다. 시제는 성묘와 달리 낮에 행하고 가을 추수가 끝난 음력 시월 상달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시조를 비롯해 수 대의 요소가 있는 선산에서 시제가 이루어 지는데, 제관과 유사 등 당일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포로 갈아입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개략하여 분정을 기다린다. 분정이란 각 요소마다 초헌, 아헌, 종헌, 진설, 축관 등 각기 역할 분담을 정해 기록한 대차보이다.

## 제2절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일상복

##### (1) 처녀

성인여자의 차림과 같지만 어른에 비해 속옷이 생략된다. 특징적인 것은 머리를 뺏아 내리고 땡기를 들어는 것이 구별된다. 겹옷은 치마와 저고리가 기본이며, 속옷은 기본적인 것만 입었다. 따라서 옷옷[上衣] 속에 속적삼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래옷도 어른처럼 속곳·바지·단속곳이 있었으나 단속곳을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속곳과 바지를 입거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입는 정도였다. 계절에 따라 홑옷·솜옷·겹옷이 있지만, 때에 맞춰 입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름에는 상의로 적삼을 하나 입는 정도였고, 겨울에도 여유가 있어야 속적삼이나 솜옷을 입었다.

학교에 다니거나 개방적인 처녀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를 입었는데, 이런 차림을 '신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명절 때는 주로 '무색옷'을 입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물들인 옷을 무색옷이라 한다. 치마색은 주로 남(藍)이나 검정으로 하고, 저고리는 노랑이나 녹색·분홍으로 하였는데 일반적인 처녀들의 옷색깔이었다. 옷감은 무명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머리 형태는 귀밑의 머리카락을 모아 뺏았는데 이것을 귀밑머리라고 하였다. 땡기는 처녀들의 유일한 치레거리였으며 계절이나 때에 맞춰 갈아 들었다. 땡기는 흥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면이나 명주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 (2) 성인남자

머리는 단발형 이후라 모두 단발을 하였다. 단발은 하였지만 지체 있는 집 노인들은 집에서 뉘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반드시 감투를 썼는데, 이는 방선이었다. 외출할 때는 갓이나 중절모를 썼다.

옷은 집안에 있을 때는 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두부매기)를 입었다. 산은 집에 있을 때는 짚신(짚시끼)을, 외출할 때는 미투리\*를 신었다. 1940년대 이후부터 고무신을 신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의 머선은 사철 언제나 솜머선이였다. 옷감은 광목이 가장 많았으며 여유 있는 집에서는 겨울철에 명주옷을 입기도 하였다.

비가 오는 날은 비옷을 입었다. 비옷은 '도랭이'라고 하는데 짚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길이이고 모양은 사다리형이다. 어깨 위에 둘러서 입는데 마치 치마를 어깨에 걸친 것 같았다. 짚으로 만들었으므로 비를 맞으면 무거웠다. 버리에 는 샷갓을 쓰기도 하였는데 샷갓은 매우 귀한 것이었다.

## (3) 성인여자

한복을 입었으며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가 기본이었다. 머리는 모두 쪽머리를 하였다고 한다.

치마의 트임을 자락이라 하는데 이 치마를 '자락치마'라고 했다. 자락치마에는 어밀의 방향에 따라 반상(班相)을 구별하였는데 "반명(班名)은 반드시 왼쪽으로 낸다."고 하여 왼쪽으로 떠이는 것을 양반이라 하였다. 한편 경상도를 내왕했던 사람들은 "경상도에서는 양반들이 바로 입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양반인지 구별할 수 없더라."고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되면 '배가 좋다.'고 하여 배두렁이(배두렁이)를 허리에 띠기도 한다. 크기는 배와 허리부분을 감싸도록 여유 있게 만들고, 끈은 허리를 한 바퀴 감아 어밀 수 있게 앞쪽에 달아 동여맨다. 옷감은 무명이나 명주로 만드는데 속에 솜을 넣기도 하고 누비기도 하였다.

\* 미투리 : 옛날 무릎부터 전체 한 가지 색·오사·노는 마위에 짚신처럼 짠 산간에 짚신보다 길고 보이드 줄이 줄기 대신의 서랍통이 있었다. 그러다가 가죽 또는 머단에 누명으로 만든 신발이 나오자 서랍통의 서랍통도 신겨 버렸다.

## 2) 의례복

### (1) 유아복

유아기(乳兒期)는 생후 약 1년간으로, 크게 출생 직후와 초사흘·백일·돌로 나누어 유아복을 설명할 수 있다.

출생 직후에는 '아무 것으로나 3일간 싸서 둔다.'고 하며, 여유가 있으면 용이나 왜포(倭布)를 사서 새것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삼일째되는 아침에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데 이 옷을 배넛저고리라 하였다. 이 옷은 백일까지 입히며, 흰색 용을 사용하여 겹으로 만든다.

배넛저고리는 간단하게 만든다. 깃도 없고 동정도 달지 않으며, 고름은 실로 달고 소매는 얼굴을 할퀴지 못하게 길게 한다. "배꼽에 바람 들지 말라."고 배를 둘러줄 배가리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배두렁이'라고 한다.

백일잔치는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아무것이나 입혔다. 돌은 백일에 비해서 새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남·녀아를 구별하여 여아는 치마에 저고리를, 남아는 저고리에 바지를 입혔다. 바지는 가랑이가 트인 것으로 하였는데 이를 '풍차바지'라 하였다. 명절 때에는 색동으로 된 저고리를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

### (2) 혼례복

전에는 모두 전통혼례를 올렸으나 요즘은 대부분 예식장을 이용한다. 전통혼례는 의복이나 의례·교봉수단 등을 전통형태로 치르는 것을 말한다. 혼례날 주인공 남자를 새신랑, 여자를 각시라 했다. 전통혼례에서는 결혼식을 초례(初禮) 또는 대례(大禮)라 하며, 여자집(각시집) 마당에서 차일(천막)을 치고 대례상(床)을 차리고 하였다.

#### 남자(새신랑)

사모관대차림을 하였다. 머리에 사모를 쓰고, 옷은 속에는 잠방이·바지·속적삼·저고리·두루마기를 입고 겹에 단령(團領)을 입었다.

#### 여자(각시)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으며,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고 비녀에 땀기를 들인다.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원삼을 입었다. 저고리는 대부분이 반희장으로 했는데 길은 노란색으로 하였으며 회장은 홍색으로 하였다. 속에는 인조나 무명으로 만든 속적삼을 입었다. 아래는 속옷으로 속곳·바지·단속곳을 입고, 치마는 겹치마 하나만 입었는데



김홍도의 옷차림(사진제공 : 안대호, 외부음역소리)

홍색으로 하였다. 가슴은 대부분 치마허리(쇼마말기·쇼마허리)로 묶었다. 신은 고무신을 신었는데 검정이나 흰색이었다.

### 3) 수의

“수의는 툄달에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수의를 만들 때는 친척과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돕는데 이를 ‘뽕앗이’라고 한다. 만든 수의는 먼지가 들지 않도록 잘 싸거나 상자에 담아, 줄이 습지 않게 담배를 옷 사이에 넣어 선반에 걸어 둔다.

그리고 수의 바느질에도 여러 가지 금기가 있다. “뒗바느질을 하지 않으며 매듭도 짓지 않는다. 설만 반대로 단다.”고 한다. 뒗바느질을 하면 뒗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산 다른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이다. 또 죽은 사람의 옷을 만들 때는 실을 잇지 않는데, 이르면 다음 사람을 다시 끌고 간다고 한다. 그래서 매듭을 짓되 풀 수 있게 코를 대어둔다.

#### 4) 상복

상은 삼년상으로 초상·소상·대상을 지냈으나 지금은 백일 탈상이 일반적이다. 상복은 1950년대까지도 오복제(五服制)에 따른 복을 입었으나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남자는 두루마기에 두건을 쓰고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는 정도로 간소화하였다.

상복은 상제에 따라 다른데 상제는 상주와 복쟁이로 나뉜다. 상주는 자식이며, 복쟁이는 손자나 사위 그 외의 친척을 말한다.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은 상복을 짓는 방법이나 상장(喪杖)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밀단 처리법에서 모상일 때는 접고 감치지만, 부상일 때는 단을 접지 않고 휘감치기(휘괘이·휘괘이)만 한다. 상장은 부상에는 대나무(竹杖), 모상에는 오동나무(혹은 버드나무)를 쓴다. 신은 짚신을 신는데 장호지를 감기도 한다.

##### (1) 남자

자식은 삼년복으로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었다. 다만 혼인 여부에 따라 건을 다르게 썼다. 미혼일 때는 제복은 입지만 건을 쓰지 못하므로 굴건 대신 터드레를 썼다. 나이가 어리면 제복 대신 두루마기만 입는다. 성인들은 제복 속에 중단이나 두루마기를 입었다.

옷감은 삼베 중에서도 가장 거친 것으로 하되 빨거나 표백하지 않은 순수한 것으로 하며 바느질도 가장 거칠게 한다. 허리에도 수질과 같이 만든 허리띠(腰紵)를 띤다. 지금은 삼을 심지 않으므로 '피사리' (싸리껍질)로 한다. 복쟁이는 건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는다. 사위 가운데서도 큰사위는 굴건제복을 입는다.

##### (2) 여자

여자 상복은 상가에서 만들지 않고 밖에서 해 온다. 즉 시부모 상에는 친청에서, 친정 부모 상에는 시집에서 해온다. 이를 '거성'이라 하며, 이 옷을 받는 일은 '거성 받는다'고 한다. 거성에는 '겹거성' 또는 '찬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옷을 겹으로 하거나 전부 다 갖추었을 때 하는 말이다.

거성에는 저고리 치마·속치마·속바지·신·버선 등이 일습이며, 겨울에는 목도리나 털옷 등 방한구도 하였다. 거성 풍습은 5~6년 전까지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다만 상을 당한 집에서 원하면 옷감으로 가져가는 정도이다. 거성 재료는 과거에

는 모두 삼베로 하였으나 차츰 무명에서 깃황묵으로 변하였다. 거성이 들어오면 계상(啓床) 위에 올려 놓고 곡을 한 후 성복(成服) 때 입는다.

## 5) 세탁과 다듬기

### (1) 세제

세제는 잿물→계피비누→고형비누 순으로 발전하였다. 비누가 귀했을 때는 잿물을 내려 사용하였다.

잿물이란 짙을 태운 재(灰)로 만든 액체이다. 잿물거리로는 병침이 제일 많이 쓰였으며 갈나무잎도 쓰였다. 잿물을 내리면 우선 시루 밑에 헛다리를 걸치고 시루 속에는 짙을 건다. 짙을 태운 재를 시루 속에 넣고 그 위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시루구멍 사이로 빠진 물이 동이에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잿물이다. 이렇게 해서 내린 잿물 중에서 처음 것은 독하므로 심한 때가 묻은 것을 삶을 때 사용했다. 잿물에 삶는 것은 주로 면 종류로 옥양목·무명·강묵·시랑묵 등이었다. 잿물에 삶은 것은 잿물기를 완전히 빼지 않고 두면 옷감이 상하므로 잿물에 예벌 삶은 후에 여러 번 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바래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는 동안 잿물기는 빠지고 섬유는 바래져서 하얗게 되었다.

비누는 양잿물이 흔해진 1940년경부터 만들어 쓰기 시작하였다. 양잿물에 등겨를 섞어 굳힌 후 쓰기 알맞게 잘라서 사용하였다.

### (2) 풀

옷에 물을 먹이는 데 쓰이는 풀거리에는 주로 쌀과 호보리를 사용하였다. 호보리풀을 만드는 방법은 호보리를 잘 씻은 다음 물에 담갔다가 부르면 절구에서 찧고 찧끼기를 거른 후 풀을 쓴다. 쌀풀은 쌀을 물에 담갔다가 햇볕에 갈아서 앙금을 알현 후 채에 받혀 키라얌은 앙금으로 쓴다. 풀을 예쁘게 떠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 물을 풀 때 서너들은 특히 정성을 들였다고 한다.

모든 옷마다 풀을 먹이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풀도 쌀풀이 좋지만 쌀이 귀하기 때문에 주로 밀가루풀을 사용했다. 그러나 밀가루풀은 잘못하면 풀막창이가 생기는가 하면 풀기는 헛헛하지만 풀 기운이 약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밀가루풀은 일반 옷에 사용하고 쌀풀은 만들기는 번거로워도 좋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옷에 썼다.

### (3) 다듬기와 다림질

풀 먹인 옷이나 구겨진 옷은 다듬이나 흥두께로 뒀다. 다듬이를 사용할 때는 '다듬는다'고 하고, 흥두께를 쓰는 일은 '흥두께 올린(렸)다'고 한다. 다듬이는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 있고, 흥두께는 주로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흥두께는 귀한 것이라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다듬이를 사용하였으며, 명주 등 고급 옷감은 다듬이에서 초벌 다듬기를 한 후에 흥두께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옷의 구김을 펴는 일은 특히 명절이나 혼사 등 경축일의 새 옷을 만들 때 많이 하였다. 이 때면 밤낮으로 다듬이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다림질은 구겨진 옷을 펴는 일을 말하며, 도구는 쇠鐵로 만든 다리미를 사용하였다. 쇠로 만든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솥을 안에 넣어 뜨거운 열로 펴는 이치는 같다. 하나는 위가 트이고 둥글넓적하여 접시 같은 모양을 한 것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잡고 다렸다. 다른 하나는 1960년대 이후에 나온 것으로 뚜껑이 있으며 혼자서 다렸다.

## 2. 식생활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강원도·충청도·황해도와 서로 접하고 있으며, 서해에 면해 있고 동으로는 산지도 있어 산물이 풍요한 지역이다. 음식의 풍은 소박하며 간은 중간 정도, 양념도 수수하게 쓰는 편이라고 한다.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인데 자극이 적은 편이며, 김치류도 간이 짜지 않아 채소의 본래의 맛이 살아 있는 느낌이고 시원한 맛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호박, 감자, 강냉이, 밀가루, 팥 등을 섞어서 만든 범벅이나 풀떡죽, 수제비 같은 양이 많고 구수한 음식이 많다.

### 1) 주식류

보통 밥만 먹기도 하지만 국수, 수제비, 라면 등을 자주 이용하기도 한다. 상차림은 어른만 따로 겸상을 차리는 일은 없으며, 모든 식구가 같이 먹는 두레상차림이었다.

밥은 흰 쌀밥을 주로 먹지만 잡곡밥을 먹는 경우에는 보리, 콩, 흑미 등을 많이 이용한다. 이 외에 빈밥이나 찰밥, 비빔밥이나 볶음밥은 잘 먹지 않고 쌀밥, 콩나물밥 등은 1년에 1~2회 정도로 간혹 먹는 정도이다. 오곡밥은 대보름에만 먹는다고 한다.

국수나 수제미를 썬심이나 저녁으로 가끔씩 먹는다. 국수는 비빔국수나 장국국수로 먹으며, 장국국수의 국물은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낸다. 수제미는 멸치국물에 감자, 파 등을 넣어 끓인다. 죽은 거의 모든 집에서 잘 먹지 않았으나, 라면은 자주 먹는다고 한다. 떡도 자주 먹는 편은 아니다. 인절미, 시루떡, 찜편 등을 보통 때는 사서 먹지만 명절에는 집에서 만들기도 한다.

## 2) 반찬류

### (1) 국·찌개류

국은 감자국, 무 맑은 장국, 된장국 등이다. 된장국에는 배추, 근대, 아욱, 시금치, 시래기 등의 채소를 다양하게 넣고 있다. 찌개로는 된장찌개와 감자, 양파, 소고기 조금에 갖은 양념하여 고추장찌개를 자주 끓여 먹는다.

### (2) 김치류

김치는 배추김치를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봄으로 속을 넣어 담기보다는 썰어서 약김치 형태로 담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열무김치, 총각김치를 자주 이용하고, 깍두기는 자주 이용하지 않았다. 여름에 오이저를 담기도 한다. 김치에 넣는 젓갈은 멸치액젓, 새우젓 등이다.

### (3) 나물류

나물은 농사 지은 것을 이용하고, 산에서 직접 캐어 먹기도 한다. 고사리, 고비,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등의 산나물을 먹으며, 여름에는 호박나물, 가지나물, 비름나물 등을 밭에서 길러 먹는다. 숙주나물은 쉼사 때나 먹는다.

### (4) 젓갈, 장아찌류

젓갈은 집에서 담그지는 않으나 오징어젓, 명란젓 등을 먹는다.

장아찌도 자주 먹지 않으며, 마늘쫑이나 무말랭이, 깻잎, 고추잎으로 장아찌를 만드는 정도이다.

#### (5) 견어물류

견어물도 자주 먹지 않으나 간혹 오징어채, 멸치, 김 등을 이용한다. 멸치로는 국물을 내거나 고추와 볶아 먹는다. 북어보다는 반건조시킨 코다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욱국을 끓일 때 보리새우를 넣기도 한다.

#### (6) 어·육류

주로 먹는 생선은 고등어자반, 꽁치, 갈치, 조기 등이고 조갯살을 넣고 해물탕을 끓이기도 하며 미꾸라지를 이용하여 추어탕을 끓이기도 한다. 추어탕을 끓일 때 미꾸라지는 툇채로 이용하며 소금, 간장으로 간을 하고 익을 때 쫄무늬를 넣으며, 마지막에 두부를 나박나박 썰어 넣고 먹기 직전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어서 먹기도 한다. 돼지고기는 주로 양념을 하지 않고 로스 형태로 구워서 상추와 함께 먹으며, 쇠고기는 가끔씩 국거리로 이용한다. 닭을 먹을 때는 백숙, 도리탕, 양념구이 등 다양하게 조리하여 먹고 있으며, 오리는 양념하여 굽거나 고추장, 된장을 풀어서 탕으로 먹기도 한다. 닭을 기르기는 하지만 질겨서 먹지는 않고 달걀만 받는다고 한다.

### 3)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은 거의 모든 집에서 메주를 쑤어 정월이나 이월장으로 담고 있다. 고추장은 거의가 밀가루 고추장을 만들고 있었다.

### 4) 별식과 시식

#### (1) 별식

주로 해먹는 별식은 부침개 종류이다. 밀가루에 부추, 파, 깻잎, 묵은 김치, 배추 등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가끔씩 부쳐 먹는다.

## (2) 시식

실날에는 떡국과 만두를 준비하며, 만두소의 재료로 두부, 당면, 김치, 숙주, 돼지고기 등을 사용한다. 차례음식을 준비하며, 식혜와 수정과는 집에서 직접 만든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에 나물을 먹고, 부럼을 쪼든다.

추석에는 송편과 제사음식 외에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 송편속으로는 밀, 깨, 콩, 밤 등을 이용한다. 토란국은 끓이지 않고 무, 두부, 고기, 다져마로 탕을 끓인다고 한다.

시월고사는 추수를 하고 난 후, 땅아를 밟은 후 또는 시월 초사흘날에 농사지은 쌀로 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돼지머리를 놓기도 한다고 한다.

동지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기정이 쑤어 먹지 않고 있었다.

## (3) 의례음식

아이의 돌은 보통 집에서 백설기·수수밭박·송편 등의 떡과 비역국을 준비하였으며, 공떡, 실 등을 놓고 돌잡이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특별히 돌상을 차리지 않고 가까운 분들과 저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갑 잔치는 주로 밖으로 나가서 뷔페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집에서 친구분들을 모시고 국수, 떡, 돼지갈비나 쇠고기갈비, 여러 가지 나물 등의 음식을 준비하여 점심 한 끼 정도로 간단하게 치내기도 한다고 한다.

결혼의 음식의 경우, 요즘은 전통혼례를 거의 하지 않고,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음식 대접은 결혼식장에 딸린 음식점에서 뷔페나 음식을 맞춰서 하며, 폐백음식으로는 된, 밤, 대추 등을 준비한다. 쇠고기를 다져서 편으로 만들어 대추를 끼워서 준비하기도 한다.

제사에 준비하는 음식은 탕은 무, 두부, 고기를 넣고 만들며, 나물은 숙주, 고사리, 도라지나 시금치의 3가지 나물, 작은 3척으로 준비한다. 과일도 사과, 배, 감, 귤, 참외, 참외, 수박 중에서 5가지를 놓으며, 떡은 편이나 송편, 시루떡 등을 준비한다. 약과, 유과 등은 사서 준비하며 식혜는 집에서 만든다. 제사에 사용하는 그릇은 주로 목기나 스테인레스로 된 재기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 3. 주생활

#### 1) 주거생활 특성

남양주지역의 민가들은 한국전쟁 때 많은 피해를 받아 파괴되면서 오래된 민가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전쟁 직후에 지어진 가옥들이 많았으며 오래된 가옥들은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지 않은 가옥들이다.

살림집은 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상류주택(반가)의 경우에는 행랑채·사랑채·안채 등 여러 채로 구성되며 각 채의 칸수가 많아 규모가 수십여 칸에 이르는 반면 서민주택(민가)은 안채 혹은 안채와 바깥채(문간채)만으로 구성되고 규모도 작아 십여 칸 내외이다.

실구성(室構成)은 서울지방형 'ㄱ' 자집의 경우에 안방과 건넌방, 대청(마루), 부엌으로 이루어지며 중부지방형 'ㄱ' 자집은 여기에 옷방이 부가된다. 안채에 대청을 두는 것은 서울·경기지역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각 실에 대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안 방 : 안방은 부엌과 붙어 있는 방으로 기능적인 면과 의미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다. 이 지역에서는 안방에서 집안의 어른인 부모가 거처한다. 안방의 규모는 다른 실에 비해 큰데, 이것은 온가족이 밥을 먹는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안방은 임종이 이루어진다는 상징성을 지니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도 쓰인다.

○ 옷 방 : 옷방은 안방의 뒷쪽에 자리하는 방으로서 서울지방형 'ㄱ' 자집에는 없고 중부지방형 'ㄱ' 자집에만 나타난다. 남양주에서는 중부지방형 'ㄱ' 자집이 많아 옷방이 있는 집이 많다. 이 옷방은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생활하거나 세간을 넣어두는 용도로 쓰인다. 안방과의 사이에는 샛문이 있어 이 문을 통해 연결된다.

○ 건넌방 : 건넌방은 안방(중부지방형 ㄱ자집의 경우에는 옷방)과 대청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 건넌방은 'ㄱ' 자집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이 방을 '건넌방', '건너방', '거름방'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이 방은 자식 내외가 거처하는 공간으로 규모가 안방에 비해서 작다. 안방과 건넌방에 거처하는 식구(즉 부모와 자식 내외)의 시선이 방을 열면서 서로 맞닿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 대 청 : 대청은 안방(혹은 옷방)과 건넌방의 사이에 놓여 있는 공간으로 집안의 가



덕봉산신라 복원 이전의 상양문

운데에 위치하게 된다. 이 대청은 바닥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청', '대청마루' 또는 '마루'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는 대개 '마루'라고 부른다. 대청은 안방(혹은 옷방)과 건넌방의 사이에 놓여 두 방을 자연스럽게 격리시켜 주고 마당에서 내부인 방이나, 안방과 건넌방으로 서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다.

○ 부엌 : 부엌은 베치나 평면 구성에 관계 없이 항상 안방과 붙어 있는 공간으로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부엌에는 한쪽에 나뭇광을 두고 전후면에 출입문을 달아 안마당이나 장독대, 뒤뜰로 출입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부엌은 아궁이에 불을 피워 안방과 옷방에 난방을 하고 밥을 짓는 취사공간으로 쓰인다. 부뚜막에는 몇 개의 솥이 걸려 있는데 물을 끓이고, 밥과 국을 하는 데 사용된다.

주거생활과 관련해 시어머니가 일정한 시기에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는 '안방물림'이 있다. 안방은 집안의 여러 방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따뜻한 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안의 중심 공간이다. 안방에 누가 거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안방물림은 안방과 건넌방(혹은 사랑방, 아랫방 등)을 서로 바꾼다는 외형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내외의 거처(居處)가 서로 바뀌게 되며, 심지어 시어머니가 관리했던 집안의 경계권 등 권한까지도 며느리에게 양도되는 경우도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축과 관련된 의례로는 상량식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집을 다 지어 놓고 마룻대(종도리)를 올릴 때 상량식을 지내는데, 이때 집주인이 목수를 위해 여러 음식과 돼지머리 등을 준비해 음식 앞에서 절을 하며, 마룻대에 돈도 놓고 실로 북어를 돌려 맨 후에 마룻대를 올린다. 마룻대인 종도리에 상량문을 쓰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상량문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상량문에는 마룻대를 올린 상량 일시를 기록하며 간혹 기둥을 세운 입주 일시(立柱日時)를 적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생년과 집의 좌향(坐向)을 적고 축원하는 글귀를 적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맨 처음과 끝에 '용(龍)'자와 '구(龜)'자(혹은 '虎'자)를 서로 마주 보게 적는 경우가 많다. 용과 거북은 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집에 불이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수의 동물이자 벽사(辟邪)를 상징하고 있다.

## 제3절 마을의 신앙

### 1.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마을에서 수호하는 신을 마을신당에 모셔놓고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해 해마다 마을공동체 단위로 의례를 행하는 신앙이다. 마을신은 산신·서낭신·장군신·해신(海神)·장승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을신당의 이름은 대체로 동민들이 신앙하는 신격의 명칭에 따라 붙여진다. 산신을 섬기면 산신당, 서낭을 섬기면 서낭당, 해신을 섬기면 해신당 등으로 불리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들 당에서 행하는 제의를 동신제·동제·동고사 등으로 일컫는다.

남양주에서 조사된 마을신은 산신(山神)이었다.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지만 이 역시 산신이며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사실상 산신은 마을신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신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마음은 산을 등지고 남향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에서 산신을 섬긴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길 옆에 서낭신을 모신 서낭당이 있으며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가 있다. 또는 상당·중당·하당의 삼당(三堂)체제로 되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삼당이 축소되어 당이 한 개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 1) 수동면 입석리의 산제사(山祭祀)

입석리 선돌마을에서는 전부터 별도로 제를 지냈다. 원래는 마을에서 보이는 산을 별대미 라고 한다. 이는 밤이 올었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선돌은 산 아래쪽에 있다. 신

아래 마을이니까 산신을 위한다. 그레야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한 해를 지낸다. 이처럼 선돌마을에서는 마을의 평안을 위해 음력 7월에서 8월 사이에 길일을 잡아 산제사를 지낸다. 산제를 지내는 당을 산신당이라고 한다. 섬기는 신은 산신으로 오득산신(남산)과 축령산신(여신)이다. 축령산(祝靈山)에는 조선 태조가 등극 전에 공양미를 올리고 기도드리려고 술을 걸었던 자리가 있다고 한다. 오득산은 태조가 등극 후 산돼지 다섯 마리를 잡았던 곳이라 하여 오득산(五得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위패에는 축령산 산신령님과 오득산 산신령님을 써서 모신다.

제물로 예전에는 소를 잡았으나 현재는 검정색 돼지를 잡아서 돼지머리와 다리, 간을 올린다. 돼지머리와 다리 등은 날 것으로 올리고, 간은 약간 데쳐서 올린다. 단, 축령산은 여산(女山)이라 하여 고기를 올리지 않고, 공양미만 올린다. 공양미는 메(밥)를 뜻하는 것으로 녹음(노구메)이라고도 한다. 오득산은 남산(男山)이기 때문에 특성을 쓴다. 특성이란 짐승을 말한다. 그 밖에 탕과 삼색과일 등을 올린다. 술은 새벽에 당주가 산신당에 올라가서 담귀두었다가 제를 올릴 때 짜서 사용한다. 제사의 사례는 진설→헌작→독축→재배→소지→철상→음복 순으로 유교식 의례절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2) 가운데의 도당제(都堂祭)

가운데 가재울마을에서는 마을의 평안을 위해 도당제를 지낸다. 제지내는 곳은 도당집이라고 하는데 마을 뒤쪽 산에 있다. 도당집 안에는 선반으로 되어 있는 제단이 있고 그 밖에 제지낼 때 사용하는 시루와 접시 등 제기(祭器)가 있다. 도당집 주변에는 당나무로 소나무가 있고 그 밖에 임나무들이 무성하다. 도당집이 예전에는 초가였으나 지난 1970년대를 전후하여 기와를 올리는 등 개축을 했다. 치성을 드릴 때에는 신위를 뜻하는 글씨(지방)를 써서 붙인다.

도당집에 모시는 신은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이며 도당제는 2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 초에 지내는데 5일을 넘기지 않는다. 예전에는 무당을 불러 크게 도당굿을 했었다고 한다.

제관은 음력 9월 말에 마을 대표들이 모여 흙되 색다른 방법을 쓴다. 제관으로 뽑을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쓴 뒤 괄으로 싸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는다. 괄을 싸는 까닭은 물에 가라앉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여 가장 먼저 뜨는 종이에 쓰인 사람이

제관이 된다.

도당에 지내는 날이 택일되면 혹 초상이 나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등 금기가 엄하다. 아기를 낳았을 경우 그 집에서 조용히 하고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장례보다는 덜 금기시 하는 편이다.

제물로는 소의 사족(四足)과 머리, 그리고 꼬리를 삶아 사용한다. 예전에는 술도 직접 담겼으나 요즘은 사서 쓴다. 그 밖에 사과, 배, 감 등 상채실과와 복어포, 꾀시무떡 등을 장만한다.

제를 지낸 때에는 제관과 함께 동네 나이드신 점잖은 분들이 참석한다. 여자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제물 준비를 위해 소임부인들이 참석한다. 도당제는 첫 자시(子時)로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지낸다. 재물을 진설한 후 잔을 올리고 축을 읽으며 재배하는 등 유교식 외에 형식을 취한다. 도당제가 끝나면 제를 주관한 제관들이 도당집에서 간단히 음복한다.

#### ○ 덕릉마을 산신각(山神閣)

덕릉마을 산신각은 별내면 덕릉리 산 5번지에 있는 것으로 1996년 12월 24일 경기도 민속자료 제9호로 지정된 것이다. 산신각은 덕릉마을 흥국사 기기 천 덕릉대원군을 모신 덕흥사 맞은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덕릉리 산신각은 수락산 자락에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하여 기원하기 위해 1882년에 세운 산신각이다.

본래의 산신각은 약 300여 평의 대지에 세워진 것으로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것으로 전달 전면에는 “산신각”이라 희미하게 보이는 현판이 걸려 있고, 맞은편 현판에는 “光緒十四年戊子二十九日造成”이라 하였다. 그 내용은 “대동질(大同秩)”이라는 제목 아래에 37명의 이름과 현남예수, 마지막으로 “순화군(順和郡)”이라는 제목 아래에 12명의 이름과 현남예수가 적혀 있었다. 또 전달 치마의 앞 옆에는 2개의 현판이 글씨가 거의 지워진 채 마주보고 걸려 있는데, 내용은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현남자의 이름과 금액이 적여진 듯하다. 광서는 청나라 덕종의 연호로서 1888년(고종 5)에 해당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산신각은 적어도 3번에 걸쳐 보수된 것으로 보이며 덕릉마을이 덕릉의 건립과 건립한 관계를 갖고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덕릉대군이 대원군으로 추존된 1570년 이후가 될 것이다. 후실의 전면은 6축의 관벽과 관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책거리, 꽃, 왕회문 등을 새겨 호화롭게 단청을 하였으나 많이 퇴색되었으며 중앙의 문짝은 떨어져 나가 무늬함판으로 대체되어 있다. 뒷벽의 윗부분에는 무늬칠을 한 위에 흰칠로 꼬랑이가



마을의 안녕과 풍화를 기원하는 덕동마을 산신각

담배 피우는 그림이 흐릿하게 남아 있다. 후실 안 정면에는 탕화풍의 산신도가 모셔 있는데, 중앙에 산신이 왼쪽에는 호랑이, 오른쪽에 동자 2명, 선조남자 1명, 다승(茶僧) 1명을 거느린 그림이 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마을 주소와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있으며 화가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 약 45년 전까지는 주위 노현면의 노원, 도봉 등에 있는 마을까지 산신제를 지냈는데, 소 한 마리를 잡고 또 대동굿을 매년 음력 1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3~4일 동안 성대하게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현면이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편입된 뒤로는 중계동, 상계동, 창동 등의 일부 원주민들만을 포함하여 추렴으로 1년에 2번 산신제를 지내는데, 제물은 소머리 하나만으로 축소하여 유교식으로 지낸다고 한다. 산신제는 정월과 10월 초하루에 택일하여 동리 사람들 가운데 깨끗하고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 가운데서 화주(당주)를 한 명 뽑아서 밤에 유교식으로 제례를 올린다. 제기는 마을 회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목기·유기·스텐그릇이 뒤섞여 있으며 목기나 유기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고식을 띄고 있어 과거 산신제의 규모와 깊이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새로 건립된 산신각은 1998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산신각은 덕흥사 우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서향하여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에 방풍판을 갖추고 있다. 산신각은 3.1m

×4.1m 크기의 기단 위에 1칸 크기의 기와집이 있는 형태인데 앞부분은 비워두고 뒷부분에 방을 꾸민 전당후실형(前堂後室形)이다. 현재도 매년 음력 1월과 10월에 마을에서 소머리를 제물로 하여 산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 2. 민간의료

### 1) 내과적 의료

- 감기 걸려서 열나고 머리 아프고 기침할 때는 인동명굴, 굴껍질 7개, 대추 7개 모과, 생강을 넣어 푹 달여서 먹인다.
- 과식했을 때는 소금을 먹는다.
- 과음을 하고 속이 괴로우면 때는 오이를 먹는다. 혹은 막걸리에다 설탕을 넣어 딱딱 끓여서 먹는다.
- 늑막염에 걸렸을 때는 닭 뱃속에다 지네를 넣어서 푹 삶아서 먹는다. 혹은 수리취 뿌리를 삶아서 장복한다. 또는 흙애비뿔을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다.
- 담이 걸릴 때는 담배를 피운다. 독한 술에다 철남생이(반어 종류) 말려둔 것을 갈로 굽어서 타서 마신다. 혹은 막걸리에 쓸개를 타서 먹는다.
- 돼지고기 먹고 제했을 때는 산자를 먹는다. 혹은 새우젓을 먹는다.
-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할머니가 싸리비를 등에 대고 "나으라. 나으라."하고 세 번 씌어준다. 어머니가 부뚜막에 불을 피우면서 "개도 두드러기 나느냐. 개도 두드러기 나느냐."하면서 씌어준다. 또는 초가집 지붕짚을 베서 태워 연기를 쏘인다.
- 딸꾹질을 할 때는 감·꽃감꼭지를 삶아서 물을 바시게 한다.
- 변비가 심할 때는 생들기름을 몇 손가락 먹는다.
- 빈혈·선혈증에는 입어를 고아서 먹고, 개고기도 먹고, 몸을 보신한다.
- 쇠고기 먹고 제했을 때는 배를 먹고 매나무 껍질을 빻겨서 삶아 물을 마신다. 혹은 식이버섯을 먹는다.

- 심장이 뛰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돌을 화로에 놓았다 데워서 수건에 싸서 문질러 준다.
- 아이들이 경기할 때는 인중과 인당에 침을 놓는다. 혹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술 뚜껑을 얼굴이 팽글리지 않게 씌워 놓는다.
- 위가 헐었을 때는 감자를 갈아서 생즙을 한 달만 공복에 마신다.
- 이질에 걸렸을 때는 양귀비를 삶아서 물을 마신다. 또는 육모초즙이나 쑥즙을 먹는다.
- 황달에 걸렸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신다. 혹은 오이꼭지, 참외꼭지를 가루로 해서 코에 대고 풀어준다.

## 2) 피부 · 비뇨기과적 의료

- 무좀이 생겼을 때는 귀손이풀을 짓궂어서 사이사이 놓아준다.
- 부스럼이 났을 때는 배꼽과 명치 중간에 뜬을 뜬다. 배꼽과 하원에 뜬을 뜬다. 또는 제독을 하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짜내 준다.
- 아이가 오줌을 싸올 때는 키를 씌워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한다.
- 어른이 오줌소태가 났을 때는 땀싸리(싸리비 때는 나무)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신다.
- 옷이 율랐을 때는 닭을 잡아서 털을 뜯어 튀긴 물을 발라준다. 혹은 밤나무 껍데기를 삶아서 물로 씻거나 날계란을 먹는다.
- 종기가 났을 때는 낮거미 콩지를 빼서 붙여준다. 두꺼비 기름을 내서 발라준다. 쑥을 비벼서 상처에 놓고 쑥뜸을 뜬다(상처가 곪았을 때).
-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인진쑥을 달여 먹는다.
- 요통에는 가만히 누워 있고 지네술을 마신다.

## 3) 정신과적 의료

- 실성을 했을 때는 내버려두거나 무당집에 간다.
- 간질병일 때는 해골물을 먹인다(한국전쟁 당시).

#### 4) 전염병에 관한 의료

- 열병(잠질부사)을 앓을 때는 땀만 내게 한다.
- 화질에 걸렸을 때는 가마니에 말아서 세 번 넘긴다. 또는 냇가에 가서 돌 새끼를 뒤집어 놓고 땀 길로 온다. 혹은 놀라서 무섭게 한다. 반아라는 밭에서 나는 약초를 먹는다. 뱀을 잡아서 갖다 던진다. 육을 먹으면 낫는다.
- 풍역을 앓을 때는 산골짜기에 가서 가개를 잡아다 생즙을 내서 먹는다. 그러면 열이 빨리 쏟는다.

#### 5) 산부인과적 의료

- 산후 부종에는 가물치를 삶아서 먹는다. 호박에 꿀을 넣어 꼭 찌서 호박물을 먹는다.
- 첫아이(공우리) 할 때는 솔무늬 계란 것을 삶아서 씻물을 마신다. 남편 앞발을 뜨끈 뜨끈하게 해서 문질러준다. 또는 도끼를 삶아서 그 불로 찜질한다.

#### 6) 외과적 의료

- 카래뿔이 찢을 때는 뱀 꼬리를 잘라다 붙인다.
- 개에게 물렸을 때는 그 개의 털을 잘라서 불에 태워서 붙인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콩으로 싸매 준다.
- 못이나 철사에 찔렸을 때는 찔린 곳을 망치로 쳐서 피를 나게 한다.
- 발이 베었을 때는 발을 맞추고 버드나무 썩은 것을 갖다 붙인다.
- 손이나 발이 베었을 때는 힘을 맞는다. 쫓물로 3번만 놓을 떨어뜨린다.
- 뱀에게 물렸을 때는 쌍둥이를 낳은 엄마 머리를 뽑아서 상처 근처를 감아주고 상처를 입으로 빨아낸다.
- 벌에 쏘였을 때는 가사를 빼내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바른다.
- 입이 들어갔을 때는 동쪽으로 난 대추나무 가지를 귀에다 건다. 혹은 실에다 올린 올 문혀서 귀에 걸어서 탁 놓는다.

- 치질에 걸렸을 때는 담배를 붙여주거나, 사금파리(도자기)를 가운데 구멍을 뚫고 송곳을 달구어서 상처에다 댄다. 또는 소금으로 문지른다.
- 칼이나 낫에 베었을 때는 담배가루를 싸매 주거나, 오징어뼈를 칼로 굽어서 넣고 싸매 준다. 아무 풀을 세 가지만 뜯어 싹싹 비벼서 대주고 지혈을 시킨다.
- 타박상을 당했을 때는 변소에다 용수를 넣고 눌러서 맑은 물을 떠서 그 물을 먹인다.
-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간장을 바른다. 감자를 갈아서 붙여준다. 혹은 소주를 바른다. 찬물에 담근다.

## 7) 안과적 의료

- 눈에 삼이 섰을 때는 대문에다 화상(얼굴)을 그려놓고 눈에다 고챙이로 해뜰 때 꼭 찌른다.
- 눈에 다래끼가 났을 때는 눈썹을 빼서 종지에 놓고, 길거리에 갖다 놓은 다음 누가 밟로 차게 한다.

## 8) 이비인후과적 의료

-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반대편 귀를 막으면 나온다. 혹은 조청물을 바르기도 하고, 콩알로 막는다.
- 목이 설 때는 계란에 식초를 타서 마신다.
- 코가 막힐 때는 파 하얀 쪽을 코에 대준다.
- 코피가 많이 날 때는 고개를 쳐들고 뒷목을 약간 쳐준다. 혹은 턱밑을 눌러주고 찬 물로 머리를 두드려 준다.

### 3. 속신

#### 1) 동물과 관련된 속신

- 개가 나가면 집안 복이 따라 나간다.
- 개가 집안에 땅을 파면 집안이 망하고, 개가 울면 그 집이 안 좋다.
- 개가 집에서 나가면 다른 사람 대신 나갔다고 찾지 않는다.
- 구렁이가 집을 나가면 업이 나간다. 집안이 망한다.
- 까치가 울면 길조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온다.
- 봄철에 처음 보는 나비는 노랑나비, 호랑나비가 좋다. 흰나비는 부모상을 잃는다.
- 여우가 뒷산에서 울면 사람을 잡아간다. 마을이 안 좋다.
- 집 가까이 까마귀가 와서 울면 사람이 죽는다. 재수 없다.

#### 2) 식물과 관련된 속신

- 비올에 고목의 잎이 아래서 먼저 피면 그 해의 농사가 좋고 꼭대기부터 피면 그 해의 농사가 좋지 않고 불리하다.
- 마을에 큰 고목이 잎이 무성할 때 베면 동네가 안 좋고 나무를 베는 사람도 안 좋다.
- 봄에 보리뿌리를 캐서 뿌리가 좋으면 농사가 잘된다. 또는 보리뿌리가 하얀 뿌리가 세개 있으면 흉년이 들고 한 개, 두 개는 흉년이 든다고도 한다.
- 집안에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귀신을 쫓고, 세사때 조상님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지 않는다.

#### 3) 물과 관련된 속신

- 동네 우물이 뒤집히면 좋지 않고 불마스러운 일이 생긴다.

#### 4) 사람과 관련된 속신

- 그 해에 직성(삼재)이 들면 삼재풀이를 한다. 잘 좋게 나가게 해달라고 소지를 올린다. 벼섶쪽을 용마루에 꽂아놓는다. 짚으로 재웅을 만든다.
- 남의 집에는 복을 뺏긴다고 하여 불을 주지 않는다.
- 눈썹이 길고 많으면 장수한다고 하며, 정이 많다고도 한다. 그러나 눈썹이 진하고 긴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한다.
- 머리카락은 한꺼번에 모아서 태운다.
- 문지방, 부뚜막, 장독에는 재수 없다고 함부로 앉지 않는다.
- 발을 떨어 복이 나간다고 한다.
- 밤에 마당을 쓸면 좋지 않다.
- 손이 길면 게으르다.
- 손톱·발톱 깎아서 아무데나 안 버리고, 불에 넣지 않고, 밤에 짖지 않는다.
- 여자가 정초에 초사흘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 이빨을 빠면 지붕에 버린다.
- 이사가는 날만 아랫목에 머리를 두고 잔다.
- 이사를 할 경우 그 집에 우물이 있으면 우물부터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갈 때는 화로가 먼저 나간다.
- 임신부 배를 보고 앞이 뾰족하면 딸이고 두루뭉실하면 아들이다. 또는 임신부가 앉았다 일어서면서 왼발부터 떼면 아들, 오른발부터 떼면 딸이라고 한다.
- 잘 때는 북쪽이나 아랫목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
- 초상집에 갈 때는 계장을 세 번 먹고 계발을 넣어 갖고 간다.
- 출산 후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금줄을 친다.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숯과 고추를 넣고 새끼를 모아서 친다.
- 출산을 하면 금줄을 치고 이웃집에서는 피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

#### 5) 꿈에 관한 속신

- 개꿈을 꾸면 좋지 않다.

- 꿈에 바다나 강물을 보면 아프다. 그러나 좋다고 하기도 한다.
- 꿈속에서 지율이 깨지면 좋지 않다.
- 꿈에 돼지를 보면 복꿈.
- 꿈에 뱀을 보면 망한다. 그러나 큰뱀꿈은 태몽이라고 한다.
- 꿈에 쌀을 보면 재수가 있다.
- 꿈에 용을 보면 만사태평하고 용꿈은 태몽이라고도 한다.
- 꿈에 조상이 보이면 보여서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일은 미리 알려준다. 조심하라고 예조를 해준다.
- 꿈에 큰돈을 받으면 좋은데 적은 돈은 좋지 않다.
- 말꿈을 꾸면 안 좋다.

## 6) 기타 속신

- 이사를 가면 부정물이 한다고 여기저기 기둥이나 동쪽에 팔죽을 끓여서 뿌린다.
- 간장 담을 때 고추, 술을 넣는 것은 부정·잡귀가 못 들어오게 하고, 버선 그림을 거꾸로 붙이는 것은 장맛이 변하지 말고 좋으라고 한다.
- 도둑을 잡는 방법은 술에 물을 부어놓고, 시루를 얹고, 상여에 있는 꼬나물을 갖다 찌면 가져간 사람의 손발이 마비가 된다.

## 제4절 놀이문화

### 1. 퇴계원산대놀이

현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에서 연행되었던 퇴계원산대놀이의 기원은 서울의 아현동·녹번동·사직동·구파발·노량진·송파 뿐만 아니라, 의정부 등지에서 널리 공연하였던 본산대놀이에서 기원하고 있다.

현 퇴계원면 일대에서도 독자적으로 공연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 이르러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놀이는 1920년대까지도 전승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퇴계원 일대는 조선 후기 옛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써 근교 상업과 소비재 산업이 활발했는데, 당시 100여 호의 객주와 역원이 왕숙천을 끼고 크게 발달해 있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의 장사를 순회하며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활동도 더욱 활기를 띠게 만들었다.

퇴계원 일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연행(演行)이 이루어져 점차 주위에 회자되고 명성을 얻어간 것으로 보인다. 놀이가 거듭되고 확산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성을 띠고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음은 당연했을 것이다.

본래 광해군때 산대놀이를 주관하는 산대도감이 설치된 바 있었다. '산대'란 '산과 같이 높은 무대'를 가리키는데, 이 무대를 만들어 연행된 놀이는 주로 외국 사신을 영접할 때나 나례의식 때,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주관할 때, 왕의 각종 행사 때, 왕후의 잉태를 축하할 때, 각종 궁중잔치 때, 지방관리를 환영할 때 공연된 국가적 차원의 여흥이자 행사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민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퇴계원산대놀이도 이 같은 확산과정에서 지역화된 놀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 특히 1920년대 이후 퇴계원 일대의 산대놀이는 급속한 쇠락과정을 거친다.

일본 경찰은 산대놀이 구경꾼들을 해산시키고 연행자의 탈과 의상·악기를 압수하여 불태우는 탄압정책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일제는 미신적이라는 명목으로 조선 전래의 권통적인 풍습을 소멸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퇴계원산대놀이의 명맥은 급속히 쇠퇴해 갔다.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때 산대놀이가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시연 당시의 발이 남아있는 점으로 볼 때, 이같은 연행의 소멸은 무엇보다도 일제의 의도적인 탄압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언제인가부터 퇴계원산대놀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K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퇴계원산대놀이의 시작과 소멸 과정, 산대놀이에 동원되는 발, 시연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방송한 것에서 그 단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래 전승된 지역놀이를 복원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담아내려는 노력이다.

퇴계원산대놀이는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면극은 앞놀이, 본놀이, 뒷놀이 등의 3단 구성을 취한다. 앞놀이는 대동놀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제의의 성격과 신명놀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마을 전체의 구성원에게 놀이가 있음을 알리고 여기에 정서적 동참과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놀이는 12마당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새 가지 커다란 주제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노장 이하 중들의 타락을 풍자하는 과장이다. 두 번째는 양반과 말뚝이의 대결을 통해서 상층과 하층의 계급문제를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퇴계원산대놀이에서 말뚝이와 함께 의막사령이라는 최목이가 풍자에 동참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대단히 높이고 있다. 세 번째는 신할아미와 미알할미의 갈등을 통해서 기부장직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철저하게 민중의식에 입각해서 함유된 연극이다.

뒷놀이는 뒷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놀이꾼과 구경꾼이 하나가 되어서 신명을 흥고 크게 화합하는 잔치의 성격이 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산대도감 계층의 탈놀이와 공통된 내용으로 구비문학과 바참가지로 파계승, 물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기타의 노유 선민들의 등장을 통하여 현실 폭로와 풍자, 호색, 웃음과 탄식을 보여주며, 그 주제는 크게 나누어 파계승놀이와 양반놀이와 서민생활상을 보여주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국 가면극의 연출 형태와 마찬가지로 음악 반주에 춤이 보태지고 노래가 따르

는 가무적 부분과 연극적 부분으로 구성·상연된다.

평범한 일상 회화조의 대사이며, 움중춤과 취발이의 대사는 이 놀이의 대사 중 재미 있는 것으로 관중의 재미를 끌었다.

노래는 경기민요에 바탕을 둔 선소리 계통의 소리이며, 덕담, 시조, 가사 등이 나온다. 민속예능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연출시간에는 제한이 없어 저녁에 시작하면 보통 5~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춤사위의 분류는 크게 거드름춤과 깨끼춤으로 크게 나뉘고, 각각 20여 종류로 세분되어 한국 민속무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60여 년만에 12과장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여 활발한 전수활동과 공연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12마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길놀이
- 서막고사
- 상좌춤
- 움중과 상좌
- 먹중놀이
- 연잎과 눈끔적이
- 애사당놀이
- 팔먹중놀이와 노장놀이
- 신장수놀이
- 취발이놀이
- 의막사령놀이(청직이 놀이)
- 포도부장놀이
-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
- 덧풀이

## 2. 잉어잡이 열두바탕

### 1) 열두바탕 그물의 종류

그물은 대개 12번을 치게 되는데 한 바탕에서 잉어잡이를 한 후 잉어잡이가 대충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아랫그물은 그대로 두고 윗그물만 걷어 다음 바탕의 아랫그물을 치는 데 사용한다.

#### 제1바탕 : 너래그물

윗그물은 소내섬(蘇內島) 하류인 남양주시 초안면 능내리 마재마을과 광주군 남종면 이석리 사이에 가로질러 놓는다. 아랫그물은 초안면 마재마을의 용암나무와 하남시 배일리동(伊井里洞) 윗배알미마을 사이에 놓는다. 이 지점은 강폭이 넓고 상류에 급류가 있어 두껍게 결빙(結氷)되지 않는다.

#### 제2바탕 : 마당서그물

윗그물은 첫째 바탕인 너래그물의 아랫그물을 그대로 사용한다. 아랫그물은 옛 봉안역지(奉安驛址)와 발전소 사이에 놓는다. 이곳은 잉어의 어회량이 많다. 그물 설치를 끝내고 영좌(嶺座)는 머리값을 지불하고 안방에 입장하여 각자 자리를 잡는데, 좋은 자리(魚路)를 잡기 위해 싸움도 불사한다.

#### 제3바탕 : 필그물

셋째 바탕으로 지금의 팔당댐 바로 상류쪽에 아랫그물을 친다. 필이 있는 곳으로 잉어가 별로 잡히지 않아 바탕을 취소하고 건너뛰기도 한다.

#### 제4바탕 : 마늘그물

팔당댐 하류쪽과 하남시 아래배알미마을 사이에 아랫그물을 놓는다. 잉어를 말(鱖)로 뜬다, 또는 말로 걸어 돌린다고 불린 이름이다. 큰 그물이다.

#### 제5바탕 : 복자그물

아랫그물을 수위관측소와 뽕피상 사이에 놓는다. 잉어는 대체적으로 잘 올라온다

#### 제6바탕 : 고든골그물

아랫그물을 예방산 끝자락인 두미마을에서 가로질러 놓는다. 다른 지역보다 강이 곧게 뻗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잉어는 보통으로 잡힌다.

**제7바탕** : 북쟁이그물

팔당유원지 부근에 아랫그물을 놓는다.

**제8바탕** : 서당그물

팔당역과 하남시 바깥창모루 사이에 아랫그물을 놓는다. 두미강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잉어를 수심이 얇은 쪽으로 물기 위해 밤에 불을 피워 불머리(참물이)를 하는데, 그 정경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제9바탕** : 쌍가심그물

12바탕 중 강폭이 가장 좁은 메기(목 : 잘록한 부분)이며 그물은 7~8대(약 200m)를 놓는다. 물은 깊다. 쌍가심은 두 가슴을 말하는데, 두 발의 뜻으로 좁다는 말이다.

**제10바탕** : 운버들그물

아랫그물은 상팔당 부근에 설치하며, 깊은 물이다. 그물은 12대(350m)를 내린다.

**제11바탕** : 괴마루그물(으뜸)

지금의 팔당대교에 아랫그물을 놓는다. 12바탕 중에서 가장 큰 그물로서 12대(350m)를 내린다. 잉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마들에 이어서 두 번째 슬청이 벌어진다.

**제12바탕** : 덕반그물(떡판)

팔당대교 바로 하류인 하팔당과 더우개 사이에 아랫그물을 놓으며, 3개월여의 마지막 바탕으로 흐릿하고 만족스러우면 내년을 기약하며 그물을 걷게 된다.

## 2) 인원 구성

- ① 그물주 : 그물의 주인으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전체 경비를 부담한다.
- ② 영좌(嶺座 : 우두머리) : 유료고용인 1명, 영좌는 입심(입답)이 좋고 건강한 사람으로 정한다.
- ③ 머리괴(머리꾼) : 유료고용인 16명, 입장료 징수도 담당한다. 머리치는 사람으로 작은 머리토막은 6개인데 1개에 두 명을 배치하여 12명이, 큰 머리토막은 1개인데 4명이 붙는다.

### 3) 잉어잡이 방법

인원 배치를 끝내면 그물 내릴 위치를 선정하여 쓰리로 얼음 구멍을 뚫고 장대(그물 닻)로 수심을 측정하여 적당한 그물을 고른다. 그물닻의 길이(5m)를 간격으로 하여 강 쪽 전체에 연속적으로 얼음 구멍을 뚫어 나간다. 그물닻 끝에 그물 끝을 낚끈으로 묶어 1공(孔)에서 2공으로, 3공에서 3공으로, 계속 주고 받기를 반복하여 마지막 공까지 그물을 내린다. 이때 걸린대로 그물닻을 유도한다. 그물은 얼음 밑에서 아래돛의 무게로 강 바닥에 닿게 되어 잉어가 빠져 나갈 수가 없다. 동면(冬眠) 중인 잉어는 항상 강바닥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바닥에 공간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물이를 시작할 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

영좌는 “머리친다.”라고 큰 소리로 신호한다. 영좌의 구멍에 맞추어 머리괴들이 머리 토마을 올렸다가 얼음을 내리치면 큰소리로 잡자던 잉어들은 놀라 혼비백산하여 아래그물 쪽으로 도망친다. 큰 그물(같은 물을 말함)을 칠 때는 큰머리토마으로 얼음을 쳐 물이 나간다.

다음은 머리괴들이 빠른 동작으로 윗그물을 내려 잉어가 강 상류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에 아랫그물을 들어 강 하류에서 잉어를 물이와 잉어가 모이면 아랫그물을 내려 양 쪽 그물에 잉어를 가둔다. 윗그물과 아랫그물 사이에 갇힌 잉어를 견머리(견몰이)를 하여 한쪽 강변으로 다시 물이를 한다. 모는 곳을 ‘벗방’이라 하고 잉어가 물려 갇힌 곳을 ‘안방’이라 한다.

낚시꾼들은 고깃길(魚路)을 정확히 찾아 자리를 잡은 다음, 얼음 구멍을 3개 정도 뚫고 낚시를 시작한다. 그러나 익숙지 못한 초보 낚시꾼들은 고깃길을 찾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았다.

고깃길의 바닥까지 낚시를 드리우고 있으면 잉어가 낚시줄을 미끼로 잘못 알고 물러들다가 줄을 건드리면 물 위의 찌가 흔들리는데, 이때 빠른 동작으로 낚시줄을 잡아챈다. 직경이 무려 13cm가 되는 삼봉낚시 바늘 3개 중 어느 바늘에라도 잉어의 몸통이 꽂혀 잡히게 된다. 낚시에 잉어가 걸려 잡히면 낚시꾼은 즉시 “대했다.”라고 큰 소리를 쳐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알리지 않고 있다가 힘있는 잉어가 빠져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옆 사람의 낚시와 뒤엎기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잉어의 힘을 빼기 위하여 고기눈림으로 잉어가 탈진 상태가 되면 꼬납으로 끌어 올린다. 특히 마당서, 마들, 괴머리 새 비탕에서는 밤낮으로 며칠씩 잉어잡이가 계속 되었다.

잉어가 잡히지 않으면 다음 바탕으로 옮긴다. 그물주가 그물을 걷을 때 그물에 걸려 있는 잉어가 몇 가마씩 나오는데 잉어를 사러온 인근 주민과 구경꾼들에게 팔게 된다.

대체적으로 열두바탕이 모두 끝나고 나면 해동기를 맞는데 이미 이수두(二水頭)에서는 얼음 조각이 피내려와 첫바탕인 너래그물 바탕에 쌓인다. 잠에서 덜 깬 잉어들은 얼음 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한 그물을 더 쳐 잡는다. 이를 "쇠속 털어 먹는다"라고 한다.

### 3.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져 세시풍속의 성격을 지닌 세시놀이와 시기에 관계 없이 수시로 행하는 일반 놀이가 있다. 우리의 민속놀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즐기기 위한 여가나 오락의 차원을 넘어서 유희성·경쟁성 뿐 아니라, 노동에 활력을 넣어주는 기능성과 종교성까지 갖추고 있다.

남양주시 민속놀이는 현재 율놀이 정도가 행해지고 있을 뿐이지만, 1936년의 조사에 의하면 널뛰기, 달맞이, 다리밟기, 연날리기, 돈치기, 돌차기, 산놀이, 버들피리, 복놀이, 숭바꼭질, 각시놀이, 실뜨기, 썰매타기, 씨름, 제기차기, 종경도놀이, 줄다리기, 쥐불놀이, 고누, 공기, 팽이치기, 풀겨루기, 활쏘기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놀이들이 전승되고 있었다고 한다.

#### 1) 정월 율놀이

정월에는 널뛰기와 율놀이를 혼하게 놀았다. 남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술내기 율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강릉에 불을 넣고 돌리는 쥐불놀이를 하였다. 화도읍 가곡리에서는 정초부터 시작하여 정월 보름 전까지 놀았는데, 정월 16일은 일을 하면 좋지 않다는 귀신날이라 하루를 더 놀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로 돼지새끼를 상품으로 걸어 놓고 율놀이를 하였는데, 마을 은행나무 옆 공터에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편을 나누

어 시합을 하였다. 예전에는 공물과 두레기가 있었으나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숲은 밤나무 가지를 20cm 길이로 다듬어 만들어 썼다.

## 2) 오곡밥 훑쳐먹기

장월 열나흘날 저녁 이른 시간에 오곡밥을 해먹는데, 아이들 여럿이 모여 이집 저집 다니면서 오곡밥을 훑쳐먹는 장난을 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무리를 지어 다니고 젊은이들은 또 그들끼리 레를 지어 다니며 오곡밥 얼어먹기를 한다. 젊은이들은 밥을 훑쳐가기도 하는데, 이 날 밤에나 할 수 있는 장난이었다.

## 3) 봉치기와 찜뽕

가곡리 풍양마을 노인들이 어릴 때 하고 놀았던 놀이로 봉치기라는 것이 있었다. 선에 나무하러 올라가서 하는 놀이로 작은 나무막대기로 작은 둥근한 나무토막을 쳐서 골대 안에 넣는 놀이다. 요즘하는 하키같은 놀이였는데 아이들만 하는게 아니라 어른들도 나무를 하러 가서 많이 하였던 놀이다. 그 외 야구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놀이로 공을 던지고 받는 '찜뽕' 라는 놀이도 하였다.

## 4) 새끼공차기

새끼줄을 공중 감아 축구공만한게 둥근 공을 만들어 논에서 공차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은 수박 크기 만한 새끼공을 만들어 지금의 하키와 같은 공차기도 하였다. 약 1m 정도 되는 넓이로 양옆에 돌을 놓아 표시하며 만든 골대에 끝이 구부러진 막대를 이용하여 공을 쳐넣는 것이다. 논이나 얼음위에서 하는 놀이로 특별히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람 수대로 편을 갈랐으며 따로 심판도 두지 않았던 자유로운 형식의 공차기놀이였다. 일 대 여섯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이 놀던 놀이였다.

## 5) 자치기

아이들 놀이 중에서 자치기도 많이 하였던 놀이다. 놀이방법은 먼저, 20cm 정도되는 막대와 50cm 정도되는 자를 준비한다. 보통 나뭇가지를 칼로 깎아 만든다. 그리고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막대를 구멍에 비스듬히 세운다. 자를 이용하여 막대를 멀리 치냈을 때 상대방에서 이 막대를 받으면 지는 것이고 못받으면 날아간 거리를 자로 재어 더 멀리 친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주고 받는 것이 없는 빈탕내기를 많이 했다. 사람 수대로 편을 나누어 하는 놀이다.

## 6) 기타 놀이

'수제비 떠먹기'라고 하여 강가에서 하는 놀이가 있었다. 강가의 납작한 돌을 찾아 물 위로 던지면 몇 번씩 튀어 오르면서 나아가는데, 그 튀는 수를 세어 내기를 한다. 돌이 여러 번 튀면서 멀리 나간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밤에 모여서 "꼭꼭 숨어라" 하고 놀던 '술래잡기놀이', 멀리서 돌을 쳐맞추는 '비사치기', 얼음판 위에서 하는 '빙이치기'와 널판지에 철사를 끼워 만든 '나무판 스케이트 타기', 여름에는 개울에서 헤엄치고 '물놀이하기', '오이서리하기', 8~9월에는 '콩서리하기', 가을에는 '복숭아서리', '배서리', 그리고 겨울에는 무우구덩이에서 '무우서리해먹기', '연날리기'도 재미있는 놀이었다.

밤중에 무등을 서서 올라가 초가집 구멍에 숨은 새를 손으로 잡아 구워 먹는 것도 한 놀이었다. 여름에는 '새알 구워 먹기'도 재미있다. 새알을 굵은 파대뿔에 여러 개를 꿰 넣고 불에 구워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놀이들이다.

## 4. 지역축제

남양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다산문화제를 들 수 있다. 1999년까지 13회를 개최하는 동안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반등올하고 있다. 다산문화제는 다산 정약용선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1986년 처음 개최되었다. 다산 정약용선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예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산문화제는 크게 조안면 농내리의 다산묘역을 참배하는 것과 기념식, 그리고 백일장, 미술대회, 휘호대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강연회, 1993년부터는 다산 정약용의 저서인 목민심서에 의거해 귀감이 되고 있는 공직자에게 목민문화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다산문화제 행사내용

| 행 사 명  | 장 소      | 주 요 행 사 내 용               |
|--------|----------|---------------------------|
| 세계음악제  | 두물위크샵    | 실내악공연                     |
| 강연회    | 시정대회의실   | 다산의 사상강연회                 |
| 길놀이    | 금곡동시가지   | 풍물놀이                      |
| 축하공연   | 시정문동장    | MBC라디오 공개방송               |
| 체육행사   | 상업은행구장   | 풍물, 에어로빅, 태권도, 검도 시범      |
| 기념식    | 다산유적지    | 모소 참배, 목민문화대상, 시인학생문예경진대회 |
| 청소년예술제 | 시정대회의실   | 청소년대상 음악공연                |
| 학술발표회  | 제2청사대회의실 | 남양주역사위원 발표회               |
| 그림미인선발 | 시정대회의실   | 녹색아가씨 선발, 연예인 초청공연        |
| 무대행사   | 전시장, 야외  | 작품전시회, 마당극추향전, 문학의 밤 행사   |

남양주시 문화공간

| 주 회    | 대표자 | 장 소     | 내 용         |
|--------|-----|---------|-------------|
| 두물위크샵  | 박관수 | 화도읍 금남리 | 음악회와 위크샵    |
| 도자골 달의 | 윤석경 | 화도읍 월산리 | 도예교실과 전시회   |
| 오린미술관  | 이연수 | 화도읍 월산리 | 미술학교, 오린미술제 |

### 남양주시 문화행사

| 월   | 행사명           | 장소     | 행사내용          | 주관        | 시작연도    |
|-----|---------------|--------|---------------|-----------|---------|
| 2월  | 도립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시청대회의실 | 클래식 및 팝 연주    | 예총남양주지부   |         |
| 6월  | 국악한마당         | 시청대회의실 | 경기도립국악단공연     | 예총남양주지부   | 1998. 6 |
|     | 구남미술전         | 전시회장   | 미술작품전시회       | 구남회       | 1989. 6 |
| 8월  |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 강변     | 국악, 무용, 연극 공연 | 예총남양주지부   | 1998. 8 |
| 9월  | 동구문화제         | 동구릉    | 태조고황제 제례봉행    | 남양주문화원    | 1983. 9 |
|     | 모란미술대상전       | 모란미술관  | 중견작가 공모전      | 모란미술관     | 1995. 9 |
| 10월 | 다산문화제         | 다산유적지  | 문예경진대회        | 남양주문화원    | 1986.10 |
|     | 시인의날 행사       | 학교운동장  | 체육행사          | 남양주시      | 1995.10 |
|     |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 시청대회의실 | 녹색아가씨 선발      | 남양주문화원    | 1996.10 |
|     | 남양주시 미술협회전    | 시청전시장  | 지역미술가 작품전     | 남양주시미술협회  | 1996.10 |
| 11월 | 사진전시회         | 시청전시장  | 관내사진 전시       | 중앙사진동호회   | 1990. 7 |
|     | 청소년예술제        | 시청대회의실 | 청소년예술발표회      | 남양주시음악협회  | 1997.10 |
|     | 문학의 밤         | 시청대회의실 | 시낭송회 등        | 남양주시문인협회  | 1996.10 |
|     |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시청대회의실 | 합창곡 발표        | 남양주시여성합창단 | 1995. 1 |
| 12월 | 우리가락 경연대회     | 시청대회의실 | 국악, 판소리 경연    | 남양주시      | 1995.12 |
| 연중  | 토요콘서트         | 시청대회의실 | 안예인초청 콘서트     | 남양주시      | 1996.10 |
| 연중  | 무료시민영화관       | 시청대회의실 | 영화 상영         | 남양주시      | 1996    |
| 연중  | 두물위크샵 공연      | 화도읍    | 세계음악가 초청공연    | 남양주시두물위크샵 | 1997    |

## 제5절 전해오는 옛이야기\*

### 1. 친정 묘자리를 뚫어 시아버지 묘자리를 쓴 딸

석실은 옥호지수(玉壺之木)라고 하는 명당자리가 있는데, 한국의 말대 명당의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김새가 별처럼 생겨서 옥호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게 어느 산은 별마케다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 산소를 쓸 당시에 남양홍씨네서 놀 아가실 분이 아버님이 아들들을 전부 불러서 아무도 못들오게 하고 아들들만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시집간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래 웃방으로 가서 엿들은거라 말여,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내가 죽거든 어디 어디 어떤 자리에다 어떻게 쓰라고 알려 줬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중을 봤는데 거기다가 이 딸이 남양홍씨네 오라버니들이 파 놓은 자리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밤새도록 들어갈 적에는 무거우니까 산을 바르게 신고 가고, 내려올 적에는 산을 거꾸로 신고 내려오고 그렇게 밤새도록 물을 떠다 부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자리만 있고 나온 자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 밤새도록 물을 떠다 부었는데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딸이 흠뻑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쓸 수가 없다 이거요. 도저히 아버님 땀을 따를 수가 없구나, 이거 잘못 보셨나 부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다른 데다가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동김씨로 시집간 딸이 오라버니 우리는 자리가 없고 그러니 이 자리라도 적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좋지 않은 자리라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다면 니가 써라 해서 안동김씨네가 조상을 거기다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김씨네 그

\* 이 이야기는 소개되는 옛이야기는 서양주자리 여러 이름의 혼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편집권을 살리기 위해 해당 당시의 어휘를 그대로 기록하였다.



석십마을의 안동김씨 김번 묘

세력이 거기서 나왔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호지수에 명당은 금관자 서말에 옥관자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쓰고 그렇게 많은 벼슬을 한 집안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리도 자리지만, 그 묘를 쓰는 혈맥을 정확하게 잡은 것이고, 혈맥에 그 꼭 지점이 있는데, 그 맥이 있으면 그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있으면 용이 있는데 그 용이를 영락없이 알고 그대로 썼고, 용이에서 다시 가지가 나면 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또 용이에다가 망두석을 영락없이 박았어요. 그리고 그 혈맥의 넓이 그대로 딱 들어맞게 상석이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대로 이거는 그렇게 가르켜줘서 자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아마 대단하게 힘을 하는 사람이 쓴 것이고, 이것은 전설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안동김씨들한테 한 번 알아보니까 안동김씨네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안동김씨네 들어가시는 분이 어떻게 그 명인(중이라고 하는데, 도사라고 얘기를 한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도를 아는 도승을 알아서 좋은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은혜를 베풀려면 자리를 하나 봐주겠다 해서 그 자리를 봐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본인 생각에는 야화보다는 그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영락없이 짚어서 썼



거북이의 형상이 특이한 조말생 요지

거든, 본인이 혈맥을 좀 아는데, 요즘에 물줄기를 본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한 번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었어요. 그런 것이 무슨 뭐,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제보자 : 안태훈

## 2. 명지관 조말생

양주조씨가 옛날서부터 얼마나 명지관이던지, 그 자리를 쓸 적에 어떻게 매었는지 사백 년 후에 이 산소를 도까내는데, 독관해다가 쓰기는 서울에다 갔다 쓰는데 여기 조말생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그 때 오대손이 나는데, 오대손이 날 때 그 때 조말생이가 그

때 파내게 됩니다.

그렇게 전설을 꾸면서 지식에다 새겨 넣었드래, 그렇게 아는 지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거북석, 거북을 바위로 깎아서 거북석을 해 놓았는데, 그 놈을 거 세원을 가지고 갔네. 가지고 가는데 동글목을 깎아 놓고 지계질을 할라치면 조금 조금씩 굴러가면 또 동글 나무를 거기 앞애다 놓고, 그래 몇 날 며칠을 거기를 가져갔대요.

그 무거운 돌을 맨날 봐도 그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가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 자리에 놓고는 거기가 묘자리라고 묘를 쓸려고 파느라고 그 난리를 치고, 안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 능자리가 된다고 지식을 새겨 넣었으니 그만큼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큰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툭 끊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솟아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형상이 된 거라고, 지관이 지식을 넣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나중에 능자리 삼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가 능자리가 된다는 지관이 나서서 하니까, 나라에서 한다니깐 안내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능자리를 쓰기 위해서 파내야 한 다니까 안파낼 수가 있어, 지금 같으면야 안파도 돼지만, 지금 같아도 정부에서 파래면 안팔 수가 있나.

□ 제보자 : 최병욱

### 3. 최풍 할아버지 이야기

#### 호랑이 농친 이야기

최풍할아버지는 원래 이 마을에 사셨던 분인데, 얼마나 허풍이 심하던지 이 마을에서는 유명한 허풍쟁이었다고 한다. 덕소에는 유명한 싸움꾼들이 많았는데, 최남이씨도 태권을 하신 양반이다. 그 양반이 40세 때 6·25 당시 저쪽 한강변으로 인민군이 끌고 가는 것을 그냥 밭로 착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총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도망을 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그전에 지금 화장실, 그 변소간에 저녁에 뒤를 보러 갔는데, 원래 호랑이는 어디 들어갈 적에 뒤로 들어간다는 거죠. 뒤로 인제 풍지를 흔들어 가면서 뭐가 있나 해 가면서 들어오는데, 아 해필이면 뒷간에 앉아 있는데,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뒤를 보는데 글

로 들어온단 말여.

그러니까 그 때는 노인네도 아니지 젊은 댜데, 아이 큰일났다 말여. 호랭이가 들어와서 보게 되면 입이 날텐데(죽음텐데). 큰일났다 이거. 그래서 얼떨결에 호랑이 꼬리를 꼭 짚었다 이거지. 그래 번을 보는 때니까 그런 때 호랭이꼬리를 꼭잡으니까 호랭이가 꺾박 놀래 가지고 이게 민제 용을 쓰고 도망 갈라고 그럴꺼 아냐.

그런데 아 그 호랑이가 그래도 힘이 좋긴 좋더라 이말이야. 궁뎅이가 조금 들리더라고 저야, 아휴. 그러니 저가 힘이 좋긴 해도 내 힘을 당허나. 그래가지고 이걸 더 갈아다 널려고 꼭쥐니까 그 때 그냥 땅을 파고 앵, 엉소리를 하고, 도망 갈라고 그러니. 아냐 그래도 내 힘을 당하느냐 그저야, 그 호랭이가.

그 때 참 헛헛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 엉소리를 지르고 넘어뛰는데 그 힘이 못배져가지고 그 호랭이 꼬랑지 썩대기가 흠뻑뻑겨졌다 이거여. 그래서 그걸 잠을 켜는데 그만 꺾질이 벗어지는 바람이 호랑이 꼬랑지 썩대기만 잡고서는 호랑이는 달아났지. 그래서 호랭이를 못 잡고 놓친 얘키예요.

### 산돼지 잡은 이야기

나무허려 산을 갔더니, 그 때도 인제 그 뒤를 보러간거야. 이 양반은 꼭 뒤를 보다가 말썽을 일으키는 거로, 구석쟁이 가서 뒤를 보고 있는데 뭐 버스틱 소리가 나더니 산돼지가 뛰어나온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해. 뒤를 보다 말고 옛날 옷이니까 한 손으로는 바지가랭이(괴춘)를 잡고 한 손으로는 그냥 풀이가서 돼지 뒷다리를 저미잡았다.

이 그랬더니 참 세긴 샌데 내가 두 손만 잡았으면 그까짓것 붙잡고 썰매기를 치겠는데, 한 손을 괴춘을 잡았으니 어떻게 해. 그래 한 손은 뒷다리를 꼭잡으니까 그래도 밀쩍 허긴 해도 꼼짝을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다시 그 늑을 질질 끌고 가서 이 늑냥줄 있는데 저기 가서 깊이 꽤 굵은 게 나무로 타 올라갔는데 그거는 또 잡아 다니니까 북끓어지더라 그거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묶었지. 다리를 묶어 가지고 그걸 지게에다 적고 오니까 여기 저 옛날에는 한 동네에 우물이 우리 동네도 그랬습니다. 곰돌 우물이 하나 있었로, 거기 빨래하던 여자들이 전부 캉캉 놀래 가지고, 어떤 여자는 기질을 하더라 그거야. 얼마나 있는지 그 산돼지가. 그래 집에 가지고 와서 달아보니까 백오십근이 넘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그것도 위보다가 한쪽 손으로 그걸 산돼지를 잡으신 얘키야.

☐ 제보자 : 안태훈

#### 4. 의형제를 맺은 의사, 지관, 관상쟁이

한 사람은 의술, 의사란 말이지 지금 말로, 하나는 지관이고, 한 사람은 관상쟁이고 세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돈에는 구애를 안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셋이서 나이대로 의형제를 맺었어. 그래 그 사람이 병을 앓게 되면 의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칠 것이고, 또 지관은 사람이 죽어서 산자리 잡아주면 또 돈이 생기면 모이고, 관상을 보는 사람을 관상을 봐도 돈이 모일 것이고, 인제 셋이서 댄주먹을 갖고 나가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팔도 방방 곡곡이 전부 구경을 다니자 그거야. 버는 대로 먹고, 쓰고 그리고서 우리 다니자, 그리고서 나갔어. 먹고 살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한 군대를 쓱 가니까는 고래등같은 개와집이 있는데, 이 잘산단 말이야, 야 저 집에 가서 주인을 찾고 들어가서 자면 밥을 잘 얻어 먹을 테고 하니 저 집을 가자.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는 하인들이 나왔어. 여기서 하룻저녁 좀 자고 가자. 그러니까 주인더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승집이야, 사랑웃방에서 자라고 그래, 사랑웃방에서 하인들하고 자지. 그런데 저녁을 갖다 주는데, 이때나 갖다 줄까, 저 때나 갖다 줄까, 하고 있는데 이걸 안 갖다 줘. 잘먹을라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쓱 나가서 주인하고 인사를 했지. 나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요, 나는 지파살을 잘 보는 사람이요 나는 지 뭘 잘하는 사람이요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정승이 인제 그걸 다 알았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는 저녁이라고 느즈막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보리죽 두 그릇을 귀리죽 한그릇을 가져온단 말이야. 이걸 당채 생전에 이걸 먹어 보지 않던 사람이야. 그 때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살던 사람들 아니야. 돈 잘 버니까.

그래서 그걸 이런 우라질집 보라고 욕을 했어. 이게 이런 정승 벼슬이나 하는 집에서 그래 사람 먹으라고 이걸 갖다 주느냐고 야단을 쳤어. 야단을 치니까 거기서 느들이 알긴 뭘 알어. 우리 아버지는 호상에 가셨는데도 내가 정승 벼슬을 하고 있는데 지관이 뭘 알고, 관상쟁이가 뭘 알고, 아 이려고 이렇게 역정을 내는 거야 주인이 그냥 막. 그래 이 주인 하는 게 아주 고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제 저녁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저녁을 자고는 관상쟁이는 또 간다. 의술 하는 사람도 간다. 지관은 떨어져 있지. 지관은 야 이놈의 집 하는 행동을 보자 이거야. 보긴 뭘 봐요. 이 집에서 뭘 얻어먹겠수, 가겠수, 그리고는 들어 떠나가. 이 사람이 혼자 남았지.

남아서 집터를 보던지 산새를 보던지 정승 날 사리가 없어. 없는데 정승이 여기 집을 짓고 사냐 이 말이야. 그 이상하다. 부산을 갔던지, 그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뒷산을 올라가서 그 잔등을 타고는 얼마든지 카다 보니까는 한 군데 특 내려다보니 큰 골짜기가 있는데, 사람이 도대체 다니지 않던 골짜기야, 그런데 그저 거 거기 달빛이라고 우저졌는데, 저가 평평 한데가 있는데 저기다가 쓰면 꼭 정승이 나겠어. 저기를 달밭에가 해치 해치해보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대가리를 남지요. 대가리를 저기다 갔다가 정승 자리에 갔다 왔어요. 왔으니까 에이 이놈의 첫 이놈을 한 번 골리주자. 그러고는 비수를 갔다가 왼눈칼에다가 박꽃이 낫지. 꽃이 놓고는 인제 그 집을 향해 가지고는 왔어.

와 가지고는 그 주막집에 와서 인제 술을 먹고 앉았으니깐 이 정승이 왼눈이 부서 아파 죽는다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니까 주모더러 그 눈을 내가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럼 고쳐달라고. 그래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래 준다고. 가서는 좀 만지작 만지작하고 또 올라가서 바른 눈에다 곱아 낫지. 아 이 왼눈은 다 나았는데, 바른 눈이 또 아파 죽는다고 난리를 쳐. 그래서 이까 그 사람 어디 갔느냐고. 불러오라고.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 사람이 또 가서는 만지작 만지작 하고 또 가서는 쓱 뽑아서 코에다 곱아 낫어. 아 이놈의 눈은 다 나았는데 코는 또 부서 죽는다고 난리치니. 아 그래 가 그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 불러왔지.

그래 이래도 지관이 뭘 아느냐고 그랬수, 나는 당신이 정승이였어도 얼굴을 못 봤지만, 나는 당신 아버지 얼굴을 봤소. 이래도 거짓말이야. 아이고 살려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빈단 말이야. 우리 재산을 만을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걱정 말라고. 그래 사람을 몇을 사 가지고 가서 이게 정승 아버지 두상이라고. 이게 그걸 전부 거꾸로 썩 불을 해서 세우고, 묘를 잘 쓰고, 재산을 잘 벌여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 그만쯤 아는 지관이 있더래요.

호랑이가 물어 갔는데, 호랑이 아가리에도 명당자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가 뭘 아느냐 이거야. 호랑이가 먹었어도 내가 정승을 하고 사는데. 느그들이 뭘인다고 다니느냐 그거지. 관상쟁이가 뭇이 필요하고, 의술이 뭇이 필요하고, 지관이 뭇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총장을 꼭 파묻는다고 할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자리에 갔다 뇌뒤도 잘 된다. 천라도 사람들은 뭇 요만큼 파묻는데 뭇, 희도 한 마가지 씩 깔고 저기다 그냥 묻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인세들 잘 나잖우.

□ 제보자 : 최병욱

## 5. 밤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어부와 물귀신

옛날에 이 한 청년이 사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낮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밤고기를 잡으러 나가거든요, 꼭 해만 지면 밤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잠 몇 년 동안은, 한 이십여 살 먹도록 잠, 그 고기만 잡아 먹고 사는데, 그래 하도 오래 다니니까 하룻 저녁에는 뱃전을 턱 붙들고 물에서 올라 오더라 그거예요, 어부 뱃전을 붙들고 물속에서 올라 오더라 그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본격 만척하고서 고기만 잡는데, 그사람이 인제 그렇게 매달렸다가 도로 물속으로 들어가, 그래 그 이튿날 또 올라오더라 그거예요, 그 때서 당신이 사람이요 귀신이요 하니까, “나는 물귀신이요 말이며, 나 물귀신이요, 하도 내 물속에서 잠 몇 년을 살다보니까 하도 심심하고, 당신이 이렇게 저녁마다 고기를 잡으러 나오는데, 당신하고 좀 얘기도 할 겸 당신배에 이렇게 지금 매달렸으니 올라가리까? 그만두리까?” “올라오시오, 배를 타시오.”

그래 배를 타고 앉아서 인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그 귀신이 “나도 낚시대 하나만 주우.” 그래 낚시대 하나를 주고, 둘이 고기를 잡으니까 인제 고기가 많이 잡힐 것 아니예요, 그래 그러저러 두서너 달 지냈다 그거예요, 그 후에 서너 달 지낸 후에 인제 잠 저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의형제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래 인제 어부가 성이되고, 귀신은 아우라 인제.

그런데 인제 한 날은 “형님은 내일 모레 서울 아무개 사는 그 외아들을 내가 열두시경에 여기 잡아 놓으면은 내가 좋은대로 가우.” 그러니까 그 사람 죽거든 절대 예 낚시를 하지 마우 그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낚시도 안나가고 잠 있는데, 하루는 인제 그 사람 인제, 그 애를 잡아놓는다는 날짜가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12시경에 인제 그 나가니까 젊은 청년이 그냥 뺨을 쪽 흘리고 뛰어오더라 그거예요, 강제로, 그래 인자 붙들었어, 그 사람을 붙들었어, 붙들으니까 까무러치더라 그거예요, 까무러치니까 인제 자기가 인제 그거를 들쳐 업고서 자기집에 들어가서 마룻복에다 늘히놓고서, 불을 때서 이불 덮어놓고 그러고 나니까 피어나더라 그거지요, 뜨듯하니까.

그래 얘가 어디요, 그래, 아 여기는 모르겠느냐고, 모르겠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다 해 봤어요, 개한테다가, 그래, 너의 집이 어디냐, 서울 아무데예요, 그래 데리고 갔는데, 집에서는 아주 야단이 났더라 그거예요, 사람을 사서 찾아오라고 내보내고, 그냥 사망으

로 그냥 사람을 내보내 찾는데, 마침 데리고 가니깐 그 집에서 아주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 반가워 하는데 나는 건다고, 이제 주인 영감한테 나는 갈테니까 잘있으라고 얘기를 하니깐 들어가자고, 들어가서 쉬어서 가라고 차우 잡아 끄는 거야. 저희집으로 아이 나는 안들어간다고, 한 뒤에 차비를 주는 거예요, 돈을, 돈을 내주는데, 돈도 애는 안 받고 필요없다고, 그래 집으로 왔어.

잡예를 와가지고서 그날 밤에 낚시질을 갔는데, 고기가 물어 낚시가 채이는데, 고기가 없다 그거예요. 빈 낚시만 올라오는거예요, 그래 한 달 동안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달 동안은 고기 한마리를 못잡았다 그거지요. 그래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귀신이 멧전을 불뚫고 올라타미라 그거예요.

“아이 어서오게, 자네 좀 심심했지?” 거 형님, 내가 형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형님 그여 그 저시기 허실수 그래,” “여보게, 그 외아들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 내가 딱 해서 살려줬네.” “자네 너무 노여워하지 말게.” “형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고기가 안들어서.” “아 고생은 뭐, 나아 뵈날 뭐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고생이 뭐 있겠나.”

그래 허리띠가 타 흐르더니 “어 고기, 형님 낚시 잡힐 고기 여기 다 내가 꾸미에 꿰서 가져왔수.” 그래 쏘으니 고기가 배안으로 하나더라 그거야, 고기가, 그래 그날 저녁에 참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고, “형님 내가 한 사, 나흘씩 내가 사람하나 잡아먹고 좋은데로 가니까 그 때는 영 나오지 마슈, 나오지 마시고, (에헴) 형님한테 내가 좋은데 가서 내가 편지 할테니까 그 때 나오슈.”

그러고서는 헤어져가지고는 그 때서부터 고기 잡으러를 만나가는 지어요, 그래 빛 입 있다 사람이 하나 빠져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빠진 뒤로는 뚝 고기 잡으러 만나갔다 그거예요. 그래 만나가고서 참 몇 달 동안 지내는데 뚝 편지가 왔더라 그거예요. “형님 아무데 아무데 이리한데서 사니까 찾아오시오.” 하고 편지를 했더라고요.

그래 참 그 편지를 받아 보고서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깊은 아주 산중에, 아주 깊은 산중에 가서 고래등같은 개와집을 짓고, 저 그 하인을 두고 아래고 살더라 그거예요. 이 사람을 판관을 턱 쓰고, 긴 장죽 품고, 아랫목에 턱 방석 깔고 앉아서 “이리오너라” 부르고 “뭘해라” 시키고, 그래 가니까 그래,

“아야 오늘은 아무데서 이런 손님이 오니까 너희들이 마즘을 좀 나가라” 그래 마즘을 나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가니까 좋아서, 귀신이 사람이 되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됐다 그거여, 그래 그날 가던날 저녁에 자고서 간다니까, “아 형님 가시는게 뭐요, 요 몇일 묵어 가슈.” “아니 뭘하라고.”

그럭 저럭 아마 한 닷장은 묵었나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래 묵고 나니까, “형님 인제 말여, 형님 가슈.” 그러면서 이만한 보따리 하나를 주더라 그거여. “가시되 가시다가서 만일에 주무실 적에 이 보따리를 풀러보시지 마슈, 이거 집에가서 풀러봐야지, 가다가 도중에서 풀러보면 이거 허사가 되니까 꼭 내말 명심해 듣고서 풀러보지마슈.” 그랬단 말이며, 그러니깐 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인제 작별인사를 오는 거여.

인제 오다가 해가 저서 주막에 들어가 자는데, 이놈을 풀러볼까 말까 풀러볼까 말까 하다가 (웃음) “에라, 집에가서 풀러보자.” 그래 집에가서 풀러보니까, 묵침대만한 금덩어리더라 그거예요, 금덩어리. 아 그런데 아 그놈의 것을 조금 잘라다 가지고 나가서 팔고 와보면 그대로고, 또 잘른 자국이 없이 그대로야, 거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어려서 부터 그 어부 아닌 노릇하다가 풀귀신하고 친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아주 지금까지도 잘 산대요, 서울서.

□ 제보자 : 김철성

## 6. 상머슴 · 중머슴 · 하머슴

옛날에는 그 양반 집에 하인들을 많이 두거든요, 하인들을, 그러니깐 하두 양반 집이 참 그 야릇사람을 하대를 많이 하니까 이놈들이 뭐 중뽀시기 놓고, 하뽀시기 놓고 이렇거든. 인제 사랑에 앉아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한 놈이 가만히 있다가는 “아휴 엠병철 나는 예미 그 허여멀건 대빈마님 예미 허벅다리를 좀 꺾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에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말이야, 난 그 영감마님 귀뿔뿔이를 한번 뺐으면 좋겠다고.” “아이 그까짓게 뭐가 재미있느냐고 재미있는줄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한 놈이 하는 소리가 “에이 나는 그 엠병철 안마님과 씹이나 불이 변쩍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아이 이거 대감이 가만히 지내가다가 보니까 세녀석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이 이놈들을 버릇을 가르쳐 놔야지 안가르쳐 놓을 수가 있어. 하인놈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셋을 다 안마당에다 불러다 놓고 도끼로 허벅다리를 찍는다는 놈은 다리를 척 걷고 마루에 앉아서 “너 입마 그 허벅다리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와 찍어봐라 말이야.” 아 이놈이 도끼를 석석 갈더니만 저 끝에서부터 이 눈을 통그렇게 뜨고 도끼를 둘러싸고 들어오는데 금방 찍을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다리를 쭉 치우니까는 그 치운 자리를 도끼로 딱 찍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어이쿠 열병혈! 요기 있었으면 찍는 것을 저리 치워서 못찍지 않았느냐고 말이야.”

아이 그러니까 양반이 할 이야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괜히 귀땡땡이 붙인다는 놈을 그냥 불러다가 너 좀 귀땡땡이 붙여봐라 하고 이놈을 불러서 대니까, 하 이놈이 그냥 저기서 부터 그냥 정말 이놈 눈을 휘둘러 대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들어오는데 그냥 부실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슬쩍 드니까는 훗날 앞으로 주먹으로 화 지나가는데 눈에 붙이 면파 할 것 같거든. 아 그래 너도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태렸을것 같으니까 너도 저리 비켜라.

그러다니 보니까 마지막으로 불이 화끈나도록 한다는 놈을 불러서 자기 마누라를 방에다 놓고서 그냥 한참 너 그리 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이 놈이 가서 얼마를 있으니까 나오더니 쭉 잡어때더니 그냥 킁을 탁 뿜더니 불기짜울 한번 힘껏 흠져 치더라 그 말이야.

아이 그래서 왜 그리나 바깥에서 대감이 들여다 보고 있었더니 “이 이년” 또 욕까지 하거든. 아 세놈이 왜 그렇게 욕까지 하나 했더니 “아 이년, 불이 날만하니까, 쌀을 꺼서 불이 안나지 않았느냐? 장부의 한목숨은 중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웃음) 장부의 한목숨은 중하지 않느냐? 장부 죽는 것은, 불이 나도록 해야 안죽는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물을 뿜기 때문에 불이 안났다. 그래서 못했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쌀을 써서 (웃음) 그래 다 모면을 한 것이야.

□ 제보자 : 김금룡

## 7. 미래를 미리 안 강태공

그전에 강태공이 그랬다는 얘기로써 전해 내려오는 야사로,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다른 책에서는 못 봤는데, 그전에 강태공만이 꿈은 낚시질만 했다고 하는데, 꿈은 낚시질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거기 젊은 사람이 그 나무꾼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도 나무를

허리 갈 격에 보면 그냥 앉아 있고, 나무를 해 주고 화도 그냥 앉아 있고,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않고, 그냥 바늘같은 것 이거 달가 놓고 그냥 앉아 있거든.

하도 답답해서 애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낚시를 좀 구부러서 놓으시구요, 그리고 거기다가 벌레래도 잡아서 꿩시 담그셔야지 고기가 잡히지, 이거 그냥 바늘만 길다랗게 해 놓고 무슨 고기를 잡으십니까? 하여튼 참 답답하십니다.” 아 답답하지 이놈이,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않고 낚시질만 하고 있거든. 그래 그 다음에는 하도 애가 또 답답해서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하고 큰소리를 했다 그거지, 하도 못 배기니까 이 강태공이 죽 둘러보면서 얼굴을 득 쳐다보더니 “너 내일이면 죽어.” 그냥 한마디만 하고서는 그냥 앉아 있어.

아닌게 아니라 그 이튿날 애가 나무를 잔뜩 해지고 힘은 좋았는지, 나뭇짐이 크단 말이야, 그래 내려오다가 쉬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 그 동네 어린애가 지나가다가 해 필 작대기를 톡 쳤다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 지게가 넘어가는 바람에 치어서 애가 죽었지.

옛날에 그 때 시절만 해도 지금과 틀리니까, 그 범인을 잡으면은 땅에다 금을 동그렇게 쳐 놓고 너 거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있지 도망을 못간대. 그래 개가 인제 잡혀가서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옛날로 하면 포도청인가 원 그런 관에 끌려가 가지고 그 동그렇게 그림을 그린대, 아 그게 아니라 관에 끌려가기 전에 그 자리에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동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거기 서 있는 거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때 무조건 사형인데, 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

그런데 관원은 인제 조금 있다가 오기로 하고 너 여기 있으라고 하고 갔는데, 그 때 생각을 하니까 아이 어저께 강태공 그 노인네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너 내일이면 죽는다고 했던 말이야, 이게 꼼짝없이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일났다, 그분이 나보고 너 내일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분은 알거다 이거지, 이 어린애 생각에도 그 분한테 가서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그 동그란 원을 원래 벗어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놈이 뛰어 나가는 거지.

나카서 그 낚시하는 데를 뛰어가서 이러저러해서 나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 달라고 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때서야 또 고개를 돌려서 그 애한테 하는 얘기가 “너 얼른 가서 대나무 기다란 상대를 구해다가, 서 발 정도 되는 대나무를 구해다가 구멍을 뚫어라, 집에 가서 구멍을 뚫어서 물이 통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으로 와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입에다 들고, 그 강속에 돌을 뭉에다 매달고, 들어가서 그걸로 뿔  
아 들어서 숨을 쉬어라, 그리고 언제쯤 가서 하라는 것까지 전부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  
래 뒤 죽는 판에 채주 있어, 이놈이 물둥이에 돌을 매고, 뜨지않게, 구멍 뚫어진 대나무  
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뺨아서 숨은 쉬고, 그래 가지고 가르켜준 고시간에 가서 있는  
거지, 가르켜준 그 시간에 가서 있는거야.

판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아 가보니까, 그 뿔 그런 데를 가보니까 없다  
이 말이야. 그럴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큰일났단 말이야. 그래서  
원한테 가서 하이 아무게 살인자가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아 그러면 놈되라. 짐을 치면  
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전부 짐승로써 행정을 보다시며 그렇게 짐승이 아주 대  
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 원이 짐을 쳐보니까 아 강에 가서 일단 말이야. 그래 강의 어디에 있나 짐을 쳐보  
니까 강속에 들어가 있더라 그거야. 강속에 또 어떻게 들어가 있나 짐을 쳐보니까 한 세  
길 되는 강물 속에 자빠져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아 이놈이 죽었으니까 할 수 없이 강속  
에 자빠져서 있다는 것은 이걸 죽은 것이니까, 이걸 찾을 필요가 없다 끝난 거지. 요새  
말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웃음) 끝난 것은 끝난 거지.

그래 그 시간을 지나가지고 뭐 효적이 있어, 주만등록이 있어. 그 옛날에 말이지. 다  
시 나와서 그냥 산 거야. 그래서 강태공이 그 역학을 원래 문왕의 선생 노릇을 나중에 했  
지만은 그 때는 그 문왕할게 뭐 그런 것도 강태공이 전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  
서 그 주역이 통했고, 주역 그 역술이 발전한 것도 강태공 때문이고, 강태공은 벌써 그  
역술을 알고 미리 한 수 더 봤다는거지. 그러니까 벌써 그 원은 짐이 이렇게 쳐칠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미리 방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  
기를 해준 것이고.

□ 채보자 : 인태호

## 8.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아까 제사에 삼색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시묘살이를 허잖우? 3년간 시묘살이를 하는데, 요즘도 누가 시묘살이 했다고 나오잖아. 그래 시묘살이 이야기인데, 요새 속담 얘기가 그이(게)도 다리를 띠고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느냐하면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시묘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래 산골이지, 산에 묘를 쓰고, 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삼년간을 있다 보니까 먹는게 부실하고, 더군다나 그 뭐 상제는 고기 이런 것을 금하고 그런 입장인데, 배는 고프고 벌써 한 3년이 다 거의 다 되었는지 몸은 초췌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고기가 흔했고, 가을이면은 산골짜기 그 냇물 그런데서도 왜 게가 나오고 그랬잖우. 그런 텐데 그 게가 거기 있다가 이저 냇물에 손도 씻고, 인제 물도 떠 오고 그러는데 거기 게가 있더라고, 이걸 무심코 그걸 잡았지. 잡아 가지고 이 배도 고프고 출출하니까 이저를 불을 피워서 거기다 구웠단 말이야.

그게 경기도 우리지방에서는 그거를 게라고 그러지 않고 그이라고 그러거든. 그이를 이제 구워서 그걸 막 뜯어 먹을 텐데, 그 때 이 포랑을 건너오는 그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거를 안 띠고 그냥 구워 먹은거지. 그러니 딴 사람이 뭐 보러왔단 말이야. 와보니까 이 상제가 이 시묘살이 하는 상제가 게를 뜯어 먹고 있더라. 아 소문이 난 거지. 망신을 아주 한 거지.

그래서 게를 먹을래도, 게를 먹어도 다리를 띠고 먹어라. 그러니깐 내가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는 게다리를 띠고 속 알맹이만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건너가는 다리를 띠어 놓고 먹어라. 그게 원래 유래가 (웃음) 거기서 나온 것이야.

□ 제보자 : 안태호

## 제6절 지명유래

### 1. 남양주(南楊州)

지금의 남양주시는 본래 1980년 양주(楊州)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의 진접·진전 지역은 고구려시대에 '골의노(骨衣奴)'라고 불렸으며, 이 지명은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황양(荒壤)으로 바뀐다. 이것이 고려시대에는 풍양(豊壤)으로 다시 바뀐다. 이렇게 현재의 남양주시 진접·진전지역은 양주와는 별도의 지명을 갖고 있었다.

양주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인 936년으로, "후백제왕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처음이다. 이후 고려시대에 양주라는 명칭은 지방행정구역 명칭으로 꾸준히 이어온다. 그러나 당시의 양주라는 명칭은 지금의 남양주시 영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양주라는 명칭과 영역이 명실공히 일치하는 시기는 1410년(태종 10) 양주목으로 승격하고부터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지금의 진접·진전지역은 풍양현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지니면서 양주목의 속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후 풍양이란 명칭은 명·정조대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풍양현지역이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곽동, 진별, 건천, 진관 등의 면지명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풍양현 자체는 이즈음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가 되면 지금의 남양주시지역도 양주의 한 부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하여 구리읍(7개 리), 미금읍(10개 리), 별내면(6개 리), 진접면(8개 리), 진전면(9개 리), 수동면(7개 리), 화도면(10개 리), 와부면(11개 리)의 8읍, 6면, 68개 리를 갈라 남양주군이 새로 설치되면서 남양주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 남양주시 행정구역도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하여 와부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3읍 5면이 되었고,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 1986년에는 조안면과 퇴계원면이 새로 생기고 1989년 1월 1일 미금읍이 시로 승격하여 분리되었다. 같은 해 진접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1991년에는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 2. 와부읍(瓦阜邑)

### 1) 덕소리(德沼里)

덕소리에 전체를 일컫는 이름으로 '덕소·떡수'가 있다. 오늘날에 와서 '덕소'라고 불리며 공식적인 리 이름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보통 '떡수'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말

## 외부읍 행정구역도



한강에 큰 못(늪)이 있어서 '덕소'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덕소리에는 '독수리고개' 혹은 '독실이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다. 율석리와 석실 사이에 있는데, 옛날에 양반이 많이 살던 곳이었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이 곳으로 수레를 끌고 지나갈 때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양반들이 수레를 들고 지나가게 했다고 해서 '독수리고개'로 불린다고 전한다. '독실이고개'라고도 부른다. 한편 덕소리에 있는 마을 가운데 '신촌'이 있는데, 이곳은 을축년 대홍수로 원덕마을이 침수되자, 마을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신촌'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 2) 도곡리(陶谷里)(도굴, 도곡)

도곡리는 글자 그대로 기와 혹은 그릇을 굽던 굴짜기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기와굴'은 도곡리에 있는 굴짜기인데, 이 곳에서 기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와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한편 도곡리에는 '우북배미·쑥배미'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마을이

있는데, 지레기 북쪽에 있다. 지형이 우뚝하게 들어갔다고 하여 '우뚝배미', 지형이 쭉 들어갔다고 해서 '쭉배미' 라고 한다.

### 3) 팔당리(八堂里)[바다나루,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 팔당]

본래 한강가의 넓은 나루이므로 '바다나루',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 또는 '팔당'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팔당 바대이' 라는 마을의 이름은 강의 양쪽 산세가 험준하고 수려하여 팔선녀가 내려와 놀던 자리가 여덟 곳이나 있고 이후 그 자리에 여덟 개의 땅을 지어 놓았다고 해서 '팔당'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팔선녀를 낳았기 때문에, 또는 강이 내와 비슷하게 있었는데 양쪽으로 난 나무가 팔자(八字)처럼 쓰러져서 '팔당'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용이 되어 올라가려는 것을 여자가 봐서 부정을 타, 강으로 떨어져 이무기가 되었다는 전설도 전한다. '바대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일제시대 전에는 '바대이'라고 불렀고, 그 후 '팔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4) 월문리(月文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 대부분은 양주군 와공면으로 1914년 월곡리의 '월(月) 자와 문곡리의 '문(文)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월문리의 이름이 된 '문곡리'라는 마을은 예전에 이 마을에 글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마을에서 유래하였다. 처음에 '글계울' '글개울' 등으로 불렸다고 하고, '문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조선 말기에 '문곡'이라는 호를 가진 선비가 살았었기 때문이라 한다.

월문리의 또다른 이름인 '월곡'은 '다리골 증광'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이 곳은 동쪽으로는 갑산과 윤길산이 솟아 있고, 서북쪽으로 천마군봉이 벌려 서 있으며, 중앙으로는 내가 흘러 한강으로 유입되는, 아늑한 마을이다. 이러한 마을에 이 씨가 많이 들어와 살게 되니, 이씨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밭을 다(多) 자를 써서 '다리골', '달골', '월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5) 울석리(栗石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와공면으로 1914년 울북리의 '울(栗)'과 석실리의 '석(石)'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울북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마을 주변에 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밤뒷고개', '밤나무고개', '울경(밤나무정)'이라는 밤나무 관계 마을 이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울석리에는 '피사골'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골짜기가 있다. 지금의 옥석골 북쪽에 있는데, 옛날에 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었고, 그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이 곳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피난와서 죽었다는 의미의 '피사골'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3. 진접읍(榛接邑)

### 1) 장현리(長峴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침동면 지역으로 1914년 장승리의 '장(長)'자와 봉현리의 '현(峴)'자를 따서 장현리라 하고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봉현(蜂峴)'이라는 이름은 '벌우개' '비리개' '벼리개' '보루개' 라고도 하는데, 조선 초기에 마을 동쪽에 조그마한고개에 벌집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벌 때문에 그곳을 피해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그 고개를 '벌우개', '비리개', '벼리개', '보루개' 등으로 불렀으며,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벌이 많은고개 마을'이라는 의미의 '봉현(蜂峴)'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세조와 관련된 지명유래도 전하는데, 세조는 자신의 묘 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직접 땅을 돌아보던 중 불길한 땅에 묘 자리를 쓰고 있는 상주를 만났다.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 300냥을 주면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 하고 묘 자리를 잡아준 사람을 물으니 바로 자신이 찾던 이생원이라는 지관이였다. 세조가 기이하게 생각하여, 이생원을 찾아 그 집에 이르러 그 묘 자리의 길흉을 물으니 "그 근방이 길지(吉地)가 있지만 현 장지

### 진접읍 행정구역도



(葬地)는 당장 300냥의 큰 돈이 생기므로 가난한 상주에게 금시발복(今時發福)할 자리를 정하여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감탄한 세조는 “당신같이 잘 아는 사람이 왜 산골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그의 집을 보며 물으니, “국왕이 친림(親臨)하실 곳이므로 이 곳에 산다.”며 짚자리를 문 밖에 깔고 백배 사죄하였다. 이생원의 능력에 감탄한 세조는 그와 동행하여 현재의 광릉을 농자리로 정하였다.

그 뒤 광릉에 농을 만드는데, 그곳에서 큰 벌이 나올 것이라 하여 주관하는 지관이 지금의 장현리 벌우개로 대피하여 큰 독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과연 농을 파기 시작하자 곧 뒤웅박만한 벌이 쏟아졌으나, 큰 독을 뒤집어 쓴 지관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부터 이 동네는 ‘벌우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승리’라는 지명은 장승이 있었기 때문에 유래하였는데, ‘장승(長承)·장승배기 매봉제’라고도 한다. 예전에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어서 ‘장승’ 또는 ‘장승배기’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매봉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장승·들판·논에 물을 대기 위한 보(저수지)라는 뜻의 ‘장승배기보’, 장승에 있는 들판이라는 뜻의 ‘장승별’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전하고 있다.

## 2) 내각리(內閣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접동면 지역으로 1914년 내동리의 '내(內)'자와 비각리의 '각(閣)'자를 따서 내각리라 하여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한편 내각리에는 풍양궁이 있었다고 하여 '궐리(闕里) - 대궐터 - 구궐지(舊闕址)' 등의 이름이 있다. 정종은 1400년(정종 2) 11월에 왕위를 아우 정안군(후에 태종이 됨)에게 양위하고, 지금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풍양궁터로 옮겨가게 된다. 병이 심해져서 신신을 추양하기 위해 아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교서(敎書)를 내고, 정종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곳 대궐터(풍양궁터)이다. 물론 여러 복잡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쉬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탐색하여 휴식을 취하겠다는 것은 정종의 솔직한 본심이었을 것이다.

이후 정종의 아버지인 태조도 이 곳에 머무르게 된다. 1402년(태종 2년) 태조는 자신이 사랑하는 왕사 방식과 방법이 참변을 당하자 태종을 미워하여 함흥으로 가버린다. 그곳에 머문지 4년 만에 박순(朴純)의 충언에 감동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 곳에 머무르며 움직이지 않자 내각들이 와서 모시고 갔다고 한다.

이렇게 대궐터는 태조, 정종, 태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역사적인 마을이다. 그렇지만 대궐터는 이름 그대로 대궐이 있었던 곳은 아니다. 앞서 살폈듯이, 태상왕(太上王)과 상왕(上王)이 왕위를 물려나 머물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이 마을은 '비각촌' 혹은 '비각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성계가 정종에게 왕위를 천하고 상왕으로 있을 때 이 곳에 행궁을 정했던 곳이라서 비각(碑閣)을 세운 후로, '비각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비각촌' 혹은 '비각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의 '새밭'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임진왜란 때 풍양궁은 불타고 이 곳이 모두 불타버리자, 새로이 집들이 들어서고 마을을 형성하게 된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내동(內洞)'은 이성계가 비각마을에 행궁(行宮)을 정하고 있을 때, 왕비 김씨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던 곳이라 하여 안마을이라는 뜻의 '내동'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비각(碑閣)리'는 대궐터에 있는 비각에서 유래하였다. 비각에는 1755년(영조 31), 1905년(광무 9)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 있는데, 이는 이곳이 풍양궁지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내곡리(內谷里)(안골, 내곡)

이 지역 명칭은 통일신라시대에는 황양현,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는 풍양현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후 양주목 별비면 지역으로 1914년 1일 내곡리·명지동·동촌리·서촌리 그리고 전도리 일부를 병합하여 내곡리라 해서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본래 풍양현(豐壤縣)이 있던 곳으로서 그 안쪽이 되므로 안골 또는 내곡이라 하였다.

동촌과 영서 사이에 '원내곡(元內谷)·안골·역말·역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내곡의 원래 마을 또는 원래의 개척지라 하여 이렇게 불린다. 원내곡은 '안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내곡리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전해진다. 이 안골이라는 이름을 한자어화한 것이 내곡(內谷)이며, 이것이 리 전체의 이름이 되었다. 이 마을은 '역말', '역촌(驛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역(驛)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을 이름의 유래에 따라 '골안·고을안·내곡교' 등의 지명이 아직 전한다.

### 4) 연평리(蓮坪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점동면지역으로 1914년 비각리·내동리·봉현리의 각 일부와 건천면의 양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평리라 해서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연평리에 있는 큰 들을 풍양(豐壤)들 또는 요연평이라 한다.

궁동 서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을 '요연평(蓼蓮坪)·연평들·풍양들·풍양들'이라고 한다. 왕숙천을 끼고 드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으로, 현재의 평야로 개간되기 전에는 토질이 습하고 군데군데 연못이 있다고 하여 '요연평'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연평들', '풍양들', '풍양들' 등의 여러 이름으로도 불린다.

요연평 북쪽에는 '목화배기 목화배미'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논이 있다. 예전에 이 곳에서 목화를 재배했던 연유로 '목화배기' 또는 '목화배미'라고 불린다. 이 곳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전해지는데, 옛날 어떤 농부가 이 곳에 600여 평의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 는 600여 평을 팔죽 세 그릇과 바꿔버렸다고 한다.

## 5) 부평리(富坪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진별면과 침동면 지역으로 1914년 부동리의 '부(富)'자와 주평리의 '평(坪)'자를 따서 부평리라 하여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부동은 '문토골'이라고도 하며 '부평'은 뒷범을 한자화한 것이다.

부평리에는 '농내(農內)·농내동·농안'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는데, 조선 제7대 세조의 능인 광릉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농내' 혹은 '농내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농안쪽에 있다고 해서 '농안'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살내벌'이라는 이름은 광릉 앞에 있는 벌판을 말한다. 옛날 차수복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능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부채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갔다. 이에 임금에 대한 불경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차수복을 동구 밖에서 참수하려 하였다. 그런데 차수복은 동구 밖까지 몸을 추면서 끌려갔다. 이 때 마침 임금이 능에 참배를 하고 내려오다가 이를 보게 되었다. 임금은 곧 참수를 당해 죽을 사람이 회안하게 충을 준다고 해서 차수복을 살려주라고 명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부채도 하사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수복이 충을 추었던 장소를 임금이 '살려줘라'고 한 연유에서 '살내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 6) 팔야리(八夜里)(여덟밤이, 팔야)

조선시대에 태조가 함흥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 곳에 이르러 여덟 밤이 되었으므로 태조가 '아, 여덟 밤이로구나.' 하여 '여덟밤이' 또는 '팔야'라 하였다고 한다.

남양주시 서쪽을 관통하여 흐르는 '왕숙천'도 같은 연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왕숙(王宿)'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태종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는 함흥으로 가버렸고, 이에 태종은 사자를 보내 부친이 돌아오도록 배망 노력했으나, 태조는 일체 거절을 하고, 사자들마저 모두 죽어버렸다. 태종은 궁리를 거듭한 끝에 태조의 사부라 할 수 있는 무학대사를 보내어 적우 태조를 환궁시킬 수 있었다. 이 때 태조가 함양으로 돌아오는 도중, 지금의 남양주시 진접면 팔야리에서 여덟 밤을 자고 갔으므로, 이 마을 이름을 '여덟밤이' 또는 '팔야리(八夜里)'라 부르게 되었고, 이 마을 앞을 흐르는 내를 '왕이 자고 갔다'는 의미로 '왕숙천'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태조의 건원릉을 비롯한 동구릉과 세조의 광릉 등 여러 임금들의 능이 있는 하천이라는 뜻에서 연유했다는 주장이다. 세조가 광릉에 안장(安葬)된 후, '왕이 길이 잠든다(永宿)'는 뜻에서 '왕숙천'이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왕산내' 혹은 '왕산천(王山川)'라고도 부르는데, 이 역시 '왕의 산陵'과 관련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1861년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여지도』에도 '왕산천(王山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또한 팔야리에는 '아작고개·아재고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옛날에 흉년이 들었던 시기에 어떤 농부가 너무 배가 고파 이 고개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 먹고 말았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전해진다. 혹은 '아지작고개'라고도 불리는데, 호랑이가 이 고개에서 사람을 '아작'하고 잡아먹었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전한다.

## 7) 진벌리(榛伐里)[갠벌, 진벌]

가얌나무가 많은 벌판이므로 '갠벌' 또는 '진벌'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진벌리에는 '진벌·가얌벌·가얌벌리·갠벌'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얌나무(가얌나무)가 많아서 '가얌벌', '갠벌' 등으로 불리다가 '진벌'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름 유래에 따른다면, 이 마을은 '가얌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이 곳은 가얌나무가 많았는데 가얌나무를 베어버리고 형성된 마을이어서, '가얌벌리'로 불리다가, 이의 한자어인 '진벌(榛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이름 유래에 따른다면, 이 마을은 '가얌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룩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 8) 금곡리(金谷里)[쇠파니, 쇠푸니, 금곡]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진벌면지역으로 1914년 금곡리의 '금'자와 주곡리의 '곡'자를 따서 금곡리라 하여 전철면에 편제되었다.

금곡리에는 '쇠푸니·쇠파니·금곡·원금곡'라는 지명이 있는데, 예로부터 이 지역에 쇠가 많이 나서 '쇠푸니', '쇠파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금곡(金

谷)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역시 쇠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금곡마을이 점차 커지고 리 이름으로도 쓰이게 됨에 따라, 구별을 위하여 원래의 금곡마을이라는 의미의 '현금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곡리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주리(주리골·주유골)'이라는 지명은 삼면이 두루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두릅이 많기 때문에 주곡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이 마을은 '주리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이곳이 주리를 틀었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밖에도 '주유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유씨(柳氏)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용신신화와 관련된 '벼락소'라는 이름도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던 용이 벼락을 맞고 이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혹은 벼락이 쳐서 바위가 쪼개져서 이 소(현못)의 깊은 물 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벼락소라 불린다는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과는 달리 나름의 체계를 갖춘 장자문 진설 유형의 이야기도 전하는데, 정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신감역이라는 부지가 살았는데, 굉장히 인색했다고 한다. 하루는 동남하러 온 중에게 쇠통을 퍼서 주었는데, 이를 본 그 집 며느리가 인타카운 마음에 바가지를 씻고 쌀을 한 바가지 퍼주었다. 이에 중이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 오라"하여 뒷산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졌다. 며느리가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집은 벼락에 맞아 불이 붙었다가, 쏟아져 내린 폭우에 깊은 못이 되어버렸다. 신감역의 가족들은 이 때 내려진 벼락에 맞아 모두 죽었고, 그 며느리 역시 뒤를 돌아 본 까닭으로 산중턱에서 그만 바위(혹은 돌부처)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신감역의 집터는 쏟아져 내린에 폭우에 못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벼락소라고 한다.

전접읍 금곡리, 전벌리와 수동면 수산리 경계에는 높이 720m의 '철마산'이 있는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나 『대동지지(大東地誌)』 등에서는 '검단산(鰲丹山)'이라 표기되어 있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검단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철마산'이라고만 부르며, 철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름 유래를 밝힌다. 북쪽 봉우리인 '검단산'은 '검은 산' 또는 '수물이 우거진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남쪽 봉우리인 '철마산'은 쇠우니의 이름 유래와 관련이 되어서 '쇠를 캐는 광산'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철마산'은 남북 봉우리가 달리 불리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10년대에 지형도를 만들 때, '철마산'만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검단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두 봉우리를 모두 '철마산'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4. 화도읍(和道邑)

### 1) 마석우리(磨石隅里)(맷돌모루, 맷돌머루, 마석우)

'맷돌머루·마석우'라는 마을은 심석중합고등학교 남쪽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 맷돌이 많이 생산되었고, 마을의 길이 돌아서 생겼다고 해서 '맷돌머루'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자로 '마석우(磨石隅)'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마석우리에 있는 마을로 '아래 담계·계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즉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지형이라 하여, '아래 담계' 또는 '계전'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 2) 묵현리(墨峴里)(먹고개, 먹갓, 묵동)

천마산과 마치고개 밑이 되므로 '먹고개', '먹갓' 또는 '묵동'이라 하였다.

이곳 묵현리에는 옛 원터가 있었던 곳이라서 '원지(院址)' 또는 '원터'라고 부르는 곳

화도읍 행정구역도



이 있다. 이 곳은 강원도 춘천 방면으로부터 한양으로 가는 무인지경(無人之境)의 대로 변이었다고 한다. 이 곳에 원(垣)을 두고 모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약 100여 년 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지명만으로 전하여 온다.

### 3) 가곡리(嘉谷里)(가오실, 가곡)

지형이 가오리처럼 생겼으므로 '가오실' 또는 '가곡'이라 하였다고 한다.

가오실 서쪽에 있는 우물 이름으로 소경우물·채길우물이 있다. 이 우물에는, 옛날 중님이 이 곳의 물을 먹고 눈을 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따라서 '소경우물'은 '소경이 미치고 눈을 뜬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우물은 '쇄경우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소경우물'이 변해서 된 것으로 보인다.

### 4) 구암리(九岩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양주군 상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구곡리의 '구(九) 자와 용암리의 '암(岩) 자를 따서 구암리라 하여 화도면에 편제되었다.

'용암(龍岩)'이라는 이름은 한자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배'와 관련된 지명이다. 마을 모퉁이에 덩어런 생긴 메바위가 있다고 해서, '메바위'라 불리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용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두바위·감부바위'라는 바위 이름도 있는데, 한 바위 위에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또 다른 바위가 올려져 있다. 아마 바위가 두 개가 있어서 '두바위'라고 불리게 된 듯 하며, 큰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마치 감투를 쓴 것처럼 보여서 '감투바위'라고도 불리게 된 듯하다.

### 5) 금남리(琴南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양주군 하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금대

마을의 '금(琴) 자와 남중리의 '남(南) 자를 따서 금남리라 하여 화도면에 편제되었다.

'금대마을'은 약 400년 전 전씨 일족이 만든 마을이다. 이 전씨 일족 중에는 음울을 좋아하던 이가 있었는데, 매일 거문고를 타고 놀았다고 해서 '검터'라고 불리다가, 한자화 되어 '금대(琴臺)'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 6) 창현리(倉峴里)

창현리에는 재미있는 마을 이름이 몇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시울·무시동'이다. 조선시대 고관이 이 지역으로 낙향하여 정자를 세웠는데, 그 정자 이름을 '무수정(無愁亭)'이라 칭한 데서 '무수'로 불리다가 점차로 '무시울' 또는 '무시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현·노루너머·노루머리'라는 이름도 있는데, 옛날 이 지역에 노루가 많아서 사냥꾼들이 많이 잡았다고 해서 '노루머리', '노루너머' 또는 한자로 '장현(獐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7) 답내리(畓內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답동(畓洞)의 '답(畓) 자와 내동(內洞)의 '내(內) 자를 따서 답내리라 하여 화도면에 편제되었다. 1991년 12월 1일 화도면이 화도읍으로 승격하자 이에 편제되었다.

'내동'은 답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안으로 쪽 들어가서 형성된 마을이어서 '내동'이라 불리고, '답동·논골'은 논이 마을 앞으로 펼쳐져 있어서 논 마을이라는 의미의 '답동(畓洞)'이라 불린다. 순 우리말 이름인 '논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 8) 월산리(月山里)(달미, 당미, 땅미, 월산)

월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서 '달미', '당미', '땅미' 또는 '월산'이라 하였다.

'월산'이라는 이름은 '달봉', '월봉(月峰)', '월길산', '달기리산' 등으로도 불린다. 이

렇게 다양한 산 이름들은 모두 달이 뜨는 산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월산리에는 이런 풍수가가 남평문씨의 묘터를 잡으면서, 이 지역의 모양이 등잔처럼 생겨서 또는 등잔을 걸어 놓은 모양이어서 '등경골'이라 불렀다고 전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래와는 달리 가름이 들어 물이 귀한 때에도 물이 등잔형의 기쁨과 같이 잘 나오는 마을이라고 해서 '등경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9) 녹촌리(鹿村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하도면의 지역이었다. 1814년 녹동(鹿洞)의 '녹(鹿)'자와 궁촌(宮村)의 '촌(村)'자를 따서 녹촌리라 해서 화도면에 편제되었다.

'녹촌'이라는 이름은 옛날부터 마을 앞산인 잣봉산에 수목이 울창하여 사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슴 녹(鹿)'자를 써서 '녹촌(鹿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 10) 차산리(車山里)(수리너미, 수리너머, 수레너머, 차산)

차산리에 있는 고개로 차유령·수레넘어고개 라는 이름이 있다. 1570년(선조 3) 4월 10일 전 자연대부(貞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숙민공(肅敏公) 유강(俞綱)이 사망하자 묘소를 이 고개 근처에다 정하고 장사를 지냈다. 이후 1639년 중촌 유성중(俞甯中)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에 유강의 산소에 석물 및 신도비를 세우는데, 외부울 덕소로부터 우마차로 운반하여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이후부터 '차유령(車俞嶺)' 또는 '수레넘어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름이 곧 행정구역 '차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명골 남서쪽 고래산에 있는 바위는 모양이 배들처럼 생겨서 '배들바위' 또는 '베들바위'라 불린다. 이와는 달리 노인들이 이 바위 근처에서 배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5. 별내면(別內面)

### 1) 청학리(靑鶴里)[동학굴, 동학동, 청학동]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별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4월 1일 읍면 통폐합에 따라 별비면 동학(東鶴)동 전부와 웅달리, 곡석리, 덕동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청학리라 하였다.

청학리라는 리(里) 이름은 원래 청학동(靑鶴洞)이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청학동'이라는 이름은 '학(鶴)'과 관련되어 있다. 푸른 학이 이 마을 동쪽편 은행나무에 자주 날아온 데서 연유한 것이다.

또한 청학리의 다른 이름인 '동학굴(東鶴窟)', '동학골', '동학동(東鶴洞)' 등도 '학(鶴)'과 관련되어 있다. 푸른 학이 이 마을 동쪽편 은행나무에 자주 날아온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청학리'의 유래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마을 앞산의 모양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앞산에 봉우리가 잘록한 모양으로 세 개가 있는데, 먼데서 보면 마치 학이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형상이어서, '동학굴', '동학골', '동학동'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 2) 용암리(龍岩里)

용암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의 이름은 용암산(龍岩山)으로,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룬다.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용암산'이라 부른다. 따라서 '용암산'이라는 이름은 '용바위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가 된다. 용암리라는 리 이름은 이 지역이 용암산 밑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붙게 된 것이다.

용암리에 있는 마을로 '거묵골·거묵굴(巨墨窟)'이라는 이름은 마을 근처에 숲이 우거져서 마을이 거므스름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 전해진다. 이와는 달리 옛날에 큰 먹(墨)이 나와서 이렇게 불린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도감포수(都監砲手)' 혹은 '도감(都監)'이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이 이 마을에 낙향(落鄉)하여 살았다고 하는 '도감말', '도감마을'이라는 이름도 있다.

### 별내면 행정구역도



### 3) 광전리(廣田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별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광암(廣岩)리의 '광(廣)'자와 마전(麻田)리의 '전(田)'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광암'이라는 이름은 '턱바위·넓은바위'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뒷산에 넓적하고 큰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서, '턱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광암(廣巖)'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넓을 광(廣)'자에 '바위 암(巖)'자를 합성한 것으로, '턱바위'의 한자식 이름이다. 광전리라는 리 이름에서 '광'은 바로 '광암'에서 따온 것이라 전해진다.

그리고 '삼밭골·삼밭꼴'이라는 지명은 한자로 '마전(麻田)'이라 한다. 현재 광전리의 '전'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삼밭이 많아서, '삼밭 마을'이라는 의미의 '삼밭골' 혹은 '삼밭꼴'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태봉마을 동쪽에 있는 산을 '태봉'이라고 부른다. 마을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봉우리인 '옛성산'까지 포함하여 함께 '퇴퇴산'이라고도 부른다. '태봉'이라는 이름은 왕자의 '태(臺)'를 묻었기 때문에, '태가 묻힌 산'이라는 의미에서 이름하였다고 한다. 혹은 어떤 험센 장사가 흙을 날라다 쌓은 산, 곧 '퇴퇴(堆山) 혹은 堆臺'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원학적으로 접근하면 '퇴퇴'는 '갈라져 나온 산'이라

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퇴퇴산'이라는 이름은 '퇴퇴'라는 말에 '산'이 덧붙은 것이다. 그리고 이 '퇴퇴'의 '퇴'는 '결채, 행랑(廊)'을 뜻하는 우리말로서, '몸채 곁에 있는 판 집채' 또는 '대문 양쪽에 벌여 있는 방'을 뜻하는 말이다. 결국 '퇴퇴'란 '높은 산에서 줄기가 뿔어나와 독립적인 봉우리를 이룬 산'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뜻은 산이 자리하고 있는 형세와도 걸맞다. '용암산', '소리봉', '천견산(天見山)' 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서 옆으로 뿔어나간 줄기의 산이 바로 '퇴퇴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퇴산'이라는 이름은 '갈라져 나온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덕송리(德松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변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덕동(德洞)리의 '덕(德)'자와 식송(植松)리의 '송(松)'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덕동'은 덕흥대원군의 묘소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덕흥대원군의 묘소는 줄여서 '덕릉'이라고도 하는데, 이 '덕릉'이 있는 마을 혹은 동네라 하여 '덕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식송리'는 유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심은 소나무가 있어서 '싱근술'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싱근술(심은 숲)의 한자식 이름인 '식송(植松)'이라 불리기도 한다.

#### 5) 화접리(花蝶里)(꽃나리, 화접)

화접리에 있는 마을로서 하천인 주율내 가에 형성되어 '주율내·주율동'이라 지명이 있다. '주율내' 또는 '주율동'이라 불린다. 이 마을은 북쪽의 '안 주율'마을과 남쪽의 '바깥 주율'마을로 다시 나뉜다. 마을 이름과 관련해서, 줄과 연관된 유래 추정과 어원 학적인 추정이 있다.

줄과 관련된 유래 추정은 태조와 남재(南在)의 장례(葬禮)와 관련된 것이다. 태조의 능지(陵地)를 화접리에다 선정하고는 그 장소가 적합한 곳인가를 중국에 문의한 결과, 적당한 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현재의 동구릉(東九陵)에 재선정하였다. 이 때 마침 개국공신이며 당시 영의정이었던 남재가 죽게 되어 동시에 하관(下官)키로 하고,

서로 인박을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통신망이 발달하지 못하여 줄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줄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줄이 지나간 마을'이라 하여 '줄흘내', '주올내', '주올동'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어원학적으로 접근한 견해는, '주올내' 혹은 '주올동'에서 '주올(江乙)은 '호(水, 읍주)'에서 뜻을 따고, '乙(을)'에서 음운판 표기로 보아서, '브올 - '볼' - '벨' - '뽕(뽕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올동'이란, '뽕판에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가 된다.

## 6. 퇴계원면(退溪院面)

'퇴계원(退湖院)'이라는 이름은 원래 마을이름이었는데, 면의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퇴계원'이라는 이름 이외에도 '도계원(道湖院)', '포원(湖院)', '퇴조원(退湖院)' 등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불리게 된 유래는 제보자에 따라 약간씩 달라, 서로 다른 세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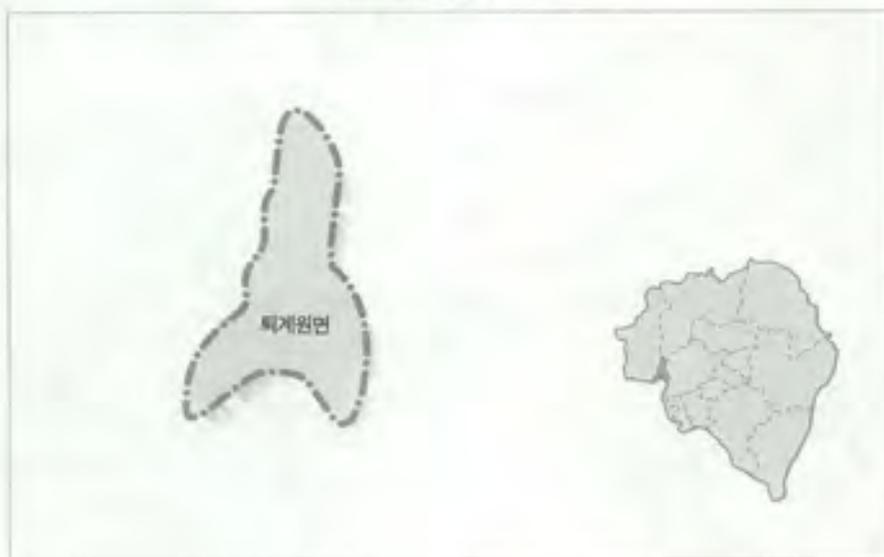
첫번째 유래는, 본래 양주군 별비면 지역으로 도계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계원' 또는 '포원'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퇴조원' 또는 '퇴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와는 달리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환궁하던 중, 이 곳 냇가에 이르러 삼각산의 세 봉우리를 보자 분이 북바쳐서 다시 중앙궁으로 물러가 있었으므로 '퇴조원'이라 하다가 '퇴계원'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종(睿宗)이 신왕인 세조(世祖)의 능인 광릉(光陵)에 참배차 행차하는 데 교통이 불편하여 길을 새로 만들는데, 냇가를 길로 닦기 위하여 밖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퇴계원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말티고개·마치고개·덧고개·공동묘치고개·인산티고개'라는 고개이름도 보인다. 옛 문헌에 보면, '마치현(馬蹄峴)', '마치(馬蹄)', '마치(馬蹄)'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운 사람들은 '마치'와 '말티'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데, 이 이름에서 '말'과 '바'는 모두 '산' 혹은 '산정(山頂)'이라는 의미의 '바리', '바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티고개' 혹은 '마치고개'는 '산에 있는 고개' 혹은 '산정에 있는 고개'란 의미

## 퇴계원면 행정구역도



가 된다. 이 고개는 '뒷고개' 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퇴계원 뒤에서 화접정거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 밖에도 '인산터고개', '공동묘지고개'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이 고개를 넘어서 인산터와 공동묘지로 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 7. 진건면(眞乾面)

### 1) 사능리(思陵里)

단종비 정순왕후의 능이름을 따서 사능리라 한다.

특히 사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 '비선골' 또는 '비선굴' 이라고 불리는데, 이 골짜기에 비(碑)가 서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따른다면 '비가 서 있는 골짜기' 라는 의미가 된다.

## 진건면 행정구역도



### 2) 배양리(培養里)[배암굴, 뱀굴, 배양동]

‘배양’이라는 이름은 ‘배암’에서 유래하였는데, 원래 마을 근처 골짜기마다 뱀이 많아서, 마을 이름을 ‘뱀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즉 ‘뱀’-‘배암’-‘배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 3) 진관리(眞官里)

진관리에는 ‘수살마기’라고 불리는 논 밭지역이 있는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수살(水殺)이 있어 마을에 재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역에 느티나무를 심고 바위를 세워 놓고 살막이해야 한다. 즉 수살을 막는다는 의미의 ‘수살마기’라 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유래를 가진 마을로 ‘목골·목동’이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힘이 센 역사(力士)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산에 가서 나무 한 침만 해 봐도 말 4~5마리가 짊어지고 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나무를 많이 해오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목골’, ‘나무마을’ 또는 이의 한자식 이름인 ‘목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4) 신월리(新月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건천면 지역으로 1914년 신촌리의 '신(新)'자와 월음리의 '월(月)'자를 따서 신월리라 하여 건천면에 편제되었다. 신촌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이고 '월음'은 '대래미', '달음리' 등으로 불리며 신월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었다.

'월음동'은 마을이 자리잡은 형태가 달에 있는 계수나무의 그늘진 곳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조선 말 양주의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인 유씨(俞氏)가 살았을 때, 호가 월음(月陰)이라 하여 동네 이름을 '월음동'이라 하였다고도 한다. 어쨌든 이 '월음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달음동'이라 변하여 불리어지다가, '대래미' 또는 '대래미'로 변해서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 5) 용정리(龍井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건천면 지역으로 1914년 오룡리의 '용(龍)'자와 독정리의 '정(井)'자를 따서 용정리라 하여 건천면에 편입되었다.

한편 용정리에 있는 바위 이름으로 '감바위·감바우·반바위·반바우'가 있다. 이 바위에는 고려 태조 때의 이야기가 전한다. 인근에 대적굴이라는 도둑의 소굴이 있었는데, 이 곳의 도둑들이 어느 날 이 바위 앞을 지나는 예쁜 신부를 잡아다가 도적 두목의 부인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신부가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먼저 내가 가서 그들을 죽인 후 다시 오겠으니 잠시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도둑들이 허락을 하니, 그 신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부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정한 행실을 하고 왔다고 하여 쫓아냈다. 쫓겨난 신부는 이 바위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고 비녀를 뽑아 바위를 내려치자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이 바위를 '감바위' 혹은 '반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독정(獨井)'이라는 이름은 '독재이', '독쟁이', '독정이' 등으로도 불리며, 북쪽의 '아랫독정'과 남동쪽의 '윗독정'으로 나누어진다. '독정'이란 이름은 풍양(豐壤)조씨(趙氏)의 시조인 조맹(趙孟)이 흉로 먹던 우물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즉, '흉

로(鰲) 먹던 우물(井)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오룡굴·오룡굴·오룡동'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용 다섯 마리가 이 곳으로 내려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는 달리 다섯 개의 능선으로 뻗어내린 마을 뒷산 줄기가, 봉수치리실에서 말하는 용이 뻗은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 6) 송능리(松陵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전천면 지역으로 1914년 송정리의 '송(松)'자와 성곡리의 '능(陵)'자를 따서 '송릉'이라 하고 전천면에 편입되었다.

'성릉(成陵)'은 원래 송능리에 있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恭嬪) 김씨(金氏)의 묘이다. '성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성묘(成墓)'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광해군의 묘가 이 곳에 생기자 '능이 생긴 마을'이라 하여 '삼릉'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웃송릉'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송릉(松陵)'은 왕릉이나 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많고 능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송능리'라고 불리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 8. 수동면(水洞面)

### 1) 운수리(雲水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삼도면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운하(雲霞)리의 '운(雲)'자와 석수대(石水臺)리의 '수(水)'자를 따서 운수리라 하였다.

'석수대리'는 돌 틈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수동유원지의 첫째 가는 경승지라고 한다. 이 지역 암석에는 약 300년 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석천아름기 편에 청산청룡로(石泉我默居偏愛青山尚不老)'라는 글귀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옛 선현들도 이 곳의 산수를 즐겼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수동면 행정구역도



### 2) 송천리(松川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상도면의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송리(松巖)동의 '송(松)'자와 장천(長川)리의 '천(川)'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곳에는 '며느리바위'라는 독특한 이름의 바위가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장자터에 소문난 큰 부자집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은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이 나있었다. 동냥 오는 거지들은 물론 시주를 부탁하는 스님마저 문전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던 어느 흥년이 든 해에 이 집에서는 며느리마저 쫓아내었다. 그녀가 먹는 쌀마저도 아까워 쫓아낸 것이다. 쫓겨난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산을 넘어가던 길에 스님을 만났고, 산을 넘어가는 도중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길을 가는 도중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녀의 눈에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마을과 자신의 집이 보였다. 그 순간 벼락이 내리쳤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위가 되어 버렸는데, 이 바위가 바로 '며느리바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며느리바위' 이야기는 금곡리 '벼락소'의 유래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 3) 수산리(水山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진법면 치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수막(水幕)동의 '수(水)' 자와 내마산(內馬山)리의 '산(山)'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물막골·수막'은 물줄기의 원천이라고 해서 '물막골' 또는 미의 한자식 표현인 '수막'이라고 불린다. 중간말과 아랫말로 이루어져 있다.

'안마산·내마산'은 옛날에 안씨 성을 가진 사람들과 마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안마산'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철마산 줄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기 때문에 '안마산' 또는 '내마산'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4) 내방리(內坊里)[안방골, 내방동]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가평군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내방동과 비금리를 합해 내방리라 하여 외서면에 소속되었다. 산골짜기 안이 되므로 안방골 또는 내방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 5) 외방리(外坊里)[바깥방골, 외방동]

앞에서 말한 내방리와 연관된 이름이다. 방골 바깥쪽이 되므로 바깥방골 또는 외방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외방리에 있는 '남이\*바위'는 세조 때 남이 장군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바위의 형태가 의지와 같이 생겼다고 한다. 이 유래를 바탕으로 한다면, '남이바위'는 '남이 장군이 앉았던 바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남이(南伊) : 1441~1488)는 조선 세조 때의 장군으로 시호는 충무(忠武)이고, 배종리(配宗里)이다. 17세 18세 무과에 급제 66세 세조의 사랑을 받았다. 미시역이 단서 건주위를 정벌할 때 위령을 맡겨 공신이 되었고, 26세에 영조(英祖)가 되었다. (배종리 주위) 1488년에 반역을 꾀했다는 무죄죄의 모함으로 처형당하였다.

## 6) 입석리(立石里)[선돌, 입석]

'선돌' \*마을은 마을 앞산에 약 1명 정도되는 큰 돌이 서 있다고 하여 '선돌'이라 불린다고 한다. '입석(立石)'이라는 리 이름도 즉 서 있는 돌의 의미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라 한다.

## 7) 지둔리(芝屯里 : 지둔지, 지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곳은 양주군 상도면 지둔리였는데 1914년 4월 1일 화도면에 편입되었다. 지둔리에 있는 마을 가운데 '광대울'은 약 200년 전 이 마을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집에서 경연이 벌어졌는데, 이 때 한 광대가 춤을 타다가 떨어져 울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지세와 관련되어 명명된 마을이름도 있는데, '삼각골'은 마을 지형이 삼각형의 골짜기 형태 달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는 달리, 천마산의 수려함으로 드러나는 산가(山佳), 풍부한 계곡물로 나타나는 수가(水佳), 그리고 인심 좋은마을 사람들로 표현되는 인가(人佳) 등 삼가(三佳)로 이루어진 마을이라 해서 '삼가골'이라 불리던 것이 '삼각골'로 변하게 된 것이라 한다.

# 9. 조안면(鳥安面)

## 1) 능내리(陵內里)[능안, 능내]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묘가 있으므로 능안 또는 능내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능내리에 있는 '마현'은 광주부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로, 말을 타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고개가 있어서 '마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림학사 민씨도 이 곳에서 살았다고 전한다.

\* 선돌은 선사시대 거석기념물의 하나로서 자연석 또는 가공한 기둥모양의 돌을 땅 위에 하나 또는 몇 개 세운 것이다.

## 조안면 행정구역도



### 2) 조안리(鳥安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광주군 지역인데 1914년 조동리의 '조(鳥)'자와 사안리의 '안(安)'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조동' (새울·새월)은 옛날 이 곳에 새가 머물다 날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는 달리 박씨 선조가 한양 가는 길에 이 지역에서 쉬게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기 좋고 물이 좋아 가려 했던 길을 멈추고 여기서 살기로 하고, 마을 이름을 '조동'이라 하였다. '새울' 또는 '새월'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새와 관련된 지명으로 조동 시쪽 외부읍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새재', '새고개(鳥巖)'가 있다.

### 3) 진중리(鎭中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광주군으로 1914년 진촌리의 '진(鎭)'자와 중리의 '중(中)'자를 따서 진중리라 하고 양주군 외부면에 편입시켰다.

한편 이 곳에는 '고려장터'라는 이름이 전하는데, '고려장(高麗莊)'이란 고구려(高句

體) 때의 장사(葬事) 지내는 법으로서, 늙고 병들은 사람을 묘실(墓室)에 옮겨 두었다가 죽으면 거기에 안치하고 금은 보화를 넣은 다음 돌로 쌓아 봉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장사 풍습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병든 노인을 깊은 산골에 버리는 풍습으로 전해졌다. 진중리 북동쪽에 있는 '고려장터'는 바로 이러한 고려장을 실행하던 구체적인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리'라는 마을은 '중말'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말의 죽을 먹었던 곳으로 처음에는 '죽말'이라고 부르다가 '중말'로 변하고, 다시 '중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馬)과 관련된 곳으로 '바진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 변용성장군의 전적지이다. '바진산성'이라는 이름은 말로 진을 쳤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 곳에 청동으로 만든 말이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 4) 송촌리(松村里)

'송송골·송신'은 송촌리에 있는 마을이다. 두촌 서쪽 송촌 2리에 있다. 중국에서 장수 이여송을 조선에 보낼 때, 송자가 붙은 마을은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을 전해들은 한음 대감이 직접 이 마을에 송자를 붙여 지은 이름이 바로 '송송골'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와는 달리 두촌마을에 세대수가 늘어나자 마을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소나무밭 속산에 만들어진 마을이라 해서 '송송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송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현재 송촌리는 이 '송송골' 즉 '송송동'의 '송(松)자와 평촌리의 '촌(村)자를 합하여 붙여진 것이다.

#### 5) 삼봉리(三峰里)(삼봉, 구봉)

이 곳에 봉우리가 세 개 있으므로 삼봉 또는 삼봉을 세김하여 구봉이라 하였다. '삼봉리'라는 리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 6) 시우리(時雨里)[시우골, 시우동]

이곳의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비가 갑자기 오면 큰물 즉 시위가 잘 나므로 '시우골' 또는 '시우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 10. 오남면(梧南面)

### 1) 양지리(陽地里)

양지리는 중심 마을이 '양지밭', '양지편', '양지'라고 하는데 양지바른 곳이므로 붙은 이름이다.

이곳 양지리에는 '삭다니·삭다리'라는 특이한 이름이 있는데, 옛날에는 '골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골밭'에서 '삭다니' 혹은 '삭다리'로 바뀐 이유는, 이 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마을 대추분이 타버려서 '모두 다 터버린 마을'이라는 의미의 '뺨한리'로 불리다가 '삭다리' 혹은 '삭다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2) 팔현리(八賢里)[발안, 배라니, 배래니, 팔현]

이곳은 발판 안쪽이 되므로 '발안', '배라니', '배래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조선조 유명한 유학자인 정필재(正璧齋) 김종직(金宗直)과 망세정(忘世亭) 김선(金善) 등 여덟 명의 선비가 이 곳에서 잠시 만나 강론을 하였다 하여, '여덟 현인(賢人)이 온기했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여덟 선녀가 이 마을에 내려와 목욕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팔현'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래서 이들 팔현의 정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사당으로 '팔현계'가 있다.

그리고 원팔현 북쪽 팔현유원지에 '형제비위'가 있다. 옛날 남양홍씨(南陽洪氏) 가문에서 사효성문(四孝姓門)을 받은 홍서구(洪瑞龜)를 비롯하여 그의 아우 주구(周龜), 우구

## 오남면 행정구역도



(馬龜), 응구(應龜) 등 4형제가 이 곳에서 사이 좋게 놀던 자리라 해서 형제바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이 바위에 돌을 던지고 기원을 하면, 아들 형제를 낳는다고 하여 '형제바위'라 불린다는 유래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 3) 오남리(梧南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진천면 지역으로 1914년 오산리의 '오(梧)'자와 어남리의 '남(南)'자를 따서 오남리라 하여 진접면에 편입되었다.

'오산'이라는 이름은 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그러나 낮을 가는데 사용되는 숫돌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 해서 '숫돌모루', 또는 '숫돌머리'라고도 한다. 이와는 달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돌아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어남(於南)·오남(梧南)·어넘이'는 세조가 광릉 묘지터를 찾으러 광릉 방향으로 가는 길에 건너다 본 곳이라 하여 '어람리(御覽里)'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의넘리', '어

남이, 어남(於南)이라고 불리다가 '오남'으로 되었다고 한다. 고종황제 때의 내시가 이곳에 와서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11. 호평동(好坪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상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호반(好澗)리의 '호(好)'자와 평동(坪洞)리의 '평(坪)'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호평동에는 '가마솥동지'라는 바위가 있는데, 좌우로 갈라진 바위 사이가 큰 가마솥을 엮을 만하다 해서, '가마솥동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이 지역은 가을이 들 때면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온 동네 부녀자들이 키를 들고 이 곳으로 와서 키로 몸을 피서 바위에 끼었으며 비가 오기를 빌었다고 한다. 가을이 심한 해에는 몇 번씩 키질을 하기도 했으며, 키질을 마치고 내려오면 낫은 키가 새 마르기도 전에 비가 오곤 했다고 한다.

### 1) 구룡터·구명터·구멍터·구녕터

호평동에 있는 마을이다. 한때 경춘간 고속화도로가 마을 기운대를 지나게 되어 마을이 양분되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이 지역의 우물에서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였다고 해서 '구룡터'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외는 탈리 구씨와 명씨가 살던 곳이라 해서 '구명터'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구명터'라 불리는 것은 '구녕터'가 변해서 된 것이라 한다.

처음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약간씩 달리 전하기 때문에 마을 이름도 약간씩 다르다. 즉, 전 구룡이라는 사람이 처음 살았기 때문에 '구룡터', 전구명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구명터', 전구녕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구녕터' 등으로 불린다는 것이다.

'호반'이라는 이름은 원래 '흙양'이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무네마골 논에다 물을 대기 위해 느티솔쪽으로 나무 흙을 파서 만든 흙통을 이어 낸 농수로가 있었는데, 이 흙통

### 호평·평내·금곡·양정·지금·도농동 행정구역도



으로 된 농수로 안에 있는 집들을 '흙안'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에 부르기 쉽게 '호만'이라고 하기 시작했으며, 한자어로는 '호만(好滿)'이라 표기했다.

## 12. 평내동(坪內洞)

평내리 151번지에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사당(祠堂)이 있어 궁촌이라 하는데, '궁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궁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혹은 이성계의 아들인 의안대군(宜安大君) 이방석(李芳碩)의 사망 후 이 곳에 궁을 세운 이후부터, '궁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궁평(宮坪)'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궁평의 '평'자를 따고 그 안쪽에 있다는 뜻으로 '내(內)'자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 13. 금곡동(金谷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금촌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4월 1일에 금촌면 일패리와 간천면 송창리 일부를 병합하여 '금곡리'라 하고 비금면에 편제되었다. '쇠골'이라고도 한다. 1989년 1월 1일 법률 4050호에 의해 비금시로 분리 승격되면서, 금곡리가 금곡동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시청 소재지가 있으며, 남양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금곡동은 예전에 짙을 파낸 곳이라 하여 '쇠골' 즉 '금곡'이라 불렀다.

금곡동에 있는 자연마을 가운데 '무대(舞臺)'가 있다. 옛날에 벼슬이 높은 선비가 지나가다가 아래로 보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시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흠이 올라 증을 주고 갔다고 해서 '무대'라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이귀에는 흠을 준 장소인 느티나무가 있으며, 남양주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금곡동을 이루는 4개의 큰 마을 중 '어룡(魚龍)' 또는 '어룡골'이라는 곳이 있다. '어룡'이라는 이름은, 현재 길도가 놓여진 지역이 예전에는 저수지였는데, 이 곳에서 돌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 14. 양정동(養正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금촌면과 와공면 일부 지역에 속해 있었다. 1989년 1월 1일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을 아우르는 행정동으로 만들어졌다. 자연마을인 양정에서 따온 명칭이다.

'양정(養正)'은 봉두배삼거리 서북쪽에 있으며, 건너마을, 불사골, 흥계, 뒷골, 안마을, 바깥골, 가마골 등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옛날 양정암씨가 차를 와서 살던 곳이었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 증업 전주최씨의 양정재(養正齋)라는 묘막이 있어 그 후부터 '양정'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 1) 왕자궁(王子宮)

이패동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해질모루 서쪽에 있다. 조선 중엽 장현세자의 서자인 은신군(恩信君)과 은신군의 생모인 임숙빈(林肅嬪)의 묘를 쓴 뒤부터 '왕자궁'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윗궁'과 '아랫궁'으로 나누어지며, 예전에는 집도 크게 있었다고 한다. 다른 제보자는 그 무덤의 주인이 고종황제 8촌의 묘였으며, 지금은 이장했다고 한다. 또 어린 왕자를 데려다 키운 곳이 이 마을이었다는 데서 이런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 2) 삼패동

'삼패동(三牌洞)'이란 이름은 청풍김씨 신도비에서 연유된다. 삼패동 평구마을에는 김식(金湜), 김옥(金埴), 김좌명(金佐明)의 신도비가 있다. 이처럼 청풍김씨의 신도비가 3기가 있기 때문에 삼패(三牌)동이라고 한다. 이 중 김식의 비석에 쓴 돌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비신과 이수가 통들로 되어 있다. 일패, 이패동 역시 각각 비석이 한 기, 두 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 3) 평구마을

평구마을의 '평구(平丘)'는 평평한 언덕이 박당꼴처럼 흩어져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평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생겼다고도 한다.

## 4) 역말·역촌

삼패동에 있는 마을 중에 '역말·역촌'이라는 곳이 있다. 조선시대에 한양을 기점으로 8도로 가는 도로에 설치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혹은 역마가 휴식을 하고 공문서를 전달, 교환하던 곳을 역원(驛院)이라 했었다. 이 마을이 바로 한양 40리 지점

으로, '평구역(平邱驛)'이라는 역명이 설치되었었다. 이러한 연유로 '떡밭' 혹은 '역촌(驛村)'이라 불린다.

## 15. 지금동(芝錦洞)

### 1) 가운데동(加雲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미음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가재(加在)동의 '가(加)'자와 조운(朝雲)리의 '운(雲)'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가재(加在)'는 가운데동에 있는 마을이다. '가재'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마을 주변 산의 형상이 가재와 같다고 해서 '가재마을' 또는 '가재울'이라 불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마을 북쪽에 있는 '만산'에 가재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관련된 유래가 있다. 또 다른 유래는 임금이 지나가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 곳은 가히 설 만한 곳'이라 했다고 해서 '가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조운(朝雲)'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첸터'라고 하다가, 다시 '조원'이라는 원집이 있어 '조원'이라 부르다가, '조운'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2) 수석동(水石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미음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수변(水邊)리의 '수(水)'자와 석실(石室)리의 '석(石)'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수변이란 글자 그대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붙은 이름이고, 석실은 이곳에 석실서원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95년 남양주시로 승격되었을 때 수석리에서 수석동으로 바뀌었다.

'석실(石室)'은 '서원' 혹은 '재원'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여러 지명들은 모두 석실서원이 이 마을에 있었던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조선시대에 안동 사람 김창협이 석실서원을 설치하여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라는 연유로 이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이다.

'미읍(美邑)'은 수석동에 있는 마을로서 조선 중엽 안동김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원래 김조기 자손의 호를 따서 '미읍'이라 칭하다가 구한말 때 '수변리(水邊里)'로 바뀌었다.

### 3) 지금동(芝錦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미읍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지사리(芝沙里)의 '지(芝)'자와 금교리(錦橋里)의 '금(錦)'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금교(錦橋)리'는 조선조 중엽 '금어'라고 불리는 조그만 개울에 있던 다리를 '금교'라고 하였는데, 이 다리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 16. 도농동(陶農洞)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 제2조에 의해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폐지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4774호로 남양주시로 승격되었을 때 도농리에서 도농동으로 바뀌었다.

'도농(陶農)·도봉'은 본래 양주군 미읍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교리, 가재동의 각 일부와 구지면의 인장리 일부를 병합하여 도농리라 해서 미읍면(읍)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철그릇을 구웠던 마을이어서 '도농' 또는 '도봉'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 중엽 남양홍씨가 거주하였는데, 도적이 너무 많아 철(鐵)로 울타리를 만들어 세웠던 연유로 '쇠미'라고 하다가 '도농'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제7절 장터

남양주시에는 현재 9개의 장시가 있는데, 광릉장·강현장·마석우리장이다. 광릉장은 광릉천장이라고도 하며 진접읍 부평리에 있고 강현장은 진접읍 장현리에 있으며 해방 후에 생긴 장이다. 마석우리장은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다. 이 외에도 덕소장(와부읍 덕소리), 금곡장(금곡동), 진전장(진전면), 퇴계원장(퇴계원면) 등이 있었다고 한다.

남양주시 장시 현황

| 장이름  | 개시일  | 소재지      | 주요 거래물품                     |
|------|------|----------|-----------------------------|
| 광릉장  | 4·9일 | 진접읍 부평리  | 채소, 의류, 생선, 공산물(우시장은 현재 없음) |
| 강현장  | 2·7일 | 진접읍 장현리  | 채소, 의류, 고추, 잡화, 공산물         |
| 마석우리 | 3·8일 | 회도읍 마석우리 | 채소, 의류, 잡화, 공산물(우시장은 현재 없음) |

### 1. 광릉장

광릉장은 1985년에 장이 폐쇄되었다가 1996년에 재개설되었다. 광릉장의 우시장은 마석, 춘천, 덕소 등의 장들과 연결되었는데, 이들의 규모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출장두수도 적었다. 그래서 결국 1985년 우시장이 폐쇄되면서 광릉장도 같이 사라졌었다. 그러나 광릉내 주민들이 1996년 6월 14일에 장을 재개설하였다. 당시 이곳 사람들이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광고도 하였고, 플래카드도 걸어 놓았다.

광릉장의 개장 시간은 아침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이다. 장세는 없는데, 상인들이 장세를 내지 않는 대신 포장 후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읍사무소에서 특별히 관

리하지 않는다.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농민들, 아파트 연립 등 주택가, 식당 등으로 식당에서는 채소 등을 구입한다. 거래품목 중에서는 생선이 많이 팔리는 편이다. 슈퍼마켓 등 상설점포에서는 생선을 냉동실에 보관하므로 당일의 신선한 생선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는 5일장을 이용한다. 또 세금을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도 싸다.

장의 구조는 장옥이나 점포가 없고 모두 노점이다. 내촌으로 가는 주요 길(국도) 왼편으로 난 천변 셋길에 장터가 형성되어 있다. 왼편 천변 쪽으로 의류전, 과일전, 건어물전, 생선전, 잡곡전, 생선전, 채소전, 신발전, 의류전, 생선전, 그릇전, 과일전, 반찬전, 절물전(문달음) 등이 있고 오른쪽 길가 안쪽으로 채소전, 간이음식점(포장), 젓갈전, 의류전, 두부를 주로 파는 반찬전, 건어물전, 가방전, 침구전, 화분·분재·조화 등을 파는 노점, 의류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릉장의 경우 장 이용자는 농민들보다 직장을 가진 주민들이 더 많다. 이들은 광릉장 말고도 서울에까지 가서 장을 본다.

## 2. 장현장

장현장은 광릉장과 마찬가지로 1955년에 세워졌다. 원래 광릉내 방향 진빌리에 면소 재지가 있어서 그곳에 광릉장이 있었고 우시장도 있었다. 한국전쟁 후 광릉내의 장이 주춤하던 때인 1955년에 이곳에 장현장이 세워졌다. 장현장이 설립될 초기에 미곡상인 1명, 잡화상인 2명, 주류업자 1명, 전매업자 1명, 이발업자 1명 등 6인이 모였다. 장터, 즉 토지를 확보해야 장이 설 수 있는데 이들이 주동이 되어 마침 서울에 사는 논주인에게 땅을 기증받아 군청에 장 설립을 신고하였다.

장현장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던 6~7년 전부터 활성화되었다. 현재 장 운영은 장현 4리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한다. 노인회에서는 장날마다 장세를 걷는데 큰 점포나 음식점 등 좌판이 크고 비싼 물건을 파는 경우는 1500원, 그보다 작은 좌판이나 가게는 1000원, 규모가 작아도 상자를 펴고 장사하면 500원, 길바닥에 조금씩 놓고 파는 장사는 200~300원을 받는다. 매 장에 평균 6만~7만 원이 걷히므로 상인은 대략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 장세를 거두어 읍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 남은 돈은 노인회 성원

들의 복지에 쓴다.

장 이용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고 근처 농민들도 버스를 타고 나온다. 장승백이(옛 봉내 검문소 뒷미천 곳), 오남리, 팽암리, 내곡리 등에서 온다. 내곡리에는 장이 없어 이곳으로 오든지 서울로 나가든지 한다. 내곡리보다 서울 쪽에 가까운 마을주민들은 퇴계 원이나 서울의 장을 이용한다. 장 이용자의 수는 각 장마다 다르다.

장현장은 크게 3군데로 구성된다. 중심은 원래의 장터로 도로 남쪽의 이면 길에 좌우로 가게가 형성되어 있고 중간 가운데에 공터가 있어 장날이면 이곳과 각 가게 앞에도 점이 형성된다. 다른 한 곳은 평소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복개된 위 공터이고, 나머지 한 곳은 농협 앞과 길 건너 버스 정류장 좌우로 도로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원래의 안쪽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목계천은 장이 서지 않던 곳으로 1990년대 들어와 3단계로 복개한 후 명소에는 주차장, 장날에는 장세를 주차관리사무실에서 걷는다. 진접노인분회에서 관리(원래 시장터는 매년 읍사무소와 입찰계약을 맺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현 4리 노인회에서 별도로 시장관리를 위한 자치회를 구성, 입찰에 응하여 7~8년 이전부터 관리해 왔다.

시장 안을 보면 장옥은 목재로 된 허름한 것이 두 채 있었으나 하나만 남겨두고 없었다. 가게는 두 채 있다. 짜전은 2곳, 어불선 4곳(전체 10군데), 생선·반찬가게 4곳, 옷가게는 노점 합하여 6곳, 아재장수 3명이고, 과일장수는 많다. 그 밖에 참외, 철물, 그곳을 파는 노점, 대장간 등이 있다. 시장 안 병원 앞에 설치된 간이음식점은 장날만 연다. 가게 주인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주로 장에만 오는 노점상들은 대부분 외지인이다.

### 3. 마석우리장

마석우리장은 화도읍내에 있다. 장터는 축협전불 뒷편의 우시장터를 비롯하여 축협 건물을 둘러싼 광복, 그리고 원래의 국도에서 축협 쪽으로 향하는 화도파출소 옆으로 난 길이 중심부다. 원래의 국도변에도 요즈음엔 상인들이 나와 장사를 하고 있다. 이곳은 기차(경춘선)와 육로(46번 국도)의 거점으로 발달하였으며, 기차에서 육로로 중심 교통수단의 변화가 있었다.



마석우리장은 『임원경제지』에 2·7일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朝鮮의市場經濟』(1929년, 朝鮮總督府)의 1926년 당시 조사에는 5·10일장으로, 문정창의 『朝鮮의市場』(1941, 東京:日本評論社)의 1938년 통계에는 지금의 3·8일장으로 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의 도시개발로 시장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장날에만 장이 서다가 이후로는 상설시장화하였고, 따라서 5일장의 특성은 점점 희박해져갔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상가도 발달하였으며 이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단지까지로 확대되었다. 장마당의 위치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석우리의 우시장은 규모도 컸고 최근까지도 장이 섰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장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우시장터인 죽림컨플 뒤편에는 철제 파이프를 울타리와 소를 뺄 수 있는 팔뚝만이 남아 있다.

우시장은 15년 전에 설립된 화도축협에서 관리하여 모다가 7~8년 전에 그만두었다. 우시장이 번성했던 때는 80년대 초까지였다. 그리고 마석우리장도 우시장이 잘되던 때나 잘되었으며, 지금은 우시장의 쇠퇴에 따라 크게 위축되었다.

마석우리장의 규모는 1976년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건평 210평, 실제 부지 1170평으로 가축을 제외한 하루 장의 거래액이 175만 원, 고정상인 30명, 이동상인 60명, 일반이용자 600명의 규모였다.

마석우리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협소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상인들이 들어서서 비교적 많은 상인들이 나오며, 어느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야채, 기름, 곡물, 고추, 밤 등을 조금씩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겸 상인들로 매우 북적된다.

## 제4장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여 백

# 제1절 왕릉(王陵)과 원묘(園墓)

## 1. 광릉(光陵)

- 지정번호: 사적 제197호
- 소재지: 진접읍 부평리 산 100-1

조선시대 제7대 세조(1417~1468)와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의 능이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이름은 유(瑑), 자는 수지(粹之)이다. 1417년(태종 17)에 탄생하여 진평대군(晉平大君)으로 봉(封)해졌고, 이후 함평·진양·수양대군 등으로 개봉되었다. 세조는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여 등극하였지만, 재위기간에 군제 정비, 국방 강화, 서적 편찬, 토지제도 및 관제 개혁 등 지적이 많았다. 왕위 14년 9월 병세가 악화되자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2세로 승하하였다.

왕비 정희왕후 파평윤씨는 파평부원군 윤변의 딸로 1418년(태종 18) 흥천에서 태어나 세종 6년 가례(嘉禮)하여 낙랑부대부인(樂浪府大夫人)에 봉해졌다가 세조의 즉위와 더불어 왕비에 책봉(1455)되었다.

세조의 능은 조선시대 왕릉제도를 김소하게 바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능이다. 광릉 입구에서 능으로 들어서면 홍살문을 지나고, 묘도를 따라 정자각이 나오는데 정자각을 중심으로 왼쪽이 세조, 오른쪽이 정희왕후의 능이다. 정자각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다.

세조는 “원과 능의 석실은 유해무익하니 석실과 사대석(병풍석)을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봉분에 병풍석을 없애고 석실을 회다짐으로 바꾸어 검약의 미덕을 보였다. 병풍석의 생략으로 신라시대 이래로 쓰여진 12지신상을 난간의 동자석주에 새겨넣었다. 광릉에는 그림을 조각해 넣었지만 이후 조선 말기까지 문자로 12지를 표시하였으



새로운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조성된 광릉

며 나중에는 24방위도 난간에 새겨 넣었다. 또 석실을 죄다짐으로 바꿈으로 인해 묘의 조성인부가 6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고 석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되었다.

능 배치도 동원이강(洞原異岡)의 새로운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두 언덕의 묘를 하나의 정자각(丁字閣)으로 하는 것으로 후세의 능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까지는 왕과 왕비릉을 나란히 두고자 할 때 고려 현정릉(玄正陵)식의 쌍릉이나 세종 영릉식의 합장형식을 취하였다. 세종의 영릉이 국초 능제를 총정리한 것이라 한다면 광릉은 국초 왕릉제의 일대개혁을 이룬 점에서 조선 왕릉 제도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광릉은 곡장 대신 이담한 담을 둘러졌으며, 능 앞의 석물은 이전의 능제와 비슷하다. 능에는 호석 없이 난간·석주만을 둘러졌으며 그 주위에 호석, 양석을 각각 2쌍씩 놓았다. 봉분 앞에는 상석을 놓았고, 그 좌우로 망주석이 있으며,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는데 장중한 느낌을 준다. 장명등 좌우에는 문인석이 있고, 그 앞에는 말석이 있다. 그 아래로 장대석을 놓고, 무인석과 말석을 놓았다. 정희왕후의 능도 석물의 배치나 규모가 세조릉과 비슷하다.

능표는 1755년(영조 31)에 세워졌는데, 장방형 비좌와 병풍형 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비신은 오석(烏石)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148cm, 폭 65cm, 넓이 31.5cm이다.

## 2. 사릉(思陵)

□ 지정번호: 사적 제209호

□ 소재지: 진건면 사릉리 산 65-1

조선왕조 제6대 단종비(端宗妃)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의 능이다. 왕후는 1454년(단종 2) 정월 15세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을 상왕으로 모시면서 의덕대비(懿德大妃)로 봉해졌다. 그리고 1456년 6월 상왕복위사건이 일어나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학자들과 성승, 유응부 등 무신 즉 사육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단종도 노산군으로 강봉되면서 영월로 유배되었고, 왕후도 부인으로 강봉되었으며 아버지 송현수는 역모죄로 지방 관노비로 영속(永屬)케 되었다.

이후 왕후는 성 안에 살지 않고 동문 밖에서 강원도 영월의 단종이 묻힌 장릉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여 몇 칸의 초막을 지어 거처하면서 소복과 소찬으로 평생을 마쳤다. 1521년(중종 16) 왕후가 82세의 일기로 승하하자 중종이 대군부인의 예로 장례하게 하였고 이후 숙종 24년 단종복위와 더불어 정순왕후로 추상하여 종묘에 부향되었으며 묘를 높여 사릉이라 하였다.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를 모신 사릉

석물세도는 장릉과 같이 난간과 무인석을 생략한 후능석양(厚陵石槨)을 따른 것으로 숙종대의 양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능 주위가 통암에 둘러져 있는 단아한 모습이며 묘역은 약 4만 4,325평이다.

능표비는 1771년(영조 47)에 세워졌으며, 높이 512cm, 폭 63.5cm, 넓이 35cm이다.

### 3. 광해군 묘(光海君墓)

○ 지정번호: 사적 제363호

○ 소재지: 진건면 송릉리 산 59

조선 제15대 임금인 광해군(1575~1641)과 왕비 류씨(柳氏)의 묘역이다. 광해군은 이름이 륜(璘)이고 선조의 둘째 아들로 후궁 공빈 김씨의 소생이며, 안운 류자신의 딸과 결혼했다. 선조는 적자가 없어 세자책봉을 미루고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으로 피신하면서 평양성에 머무를 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본래는 14명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임해군이 세자가 되어야 했지만 성질이 난폭해 군왕의 기질이 없다 하여 둘째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광해군은 1608년 2월 34세로 왕위에 올라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명나라에는 겉으로는 협리하는 체하면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고, 후금에는 명의 강요 때문에 출병했다며 그들과 우호를 다지겠다는 양면계책을 쓰는 등 등거리 실리외교를 폈다. 한편,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대포를 주조하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다. 왕권 강화와 인생안정책을 펴 당쟁 종식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1608년 선혜청을 실시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며 1611년에 양전을 실시 국가재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서적 긴 행 등 문화면에서도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겼다. 이때 「신증동국여지승람」, 「용비어천가」, 「동국신속삼강행일」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초보감」을 재편집하여 정사 운영의 방향을 확립했고, 임란으로 소실된 사교(史敎)를 대신해 전북 무주 적산산성에 사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재위 15년(1623)에 왕권 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형인 임해군과 영창대군 등을 역모로 몰아 죽이는 등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대군의 예장에 준하여 조성된 광해군 묘

등 배륵행위를 일삼아 서인세력들에 의한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그는 폐위된 후 강화도를 거쳐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641년(인조 19) 67세로 서거하였는데 초연한 자세로 유배생활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을 어머니 묘 받치에 묻어달라"고 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그를 공빈 김씨가 묻힌 성묘(成墓) 아래쪽 오른쪽에 장사지냈다. 부인 류씨는 인조반정으로 폐출되어 1623년(인조 원년) 유배지인 강화에서 서거하였다.

묘역은 진건면 송릉리 산 59번지에 문성군부인 유씨와 쌍봉이다. 묘역은 곡장 안의 오른쪽이 광해군, 왼쪽이 문성군부인의 묘이다. 묘역은 전체적으로 단출한 느낌을 주는데 대군의 예장(禮葬)에 준하였기 때문에 봉분 주위에 석물은 없다. 묘의 방향은 남남동향이다.

묘표는 장방형의 비좌에 복련(覆蓮)을 장식하였고,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구름무늬에 일월도가 새겨진 월두형이다. 묘표 앞에는 상석, 장대석,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망주석이 있고, 그 앞에 문인석이 있으며, 양쪽 중간 사각형의 받침대에 팔각지붕 형태의 장명등이 있다. 우측 망주석은 윗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장명등의 중간에 꽃무늬가 있다.

## 4. 홍릉·유릉(洪陵·裕陵)

□ 지정번호: 사적 제207호

□ 소재지: 금곡동 141-1

### 1) 홍릉(洪陵)

홍릉은 제26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의 능이다. 고종은 1852년(철종 3) 영조의 현손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철종이 승하하자 12세로 즉위하였다. 재위 44년 동안 왕조의 쇠퇴기를 당하여 밀려드는 제국주의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갑신정변, 동학농기,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 러일전쟁, 대한제국 선포 등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으며 67세로 승하하였다.

황후 민씨는 흥선대원군 부대부인 민씨가 추진, 고종 3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흥선대원군을 섭정에서 몰아내기 위한 세력 뿐 아니라 친정(親政) 이후에도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여 실권을 잡아하였다. 1895년 일본공사가 보낸 자객에 의해 45세의 나이로 참변을 당하여 숨졌다. 1897년(광무 원년)에 명성황후로 추봉되었으며 청양리 홍향에 장사하였다가 고종 승하 때 홍릉으로 이장하였다.

홍릉은 일반 왕릉의 세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명나라 태조의 능인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을 구성하였다. 즉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에 등극한 관계로 능제도 역시 황제의 위치에 걸맞게 기존의 왕릉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공원 같은 느낌이 들며, 입구를 통과하면 작은 언덕이 나오고 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면 좌우에 수복방이 있으며, 왼쪽에 재실과 부속건물이 있다. 재실은 행당채와 부속건물이 있는 삼림집행이다. 홍살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위가 있고, 묘도를 따라 가면서 좌우에 석물을 배치하였다. 석물은 제일 앞에 문인석, 무인석을 세우고 이어 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 등의 순으로 석재 동물상을 세워놓고 있다. 양릉의 문인석은 복두(復頭) 대신 금관을 쓰고 있으나 조각수법에 있어서 도식화되고 경직되어 있다.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종래의 청자각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이 있다. 침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정면과 양 옆에 마련되어 참도를 구분하고 있다. 침전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다. 능표각 뒤에는 울타리를 치고 그 우측면에 곡장을 두른 어수형이 있는데, 밧개는 24개의 줄로 만들었다. 침전 좌측에는 소대가 있다. 봉분 주위에는 난간석을 두르고 있는데, 이러한 난간석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씨를 모신 흥릉



흥릉과 같이 황제릉의 제도로 조성된 유릉

은 현종 이후 다시 등장한 것이다. 침전 뒷 능산의 석물 배치는 허수와 문·무인석의 배치만 빼고 전통적인 제도에 따르고 있다. 장명등은 4각실 형식의 것이나 대석의 면화를 보이고 있고 병풍석에는 연화무늬단을 조각하고 있다.

## 2) 유릉(裕陵)

유릉은 제27대 순종황제(純宗皇帝)와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 및 계후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의 동릉 3실의 능이다.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아들로 1874년(고종 11)에 창덕궁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렬(利), 자는 군방(君邦)이다. 1875년 왕세자로, 1897년(광무 원년)에는 황태자로 책봉되었다가, 1907년(광무 11년)에 즉위하여 연호를 '융희(隆熙)'라 하였다. 재위 4년 동안 일제의 간섭으로 허위에 앉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왕조의 종말을 고하였다. 재위기간 동안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1910년 테라우치 봉감은 이완용과 한일합방 조약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 순정효황후의 숙부 윤덕영을 시켜 황세의 옥새로 날인케 하였다. 왕으로 강등된 순종은 창덕궁에 있다가 1926년 4월 25일 53세로 승하하였다. 순종의 장례식날 전국에서 6·10만세 사건이 일어났고, 6월 11일 유릉에 안치되었다.

황후 순명효황후는 어흥부원군 민태호의 딸로 1882년(고종 19) 11세로 세자빈으로 책봉되고 광무 원년 황태자비에 책봉되었으나 순종 즉위 전 광무 8년 33세로 승하하였다. 같은 해 11월 29일 현재 어린이 대공원 내에 묻혀 유강원이라 하였다가 순종이 승하하자 지금의 유릉에 이장하였다.

계후 순정효황후는 해동부원군 윤택영의 딸로 1894년(고종 29) 출생하여 1906년(광무 10) 13세에 황태자비에 책봉되고 순종이 즉위하자 황후가 되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될 때 병궁 뒤에서 옥새를 치마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다가 결국 숙부 윤덕영에게 장제로 빼앗기기도 하였다. 일제의 강권 이후 왕비로 강등되고 1926년 순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왕의 아우 영왕을 왕태자로 책봉하였다. 1966년 낙선생에서 승하하여 유릉에 합장되었다.

능새는 흥릉과 같이 황제릉의 제도로 조성되었다. 능의 입구에는 오른쪽에 수라간과 수북봉 등을 갖춘 수십 칸의 재실이 있고, 길을 따라 올라가면 홍살문 좌측에 어수청이 있으며, 2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다. 신도를 따라 양쪽으로 석물을 배치하였다. 석물은

침전쪽에서부터 문무석을 세우고 이어 홍전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의 순으로 세워놓고 있다. 끝의 말 2필은 종래 문무석 뒤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인석은 건릉, 원릉의 문인석처럼 복두 대신 금관을 쓰고 있으나 조각 수법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고 있다. 홍릉이 조선 왕릉 석인의 전통적인 수법으로 만들어진데 비하여 유릉의 것은 사실적이고 개성적이며 입체감을 잘 살렸다.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홍릉과 마찬가지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이 있다. 침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정면과 양 옆에 마련되어 참도를 구분하고 있다. 침전 안의 천장에는 두 마리의 용이 외호하고 있는 화려한 용상과 문양, 단청 또한 선명하고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홍릉이 시범된 황새릉이었다면 유릉은 숙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침전 우측에는 능표각이 있다. 침전 좌측에는 소대가 있다. 침전 너머 능침은 서향으로 침전과 약간 틀어 앉아 있다. 봉분에는 곡장을 두르고 연화문·모란문이 새겨진 병풍석과 난간석을 12간석으로 두르고, 봉분 앞에는 상석을 놓았다. 좌우에는 망주석이 있고, 상석 앞의 장명등은 4각실 형식의 것이나 대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5. 순강원(順康園)

□ 지정번호: 사적 제356호

□ 소재지: 전집읍 내각리 150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1568~1608)의 후궁 인빈 김씨(仁嬪金氏: 1555~1613)의 묘이다. 인빈 김씨는 본관이 수성이며, 휘는 준사(浚仕)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元宗: 추존)을 낳았으며 1616년(광해군 5)에 59세로 승하하였다.

인빈 김씨는 어릴적부터 영리하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몸가짐이 조신하였다. 명종의 후궁인 숙의 이씨(淑儀李氏)가 궁중에 데려가 길렀는데, 명종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가 선조의 후궁으로 삼도록 하였다. 1573년(선조 6) 숙원에 봉해지고, 이후 작품이 점점 높아져서 귀인에까지 올랐다.

한번은 선조비인 의인왕후가 병환이 들자 극진히 간호하였는데,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승하하였다. 그때 예절이 지극하여 처소에 있는 궁인들이 조금도 법도에



선조의 후궁인 안빈 김씨의 묘인 순감당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씨로 인하여, 1608년 작위를 띠하여 인빈에 봉해졌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3년이 지난 뒤 궁궐에서 나왔다. 이후 사제에 기거하면서도 천성이 온화하고 부덕을 갖추었음인지 선조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은혜를 입었다. 스스로 겸양하여 자신을 낮추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사에 어김이 없었다. 또한 귀천에 관계 없이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였다. 광해군이 비록 무도하였지만, 빈이 있는 곳에서는 공경스럽게 대우하여 감히 환란을 가하지 못하였다.

인빈의 위패는 1755년(영조 31)에 원종의 잠저(潛邸)인 송헌궁(松峴宮)에 봉안하고 궁호를 저경궁(儲敬宮)이라 고쳤으나 1908년(순종 2)에 서울 궁정동 소재 칠궁으로 옮겼다.

묘는 정남향으로, 화강암 곡장을 돌렸으며 곡장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둥근 무늬 모양을 장식해 놓았다. 봉분은 호석으로 둘러져 있는데 뒷부분은 많이 훼손되었다. 봉분 주위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해태, 양이 있다. 봉분 앞 묘표는 장방형의 비좌에 비신,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으로 구성되었다. 그 앞에는 상석이 있고, 향로석이 있다. 좌우에 동자석을 세우고 그 앞 좌우에 망주석, 혼유석 그리고 문인석을 차례로 두었다. 문인석 앞쪽에는 말석(馬石)이 있는데 우측의 경우 일부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의 묘인 휘경원

묘의 앞쪽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각이 있고, 그 우측에 팔작지붕 형태의 능표각이 있으며 능표는 1771년(영조 47)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과 재실터 등이 있다. 묘 좌측에는 인빈김씨의 둘째 아들 신성군의 묘와 신도비가 원 내에 있다. 순강원에는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을 비롯해 재실터, 정자각 등이 있다.

## 6. 휘경원(徽慶園)

- 지정번호: 사적 제360호
- 소재지: 진접읍 부평리 267

수빈 박씨(綏嬪朴氏: 1770~1822)는 본관이 반남(潘南)이고, 아버지는 좌찬성 박준원(朴準淵)이며, 어머니는 원주원씨(原州元氏)이다. 정조의 후궁으로, 1787년(정조 11년) 빈이 되어 순조와 숙선옹주를 낳았는데, 순조를 낳을 때에는 궁인이 용이 나는 상서로운

꿈을 꾸고 임신하여 순조를 낳았다고 한다. 궁호는 가순, 시호는 현목(顯穆)이며, 동대문구 휘경동 배봉산에 묘를 쓰고 휘경원으로 정하였다. 1855년(철종 6) 인봉의 천장지를 구하면서 휘경원도 옮기기로 하여 순강원 뒤로 옮겼다가 1863년(철종 14) 다시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경우궁에 제향되었다.

봉분 뒤에는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과 석물을 배치하였다. 봉분은 24개의 호석을 원형으로 두르고, 봉분 뒤쪽 좌우에 석조를 세밀하게 만들었으며, 그 앞 좌우 양석은 균형미가 있다. 봉분은 부분적으로 수축한 흔적이 많다. 봉분 앞에 상석을 놓고 그 좌우에는 망주석을 세우고 장대석으로 구획하였다. 그 앞 좌우에 문인석을 두었는데, 얼굴선을 강조하여 균형미가 있다. 그 앞 좌우에 있는 말석은 목이 상대석으로 기다란 느낌을 준다. 그 중간에 장명등이 있는데 화살과 팔각지붕 형태를 이중으로 장식한 화려한 모양이다.

묘역 아래에는 홍살문을 중심으로 묘도가 있고, 그 좌우에 건물지가 보이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 형태로 보인다. 다만 좌측의 것은 둘이 훼손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그 앞 정면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각이 있는데, 정자각은 맞배지붕 형태로 무늬 계단에 대극문양을 조각하고 그 좌우 옆면에 파도 문양의 구름을 조각하였다. 정자각 위 좌측에 어수정이 있고, 우측에 혼유석이 있다. 정자각 우측에 능표각이 있는데 능표는 민무늬 장방형 대석에 대리석으로 만든 비선에 팔각지붕 형태이다.

## 7. 흥원(興園)

☐ 지정번호: 기념물 제48호

☐ 소재지: 화도읍 창현리 산 22-2

조선 말기 개혁정치를 실시한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88)의 묘이다. 그는 고종 황제의 생부로서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이며 1843년(헌종 9) 흥선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현의(顯毅)이다.

고종이 1863년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였고, 1907년(광무 11) 대원군에서 대원왕(大院王)으로 추봉되었다. 그는 국내외로 복잡한 시기에 과감한 국정개혁에 착수하였다.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외척 세도를 일소하였으며 서원을 철폐하여 당쟁의 폐



홍신대원군 이허응의 묘연 복원

를 없애는데 노력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법전을 완비하여 중앙집권적 정치기강을 확립하였다. 비변사를 폐지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한편 삼군부를 두어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다. 세제를 개혁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였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천주교를 탄압하였고, 서양의 봉상 요청을 거부하여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때에 각각 강화도로 쳐들어 온 프랑스와 미국 군대를 격퇴시켰다. 또한 일본의 국교교섭 요구도 거부하는 강력한 대외정책을 폈다. 그는 집권 10년만에 명성황후와의 알력으로 1873년 은퇴하였으나, 1882년 임오군란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그렇지만 청나라에 강제로 납치되어 천진에 4년간 갇혀 있기도 하였다.

묘역을 올라가는 입구에 표지석이 있는데, 사각의 민무늬 비좌에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형이다. 앞면에는 “홍원(興園)”이라 써 있고, 뒷면에는 현손 이종(李宗)이 쓴 천장과정(天章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대원군의 묘는 원래 1898년 윤 3월 20일 고양군 공덕리에 있던 것을 1906년 12월 파주군 운천면 대덕리로 이장하였으며, 1966년 4월 28일에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옮겼다.

농제는 조선 농원제에 따른 듯하나 간략하며, 사성과 곡장으로 둘러져 있다. 봉분으

로 오르는 입구에는 闕太公廟所라 쓰여진 원표가 있는데, 민무늬의 장방형 대석에 각 호패형 비신으로 되어 있다.

묘역은 형식상 2단으로 나누어져 상단에는 호석으로 둘러 싸인 높이 240cm, 폭경 580cm의 봉분이 있고, 봉분 안쪽 좌우에 석양이 있다. 봉분 앞에 상석이 있고 그 앞에는 장대석을 놓았다. 장대석의 하단 앞 좌우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있다. 그 중간에 장명등이 있고 그 앞 양쪽에 말석이 있으며 중간에 난초 그림이 새겨져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약 25m 전방에 있는데, 귀부에 오석으로 만든 비신에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형이다. 이 비는 음화 21년, 즉 1927년에 세운 것으로 전반에 선란으로 인한 탄흔 5개소 및 좌측면에 직경 10cm 이상의 큰 탄흔이 10여 개소 있다.

## 8. 영원(英園)

≪소재지≫ 금곡동 산 141

영왕 이은(李垸 : 1897~1970)은 조선 말기의 왕족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본관은 전주, 고종의 첫번째 아들로 어머니는 귀비 엄씨(貴妃嚴氏)이다. 영친왕(英親王)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정식명칭은 영왕(英王)이다. 순종과는 이복형제간이다.

1900년 8월에 영왕으로 봉하여졌으며,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나 그해 12월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순종이 폐위되어 이왕(李王)이 되니, 황태자였던 영왕 역시 단순히 왕세제(王世弟)로 격하되었다. 1920년 4월 일본의 이른바 내선일체정책에 따라 일본왕족 나시모토(梨本宮)의 딸인 마사코(한국명 : 李方子)와 경략결혼하였다. 1926년 순종이 즉자 형식상으로는 왕위계승자가 되어 이왕이라 불렀으나 일본에 머문채 귀국하지 못하였다.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을 거쳐 육군 중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어 환국하고자 하였으나 국교 단절 및 국내 정치의 벽에 부딪혀 귀국이 좌절되었다. 1963년 11월 당시 박정희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고, 이방자와 함께 귀국하였다. 그러나 귀국 당시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시달리다가 죽었다. 생전에 부인 이방자와 함께 1966년 실산장애자재활원인 자행회(慈行會), 1967년에



임왕 이은의 묘역 영원 정자각

는 그의 아호를 빌린 신체장애자훈련원인 명휘원(明暉園)을 설립하였다. 사후에도 이방자에 의하여 1971년 영친왕기념사업회, 정신박약아교육시설인 자혜학교(慈惠學校), 1982년 신체장애아교육시설인 명혜학교(明惠學校) 등이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30일 죽은 부인 이방자와 합장하였다.

입구는 홍농 뒤편 언덕에 있으며, 그 우측에 덕혜옹주의 묘역이 있다. 영원은 입구 좌측에 제실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게 만들어 놓았다. 정면 6칸, 측면 2칸의 일자형으로 팔작지붕형이다. 제실을 지나면 홍살문과 신도가 나오고 다른 곳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아담한 정자각이 나온다. 정자각 우측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원표각이 있다.

묘역은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과 석물을 조성하였다. 봉분은 호석이 없이 주위에 난간석을 둘렀으며 봉분 주위에는 난초를 조각한 양석 2개, 무늬 없는 호석 2개씩이 각각 양쪽에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이 있고 그 앞 좌우에는 망주석, 장대석을 놓았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머리 중앙에는 무궁화문장이 있다. 그 양쪽에는 말석과 무인석 그리고 다시 말석이 있고, 또 장명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묘역은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해방 이후에 조성하였지만 그 형태나 조각은 홍유농의 영향을 많



묘역은 단순하지만 화려하게 석물을 장식한 성묘 전경

이 받았고, 홍원에 있는 석물들과 양식이 비슷하다. 현재 영원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 9. 성묘(成墓)

- 지정번호: 사적 제365호
- 소재지: 진건면 송능리 산 55

공빈 김씨(恭嬪金氏: ?~1577)의 본관은 김해(金海), 철정(僉正)을 지낸 김희철(金希楨)의 딸이며, 선조의 후궁으로서 임해군 이진과 조선 15대 임금인 광해군 이혼을 낳았다. 광해군 때에는 임금의 친모로서 추존하여 자숙단인공성왕후(慈淑端仁恭聖王后)로 삼고 전호(殿號)를 봉자(奉慈), 능호(陵號)를 성릉(成陵)이라 하였으나 광해군이 폐위된 후 다시 공빈으로 폐해지고 묘소의 석물도 예제에 어긋난다 하여 허물었다.

묘역은 단출하지만 화려하게 석물을 장식하고 있다. 봉분에는 8개의 호석을 돌렸고, 그 주위에 난간석을 돌렸다. 특히 난간석은 그 중간에 문양을 조각하여 화려함을 더 하였다. 봉분 주위에는 양쪽으로 해태와 양석을 각각 2개씩 장식해 놓았다. 봉분 앞에는 상석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을 두었다. 그리고 봉분 주위에 곡장을 돌렸는데, 담장 부분에 원통형 돌을 박아 넣어 모습을 화려하게 하였다.

상석 앞에는 장대석으로 층을 만들고 그 아래에 문인석, 말석, 장명등을 배치하였으며, 다시 장대석으로 층을 만들고 그 밑에 무인석과 말석을 배치한 형태이다. 장명등은 주위의 석물 중에 가장 화려한데 사각의 화창 위에 구름 문양이 조각된 팔각지붕의 옥개석을 얹었다. 그리고 무인석은 장대한 모습으로 무장의 갑옷 문양이 화려하고 칼은 빼어 앞에 잡고 있는 형상이다. 얼굴 모습이 위엄이 있는 형상이면서 해학적인 인상을 준다.

## 10. 안빈 이씨 묘(安嬪李氏墓)

☐ 지정번호: 사적 제366호

☐ 소재지: 진건면 송능리 적성곡 산 66

안빈 이씨(安嬪李氏 : 1623~1693)는 효종(孝宗)의 후궁으로, 숙녕옹주(淑寧翁主)의 생모이다. 숙녕옹주는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鎋成)에게 하가하였다. 숙종이 안빈으로 친호(進號)하였다. 병자호란 후 1637년(인조 15) 봉림대군이 심양(瀋陽)에 인질로 갈 때 같이 갔다가 1645년(인조 23)에 귀국하였으며, 숙녕옹주를 낳았다.

묘역은 곡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원통형 돌을 중간중간마다 장식하여 놓았으며, 곡장 안에 호석이 없이 봉분만 있다. 봉분 앞에는 묘표가 있는데 1691년(숙종 17)에 세워졌고, 화려한 꽃문양을 장식한 비좌에 월두형 비신을 갖추었다. 봉분은 병풍석이 생략돼 왕족에 비해 초라한 모습이다. 묘비 앞에는 장대석이 있고, 장대석을 받침대로 하여 상석이 2개의 받침돌 위에 놓여 있다. 그 앞 하단에 직사각형의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좌우에는 조각기법이 우수한 동자석과 망주석이 차례로 서 있다. 망주석 앞 좌우에는 금관 조복형의 문인석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장명등이 있다. 장명등은 양화를 조각한 받침대 모양 위에 사면에 꽃 그림을 이중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화창을 만들었다. 그 위 상륜부



효종이 후궁인 민빈 마씨 묘

는 팔각지붕형으로 놓고 보주는 단순히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으로 균형미가 있으며 모양이 우수하다.

## 11. 영빈 김씨 묘(寧嬪金氏墓)

□ 지정번호 : 사적 제367호

□ 소재지 : 진접읍 장현리 산 175

영빈 김씨(寧嬪金氏 : 1669~1735)는 조선왕조 제19대 숙종(肅宗)의 후궁(後宮)으로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영빈은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현손녀(玄孫女)이며, 성천부사(成川府使) 김창국(金昌國)의 딸이다. 1669년(현종 10)에 태어나 숙종이 후사가 없자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추천으로 후궁이 되었다. 그후 장희빈의 모략으로 인현왕후가 폐위되어 서인(庶人)으로 궁에서 꽃겨울 때 함께 호(號)를 쥐이고 본가로 돌아왔으며,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 묘

1735년(영조 11)에 별세하였다. 후에 인현왕후가 복위함에 따라 같이 복위되었다.

묘역은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과 석물을 조성하였다. 곡장에는 석주 형태로 기둥을 장식하여 화려하게 하였고, 봉분은 원형호석을 돌렸다. 봉분 앞에는 묘표가 있는데, 1737년(영조 13)에 세워졌고, 민무늬 대석에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 팔작지붕 형태의 옥개석형이다. 묘표 앞에는 상석을 놓았다. 상석 앞에는 민무늬의 사각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민무늬 망주석과 금관조복형의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18세기 중간의 전형적인 문인석 양식이다. 문인석 앞 중간에는 사각형의 장명등이 있는데, 받침대 형상 위에 불로초를 사방에 새겼으며, 그 위에 사각 화장을 만들었다. 상륜부는 팔작지붕형으로 옥개석 일부는 훼손되어 깨어졌다.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과 그 부인의 묘

## 12. 덕흥대원군 묘(德興大院君墓)

- 지정번호: 기념물 제55호
- 소재지: 별내면 덕송리 산 5-13

덕흥대원군 이초(李韶 : 1530~1559)의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경앙(景仰)이다. 중종(中宗)의 9째 아들로 9세에 덕흥군(德興君)에 책봉되고, 1567년 셋째 아들 하성군이 즉위하자 1569년(선조 2)에 대원군(大院君)으로 추존되었다. 여기서 대원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덕흥대원군은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천성이 영명 다재하여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남다른 예지(叡智)와 경문을 펼쳤다.

대원군 배위(配位) 하동부부인(河東府夫人) 정씨(鄭氏)는 1520년 음력 9월 4일 출생하였는데 명의정 문성부원군 정인지의 손녀이며, 아들 선조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도 이분의 역량이로 풀이된다. 1567년 4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해 8월 9일 대원군 곁에 매장되었다. 그로부터 묘 아래에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고, 선조의 특명으로 가묘(家廟)를 세워 대원군 양위를 옮기지 못하게 하였다. 선조는 1568년(선조 1)에 그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근 수락산에 원당 흥덕사(興德寺: 현 흥국사)를 짓고 편액을 하사하여 이곳에서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묘역은 쌍봉으로 동남향이다. 사성(莎城)으로 둘러져 있는 봉분의 규모는 높이 190cm, 둘레 157cm로서 봉분의 둘레에는 8각형의 호석(護石)을 축조하였다. 봉분의 전면에는 묘표가 있는데, 구름 무늬와 복연을 조각한 대석, 원두형의 비신으로 되어 있다. 묘표 앞에는 중간석, 상석, 장대석, 사각 향로석이 있다. 향로석 좌우에는 8각형의 받침대에 6각형의 석주형의 망주석이 있는데 좌측의 다람쥐 조각은 파손되었다. 그 앞 좌우에는 무인석이 있는데 크기가 장대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모양이 특이하다. 무인석 중간에는 8각형의 장명등이 있다.

신도비는 묘소 전방 약 20m 지점에 위치하고 북향하고 있다. 총높이 446cm이며 형태는 귀부와 비신에 팔작지붕의 옥개석을 얹었다. 비신의 비문은 전면에만 있다. 비는 1573년(선조 6)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홍섬이 찬하였으며, 송인이 썼다. 송인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서 산릉(山陵)의 지(誌)로부터 궁정의 편액, 사대부의 비갈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과 글씨를 남겼다. 그의 글씨는 조맹부 글씨에 비하여 구성에 짜임새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나, 획이 약간 굵고 부드러워 힘찬 맛이 부족하다.

### 13. 능원대군 묘(凌原大君墓)와 신도비(神道碑)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호

□ 소재지: 화도읍 녹촌리 192

능원대군(凌原大君) 이보(李輔: 1592~1656)의 본관은 전주(全州),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조선 선조(宣祖)의 아들인 정원군(元宗: 추존)과 인현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의 둘째 아들이다. 11세 때에 선조의 왕자 의안군(義安君) 이성(李穡)에게 출후(出後)하여 능원군(陵原君)에 봉해졌고 1631년(인조 9년)에 대군(大君)에 진봉(進封)되었다. 병자호란을 당하여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종묘 사직을 위해 성을 등지고 결사하여야 할 것이다”하여 충절을 보였다. 공은 병자년 이후 일체 조정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명나라 연호를 쓰고 청나라에 대항하여 절의를 지켰다.



충량이 남달랐던 봉원대군 이묘 묘

묘역은 문화부부인(文化府夫人) 유씨(柳氏)와 함장묘이며, 전체가 작은 동산 모양을 이루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들었다. 묘역은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8개의 호석을 둘러 봉분을 만들었다. 봉분 앞에는 묘표가 있는데 민무늬 장방형 비좌, 월두형 비신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 묘비 앞에 장대석을 놓았고, 이어서 상석이 위치하고 있다. 상석 앞에 사각형의 향로석이 있고, 향로석 좌우에 동자석이 있는데 조각이 우수하고 화려하다. 동자석 좌우에 민무늬의 사각형 망주석이 있고, 그 앞 좌우로 문인석이 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있고, 장중하며 음양각의 조화를 이룬다. 향로석 앞 정면에는 장명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고 조각이 우수하다.

신도비는 마을 어귀 입구에 있는데, 넓고 커다란 귀부(龜趺)와 비신, 이수( 이수)로 이루어졌고 총 높이가 283cm에 이른다. 이수의 조각이 매우 정교하며 화려한데 선생의 온덕을 기리는 듯하다. 또 이수는 정면에 쌍룡의 용트림이 새겨졌는데 앞의 용은 입을 벌리고 있고 뒷 용은 다물고 있는 특징이 있다.

## 제2절 선현들이 남긴 발자취

### 1. 이맹현 묘(李孟賢墓)

- 지정번호: 기념물 제114호
- 소재지: 와부읍 덕소리 산 45-1

이맹현(1436~1487)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사성(師聖), 호는 근재(覲齋)이다. 호조참판 개지(介智)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진주하씨(晉州河氏)로 경리(敬履)의 딸이다. 그는 1456년(세조 2)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 재생으로 있었으며, 경학에 명성이 높았다. 1459년(세조 5) 왕이 경회루에서 연회를 할 때 특별히 그를 불러 「역학계몽(易學啓蒙)」을 강론하게 하였는데, 세조가 크게 칭찬하고 즉석에서 관직을 제수해 하였다. 1460년 7월에는 명경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이후 그는 어전에서 경서를 강의하였고, 오래 동안 경연관 혹은 서연관으로 활약하였다. 1466(세조 12)년 이후에는 「동국통감(東國通鑑)」과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을 편찬하는데도 참여하였다. 1475년(성종 6)에 백성들이 고난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경회루의 중수 등 모든 토목공사를 금지하라고 하였다. 또 경상도재상경차관(慶尙道災傷敬差官) 즉 이사가 되어 경상도지역의 민정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1477년(성종 8) 당상관에 승진하여 형조참의와 예조참의를 역임하면서 국가와 왕실의 전례 문제와 여진족의 정벌에 대한 정책 논의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 시대의 정치의 기본이 되었던 법전. 조선 세조 때 노사신, 최항 등이 항명을 받고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1458년)에 완성하였다. 그 전까지의 법전을 정리 개편하여 만든 것으로, 어, 호, 예, 병, 형, 공전의 6권 4책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제도시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기본 자료이다.



이명현 묘

에 참여하였다. 뒤에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저술로는 유시(遺詩) 4수가 전한다.

묘역은 1489년(성종 18)에 조성되었다. 묘소는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의 쌍분이다. 묘 앞은 10개의 장대석(長臺石)을 횡으로 쌓아 단(段)을 만들었다. 봉분 앞에는 각각 묘표(墓表)가 있다. 봉분 중간에는 새로 만든 묘표가 있으며, 양쪽 상석과 향로석은 새로 만든 것이다. 향로석 앞 좌우의 문인석은 단순하면서도 머리가 크게 묘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 2. 박원종 묘(朴元宗墓) 및 신도비(神道碑)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6호
- 소재지: 외부읍 도곡리 산 31

박원종(1467~1510)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백운(伯胤), 시



중종반정의 주역인 박완종 신도비

호는 충열(忠烈), 초호는 무열(武烈)이다. 적기좌리공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중선(仲善)의 아들이다. 1506년 이조참판 성희안 등과 연산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하였다. 이에 정국공신 1등으로 우의정이 되고, 평원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좌의정, 영의정을 거쳐 평성부원군에 봉해지고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마을 입구의 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남동향하여 있다. 원형봉분 앞의 묘표는 화강암 재질의 비좌와 대리석 재질의 월두형 비신으로 되어 있다. 상석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에는 향로석이 놓여져 있다. 망주석은 굵고 우람한 느낌이 들며, 장명등과 문인석은 모두 대형으로 육중한 느낌마저 든다. 특히 문인석은 생전에 묘주의 무인다운 기골을 나타내는 듯하여, 얼굴에 갓끈의 흔적이 뚜렷하고 소매에 길게 늘어뜨린 관복의 표현이 인상적이다.

신도비는 총높이 325cm로 묘역 입구에 위치하여 남서향하고 있다. 백색 화강암 재질의 장방형 비좌와 백색 대리석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수 부분은 남양주 지역의 다른 신도비·이수와 비교하여 몸통이 무척 굵은편이다. 건립연대는 1511년(중종 6)이다.

### 3. 남선 묘(南銑墓) 및 신도비(神道碑)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7호
- 소재지: 별내면 청학리 산 78

남선(1582~1654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택지(澤之), 호는 회곡(暎谷), 대몽(大夢), 본관은 의령(宜寧),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무주현감(茂朱縣監) 복시(復始)와 좌의정 김명원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했으나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가 계속되자 벼슬에 뜻을 잃고 관직을 단념했다. 그러나 1629년(인조 7)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지평에 임명된 후 1632년 해주목사로 승진하였다. 이후 여러 요직을 거쳤으며, 1649년 효종 즉위시 경기도관찰사·사헌부대사헌을 거쳐 1650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1652년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예조판서를 지내고 1654년 세자 우빈객·의정부 우참찬이 되었다.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외직을 많이 역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숭덕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묘는 나지막한 구릉에 북동향한, 정부인 도씨와의 합장묘이다. 바로 위에는 남효의(南



조선 중기의 문신인 남선 묘

孝義)의 묘가 있고, 아래에는 남일(南鎰)의 묘가 있다. 봉분 앞에는 묘표,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는 비좌와 월두형 비신으로 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의 근래 세운 신도비 좌측에 비신과 팔작지붕 옥개석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 4. 남재 묘(南在墓) 및 신도비(神道碑)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5호
- 소재지: 별내면 화점리 282-1

남재(1351~1419)는 조선 개국 공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초명은 겸(謙), 자는 경지(敬之), 호는 구정(龜亭), 검교시중 을번(乙蕃)의 아들이며 은(隱)의 형,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어려서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노비 1명과 말 한 필밖에 없었다고 한다. 진사시를



조선의 개국 공신인 남재 묘

거쳐 1371년(공민왕 20)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이후 이성계 세력에 가담하여 고려 조정의 신진사류로서 구세력과 대립하였다.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고 의성군에 봉해졌다. 이후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됨과 동시에 부원군에 봉해지고, 1416년(태종 16)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경제에 밝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산술에 능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남산(南算)'이라 불렀다. 저서로는 『구경유고(龜亭遺稿)』가 있다.

묘는 의령남씨 묘역의 아버지 남출번 묘 아래에 동남향하여 있다. 본래의 묘역에는 둥근 봉분 앞에 새로 만든 묘비와 상석,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분인석이 있었으나, 1987년에 새로 봉분을 개장하면서 직사각으로 봉분을 만들고 호석을 전·좌·우 3면에 갖추었다. 봉분 앞에는 새로 만든 묘비가 있고, 그 앞에는 혼유석·계제석·상석·향로석·방주석·장명등·분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봉분 좌측에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묘비가 있는데, 복원과 안상문을 새긴 비좌와 월두형 비석이 있다.

신도비는 남재 묘역 입구의 사당인 농경사 옆에 동남향하여 정면 3칸, 측면 1칸의 창판을 갖춘 맞배지붕 비각 내에 안치되어 있다. 종높이는 369cm로 민무늬 장방형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8각 석봉뿔의 속개석을 갖추었으며, 1892년(고종 29)에 건립하였다. 신도비는 본래 묘소 입구의 사당 좌측 뒷면에 있던 것을 1997년 묘를 정비하면서 사당 우측 묘역 바로 앞에 비각을 만들고 그곳으로 옮겼다. 그 앞에는 새로 만든 신도비가 있다.

## 5. 유량 묘(柳亮墓)

- 지정번호: 기념물 제78호
- 소재지: 조안면 시우리 산 26

유량(1355~1410)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이름은 명중(明仲), 본관은 문화(文化),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벼슬은 고려 말 과거에 급제한 후, 조선개국시 공을 세워 원종공신에 봉해졌다. 태종 즉위시에 좌명공신 4등 문성군에 봉해졌고, 그 뒤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 1413년 부원군에 진봉되었다가 1415년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인 유람과 그 부인의 묘

묘는 나지막한 구릉 중턱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은 부인인 연안씨와의 쌍봉으로 우측(서쪽)이 유랑의 묘이다. 2기의 묘는 모두 장방형으로 3단의 호석을 둘렀는데 여말 선조의 농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봉분 앞에는 묘비가 1기씩 있고, 좌측에는 혼유석 2기와 최근에 세운 묘갈이 있다. 상석 아래에는 계체석을 놓고 양쪽 끝에는 돌기둥을 하나씩 세웠다. 장대석 아래에는 장명등과 문인석이 있고, 다시 계체석을 놓고 양쪽으로 망주석을 놓았으며 그 아래 다시 장대석을 놓았다. 장명등은 높이 119cm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받침대에서 위로 갈수록 커지는 형태로 균형미를 준다.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통비형으로 조선 초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문인석이 2기 있는데 지금은 얼굴과 옷주름이 마모되어 윤곽만 알아볼 수 있다. 그 하단에 있는 망주석은 민무늬로 세운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신도비는 묘소 아래의 사당 앞에 남서향하여 백색 화강암의 귀부와 오석의 비신 및 백색 화강암의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1989년 5월에 세운 것이다. 근처에는 선생의 사당인 문충사와 영모재의 제실이 갖추어져 있다. 사당은 솟을대문 담장을 두르고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인데 풍벽에 한옥지붕으로 단장을 한 것으로 최근에 지은 것이다.

## 6. 망세정지(忘世亭址)

☞ 소재지 : 오남면 양지리 산 2

망세정은 오남면 양지리 양지마을에 있었던 것으로 조선조의 문신 심선(沈璫)이 세조가 단종을 물리내는 것을 보고 세운 정자이다. 현재 정자의 위치나 흔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지리 328번지에 공(公)의 옛 집터와 사용하던 우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어디로 생각된다. 현재 심선 묘역 바로 아래 공터로 추정되며 그 앞 논 가운데 공터에 우물자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배워진 상태이다.

심선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는 윤부(胤夫), 호는 망세정, 본관은 청송이며, 청심백(靑心伯) 덕부(德祿)의 증손이다. 1457년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풍양현 양지리에 피신·은거한 후 세상일을 잊고 지낸다는 뜻으로 정자의 편액을 "망세(忘世)"라 써 붙이고 세조의 출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보국숭록대부돈녕부사(輔國崇祿大夫敦寧府使)에 추증되고 광릉(光陵) 조사단(新士壇), 옥과(玉果) 구암서원(龜岩書院)에 제향되었다.

## 7. 의안대군 사당(義安大君祠堂)

☞ 지칭번호 : 향토유적 제4호

☞ 소재지 : 평내동 151

사당은 조선 개국공신이자 이성계의 중형인 의안대군(義安大君) 이과(李祹)의 사위이다. 평내동 궁평마을 내에 서향(西向)하여 맞배지붕·숫을대문을 갖춘 담장 내에 정면 3칸, 측면 1칸 반으로 맞배지붕에 목조 한식 골기외를 얹고 방풍판(防風板)을 갖추었다. 사당은 조선 태종의 특명으로 건립되었으며, 전란으로 소실된 것을 숙종대에 다시 건립하였다. 한국전쟁 때 건물이 많이 파괴되고 거의 없어진 것을 1956년과 1977년 2회에 걸쳐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 사당에는 의안대군과 그의 아들 혁명공신 의경부찬성사 완천군, 손자 좌명공



의안대군을 비롯한 세 분의 위패를 모신 의안대군 사당

신 우찬성 허령군 등 세 분의 위패를 함께 모셔져 '삼대불천지위(三代不遷之位)'로 후손들이 제향하고 있다. 태종대 신도비가 내려졌으나 단종사화 때 허령군이 연루되어 절사되어서 이후 300년간 묘를 수호하지 못해 소실되었다고 한다. 의안대군은 태조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 적극 협조한 종친으로 양소공(襄昭公)의 시호를 받았다.

## 8. 석실서원지(石室書院址)

□ 소재지 : 수석동 산 2-2

석실서원은 수석동 서원마을 영묘재 뒷터에 있었던 서원이다. 이 서원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주장한 문충공(文忠公) 김상헌(金尙憲)과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을 기리기 위하여 1656년(효종 7) 후학들이 세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원 중 하나이다. 1663년(현종 4)에 석실사(石室祠)라는 편액을 하사받고,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다.



김상헌과 김상헌 등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웠던 석실서원의 터

석실서원은 현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석실서원은 안동김씨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곳이다. 이 서원에는 김상용, 김상헌, 김수항, 민정중, 이단상, 김창집, 김창협, 김창흠, 김원행, 김이안, 김조순 등을 배향하였다.

처음에는 김상용과 김상헌만을 배향하였으나 당쟁의 양상에 따라 추가로 배향되거나 향사에서 제외된 것이 거듭되었다. 1695년(숙종 21)에 서원 남설의 고질적 폐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조참의 이정명의 상소로 김수항(金壽恒), 민정중(閔鼎重), 이단상(李端相)의 석실서원 추배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세사람은 모두 양주가 고향으로 학식과 덕행이 뛰어나다는 것이 배향 사유였다.

2년 뒤인 1697년(숙종 23) 김수항, 민정중, 이단상의 배향이 결정되었으며, 1710년(숙종 36)에는 김수항의 아들 김창협(金昌協)이 추가 배향되었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김창집(金昌集)이 사사된 후 1723년(경종 3) 그의 아버지와 동생이 되는 김수항, 김창협의 배향이 서원을 욕되게 한다하여 철폐되었으나, 1724년(영조 원년) 양주 유학 이지함 등의 상소로 복향이 결정되었다. 1760년(영조 36), 1762년(영조 38), 1776년(정조 원년), 1806년(순조 6) 등 수차례에 걸쳐 김창흠(金昌森)의 추배를 건의하는 상소가 있었으나 율령을 받지 못하였으며, 1857년(철종 8) 5월 팔도 유생들의 상소로 김창흠, 김원행(金

元行), 김이안(金履安)의 배향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연이어 김창집, 김조순(金祖淳)의 추배가 결정됨으로써 배향이 완료되었다.

석실서원은 조선 중화주의 이후 진경문화에서부터 북학사상(北學思想)에 이르는 집권세력 내부 자기혁신 문화운동의 최대 산실이자 뇌수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868년(고종 5) 대원군이 서원을 혁파할 때 철폐 대상에 올라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위패는 매안하고 서원터는 폐허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원터임을 알 수 것으로 아직 우물과 석물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특히 서원 앞에 세워졌던 석실서원 묘정비는 현재 와부읍 덕소 5리 석실마을에 있다.

석실서원은 김재 정선(1675~1759)이 그린 '경교명승첩' 중의 석실서원도에 서원 주변의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강상에서 바라 본 경치를 부감법으로 그린 것이다.

현재 수석동 조말생 묘역 입구에 과거 석실서원 터였음을 알리는 화강암 비가 남향하여 세워져 있다.

#### ○ 묘정비(廟庭碑)

현재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는 것으로 이 비는 1672년(현종 13)에 세워진 것이다. 이 비를 세운 목적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해 주전론(主戰論)을 주창한 김상헌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본래 묘정비가 있던 곳은 수석동 조말생 사당 앞이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석실서원이 훼손되자 이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글은 정음 김상헌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한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는 내용이다.

묘정비는 총높이 231cm로서 지대석 위에 안상부와 북판이 둘러진 비좌와 비신 그리고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으로 구성되었다. 비문은 묘정비를 세우게 된 내력을 적고 있으며, 우암 송시열이 짓고 김수증이 글씨를 썼다.

#### ○ 도산석실려(陶山石室廬)와 고송오류문(孤松五柳門)

이 입석은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이 입석은 도산석실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출입처의 기능을 하였다. 도산정사는 창음 김상헌의 사손(嗣孫)인 김수증이 그 아버지인 김광찬을 추모하여 지은 재사(齋舍)와 거소(居所)의 기능을 지닌 집으로 창음이 기거하였던 석실정사와 함께 석실 안동김씨 집성촌의 기원이 되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도산석실려와 고송오류문은 도산정사의 출입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입석에 적혀져 있는 도산(陶山)이나 오류(五柳)는 모두 도연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도산석실려는 근처 밭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 견해지고 있어 현재의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도산석실려는 대석에 사각기둥 모양의 비심으로 되어 있고, 비의 옆면에 “도산석실려(陶山石室閣)”라 써 있다. 고송오류문의 경우는 그 동안 분실된 것을 1999년 1월에 찾아낸 것이다. 고송오류문은 도산정사의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2기 중 1기로 중간부분이 부러진 상태이다. 입석은 석주 형태로 대석은 찾지 못하였다. 글씨는 김수증이 썼다.

#### ○ 취석비(醉石碑)

와부읍 덕소리 석일마을에 있는 취석비는 1668년(현종 9년)에 세운 것으로 남양주지역에 현존하는 우암 송시열이 찬하고 쓴 유일한 글씨이다.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보 많은 선도비와 묘갈 등의 글을 찬하기는 하였으나 글씨 자체가 있는 것은 취석비가 유일하다. 우암 송시열이 취석이라는 글자를 써 준 연유는 도연명의 고사에서 본따 남긴 것이다. 중국의 『여산기(廬山記)』에 “도연명이 거처하던 율리에 큰 돌이 있는데, 연명은 술에 취하면 칼삼 그 돌에 올라가 잠을 잤다. 이로 인해 취석이라 이름붙였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암이 취석이라는 도연명의 고사를 인용하여 써 준 것은 문정공 김상헌이 심양에 볼모로 붙잡혔을 때 중국인 맹영광(孟英光)이 그의 의로운 행동을 흠모해 채국도를 보냈으며 이를 도연명의 진명과 함께 도산정사에 안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산정사가 위치한 곳의 지명이 ‘석실’이다. 취석비는 앞면에 “취석(醉石)”이란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도산정사기(陶山精舍記)가 있어 이 글을 쓴 내력을 적어 놓고 있다. 1672년 김수증이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좌측 하단에는 확인 미상의 낙관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도산정사기는 마모가 심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 글씨는 우암의 글씨와 비석의 뒷면에 기록자의 낙관이 있다는 데에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도연명(陶淵明) · 365~427)은 중국 동진(東晉) 말기 송나라 초기의 시인이다. 본명은 자이며, 이름은 절(曄)이다. 394년에 벼농사에 100%25나 관여를 맡아지 않아서 한 차례에 오래 입지 않았으며, 41세 때에는 이후 관리 생활에서 물러나면서 후량산(後量山)에서(後量山)를 남겼다. 고향에 돌아가 스스로 농사를 짓고 고초(苦草)를 하면서도, 물과 국화가 있을 만만하여서 물은 맑고 국화는 아름다웠다. 작품에는 자연을 읊은 시가 있는데, 그 시들은 기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고도 아름답게 천원의 정원을 읊은 것이었다. 그는 아비와 구부 머리의 중국에 대표적한 시인이며 일한어이다. 시 외에 『호부(胡部)』(호부) 등 여러편 산문도 남겼다.



송백당 유허비·취석비·석실서원 묘정비(왼쪽부터)

#### ○ 송백당유허비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에 취석비, 석실서원 묘정비 등 2기의 비와 나란히 서 있는데, 가장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본래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관리상의 편리 때문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김상헌의 8대손 김문근이 폐허가 된 지 40여 년이 된 송백당(김상헌이 살던 집)을 중건하려 하자, 여러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것 보다 비를 세워서 영구히 전하자고 하였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장방형의 비좌 위에 비신과 팔작지붕형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총높이는 198cm이다. 비문은 8대손 영은부원군 김문근이 짓고 김보근이 글을 썼으며 건립연대는 1861년(철종 12)이다.

#### ○ 김상헌(金尙憲)

김상헌(1570~165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속도(叔度), 호(號)는 청음(淸陰), 석실산인(石室山人)이다. 돈녕부 도정을 지낸 극효(克孝)의 아들이며, 우의정 상용의 동생이다. 3세때 큰 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 1590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96년 임란 중에 청시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조참의로 발탁되면서 서인 청서파의 영수가 되었다. 1635년 대사헌으로

재가용되자 군비의 확보와 국방군사시설의 확충을 주장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서 주희본을 배척하고 주전본을 썼으나 인조가 함복하자 인동으로 은퇴하였다. 1639년 청(淸)이 명(明)을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淸)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나 귀국하였다. 1645년 특별히 좌의정에 재수되고, 가로소에 들어갔다.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1661년(현종 2)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남양주 석실서원, 개성 송양서원 등 14개 서원 및 사당에 제향되었으며, 시문과 저서로 『청음전집(淸陰全集)』 40권이 전한다.

김상헌의 묘는 경기도기념물 제10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집사 문중 묘역에 위치하여 남서향하고 있다. 원형 봉분을 중심으로 그 앞에 묘표가 있다. 비는 복권을 조각하고 사방에 안상문을 조각한 강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구름 문양에 해와 달을 새겨 넣은 관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약간 앞으로 쓰러져 있으며 건립 연대는 비 우측에 음각된 연기로 보아 1669년(현종 12) 건립된 것이다. 비 앞에는 혼유석·상석·계제석과 사각형의 향로석이 있다. 망주석은 없으며, 문인석은 옷주름을 비교적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묘비(墓碑)는 봉분 앞 좌측에 위치하며 동남향(東南向)하고 있다. 사방에 연화문(蓮花文)을 장식한 강방형 비좌와 백색 대리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을 단순하게 간략화시킨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에는 전면(前面)에 비새가 있으면, 후면에도 비문이 있는데, 예서체로 새겨져 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기교를 억제한 가운데 개성을 나타내었다. 건립연대는 1671년(현종 12)이다.

### □ 김상용(金尙容)

김상용(1561~163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백(敬伯), 호는 선원(仙源), 풍계(鳳溪), 본관은 안동이다. 극효의 아들이며, 영의정을 지낸 김상헌의 형이다. 1582년(선조 15)과 1590년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다. 임진왜란 때 강화도 선원촌으로 피난했다가 왜군 토벌과 명군 협대에 공을 세워 1598년 승지에 발탁되고, 그 뒤 왕의 측근에서 전란 중의 여러 사무를 보필하면서 성철사로 명에 다녀왔다. 병자호란 때 묘사주를 만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도에 피난하였다가 심이 함락되자 심의 남문루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1638년(인조 16년) 정문이 내려졌고 1757년(인조 33년)에 불전지권이 내려졌으며 이듬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주 석실서원을 비롯해 강화 송별사, 상주의 서산서원, 압변의 옥동서원, 경주의 봉호서원 등 여러 서원에 제향

되었다. 문집으로 『선원유고(仙源遺稿)』 7권이 전하며, 시호는 文忠이다.

김상용의 묘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입구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남향하여 있으며, 현재 경기도기념물 제99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근래 백색 대리석의 호석을 마련하여 놓았다. 봉분 앞에는 묘표가 세워져 있는데, 장방형 비좌와 비신 및 구름무늬에 앞뒤로 해와 달을 새겨 넣은 관석이 있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 우측에 남서향하여 정면에 김상용선생 정문인 충효문을 바라보고 있다. 비는 비좌와 백색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는 1647년(인조 25)에 건립되었다.

#### ○ 김상용 충효문(金尙容忠孝門)

김상용 충효문은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묘역 입구에 동향하여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충효문은 근래에 새로 세운 것으로 기둥이나 등은 옛 것을 그대로 쓴 듯하다. 사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중간에 붉은 글씨로 현판을 세운 대신에 벽에 현판을 새웠다. 현판 중앙에는 문충공(文忠公) 김상용의 충절을 나타내는 문임을 알려주는 글귀가 있다.

## 9. 풍양궁지(豊壤宮址, 舊關地)

□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723-21

풍양궁(豊壤宮)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함흥에서 환궁하면서 잠시 머물기 위해 지어진 이궁으로 전해진다. 현재 그 터가 진접읍 내각리의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온 주박가에 남아 있는데, “大小人員皆下馬”라고 음각한 하마비\*와 팔작지붕에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비각이 위치한다. 비각은 6·25때 파괴되어 그 후 진주이씨 종중에서 재건하였다고 한다.

\* 하마비는 조선시대 중요 및 일문 앞에 세워놓은 석비이다.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이 적혀있다.(大小官員通此皆下馬)



비각 안의 구경유자비



풍양궁지 비각

조선 태조 이성계가 정종에게 왕위를 전하고 상왕이 되어 함경도 함흥에 가 있다가 태종이 환도할 때 이곳 내각리에 행재소를 짓고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태종은 백관을 거느리고 이곳까지 조하를 드리러 오게 되어 지명도 대궐터로 불리게 되었으며, 지금은 구궐지로 부른다.

현재의 비각(碑閣)은 당시 태조가 기거하던 곳으로서 후대에 이르러 크고 작은 비석 2기를 세우고 옛터임을 표시한 것이다.

위치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에 풍양현의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풍양궁의 옛 건물은 찾아볼 수 없으며, 궁터의 위치 또한 확실하지 않다. 다만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현 내각리 구궐지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점을 내각리 부근일 것으로 여겨진다.

내각리 내동마을은 풍양궁 대궐이 임진왜란 때 왜병에 의하여 불타버린 뒤에 비로소 민가가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수백년 후인 지금도 '새밭'이라고 부른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선생이 왕을 모시고 광릉의 풍양궁을 지나면서 읊은 시가 있어서 아래에 소개한다.

밤중에 왕이 행차하시니  
 이슬이 촉촉이 나리는구나  
 조각달은 달리는 길을 흰히 비추니  
 기이한 향기 차에 풍기도다  
 바람은 군사의 모자 스치고  
 진흙물은 따르는 신하의 옷깃에 튀네  
 벌써 풍양궁에 다다랐으나  
 시간은 아직도 초저녁이라

## 10. 여경구가옥(呂卿九家屋)

□ 지정번호: 중요민속자료 제129호

□ 소재지: 진점읍 내곡리 286

여경구가옥은 태묘산을 진산(鎭山)으로 이 산의 지맥을 따라 형성된 명당터의 국(局)



19세기 경기지방 사대부집의 공간구성을 잘 보여주는 여경구가옥

이 밀리는 곳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가옥은 전 소유자인 이덕승(여경구씨의 장인)의 7대조가 지은 집으로 약 200년 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동네에서는 이 집을 연안이씨의 동관대이라고 부른다.

집 앞에는 넓은 들밭이 펼쳐지고 집 뒤에는 비교적 높은 구릉이 자리하기 때문에 가옥이 마을 입구에서도 보인다. 가옥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대지가 옆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옆으로 늘어서는 병렬 배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동쪽에 안채를 두고 그 서쪽에 사랑채, 그 옆으로 문간채를 배치해 측면에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사랑채 전면의 사랑마당 아래쪽에 초가로 된 헛간채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이 헛간채가 있을 때에는 'ㄱ' 자형 평면으로 매우 긴밀한 공간 구성을 형성했을텐데 현재는 이 채가 사라져 다소 개방적인 느낌이 든다.

문간채에는 솟을대문이 있고 위아래에 광, 방이 있다. 사랑채는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리하며, 큰사랑방과 대청, 작은사랑방으로 이루어졌고, 툇마루가 특징이다. 사랑채 후면의 비탈진 경사지에는 사당이 있다. 사당의 측면벽에는 멋진 꽃담이 있다. 이 담은 가운데에 암키와를 이용해 만든 수평선과 사선이 있고 그 아래에는 수키와를 위아래로

엮어놓아 물결처럼 만든 선이 있는 등 멋진 조형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마당을 지나면 동쪽에 광채가 있다. 광채에는 중문과 여러 개의 광이 있는데 사랑마당 옆에 있는 광은 출입구가 사랑채쪽으로만 나 있어 사랑채에 거처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으며 안마당 아래에 있는 광은 안채에서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중문을 지나면서 안마당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다. 디딤돌은 두 줄로 놓여 있는데 하나는 대청쪽으로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부엌쪽으로 연결된다. 안채는 건넌방과 대청, 안방, 부엌이 ‘ㄱ’자로 구성되며 안방 옆으로 골방과 뒷방, 광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ㄱ’자 평면을 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안방에 거처하는 시어머니와 건넌방에 거처하는 며느리의 시선이 서로 맞닿지 않게 함으로써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안채의 오른쪽에 있는 부엌 옆마당은 부엌과 안채에서 길게 뻗어나간 ‘-’자 채가 ‘ㄱ’자형의 채를 만들면서 형성된 마당으로 부엌의 역할을 보조했을 것이다. 이 마당에는 우물이 있고 그 전면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은 마당에서 볼 때는 낮지만 이 가옥이 높은 경사지 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집 밖에서는 매우 높다.

## 11. 궁집

- 지정번호: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 소재지: 평내동 426-1

궁집은 평내동 마을길 입구의 북쪽에 자리해 있다. 현재 권옥연씨 소유인 궁집 영역 안에는 이 집외에도 여러 채의 가옥이 있는데, 이 궁집과 초가 한 채는 원래부터 있던 건물이며 이외의 다른 가옥은 대부분 이전해 온 것이다.

궁집은 바로 뒤에 있는 구룡을 등지고 남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1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가옥은 영조의 막내딸인 화길옹주(和吉翁主)가 능성위(綾城慰) 구민화(具敏和)에게 시집을 가게 되자 영조가 목재와 기술자를 보내 완성한 집으로 궁집이라는 별칭도 이에 따라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 집은 화길옹주가 시집은 1765년에서 죽은 177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궁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한 동(棟)으로 이루어진 일체형이며, 후대에 지어진 3채의 부속채가 가옥 주변에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영역인 안채와 남성 영역인 사랑채는 두 영역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가옥 규모로 볼 때 원래는 사랑채와 안채의 전면에 문간채가 배치되고 이 문간채 사이에 있는 문으로 출입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간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옥의 전체 배치와 공간 구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현재 사랑채 남동쪽에는 안채와 구분하기 위한 담장이 있으나 문간채가 있을 당시에는 담장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안채는 '11'자집으로, 외견상 좌우대칭이지만 내부의 공간 배치가 서로 달라 왼쪽에 부엌-안방-대청이 일렬로 배치되고 부엌 아래로 방과 마루방, 대청 아래로 방과 부엌이 배치되어 있다. 대청은 안채의 중심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배치되어 있는데다가 전면에 분합문으로 에워싸여 매우 폐쇄적인 구성이다. 대청에는 후면과 측면에 바라지 창을 두어 이 창을 열면 시원하고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부엌은 규모가 꽤 큰 편으로 안방과의 차이벽에 부뚜막 위로 다락을 만들었다. 부엌에서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서북쪽 모서리에 있으며 이 문으로 나가면 우물이 있다. 부엌의 측면 벽에는 살창이 있어 환기 및 통풍에 활용하게 되어 있다.

안채 전면에는 2칸 규모의 대문간이 있는데, 대외벽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상류주택에는 안채의 여성 영역과 사랑채의 남성 영역이 있고 두 영역 사이의 출입문 등에 내외벽이나 대외담을 두어 두 공간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다. 대외벽은 바깥에서 안채 내부로 시선이 닿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 안채에 거처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확보시켜 준다. 이러한 내외법에 대한 고려는 두 채의 결합 방식과 벽체 구성에서도 보인다.

사랑채는 '11'자 안채의 남서쪽에 돌출되어 '11'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전면에는 사랑마당이 있고 마당 앞과 측면에 담이 둘러싸여 있다. 규모는 누마루 1칸, 사랑대청 1칸, 사랑방 3칸, 빛마루 1칸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랑방 3칸만을 제외하고 6칸이 모두 마루로 구성되는 등 마루가 많다. 특히 돌출된 누마루는 사랑대청보다 한 단 높았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마치 찻자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이 가옥은 정사지에 자리해 안채·안방·대청과 날개채, 사랑채의 위계가 명확해졌다. 또한 안채의 여성 영역, 사랑채의 남성 영역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상류주택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류주택에서는 사랑채와 안채를 배치하면서 사랑채의 사랑방과 안채 안방을 가장 멀리 두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집에서는 사랑방과 안방이 같은 쪽에 배치되어 다소 특이하다.



양주악동마을의 겨울 풍경

### ○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와 화길옹주(和吉翁主)

능성위 구민화(1754~1800)는 본관이 능성으로 영조의 사위이다. 1765년 영조의 12번째 딸 화길옹주와 결혼하여 능성위에 봉해졌다. 화길옹주(1754~1772)는 영조와 폐출된 숙의 문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7세에 봉작을 받고 12세에 구민화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았다.

묘는 구민화와 화길옹주가 살았던 궁전에서 남쪽으로 약 100m 거리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며 합장묘이다. 북동향하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화강암 기단석에 한옥기와를 올린 시멘트 벽돌담장의 곡장 내에 안치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중간석, 상석, 향로석이 있는데, 상석은 4면에 귀면(鬼面)을 양각한 높이 32cm의 고석 위에 놓여져 있다. 향로석 우측에 혼유석이 있고, 그 좌측에 묘비가 있다. 비는 정사각형 민무늬 비좌, 오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 형태의 옥계석을 갖추었고 1881년(고종 18)에 세워졌다. 향로석 앞 좌우에는 단순한 형태의 망주석·양석이 있는데 약간 뚱뚱한 편이다. 향로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는데 1800년대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단순하지만 조각기법이 떨어진다. 묘의 뒷쪽 좌우와 장명등 앞 좌우에 천막을 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양석이 4개 있다.

## 12. 교통 관련 문화재

### 1) 대이산봉수(大伊山烽燧)

○ 소재지 : 진접읍 연평리 산 32-1

대이산봉수는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와 양지리 경계상의 해발 173.5m인 산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일직선상에 퇴피산(363.7m), 국사봉(331m), 수락산(637.7m) 등이 시야를 가로막고 나란히 마주 대하고 있으나, 남북으로는 왕숙천을 따라 비옥한 충적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보아 북쪽의 포천 임유천 봉수로부터 신호를 받아 남서쪽의 가구산(아차산)봉수로 신호를 보내는 중계역할의 성격을 갖는다. 대웅봉수의 노선 거리를 볼 때 이 봉수는 남쪽의 가구산봉수와 18km, 북



미음나루터 표석

쪽의 잉읍점봉수와 13.5km의 거리에 있다. 이 봉수는 조선초기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地理志)에서부터 조선후기의 각종 읍지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명칭의 변경 및 대응봉수노선에 변화가 많았던 봉수이다. 봉수는 고려 초기 봉수제의 성립과 더불어 설치되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대이산봉수는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응하는 봉수노선의 변화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였던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봉수는 봉수대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뚜렷한 유구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타원형의 석축이 확인되고 있는데, 전체둘레 45.30m, 긴 쪽이 10.28m, 짧은 쪽이 5.40m이다. 상부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으며 한 곳에는 돌무더기를 모아 조그만 탑을 만들어 놓았다.

## 2) 미음나루터

□ 소재지 : 수석동 외미음

미음나루터는 수석동 외미음에 있었던 나루터로 남양주시와 하남시 미사리를 건너던

한강나무 중의 하나였다. 안동김씨 후손의 호를 따서 붙여진 나무로 한강의 나무터 중 팔나무(八木)에 머금가는 곳이었다. 평구역(삼매동 경기연와 자리 부근에 있던 역)에서 팔주로 이르는 나무터의 하나로 남북 교통로의 요지였다. 나무터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지만, 현재는 콘크리트로 독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미음나무터는 안동김씨 석실서원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주위에는 김창협 선생이 살았다는 '삼주삼산각'이 있고, 여기를 통과하여 야산을 가로 지르면 석실서원지가 나온다. 이 주변은 김재 점선이 '삼주삼산각'이나 '석실서원'을 그린 것처럼 주위에 풍광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특히 석실서원 앞에 있는 한강을 미호(溪湖)라고 하여 한강이 마치 호수같이 보인다고 하여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 3) 용진(龍津)나무터

□ 소재지 : 조안면 송촌리 216

용진나무터는 양평대로 좌우에 밀면 나무로 양주(현재 남양주시 조안면)와 양근(양평)을 연결하는 나무이다. 서울에서 경상북부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평구역을 거쳐 용진나무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다. 또한 용진은 조선시대 수군참군이 있었던 장소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내왕하는 백들을 관리 감독하던 요충지이다. 한편, 조선 후기 용진나무 근처는 경기 일원에서 경치좋은 곳으로 유명하였는데, 특히 수종사에서 본 겨울철 용진의 경치를 제일로 친다고 한다.

### 4) 평구역지(平丘驛址)

□ 소재지 : 삼매동 365-5

평구역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망우리를 지나 왕숙원을 건너 춘천과 양평으로 가는 갈림길에 해당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평구역이 주의 동쪽 70리 지점에 있으며 본도의 속역 11개를 출발하는데 그 속역은 녹양, 안기, 양문, 봉안, 오빈,

쌍후, 전국, 백동, 구곡, 감천, 연동 등이라고 하였다. 『대동지지』에는 동일한 내용에 찰방 1인이 있었음을 부기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의 『양주군 읍지』 역원조에 “평구역은 주의 동쪽 금촌면에 있으며 70리 거리이다. 관통 통로에 해당하며 말 9필이 있었다”고 하였다.

삼패동의 역말은 조선시대 평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어진 이름이며, 평구역터로 추정되는 곳은 도로변에 접한 삼패동 365-5번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전쟁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ㄱ’자 형태의 마굿간이 있었다고 한다.

## 제3절 불교문화

### 1. 봉인사(奉印寺)

☐ 소재지 : 진건면 송능리 307

봉인사는 진건면 송능리 천마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대한불교 원효종에 소속된 사찰이다. 창건했던 시기와 인물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록과 모습은 봉인사의 압자인 부도암의 기록으로 그 사정의 일부를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셔오자 1620년(광해군 12)에 광해군이 봉인사에 석가법인탑을 세우게 하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부도암을 창건했다.

1854년(철종 5)에는 배암(鵬庵)화상이 봉인암을 중수하고, 탑 전면에 종각을 짓고, 강원도 금화의 수태사(水臺寺)에서 종을 옮겨와 걸었다. 그리고 1887년(고종 24) 왕실에서 나라를 위해 그 정성을 다하라는 뜻으로 향축을 하사했는데, 승려들이 향축등을 법당 중앙에 달고 밤을 새우다가 불이 나서 20여 칸의 대법당과 응진전·시왕전 등이 불타고 큰방과 노전 두 동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융희(隆熙) 연간에 건물을 헐어 홍룡의 전각을 지을 때 사용하였다. 이 때 절의 부도암과 사리장치까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완전 폐허가 되었다.

일제시대인 1925년에 주지 동파(東坡)스님이 중수했으며, 그 뒤 폐사되었던 것을 1979년 법사 한길르가 불교수련도량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법당을 재건하였다.

○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보물 제928호)

사리탑은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불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1620년 봉인사에 건립한 것이



다, 또한 1756년(영조 32)에 풍암 취우대사가 금강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탑이 외락한 것을 보고 중수할 뜻을 세워 당시 왕실의 시주를 받아 탑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중수기를 함께 비석(지금의 중수비)에 새겨 놓았는데, 왕세자의 탄생을 맞이하여 그의 수복무강을 기원하고자, 왕실의 발원으로 빚당을 지어 이를 수호하고 예불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사리탑 권림에 대한 또 다른 연기가 전한다. 광해군이 1610년 2월 29일에 선모(先母) 공빈 김씨를 왕후로 추존하였다. 그래서 묘소도 능으로 격상시키고 성릉이라 하였으며, 모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원찰로서 부근에 봉인사를 세웠는데, 여기에 석가세존의 사리탑을 봉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화재로 절이 폐사되자, 사리탑은 1927년 일본으로 반출되어 오사카시립미술관 앞에 전시되었다. 1987년 일본인이 사리탑을 사리탑 중수비와 함께 기증하여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복원·전시하고 있다.

사리탑은 기단부인 중대와 하대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고 상대, 탑신, 옥개석, 상륜부 등 5개의 부분을 하나의 돌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기본형은 기단과 옥개석 등 대부분이 8각 원당형이지만 탑신만은 원구형으로 되어 있다. 탑신에는 세 마리의 용이 구름 사이에서 꿈틀거리며 기운을 발산하는 운룡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것은 양주 퇴일사지 무학대사 부도(1407)의 탑신과 수법이 유사하나 조금 간략화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 상륜부의 경우는 하나의 돌로 조각되었는데, 일반적인 부도에서는 흔히 보기 힘들게 세분화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하나의 돌로 되었다는 단점때문에 표현이 단순화되었다. 이 사리탑은 일반적인 부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승려의 부도탑이 아닌 불사리탑으로 건립된 것으로 건립시기와 건립연유 등이 확실하고 또한 완전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어서 탑과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사리장엄구는 총 7점인데, 사리외합, 사리내합, 사리병, 후령뿔이 있고, 사리병과 후령뿔을 보호하면서도 수복무강을 기원하는 실증치가 보인다. 사리합은 외합과 내합 5점이 모두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리외합이 가장 바깥에 있고 점차 작은 순서로 사리합이 들어가며 마지막에 실증치와 후령뿔, 사리병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 ○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1620년(광해군 12)에 봉안된 사리탑을 취우대사가 중수하면서 건립되어 사리탑의 최초 봉안 연도와는 약 139년의 차이가 있다.

이 중수비도 사리탑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87년 사리탑과 사리합



불인사 사리탑 중수비

이 반환될 때 같이 들어와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앞 뜰에 사리탑과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중수비의 구조는 방형의 비좌 위에 다소 빈약한 듯한 비신을 정방형에 가까운 각주(角柱)로 세우고, 간략한 양식의 옥개석형 개석을 얹은 형태로 총높이 181cm 크기의 석비이다. 전면에는 "탑중고문(塔中古文)"의 이름으로 사리탑 연기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면에는 취우대사가 사리탑을 중수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 ○ 불인사 풍암취우대사비

취우대사(取愚大師 : 1695~1766)는 15세에 출가하여 회암 정혜(晦庵 定慧 : 1685~1741)에게서 법통을 이어 받았다. 금강산에서 경전을 강설하다가 불인사로 와서 주석하였고, 1757년에 훼손된 사리탑과 전각을 중수하고 중수비를 세웠다. 대사가 입적하자 다비에 부쳐 사리(舍利) 2과를 얻었는데 이로써 부도를 세워 봉안하고 이듬해인 1767년 7월에 이 탑비를 세웠다. 따라서 원래는 탑비와 가까운 곳에 취우대사부도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20세기 초에 화재로 인해 사역 전체가 소실되었을 때 이 탑비도 땅 속에 묻혔는데,

1979년 법당을 짓기 위하여 터를 다지던 중 땅 속에서 발견되어 오늘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비전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층수비와 같이 수미(水磨)로 맑음하게 다듬었고 글자는 전서체(篆書體)로 음각되었다. 둘에는 각연적인 무늬가 있어 마치 함장한 도인과 금강역사같고, 비좌(碑座)는 화강암으로 되었으며 상면에는 북판을 돌리고 사면에 안상을 시문하였다. 옥계석은 화강암계 말라지분 형태로 되어 있다.

## 2. 흥국사(興國寺)

☐ 소재지: 별내면 덕송리 331

흥국사는 별내면 덕송리 수락산 아래에 위치한 봉선사의 말사이다. 599년(신라 진평왕 27) 원광법사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창건하여 수락사(水落寺)라 하였다. 그 후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절을 중창하였으나 확인할 만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거정 등이 이 절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승(高僧)과 함께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머무는 등 명성이 높았다.

1568년(선조 1) 선조가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원당을 건립하면서 흥덕사(興德寺)로 사액하였으며, 1626년(인조 4) 흥덕사를 흥국사로 바꾸었다. 1793년(정조 17)에는 정조가 기허스님에게 내방금을 하사하고 중수를 명하여 천각이 대대적으로 중수되었지만, 1818년(순조 18) 만월전과 양로실만을 제외하고 전부 소실되었다. 1822년에 역시 기허스님에게 내방금을 하사하고 절을 중건하게 하였다. 이 때 대웅전·시왕전·대방 등이 중수되었으며, 법화경 경회를 열어 국가의 복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1856년(철종 7)에 양씨의 시주로 은봉대덕이 만월전을 새로 짓고 단청을 하였으며, 1878년(고종 15)에 용암장로가 시주금을 모아 대웅전과 대방 37칸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1888년에 재암대덕이 역시 시주금을 모아 영산전을 건립하였고, 묘사재를 중수하여 단청불사를 하였다.

1907년(광무 11)에 신도의 시주로 대웅전 3존상을 개금불사하였다. 1917년에 주지 범좌스님이 각 전각과 묘사재를 중수하고, 기와를 교체하고 단청을 하였다.



덕홍대원군의 원찰인 홍국사

이와 같이 홍국사는 원광법사가 창건한 이래 중건과 폐허가 거듭되다가 조선 중기 이후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사세 확장에는 선조의 후원이 지대하였다. 그것은 홍국사가 선종의 아버지인 덕홍대원군의 원찰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인지 덕홍대원군의 묘소는 '덕릉'이라고 불리고 원찰인 홍국사 역시 '덕절'로 불리기도 한다.

○ 홍국사 대웅보전(문화재자료 제56호)

팔각지붕의 건물이다. 이 대웅전의 정확한 초창(初創)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93년(정조 17)에 중수가 있었고, 1818년(순조 18) 큰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가 그 3년 뒤인 1821년에 중건되었으며, 1917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지붕은 용마루가 아래로 늘어져 있고 양끝에 취두를 두고 있으며, 추녀마루에는 사원건축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갖가지 잡상을 각 5개씩 두고 있다.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 다포계 건물의 특징인 활주를 대었다. 공포에는 용두, 연꽃봉오리, 봉황머리 등이 조각되어 있어서 조선 후기의 장식적인 조각수법을 잘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대웅전이나 약사전·만월보전 등 처마에 잡상을 둔 것이나, 처마 끝 연목의

별목에 토수를 덧대어 마무리한 것 등은 철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식은 아니고 궁궐 건물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흥국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흥국사 영산전

대웅보전의 왼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웅보전보다는 작은 건물이지만 팔각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비교적 떠임새 있는 건물이다. 건축양식은 대웅보전과 같이 다보계 건물이다. 영산전의 공포도 대웅보전의 공포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장식적 수법이 잘 나타나 있다.

#### ○ 흥국사 만월보전

시왕전 뒤쪽에 석축을 쌓아 한 단 높은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로서, 육각형의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1818년의 큰 화재 때 화재를 면했으므로 늦어도 1793년(정조 17) 또는 그 이전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육각형 4 변의 길이가 2.3m에 지나지 않는 규모가 작은 건물이지만 사찰 건물로는 유례가 드물게 육각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지붕은 6모지붕으로 함각처점에는 정병뿔이 있고, 각 추녀마루에는 2개에서 4개씩의 짐살들이 늘어선 있다. 또한 무거운 지붕을 6각형의 초석 위에 세워진 환주로 떠받치고 있다. 한편 경남 함진 해인사의 삼성각(三聖閣)도 마찬가지로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지붕도 6모지붕을 하고 있어서 흥국사 만월보전과 형태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건물의 규모에서 오는 느낌의 차이는 자못 지이가 난다.

#### ○ 흥국사 시왕전

대웅전 오른쪽에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하였고, 1821년 중건 때의 건물로 추측된다.

시왕전의 지붕은 용사루의 처짐이 덜하고 풍판(風板) 위의 비공널의 합각(合角) 처짐에 철제 보호구인 지내침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다만 풍판의 설치로 인하여 목조가구의 세부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내부에는 지장삼존을 비롯해 시왕상·인왕상·관관·능사 등의 상과 불화르는 지장행화·시왕도 10폭이 있다. 또 그 밖에 가바와 위패·입경대·연(簾) 등도 있다.

이외에도 흥국사에는 사역의 동쪽에 성임당부도가 있고, 입구와 만월보전 뒷면에 부도가 각각 1기씩 있다. 그리고 범종각 안에는 범종을 비롯한 운판·법고·목어 즉 사물이 있는데, 법고와 목어\*는 제법 오래되어 보인다.

흥국사에 모셔진 불상으로는 대웅보전에 목조 석가삼존불상이 있으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보살로 하고 있다. 만월보전에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는데 앉아 있는 좌상임에도 높이가 120cm가 된다. 영산전에는 16나한도와 함께 16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불단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으며 표정이 다양하고 입체감이 풍부하여 각각의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시왕전에는 목조지장보살상과 함께 시왕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시왕도(十王圖: 1744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수종사(水鍾寺)

□ 소재지: 조안면 송촌리 1060

수종사는 조안면 송촌리 운길산의 정상 가까운 높은 곳에 위치한 봉선사의 말사이다. 『범우고(梵宇攷)』에는 세조가 이 절에 친히 행차하여 땅을 파서 샘을 찾고, 혹은 종을 발견했다고 해서 수종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창건은 확실하지 않다. 부도를 중수하면서 조선 초기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유물이 조성된 같은 시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세조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용선을 타고 양수리에서 하룻밤 정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에 홀연히 어디에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다음날 세조가 사람을 시켜 그 출처를 찾게 했는데 그 곳에는 바위굴이 있었고 그 내부에 18나한상만 있을 뿐이었다. 종소리는 굴 속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울려나온 소리로 청아하고도 명징하게 들렸던 것이다. 세조는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 이

\* 목어: 원나무의 껍질을 불고기 모양으로 조각하여 아래의 복부를 파서 공간을 내어 그곳을 새를 가지고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목어는 머리 부분이 머리주를 들고 있는 용의 형상을 기리고 있다. 그리고 두 눈은 크게 부러리고 있어서 잠들지 않고 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수종사에서 내려다 본 두물머리 전경

곳에 축대를 쌓고 절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절이름을 수종사라 하였다.

1890년(고종 27)에는 풍계해일(楓溪慧一)화상이 중창을 하였고, 다음 해에 불상 4존과 명화 3축을 새로 봉안하였으며, 대법당·나한전·어향각, 그리고 산왕각을 단청하였다. 1939년에는 주지 홍태욱(洪泰旭)이 대웅전·선루·큰방을 중건하였지만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다. 1940년에 역시 홍태욱이 영산전·독성각·산신각·어영각·웅결실 등을 중건하였다.

오늘날의 수종사는 1974년부터 중건한 것으로 대웅보전과 나한전·산신각·약사전·요사채 그리고 부도와 삼층석탑, 세조의 명으로 중창할 때 세운 팔각오층석탑이 있다. 중심부에 대웅보전이 있고 그 앞에 석등 1기와 해태상 2기가 있으며, 오른쪽에 선불장이 있고, 뒤편 옆으로 약사전과 산신각이 나란히 서 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측면에는 웅진전이 위치하고 있다.

#### ○ 수종사 부도(유형문화재 제157호)

이 부도는 1493년(세종 21) 태종 태후(太宗太后)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정의옹주(貞懿翁主)의 부도이다. 원래는 경내 왼쪽 산비탈에 있던 것을 1939년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



정의용주의 부도인 수종사 부도

서 해체·증수하였다. 8각원당형의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전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하층기단·상층기단·탑신·옥개석·상륜부 순서로 부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기단은 방형의 지대석 위에 조성되었고, 그 위에 8각의 2층 기단이 놓여 있다. 탑신은 원형으로 화려한 구름무늬가 장식되었고 그 안에 한 마리의 용이 노는 형태를 조식하여 율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옥개석에는 정의용주의 부도임을 나타내는 글씨가 새겨 있다. 한편 1939년 해체 수리 시 청자유개호 1점, 금동제 구층탑 1점, 은제도금 육각감 1점이 나와 현재 보물 제259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유형문화재 제22호)

현재의 대웅전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팔각오층석탑은 원래 경내에서 동쪽으로 벗어난 곳에 있었던 것이며, 지금은 '수종사다보탑'으로 더 유명하다.

탑의 양식을 보면,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이중 석재를 기반으로 하였고, 그 위에 5층의 팔각 탑신을 올렸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상륜부가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목조건물을 돌로 표현한 듯한 느낌을 받고 탑 전체의 균형도 흠 잡기 어려울 정도다.

이 탑은 위치 변경 등으로 두 번이나 해체·복원되었는데 그 때마다 불상 등의 유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이 다수 발견되었다. 즉 1957년 5월의 해체·복원 때에는 초층 옥개석과 초층 탑신 그리고 기단 중대석에서 금동함, 보살상 15점, 금동불감 1점, 목조불상 3점 등 도합 19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또한 1970년에 이 탑을 경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체했을 때에도 불상 12구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탑은 바로 산너머에 위치한 묘직사 팔각석탑과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상륜부는 거의 같은 모습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은 팔각형을 띠며 목조건축을 모각한 듯한 형식이다. 초기 경기 일대에 유행하던 석탑의 형태로 파악되며 석탑연구사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 수종사 소탑

이 소탑은 현재 대웅전 옆 팔각오층석탑과 부도 사이에서 초라한 형태를 띠며 위치하고 있는데, 기단부와 탑신의 일부 등이 크게 파손된 파탑(破塔)으로 약간의 보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4각형 삼층석탑을 한 현재의 모습이 정확한 원형인지는 알 수 없다.

## 4. 불암사(佛岩寺)

□ 소재지 : 별내면 화적리 797

불암사는 별내면 화적리 불암동 천보산 아래에 위치한 봉선사의 말사이다. 불암사는 주변의 뛰어난 경관으로 경기도에서 서쪽의 진관사(津寬寺), 남쪽의 삼막사(三幕寺), 북쪽의 승가사(僧伽寺)와 함께 명승지로 꼽힌다.

『봉선사본말사지』 불암사조에 신라시대 지증대사(智證大師 : 824~882)가 824년(현강왕 16)에 창건하고 불암사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고려 초에는 도선국사(827~898)가 증진하였으며,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무학대사가 폐허화된 것을 증창했다고 한다. 이 때까지의 불암사에 관한 기록은 지극히 소략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계속되는 증건과 함께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불암사사적비』에 의하면 조선 초기 천보산 남쪽에 세조·성종의 왕릉이 자리하면서 원찰이 되었다고 한다. 이 때 일현보감(一玄寶鑑)이라는 스님이 사세 확장(寺際)의 서원을 세우고 불상을 개금하고 법체에 이용되는 기물에서 묘사·창고·부덕 등 일체를 마련하였다.

이후 1776년(명조 52)에 서악 명관(瑞岳 明暉)화상이 선당을 창건하였으며, 1782년(정종 6)에는 대웅보전과 극락보전을 중수하고 제월루를 고쳐 지었다.

그 후 불암사는 1844년(현종 10) 보봉대사(寶峰大師)가 시주를 받아 전각과 묘사를 중수했고, 누각에 단청을 하였다. 또한 1853년(철종 4)에 보성(寶城)스님이 제월루를 중수하고, 춘봉화상(春峰和尚)이 향로전을 다시 지었으며, 사찰의 스님들이 의논하여 누각을 보수하였다고 한다.

또한 1855년에는 혜월(慧月)·보성(寶城)스님이 전각과 묘사재를 중수하였는데 춘봉(春峰)·환응(喚應)·성담(性潭)·한경(漢景)·춘파(春坡)·관해(觀海) 등 여러 선사가 사재를 출자하여 일을 성사시켰다.

1910년에는 풍천(豐川) 임씨(任氏)의 시주로 동축당(東竺堂)·독성각·산신각이 건립되었으며, 1959년에는 만허(滿虛)스님이 칠성각을 새로 지었다.

현재 불암사는 대웅전·제월루·관음전·동축당·칠성각·병종각·경관고와 삼층석탑, 그리고 불암사사적비가 있으나 칠성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래에 새로 지은 것이다.

대웅전은 맞배지붕의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내부에는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불암사 권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으며, 관음보살과 지장보살도 있다. 또한 대웅전의 좌우측 벽에는 신중탱화와 감로왕도가 있다. 칠성각은 대웅전 오른쪽에 신통전·산령각·칠성각이라는 세 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서 세 종류의 전각구실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칠성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경판고는 맞배지붕의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좌상과 영산회상도가 있다.

○ 불암사 석씨원류용화사적책판(보물 제591호)

이 책판은 1631년(인조 9)에 정두경(鄭斗卿)이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할 때 명의 승려 대겸(大謙)에게서 얻어 온 책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673년(현종 14)에 승려 지십(智什)이 불암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총 212판에 이른다.

내용의 세부를 살펴보면, 1·2권에는 석가모니의 행적이 실려 있고, 3·4권에는 석가 이후 전법제자들의 행적과 서역 및 중국에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고승에는 신라의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의 사적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각 권마다 100항목씩 총 400항목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각 면을 보면 판심(板心)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먼저 4자구(字句)로 된 제목을 붙이고,



1731년에 세워진 불암사 사차비

본문을 12행 24자씩 배열하였으며, 왼쪽 면에는 본문 내용을 그림으로 도설(圖說)하고 있다.

이 책판은 조선시대의 목판으로 질이 부드럽고 각자(刻字)도 부드러우며 비교적 정교하고, 내용과 그림이 동시에 묘사되고 있어 훌륭한 목판일 뿐만 아니라, 역대 우리나라 고승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현재는 보물 제591호로 지정되어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 ○ 불암사 경판(유형문화재 제53호)

불암사에는 「석씨원류옹화사적책판」 외에도 「금강경」 4종과 「십이마하반야밀다경」, 「약사경」, 「대승무량수장엄경」, 「부모은중경」, 2종 및 「묘법연화경」 등을 포함한 31종 총 591매의 경판이 불암사 대웅전 서남쪽에 위치한 장경각에 보관되어 있으나, 원판은 동국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판의 형태는 양 끝에 나무를 끼워서 판목의 뒤틀림을 방지하였고, 목재는 목질이 부드럽고 연한 자작나무를 사용하였다. 글자는 힘이 있고 정교하게 각자(刻字)되었으며,

판서(版書)는 그 조법(寫法)이 매우 섬세하여 조선만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이 결판들은 대개 1635년(인조 13)과 1795년(정조 19)에 진행되었다.

#### □ 불암사 사적비

불암사 사적비는 1731년(영조 7년)에 세워진 것으로 결의 내력을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비좌는 지내석을 겸하도록 반쯤 땅에 묻혀 있는데, 적육면체의 형태를 띠며 마모가 심한 탓인지 문양을 살필 수 없다. 비신은 상태가 세 좋지 않으며 비면(碑面)에 이물질이 묻어 있기도 하다. 옥개석은 화강암재로 보편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팔각지붕 모양을 하고 있다.

## 5. 내원암(內院庵)

주소 재 지 : 별내면 청학리 578

수락산은 경기도의 명산이며 내원암은 이 산의 미류봉 서쪽 명당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비구니 도량으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봉선사의 말사이다.

사찰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이다. 곧 1794년(정조 18) 불조정의 지원으로 내원암의 서쪽에 칠성각을 새로 짓고 정조가 친히 광응전(光應殿)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왕실과 조정의 지원으로 중수를 거듭하였다.

이와 같이 내원암은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과 스님들의 노력으로 그 사세가 점차 활발해졌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매서기 되었다가 1955년 이후부터 점차 옛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비구니 성민(性敏)스님이 칠성각과 요사·대방·대웅전·영산각·비록전 등을 복원하였다.

한편, 내원암은 ‘성사(聖舍)’라고도 불렀는데 강원도의 선봉사 스님이 묘향산에 있던 16나한을 옮겨가다가 내원암에 봉안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내원암이 위치한 주라산이 송도의 설거산과 흡사하여 설거산에 오백나한이 거처하여 성사라고 하였으니 내원암 또한 16나한을 모셨으므로 성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정조의 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다.



마구니의 도량인 내원암 전경

내원암의 성문문화재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거나 조성되었는데 한국전쟁 때 전각과 불상·불화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는 옛터에 대웅전·영산전·삼성보전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옛 모습을 간직한 유적과 유물로는 석탑의 일부분과 석조, 그리고 석불상만이 있을 뿐이다.

#### ○ 내원암 석불입상

절의 뒤쪽 400m 쯤에 있는 석불입상은 원래 대웅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였으나 최근에 현 위치에 축대와 단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전체의 높이가 280cm나 되는 석재를 다듬어 맨 위쪽은 뾰족하게 해서 앞쪽으로 구부러진 형상으로 광배(光背)를 다듬고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돌출세김으로 표현하였다.

불상의 형태는 광배에 고부조(高浮彫)로 조각되었는데, 불두(佛頭)의 경우 육계가 크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불두 높이의 1/4 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균형잡힌 비례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불상 자체가 비례를 어긋나고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아주 간단한 도상을 이루고 있다.

이 석불입상의 제작시기는 대체로 조선 초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불상의 양식이 대체로 도식화되어 있는 점으로도 알 수 있지만, 불상 아래쪽 건물터에서 조선 초의 기와와 토기, 백자편 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내원암에는 정조 친필 '평응전', 순조의 친필 '극락보전'의 편액이 현하고 있다고 『봉선사본말사지』가 전하고 있다.

## 6. 견성암(見聖庵)

### ① 소재지: 진건면 송농리 3

견성암은 봉선사의 말사로 진건면 송농리 천마산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견성암은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풍양조씨의 시조인 조맹(趙孟)이 은거하면서 수양하던 '바위굴' 이었다고 한다. 곧 조맹이 이 곳에서 수양하던 중 약사여래불을 친견하였다 하여 그 후손들이 이 곳에 원당을 세우고, 약사불을 봉안, 암실의 안념 뿐만 아니라 선조인 조맹을 추모하였다. 견성암이라는 이름 또한 약사여래를 친견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후 견성암은 조맹의 후손인 보월혜소(寶月慧昭)에 이르러 온전한 사찰의 면모를 드러냈다. 1860년(철종 11) 10월 옛 터에 법당과 우화루를 새롭게 중창하였다. 한편, 1882년(고종 19)에는 불성(佛成)화상 서린(瑞麟)이 불상을 개금하고 법당과 누각을 중수하고 법당에 각종 탱화를 조성하여 봉안하기도 하였다. 대웅전의 아미타후불탱화·현왕탱화·신중탱화, 약사전의 칠성탱화·지장시왕도, 산령각의 득성탱화 등이 봉안되어 전해지고 있다.

1900년(광무 4)에는 약사전에 약사탱화를 봉안하였는데 이 탱화는 약사여래와 일광·월광보살 그리고 사천왕상과 6명의 성중(聖衆)으로 구성된 간단한 불화이다. 그러나 화면 좌우에 배치된 사천왕은 하체가 유난히 짧아 균형이 어색하며 묘사해 놓은 선도 매우 처진 양식을 보인다고 한다.

### ○ 견성암 대웅전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한 목조건물이다. 지붕은 용마루가 일직선으로 용



봉림초씨의 시조인 조맹이 은거하였다는 견성암

마루 귀족의 반전이 없고, 맞배지붕의 특색에 따라 처마끝의 반전도 보이지 않는다. 맞배지붕이 측면에서 만나는 합각지점의 박공널 아래에는 풍판이 있어 전형적인 맞배지붕 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웅전의 내부에는 최근에 조성한 삼세불좌상과 함께 1882년에 조성한 아미타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독성탱화, 현황탱화 등이 있어 대웅전의 조성연대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견성암의 사적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 ○ 견성암 수양굴

지금의 대웅전 오른쪽 뒤에 굴법당이 위치하였는데, 일명 수양굴이라고 전한다. 고려 초 조맹이 수양하던 바위굴이라 한다.

『견성암우화루기(見聖庵雨花樓記)』에 따르면 “고려 초에 시종이었던 조맹이 동굴에 은거하면서 약사여래의 광명을 친히 보아 높이 원불로 삼고 일어나 신성왕을 보좌하여 개국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니, 이 때문에 대인의 덕이 세상에 드러나 훌륭한 입금을 만나 보좌하게 된 근원지가 되었다. 성인을 만났다는 의미의 견성(見聖)이라는 명칭은 이에서 나왔으며, 후손이 추모하여 세워 원당을 삼고 약사여래를 공양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굴법당의 연혁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견성암의 창건사정을 전하고 있는 기록이 없고,

또한 절의 창건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도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의 수양굴에 당시 조맹이 거처하였는지를 밝혀주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아쉬운 형편이다.

#### ○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다. 오른쪽 무릎이 꺾어져 그곳을 석고로 보수하고 불상 전체에 회칠을 두텁게 입히고 얼굴과 약합에 채색을 하였다. 두 손은 신체에 비해 큰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담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불상의 양식으로 보아 제작연대는 조선시대 후기로 생각된다.

## 7. 묘적사(妙寂寺)

### ○ 소재지 와부읍 월문리 222

묘적사는 와부읍 월문리 묘적산에 있는 호국사찰로 불전사의 말사이다. 묘적사는 신라 문무왕(631~681) 때 원효(元曉)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486년(성종 17)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묘적사는 묘적산에 있는데 김수온의 기록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도 사찰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혁은 알 수 없으며, 조선 중기에 거의 폐허화되었다.

조선 후기 묘적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봉선사본말사지』 묘적사조에 보인다. 즉, 『묘적산산신각창건기』에 의하면 1805년(고종 32) 창건기를 쓴 김교현(金敎顯)이 묘적사를 찾았을 당시 흙으로 축대를 쌓은 초가로 수백 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 산신각의 창건과 함께 절에 있던 산신상을 모셨다고 한다.

그 후 1969년 화재로 대웅전과 산신각이 전소되었는데, 1971년 주지 자선(慈愍)스님이 대웅전과 요사채를 증건했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에 대웅전·관음전·마하선실이 증건되고, 1979년과 1984년에는 나한전과 산신각이 건립되어 온전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대웅전·산령각·나한전·관음전·요사 등의 건물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묘적사 전경

측면 2간의 팔각지붕 양식으로 1969년 소실되었으나 1976년 중건된 것이다. 또한 대웅전과 함께 건립된 요사채는 기둥이 다듬지 않은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묘적사 팔각칠층석탑(향토유적 제1호)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팔각다층석탑이다.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팔각구층석탑과 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원래는 9층이나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기초가 되는 지대석은 2장의 큰 돌로 만들었는데, 역시 팔각형으로 되어 있다. 지대석 위에는 역시 팔각형으로 된 대석을 놓아서 기단부와 지대석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단은 아래에서부터 하층기단·중대석 그리고 상층기단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위에 올려진 팔각의 탑신에는 각 면의 모서리마다 우주(隅柱)가 표현되어 목조건축의 기둥을 모각하였다. 각 층의 옥개석 윗면에는 그 위층 탑신을 받는 2단의 괴임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은 탑신부는 전체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는 옥개석과 탑신이 별도의 돌로 되어 있으나 6층과 7층은 하나의 돌로 합하여 만들었다.

상륜부는 반구형(半球形)으로 되었는데, 그 둘레에 삼각형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가 연속되도록 조각되었으며 꼭대기에는 꽃무늬를 문양새김으로 장식하였다.

한편 이 탑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현재 3층과 4층 사이의 체감율이 극히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본래 7층탑이 아니라 9층탑 혹은 11층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절의 동쪽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팔터에 상재한 탑재를 보면 이러한 추측이 용인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 묘적사 팔터

현재 절의 동쪽으로 약 30여 m쯤에 있는 평탄한 대지가 묘적사 팔터이다. 대략 건물로 따지면 약 10여 칸 정도의 크기이다. 집에서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어긋은 임진왜런과 병자호란 등 국난이 겹치던 시기에 스님들이 군공을 세움에 따라 남북한지역이 설치된 때가 있었는데 그 때 묘적사 스님들이 이곳에서 부예를 익혀 무과(武科)에 응시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간혹이기는 하나 화살촉 등의 무구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 8. 봉선사(奉先寺)

□ 소재지 : 진접읍 부평리 225

봉선사는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운악산 기슭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다. 운악산은 한국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산으로 동쪽은 금강산, 서쪽은 구월산, 남쪽은 지리산, 북쪽은 묘향산,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운악산이다. 이것은 중국의 오악(五岳)을 모방한 것으로 경기지방 역시 이를 섬멸하여 개성의 송악, 과천의 관악, 연천의 갑악, 가평의 화악, 양주의 운악이라 하였다.

봉선사는 969년(광종 20) 법인국사(法任國師) 탄문(坦文)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창건 때의 이름은 운악사(雲岳寺)라고 하였다.

1469년(예종 1)에 예종이 이 절 이름을 봉선사라 치어 사택하였는데 이것은 선왕의 능침을 수호하는 원찰이라는 의미이다. 김수온(金守溫)이 지은 『봉선사기(奉先寺記)』에 의하면 1469년(예종 1)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윤씨가 증창하였다고 한다.



조선 전기 동종 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봉선사 대종

1472년(성종 3)에 승은전을 봉선전으로 바꾸고, 1480년에 왕명으로 절을 보수하였으며, 1483년 유생과 잡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488년에 전각의 지붕을 청기와로 바꾸었다. 그 후 1505년(연산군 11) 봉선사에 두었던 2인의 참봉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세가 축소되었으나 중종반정으로 봉은사와 함께 다시 왕실의 원찰로 중요시되었다.

1551년(명종 6)에 교종 수사찰로 승격되었는데 이것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으로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면서 비롯되었다. 1566년에 선교 양종이 백지화되어 봉선사도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불교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문정왕후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교종의 맥을 잇는 학승들은 항상 봉선사를 그 근본 도량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 후 봉선사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에 진을 쳤다가 퇴각하면서 방화하여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 다행히 이 때 대웅전과 약사여래좌상이 화를 면하였으며, 세조 어진(御眞) 또한 봉선사 승려 삼행(三行)이 모셔내어 태조 어진과 함께 살아남게 되었다.

1593년 주지 낭해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전각들을 중건하였으나,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청군에 의해 전각 일부가 소실되는 화를 입게 된다. 이후 1715년(숙종 41) 청풍루를 신축하였고, 1749년(영조 25) 주지 재점(再點)이 법당을 중수하였으며, 1780년(정조 4)에는 정희왕후가 중창했을 때 근처 묘적암에서 모셔온 약사여래좌상을 개금하였다.

1902년(광무 6)에는 원흥사(元興寺)가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 되면서 봉선사는 경기도 내의 본산이 되었다. 그리고 1911년 일제의 사찰병합이 반포되면서 전국 사찰이 31본산 체제로 구획될 때 봉선사는 교종 본산으로 지정되어 경기도 북부 일원의 사찰을 관장했다.

1925년에 당시 주지 월초거연(月初巨淵)이 충수하였고, 1968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25교구 본사가 되어 오늘날 고양군을 제외한 한강 이북 10개 군에 걸쳐 82개소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봉선사는 현재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16동 150칸의 당우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1970년대에 운허스님에 의하여 대대적인 중창공사에 있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큰법당, 삼성각, 개전당, 천공루, 어실각, 다경실, 방적당, 동별당, 종각 등 크고 작은 전각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 ○ 봉선사 대종(보물 제397호)

대종은 몇 개 안 되는 조선 전기 동종이다. 1469년(예종 원년)에 왕실의 명령에 따라 주조되었다. 종의 형태는 정상에 음관(音管)(音韻)이 없는 쌍룡(雙龍)으로 용뉴(龍紐)를 나타내고, 종신(鐘身)에는 곡관(楛管)의 문화를 돌렸다. 그 바로 밑으로 도드라진 2가닥의 열미를 돌려서 음채와 뚜렷이 구분하였다.

종의 무게 중앙에는 굵고 가는 3가닥의 열미를 돌려 위아래로 구분하였다. 윗부분에는 유과과 보살상을 교대로 배치하여 돌출새김으로 양각하였다. 또한 보살상의 위 아래, 네 귀퉁이와 종의 중상단 부분에 명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종에는 강희명(1424~1483)이 짓고 명필 정난종(1433~1489)이 글씨를 쓴 장문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그 문장의 아름다움과 글씨의 유려함이 극치를 이룬다. 이 명문에서는 종을 만든 이유와 조각하고 주조하였던 장인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 대대적인 주종공사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종의 형태는 고려 양식을 탈피하고 조선시대 범종 양식의 선례가 되는 작품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래서 조선 전기 동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양식 규명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대종이다.

#### ○ 봉선사 하마비

하마비는 원래 사찰 경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마련되는 것인데 그 동안은 찾을 수 없었음 뿐 아니라 그 존재조차 몰랐었다. 1908년 지표조사 중에 주차장정비사업을 하다가



백가곡사가 청간한 보광사

사찰 입구 주차장 초입의 땅 속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하마비는 2단으로 깨어져 비의 하단에 있는 마자(馬字) 부분이 2등분되어 있었다. 이 하마비의 석제는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작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크기는 높이가 90cm이고, 가로 37cm, 세로 18cm의 아담한 정도이다.

이 비의 정면에는 “大小人員皆下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주차장 서편 길 바로 옆에는 당간지주가 있고, 사찰의 경내로 들어가는 진입로 초입에 보운당 부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부도는 방형의 지대석 위에 기단부를 두고 위에 탑신을 올리고 그 위에 옥개석을 덮었으며, 최상부에 상륜을 얹었다.

## 9. 보광사(寶光寺)

□ 소재지: 화도읍 가곡리 419

보광사는 화도읍 가곡리 천마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봉선사 말사이다.

1419년(양종 1)에 혜거국사(慧炬國師)가 창건했다. 그 이후 보광사에 대한 기록은 1851년(철종 2)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 절의 규모나 사정을 알 수 없다. 이 때는 이유원(李裕元·1814~1888)의 경제적 지원으로 중건되었는데 영의정을 지냈던 이유원이 화담(華潭)신사를 위해 절을 중건하고 자신의 원찰로 삼았다고 한다.

1894년(고종 31) 봉성화상(鳳城和尚)이 중수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큰방 20칸이 화재로 소실되고, 1960년에는 대웅전 6칸이 역시 화재로 소실되어 거의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1982년 주지 소임을 맡은 화담(華潭)스님이 부임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보광사는 그 모습을 일신하게 되었다. 먼저 1984년에는 토지 430평을 매입하여 사찰 재산으로 등록하고, 복원불사의 일환으로 묘사재를 마련하였으며, 대웅전 또한 지금의 목조건축물 아래 새로 건립되고 있다.

## 10. 봉영사(奉永寺)

☐ 소재지 : 진접읍 내각리 148

봉영사는 진접읍 내각리 천경산 기슭에 있는 봉선사의 말사이다. 창건은 509년(진평왕 21)이었으며, 처음에는 봉인암(奉仁庵)이라고 하였다. 그 뒤 조선 중기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고 있다. 1737년(영조 13)에 태전(太田)·해청(海靑)·치학(致學) 등이 왕폐폐전 절을 증청하였으며, 1755년 선조의 후궁 인빈(仁嬪)의 묘소가 순강원으로 승격되면서 이 절을 인빈의 원찰로 삼아 이 곳에 선실을 지었고, 절 이름도 봉인암에서 봉영사로 명명하였다.

1877년(고종 14)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하였고, 1902년에는 권동희(全東熙)화상이 법당에 삼존불 봉안하였으며, 1920년 여름 수해로 거의 폐사가 되었다. 1924년에는 서경(西耕)스님이 법궁(梵宮)과 묘사재를 중수하였다. 그 후 1942년에는 주지 성호(聖浩)가, 1968년에는 혜경(慧鏡)이 중수했다. 그리고 1971년 대웅전 앞에 있던 큰방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고, 1980년에는 법당 동쪽에 있던 어실각을 2칸에서 3칸으로 확장하기도 하였다.

봉영사에는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보전과 병부전, 중방, 묘사, 그리고 사적기와 혜



선조의 후궁 안빈의 원찰로 삼았던 봉영사

경선사공덕비 등이 있지만 모두 근래에 건립된 것이다. 대웅전에는 본존불로 아미타불상과 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독성상을 봉안하고 있다. 이 밖에 아미타불화, 신중도, 산신도가 봉안되어 있다. 아미타불화는 1853년에 조성된 것으로 대웅전의 후불탱화이다. 신중도와 산신도는 1903년에 각각 조성되었다.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내부에는 지장보살상과 무독귀왕·도명존자상 및 시왕상 그리고 녹사·관관·인왕·사자 동자상이 있다. 또한 불화는 지장탱화와 범고·가마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980년 명부전이 낙성될 때 조성된 것이다.

## 11. 석천암(石泉庵)

□ 소재지 : 별내면 화접리 산 97

석천암은 별내면 화접리 불암산에 위치한 봉선사의 말사이다. 신라 흥덕왕 때 지증국

사(習誼編師)가 장건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록은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지증국사 장건설은 지증국사가 840년(문성왕 2)에야 17세가 되어 귀족계를 받았으므로 흥덕왕 때 장건했다는 설은 신빙성이 약하다.

1882년(고종 19)에 오위장(五衛將) 이장군이 병제개편에 따라 오위제도가 해체된 후 불암산에 들어와 황량한 옛터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였다.

그 후 1922년에 거사 김한구(金漢九)가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이 곳에서 공부하였으며, 1956년에는 주지 장근(張根)이 요사채를 증수하였고, 1960년에는 법당을 세웠다. 현재 칠성각과 요사·법당이 있는데 법당은 절벽의 맨 아래쪽 바위면에 붙여 지은 건물이다.

법당의 안쪽 벽에 조각된 아미타상존불이나 감실 안의 나한상들, 법당과 요사 사이의 마애비록불, 왼쪽 절벽에 있는 약사여래 등은 근래에 조성되었다. 법당 옆에 위치한 칠성각 안에는 칠성탱화·산신탱화·독성탱화 및 독성삼이 있다.

# 남양주시 문화재 현황

1999년 3월 기준

| 번호 | 지정구분        | 명칭          | 소재지             | 내 용  |
|----|-------------|-------------|-----------------|--|
| 1  | 보물 397호     | 봉선사 대웅      | 진접읍 부령리 255     | 황동으로 주조된 대웅(조선)                                      |
| 2  | 보물 591호     | 석씨원류동화사적화판  | 별내면 화정리 797     | 석가일대기를 찍은 목판(조선)                                     |
| 3  | 사적 197호     | 경동          | 진접읍 부령리 산 100-1 | 제7대 세조의 친회향후의 능                                      |
| 4  | 사적 207호     | 홍유릉         | 금곡동 141-1       | 릉종 : 제26대 고종과 영선황후의 능<br>유릉 : 제27대 순종과 순연효 - 순정효황후 능 |
| 5  | 사적 209호     | 사릉          | 진건면 차능리 산 65-1  | 제6대 단종의 비 정순황후의 능                                    |
| 6  | 사적 356호     | 순감현         | 진접읍 내곡리 150     | 제4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의 묘                                  |
| 7  | 사적 360호     | 화경원         | 진접읍 부령리 287     | 제22대 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의 묘                                 |
| 8  | 사적 363호     | 광해군 묘       | 진건면 송능리 산 59    | 제15대 광해군과 부인 유씨의 묘                                   |
| 9  | 사적 365호     | 성묘          | 진건면 송능리 산 55    | 제4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의 묘                                  |
| 10 | 사적 366호     | 인빈 묘        | 진건면 송능리 산 66    | 제7대 효종의 후궁 인빈 이씨의 묘                                  |
| 11 | 사적 367호     | 영빈 묘        | 진접읍 장현리 175     | 제18대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묘                                 |
| 12 | 천연기념물 11호   | 경동 크낙새사슴지   | 진접읍 부령리 산 99-1  | 크낙새 서식지  |
| 13 | 천연기념물 232호  | 양지리 향나무     | 오남면 양지리 535     | 수령 500년  |
| 14 | 중요민속자료 12호  | 여경구 가옥      | 진접읍 내곡리 286     | 전통 사대부 가옥(조선)  |
| 15 | 중요민속자료 130호 | 궁집          | 경내동 426-1       | 제21대 영조의 학내말 화강동주의 사대                                |
| 16 | 중요유형문화재 15호 | 북성사자놀이      | 오남면 양지리 318     | 세시풍속의 민속놀이(조선)                                       |
| 17 | 유형문화재 22호   | 수홍사 오문석탑    | 조안면 송촌리 1060    | 조선 초 대표적인 석탑(1480년)                                  |
| 18 | 유형문화재 53호   | 불암사 경관      | 별내면 화정리 797     | 만해문 목판(조선)   |
| 19 | 유형문화재 127호  | 한학 신도비      | 조안면 능내리 산 69-5  |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신의 신도비                                    |
| 20 | 유형문화재 157호  | 수홍사 부도      | 조안면 송촌리 1060    | 세종 때 조성된 정유공주의 부도                                    |
| 21 | 유형문화재 165호  | 봉선사 계불      | 진접읍 부령리 255     | 1862년(철종 13) 조성된 철화                                  |
| 22 | 기념물 7호      | 장약동 묘       | 조안면 능내리 산 75-1  | 실학의 대가인 장약동선생 묘                                      |
| 23 | 기념물 48호     | 흥선대원군 묘     | 화도읍 향현리 산 22-2  | 고종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이하림)의 묘                                |
| 24 | 기념물 55호     | 덕흥대원군 묘     | 별내면 덕송리 산 5-13  | 선조의 부친인 덕흥대원군(이로)의 묘                                 |
| 25 | 기념물 78호     | 유암묘         | 조안면 사무리 산 5-13  |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신의 묘                                      |
| 26 | 기념물 94호     | 수석리토성       | 수석동 산 2-2       | 백제 때 축성한 토성  |
| 27 | 기념물 99호     | 김상봉 묘       | 외부동 덕소리 산 8     |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신인 김상봉의 묘                                 |
| 28 | 기념물 100호    | 김상현 묘       | 외부동 덕소리 산 5     |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신인 김상현의 묘                                 |
| 29 | 기념물 114호    | 이영현 묘       | 외부동 덕소리 산 45-1  |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인 이영현의 묘                                |
| 30 | 문화재자료 54호   | 이순지 묘       | 화도읍 차산리 산 5     | 조선조 천문학의 대가인 이순지의 묘                                  |
| 31 | 문화재자료 56호   | 홍국사 대웅보살    | 별내면 덕송리 331     | 조선 후기 장식조각수법과 특징을 보여줌                                |
| 32 | 문화재자료 80호   | 가운동 지석묘     | 가운동 산 17-2      |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양식                                      |
| 33 | 도민속자료 8호    | 덕흥마을 산신각    | 별내면 덕송리 산 5-126 | 조선시대 대표적인 마을신앙 지표                                    |
| 34 | 무형문화재 1호    | 계명주(채국경)    | 수동면 지도리 279     | 차츰별로 담긴 술  |
| 35 | 유형문화재 186호  | 신재현성경 영정    | 진접읍 금곡리         | 형주 현서 문간공과 총회  |
| 36 | 형도유적 1호     | 묘책사 팔각칠층석탑  | 외부동 열문리         |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팔각칠층석탑                                   |
| 37 | 형도유적 2호     | 김곡 묘 및 신도비  | 삼매동 산 42-2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김곡의 묘                                |
| 38 | 형도유적 3호     | 이보 신도비      | 화도읍 녹촌리 192     | 민초의 마우린 농현대군 이보의 신도비                                 |
| 39 | 형도유적 4호     | 의안대군 사당     | 경내동 151         | 대조 이성계의 미복 형제인 의안대군 이하의 사당                           |
| 40 | 형도유적 5호     | 남재 묘 및 신도비  | 별내면 화정리 282     | 조선 개국공신 남재의 묘와 신도비                                   |
| 41 | 형도유적 6호     | 박원종 묘 및 신도비 | 외부동 도곡리 산 31    | 조선 전기의 무신인 박원종의 묘와 신도비                               |
| 42 | 형도유적 7호     | 남산 묘 및 신도비  | 별내면 청학리 산 78    | 조선 중기의 문신인 남산의 묘와 신도비                                |
| 43 | 형도유적 8호     | 조갈봉 신도비     | 수석동 산 2-1       |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  |
| 44 | 형도유적 9호     | 한해 묘역       | 진접읍 금곡리 산 125   |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  |
| 45 | 형도유적 10호    | 한계순 묘역과 묘길  | 진접읍 금곡리 산 125   |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  |

여 백

제5장

우리 고장의 자랑



여 백

## 제1절 훌륭한 인물

### 1. 정약용(丁若鏞)

#### 1) 정약용의 생애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문신, 실학자로, 이름은 미용(美鏞)이며, 호는 사암(俟菴)·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 그리고 다산(茶山)이다. 당호는 여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인 정약용



정약용 생가인 한두담 전경

유(劉維)이고,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광주군 마현리(지금의 조안면 능내리)에서 4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정약용의 학풍은 성호 이익에서 이어지는 실학 계열에 속한다. 10세부터 학문을 시작하였으며, 16세 때부터 이익의 학문에 접하였고, 한편으로는 형 정약종과 이벽을 통하여 서학 즉 천주교와도 접하였다.

1783년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1789년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였고 특히 정조(正祖)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었다. 이어서 초계문신(抄啓文臣 : 37세 이하의 당하관에서 선발하여 규장각에 위탁 교육시키는 제도)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예문관검열·사헌부지평·사간원정원·홍문관수찬 등을 거쳐 경기도 알행어사가 되었다.

정약용은 문장과 경학에 뛰어났으며 수원성을 쌓을 때는 지금의 기중기인 거중기와 녹로(도르레)와 같은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당쟁의 와중에서 노론의 탄핵을 받아 한때 금정찰방·곡산부사 등 외직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1791년 윤지충·권상연의 천주교 사건과, 1795년 주문모신부의 잡입사건이 터지자, 병조참의에서 금정찰방으로 강등·좌천되었다. 그 뒤에도 황해도 곡산부사로 나가 봉직하였다. 이 시절에 지방통치에 공이 적지 않았으며, 이 때의 경험은 후일 『목민심서』의 저술의 기초가 되었다.

이어 규장각의 편찬사업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1799년에 서학 문제로 탄핵을 받아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명소(自明疏)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1800년 6월 정조가 승하하면서 남인에 대한 노론 벽파의 탄압이 시작되어, 1801년(순조 1)에 신유사옥(辛酉邪獄)이 일어나 장기로 유배된 후, 다시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 때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1803년에 왕대비로부터 석방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반대파의 책동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유배지 생활이 저술활동의 시간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조선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혁론을 제시하는 왕성한 저술작업에 몰두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해남윤씨의 산장인 다산초당이다.

1818년에 귀양이 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동안의 자신의 저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회갑 때에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저술하여 자신의 생애를 자서전적 기록으로 정리하였다. 1836년(헌종 2)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묘는 생가가 있는 마현에 마련하였다.

그의 저술은 조선 사회의 내척 모순을 비판한 정치·경제 개혁론 등을 비롯하여 조선의 역사·지리·언어·제도·종속·문화에 관한 연구와, 천문·역학·수학·물리·의학·박물학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고대 유교의 고증에 의한 주자학(성리학) 비판 등 당시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다. 그의 저술은 총 542권이며, 『경세유표(經世遺表)』 48권은 국가경영을 위한 제도개혁론을 담은 저술이고, 『목민심서(牧民心書)』 48권은 현실개혁책 개혁안으로서 목민관의 도리를 밝힌 저술이다. 『흙흙신서(欵欵新書)』 30권은 형법에 관한 저술이다. 이를 1표 2서라 하는데 곧 치인의 도리를 밝힌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다룬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대동수경(大東水經)』, 조선의 언어를 다룬 『아언각비(雅言攷非)』, 『아방비어고(我邦備禦考)』, 『전례고(典禮考)』, 『소학주관(小學珠串)』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이들 방대한 저술을 통째로 볼 때,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 2) 정약용의 사상

다산은 1789년 대과에 합격하면서 벼슬길에 올랐지만, 일찍이 성호 이익의 사상과 서학을 학습하였다. 다산은 관직에 있으면서, 수월성 설계와 같은 기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서학과 관련하여 여러 번 고초를 당하였다. 특히 '신유사

옥과 '황사영 백서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경상도 장기를 지쳐 전라도 강진(康津)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유배기간 동안 다산은 학문연구에 매진하여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원시 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성리학의 사상 체계를 극복해 보고자 했다.

이렇게 다산이 성리학의 사상 체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의 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조선왕조의 사회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했다. 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 「흠휼신서」, 「북민심서」와 같은 책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성약룡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서들을 비롯한 그의 서서는 경침에 해당하는 것이 232권이고, 분침에 해당하는 것이 280여 권인데, 그 대부분이 유배지에 이루어졌다.

다산의 정치사상은 그의 수 많은 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특히 「일표이서」에서는 군주권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내용으로 하는 왕권강화론을 제시했다. 그는 문벌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전횡하던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회복을 위해서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즉 국왕이나 관료가 공직인 관료기구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다산의 정치사상은 왕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즉 칩관중에 대하여 위로는 국왕을 첫선으로 하는 통치집시의 강화에 협조해야 되고, 아래로는 애민(愛民), 교민(教民), 양민(養民), 흠휼(恤民)하는 북민지도(牧民之道)를 확립하여 선진(光泰)시대 이래 유학의 기본적 가르침이었던 민본(民本)의식을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리고 다산은 과거제 개혁론도 주장하였는데, 성호 이이의 견해에 찬동하여 식년시 이외에 부정기시를 모두 혁파하고, 급제자의 숫자도 줄임으로써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거제 개혁론은 과거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한편 다산의 토지제도 개혁론의 주요 골자는 「전론(田論)」에 나타난 여전제(田田制)와 「경세유표」에 보이는 참전제의 두 단계이다. 그러나 이 두 단계의 토지제도 개혁안은 모두 토지의 시적 소유를 부정했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만 토지를 주고자 했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목표로 삼았으며, 전제개혁(田制改革)을 통해서 병농일치를 관철하고 지방제도과 병제의 일체화를 시도한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다산의 상업·공업 정책론은, 상공인을 보호하고, 당시 사회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었던 상공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공업 개혁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당시 실학사와 마찬가지로 상업의 말업관(末業觀)을 거부하고, 금속화폐의 제조와 유통에 대해서도 중점

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수공업 특히 국가재정의 확보차원에서 광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산의 사상은 당시 사회가 직면해 있던 봉건적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학계에서는 그를 실학사상의 집대성자로 평가하며, 조선 후기 사회가 배출한 대표적 개혁사상가로 인정하고 있다.

### 3) 정약용 묘역

정약용 묘는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 75-1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역은 조안면 능내리에 선생을 모신 유택인 여유당과 함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숙부인 풍천홍씨와의 원형 합장묘로 남향(南向)하여 용미를 갖추고 있다. 묘 앞의 비는 비좌와 비신 및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묘역에는 새로 담장을 만들어 세우고, 봉분 앞에 혼유석·상석·6각 향로석이 있으며, 봉분 좌측에 1974년 건립된 비가 있다. 제체석과 상석 우측에 제단이 있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비와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 옆에 비석과 상석, 그리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 앞에는 1959년에 세운 묘비 2기와 자연석에 "여유당(與猶堂)"이라 쓴 비 1기가 있다.

#### ○ 여유당(與猶堂)

여유당은 본래 한강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26년 을축년 대홍수로 소실된 것을 현재 위치에 다시 복원한 것이다. 현재는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고 소박한 모습은 보이지만 실제 다산 생가와와는 거리가 있는 느낌이다. 사랑채 앞에 "여유당(與猶堂)"이라는 현판을 붙여 놓고 있으며,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집으로 보인다.

## 2. 송익필(宋翼弼)

송익필(1534~1599)은 조선 중기의 학자, 문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고, 이름은 운

장(雲長)이며, 호는 구봉(龜峯)이다. 할머니인 감청(甘丁)이 원래 천첩 소생이었으므로 신분이 비천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역모를 고발하여 공신에 책봉되고 당상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부유하였다.

수동면 중천리에서 태어났고,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아우 한필(翰弼)과 함께 일찍부터 이름을 떨쳤다. 당시의 대학자인 이이, 성혼 등과 함께 심리학의 깊은 이치를 토론하였고 특히 예학에 밝았다. 고양 귀봉산 가숙에 칩거하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였는데 그 문하에서 조선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과 김집, 장엽, 서성, 장흥명, 강찬, 김반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1586년과 89년의 정치불안으로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였다가 결국 목인의 명수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미움을 받아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되었다. 1593년 방면되었으나 일정한 지지가 없이 친구·문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불우하게 말년을 보냈다. 시와 문장이 뛰어났는데 시는 당나라의 이백\*을, 문장은 사마천\*\*을 모범으로 하였으며 이산해, 최경창, 백광훈, 최립, 이순신, 율락연, 하용립 등과 함께 선조대의 팔문가로 불리었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구봉집』이 전하며 지평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3. 이덕형(李德馨)

이덕형(李德馨 : 1561~1613)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봉은 명보(明甫)이고, 호는 한음(韓陰)·포옹산인(抱翁山人)이다.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지중추부사를 지낸 민성(敏聖)의 아들이자 영의정 이산해의 사위이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침착하였으며 조선 전기의 4대 시대가 중 한 사람이다.

\* 이백(李白 : 701~762)은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이다. 자는 태백(太白)이다. 무보와 함께 손꼽히는 중국 최대의 시인으로, 우모를 시성(詩聖)이라 부르는 데 대해 그는 시선(詩仙)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적으로는 도교에 바탕을 두었으며, 술과 호탕하고 굽이 커서 세속의 생활계 매이지 않았고, 자유 분방한 성향으로 시를 읊었다. 산, 조, 초우, 묘 등 주로 자연을 노래한 시가 많으며 후세에 편집된 『이백의 문집』이 전한다.

\*\* 사마천(司馬遷 : 기원전 145?~기원전 85?)은 중국 한나라(漢) 시대의 역사학자이다. 기원전 104년에 제후백(諸侯傳)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역사학 『사기(史記)』, 130권을 지었다.



이덕령 별서지 표석

1580년(선조 13) 별시문과에 합격하고, 1583년 박사가 된 후 대사간·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31세에 예조참판에 대제학을 겸임하였고 임진왜란 때 대동강까지 진격한 왜장 고니시(小西行長)가 화친을 요구해오자 대사헌 신분으로 이들과 회담을 하고 그들의 침범을 공박하기도 하였다. 이후 명나라에 들어가 구원군을 요청하고 귀국하여, 한성판윤이 되고 명나라 장수 이여송과 줄곧 같이 행동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593년 병조판서가 되고 다음 해엔 이조판서에 훈련도감의 당상(堂上)을 겸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부흥군(復興軍)을 창설하여 명나라의 제독 유정과 함께 순천에서 이순신 장군과 합동작전으로 왜군을 대파하였다.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하자 신왕(新王)의 책봉문제 때문에 명나라에 다녀온 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613년(광해군 5) 폐모론(廢母論)에 이항복과 함께 이를 적극 반대하여, 삭탈관직되었으며, 이후 오늘날의 양평에 낙향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백사 이항복과 절친하여 '오성과 한음'이라 불리었으며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한음문고』가 있으며 조안면 송천리에 농사를 지으면서 여가를 보냈던 별서(別墅)터가 있다. 병사하자 광해군이 몹시 애도하였고 복관(復官)을 명하였으며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효준의 영정

#### 4. 정효준(鄭孝俊)

정효준(1577~16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름은 효우(孝友)이고, 호는 낙만(樂晩)이다. 본관은 해주이고 돈녕부판관(敦寧府判官) 홍(欽)의 아들이다.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특히 변려문에 능했으나 과거에는 여러 차례 낙방하다가 만년에 이르러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광해군 때 대북 일파가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주장하자 어몽림·정택과 등과 이를 극력 반대하고 대북의 영수 이이첨 등의 처형을 주장하다가 북관(北關)에 피신하여 화를 면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인종의 묘소인 효릉 참봉을 거쳐 1634년(인조 12) 왕실의 제사용 가축을 기르는 관청인 전생서(典牲署)의 봉사가 되고 뒤에 자여도참방(自如道察防)을 거쳐 1652년(효종 3) 돈녕부 도정에 올랐다. 1656년 해풍군(海豊君)에 봉해졌으며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그 후 아들 5형제가 십 년 사이에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므로 좌의정 김수항의 주청으로 1663년(현종 4) 판돈녕부사에 승진되었다. 시호는 제순(齊順)이며 진건면 사능리 사릉 경내에 묘가 있다.

## ○ 영정

정효준의 영정은 노년의 모습인 것으로 보아, 1650~166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정은 약간 왼쪽으로 향한 얼굴에 호피가 깔린 의좌에 앉아 족좌에 발을 얹어 놓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체구가 왜소해 보이지만 근엄한 모습이 얼굴에 집약되어 있다. 엄중한 표정과 사실적인 주름의 표현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었다. 그런데 정효준의 위용을 옷주름을 통하여 표출하지 못하고 의좌, 족좌와 같은 소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향이 있다. 의좌는 호피와 더불어 양쪽에 날개처럼 펼쳐진 장식으로 위엄을 강조하였다. 옷의 표현을 보면, 공수한 소매 주변에는 부드럽고 다양한 곡선으로 복잡한 주름을 세세하게 묘사한 반면, 끝단은 일률적인 수평선으로 끊어서 정연하게 마감하였다. 위아래 정연하게 주름진 옷이 공수한 소매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5. 하상태(河相泰)

하상태(1868~1909)는 구한말의 의병이며, 진건면 팔현리(현 오남면 팔현리) 출신으로 상태(相兌·尙泰)이라고도 한다.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경서를 읽었으며, 무예도 수양하였다. 1898년 가평군 덕현리로 옮겼고, 1901년 금광을 경영하였다. 이후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1907년 7월 상경하였다가 일제에 의하여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는 일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에 분노하여 길에서 만난 일본인 두명을 짓밟아서 개천에 처넣고는 가평으로 돌아온 후, 황해도 평신에 가서 200여 의병을 이끌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본진을 장단군에 설치하고, 양주·개성·장단·연천·마천·적성·파주·고양 각 군의 군수에게 군의 환미를 군량미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강화의 연기우 의병부대와 연대하여 고랑포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일본군 전영을 교란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1908년 5월 연기우 의병부대와 합진하여 의병 300명을 이끌고 동두천 방면으로 진군하여 일본군의 병참소를 습격하였다. 이어 휘하 의병을 연기우 의병부대에 소속시킨 후, 강화도로 가서 300여 의병을 모아 새로운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다시 장단으로 진격하여 그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뒤 1909년 4월 일



구한말의 위명인 하상태 전기

본군의 습격을 받아 교전 중 적에게 포위되자, 포로가 되기 직전 칼로 목을 찢어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에게 연행되어 가던 중 자결 순국하였다. 순국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일제가 1912년에 발간한 『조선폭도토벌지』에는 “수괴 하상태가 생포 호송 중 혀를 깨물어 자살하다”고 나타나 있다.

정부에서는 197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한 데 이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승급 서훈하여 그 순국의 뜻을 기렸다.

## 6. 한상경(韓尙敬)

한상경(1360~1423)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며,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다. 이름은 숙경(叔敬)·경중(敬仲)이고, 호는 신재(信齋)이다. 고려 호부상서 공의(公義)의 손자로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수(綸)의 아들이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한상경 영정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하여, 예의좌랑, 예문관응교, 공부총랑, 중부시령을 거쳐, 1392년(공양왕 4) 밀직사우부대언에 승진하였다. 이 해에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의에 가담하고, 옥새를 받들어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 공으로 개국공신 3등에 녹훈되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다. 조선왕조 개국 후 중추원 도승지가 되고, 첨서중추원사(僉書中樞院事)·도평의사사에 승진되었다.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경기좌도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태종 때 참찬의정부사·이조판서를 거쳐,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으로 진봉되었고, 우의정에 승진하여 영의정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묘지는 진접읍 금곡리에 신도비와 함께 있다. 근래에 세운 사당에는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 ○ 영정

한상경의 영정은 현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92cm×세로 162.5cm이다. 이 영정은 비단에 그렸는데, 화면의 원편 상단에 한상경의 영정임을 나타내는 표제가 써 있으며, 화면 상단 이어 붙인 비단에 이경석(李景奭 : 1595~1671)의 찬문과 “백현(白軒)”이라는 주문방인이 찍혀 있다. 원래 한상경의 영정

은 공복을 입은 초의상본(朝衣像本)과 상채만 그려진 연복본(燕服本) 두가지가 있다고 하나, 이 영정은 공복을 입은 것이다.

이 상은 사모에 아래로 처친 삼금대(緞金帶)를 한 담홍포(紺紅袍)를 입고 손을 모은 개긴 의좌에 앉아 있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 초기에 유행한 것이다. 얼굴은 약간 틀고 상체는 대체로 정면을 향하며, 양 다리는 왼쪽으로 치우친 자세이다. 특히 왼쪽을 향해 다기 방향을 달리하여 놓은 발, 그 위를 살짝 가리우며 약간의 켈리움을 나타낸 옷의 끝자락, 왼쪽 트임사이로 보이는 안쪽의 속옷의 강한 원색이 발산하는 생동감과, 옷자락에 서려 있는 움직임, 이러한 표현들은 위용있는 공복본의 초상화에 자연스러운 웅과 생동감을 살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는 선묘로 명료하게 정의하여 그런 옷의 표현이라 얇은 느낌이 들면서도, 공손한 선을 중심으로 사망으로 뻗듯 그은 옷주름으로 양감을 나타내었다.

이 작품은 조선 초 초상화를 17세기에 중모(重模)한 초상화이지만, 이 시기를 대표할 만한 작품성을 지니고 있는 걸작이다.

## 7. 김효원(金孝元)

김효원(1532~159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천산(鰲山)이며, 이름은 언백(仁伯), 호(號)는 성암(省庵)이다.

조식과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진사시를 거쳐 1565년(명종 20) 알성문과(成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다.

김효원은 명종 16년 문정왕후가 죽은 뒤 직신의 불락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572년(선조 5년)에 오견이 그를 관리의 임명을 좌우하는 이조전랑으로 추천하였는데 반대에 부딪혔으나 1574년(선조 7년)에 조정기의 추천으로 결국 이조전랑이 되었다.

이후 이조전랑의 추천분제로 김효원과 심의겸이 반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 사림파와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 사림파가 각기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당시 김효원의 집이 서울 동쪽 낙산 밑 동대문 근방(지금의 충신동)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인 김효원 신도비

에, 심의겸의 집이 서울 청룡(지금의 정동)에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동인(東人), 심의겸 일파를 서인(西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조 전랑의 추천을 놓고 이들의 대립이 더욱 심하여지자, 결국 심의겸은 개성부유수로 김효원은 함경도 경흥·부령, 강원도 삼척의 부사 등 외직으로 좌천되었다. 김효원은 이후 중앙의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고 계속 지방에 머물렀다. 봉당 간의 쟁의가 심화되면서 안악군수(安岳郡守)로 자청해 나갔고, 당쟁에 책임을 느끼고 시사(時事)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 뒤에 영흥부사(永興府使)로 승진하여 재직 중에 죽었다.

풍채가 의젓하여 보고 있노라면 공경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고 하며 일찍이 사림 간의 다툼에 대하여 탄식하기를, “나라를 위한다고 한 말이 어찌 이러한 분란을 초래하여 국맥(國脈)을 손상하게 할 줄 알았으리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저서로는 『성암집(省庵集)』이 있다. 묘소는 화접리에 있다.

## 8. 김식(金湜)

김식(1482~1520)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로 이름은 노천(老泉)이고, 호는 사서(沙西)·동천(東泉) 또는 청우당(淸友堂)이며 본관은 청풍이다. 청풍김씨는 고려 때부터 인물이 많아 『동국여지승람』 청풍군 인물조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식의 집안에서는 이와는 달리 관직에 진출한 뛰어난 선조가 보이지 않는다.

김식의 아버지인 숙부은 아버지 김질이 젊은 나이에 안동에서 사망하자, 김식과 함께 모친을 따라 외가에서 유숙하였다. 이 외가가 바로 양주에 있었는데 현재의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가 그곳이다. 외가에서 성장하여 12세에 효녕대군의 손 염신수(永信守)의 딸 이씨와 결혼하였고, 이후 학문에 열중하여 20세인 1501년(연산군 7)에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때 조광조를 만났다.

조광조는 양주 출신이면서 김식보다 한 살 아래였고, 김굉필의 문인이었으며 김굉필은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성균관에서 이들의 언행은 마유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경신(敬身)'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 김식은 1517년 3월에 비로소 광흥창 주부로 임용되었다. 당시 사신(史臣)은 김식을 평하여 "학문을 좋아하며 성심으로 효도하고 몸가짐이 깨끗하여 사유가 다 충히 여겼다. 그를 추앙하는자들 중에 그가 때문에 나오는 것을 보려는 자들이 심히 없었다"하였다.

김식은 광흥장에서 근무하면서 숙패를 제거하다가 동료들의 미움을 사 형조좌랑으로 보임되었다가 다시 호조좌랑으로 재직되었다. 1519년 4월에는 동지성균관사 김칭(홍문관 부제학을 겸직)과 우의정 안당이 그를 성균관 사유(事由)로 천거하였다. 중종도 그가 별시에 합격하면 즉시 사유를 맡길 것이라 하였는 바, 과연 전기과 용서인 120여 명 중 급제자 28명 가운데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 유일하게 7개 항목 모두를 완벽하게 평가 받았다. 당시 이를 두고 증상은 "김식이 사유에 가장 적합한 데도 문과 출신이 아니어서 임용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가 장원으로 합격하고 또 그 외에도 뛰어난 인재를 얻었으니 나는 심히 기쁘다"고 하여 특히 김식이 장원으로 급제한 일을 치하하였다. 그리고 즉시 김식을 성균관사생으로 품계를 올려 임용하고, 홍문관 직제학으로 임명해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외판 심에 유배되는 처벌이 내려졌으나, 영의정 정광필 등의 변호로 정상도 선산에 유배되었다. 뒤따라 일어난 신사무욕에 연좌되어 다시 절도로 이배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식 신도비

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거창에 숨었다가 '군신천재의(君臣千載義)'라는 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김식은 자결하였지만 그의 자손은 양주를 근거지로 하여 번창하였다. 그는 5남 2녀를 두었는데, 4남 덕무의 장남 김권은 광해군 때 호조참판을 지내고 영의정으로 추존되었다. 그의 손자 김육은 효종 때에 영의정에 이르렀고 대동법을 시행한 명재상이었다. 육의 장남 김좌명은 현종 때에 예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글씨를 잘 썼는데, 현재 남양주시 양정동 삼패리에 있는 김식의 신도비는 그가 쓴 명필이다. 차남 김우명은 현종 때에 5위도총관 겸 호위대장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딸이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이다. 우명의 아들 김석주는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명상이다.

그의 문인으로는 신명인·오희안·복세칭·김윤중·조경·홍순복·윤광일·이세명·신영·김덕수 등이 있다. 시호는 문의(文毅)이다. 양근의 미원서원, 청풍의 황강서원 그리고 거창의 완계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묘지는 삼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도비와 공로가 있는 신하가 죽으면 종묘에 세워주던 비인 묘정비(廟庭碑)가 남아 있다.

## 9. 김옥(金堉)

김옥(1580~1658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실학자로서 제도개혁을 추진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자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 초호(初號)는 회정당(晦靜堂), 본관은 청풍(淸風), 참봉 흥우(興宇)의 아들이자 김식의 손자이다. 사마시를 거쳐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1649년 효종 즉위 후 대사헌·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실록청 총재관이 되어 『인조실록』을 편찬했고 1655년(효종 6) 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지니 충청도관찰사 재직시 대동법 실시를 주장하여 1651년(효종 2)에 충청도, 1657년에는 전라도 연안지방에 이를 실시케 하였다. 또한 '지현력'의 시행, 관계에 '수차' 활용, '상평통보'의 주조와 유통, 서적의 간행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김옥의 묘는 현재 삼매동 소쿠리마을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으며 경기도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형의 분묘는 정경부인 파평윤씨와의 합장묘이며, 1988년 주위에 곡장(曲墻)을 둘렀다. 묘비는 안상문을 조각한 백색 화강암 비좌와 백색 대리석 비신으로 구성되었다. 비문의 연기로 보아 1658년(효종 10)에 건립된 것이다. 묘



대동법 시행에 공헌한 김옥 묘

비 앞에는 화강암 재질의 혼유석과 고석에 문고리무늬를 양각한 상석 및 육각형의 화려한 문양을 새긴 향로석·장대석·망주석·문인석이 있는데 망주석은 꽃을 장식하여 화려하며, 문인석도 수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신도비는 아들 김좌명의 신도비와 8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다. 총높이 385cm의 거대한 비로 비좌와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 10. 최청(崔淸)

최청(1344~1414)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이름은 직재(直哉)이고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말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자운(子雲)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특출하였고, 익재 이제현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제현이 “후일 반드시 대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1360년(공민왕 9)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학사가 되었다. 이듬해 10월 홍건적이 개성에 침입하여 위태롭게 되자,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하였는데 그도 왕을 따랐다. 난이 평정되고 다음 해 개성으로 환도하자 왕을 보필한 공으로 중서문하성정당문학시랑(中書門下省政堂文學侍郞)에 올랐다. 1365년 중서시랑(中書侍郞)에 임명되었는데, 당시의 권력자 신돈(辛旽)\* 때문에 뜻을 펴지는 못하였다. 이때 신돈의 폐해를 지적한 상소를 올려 미움을 받았고, 공민왕의 냉대로 신주 감목관으로 좌천되었으나 임지에서 선정을 베풀었다.

신돈이 귀양간 후인 1375년 개성으로 들어왔다. 1384년 사복시정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홍무제로부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1384년 검교정승(檢校政丞)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의 혼란에 실망하여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이후 여러 현인(賢人)들과 함께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하여 소위 ‘두문불출’하는 충절을 보였

\* 신돈(辛旽 : ?~1371)은 고려 말의 승려로 호는 청헌거사(淸獻居士)이고 법명은 권조(權叟)이다. 어려서부터 승려가 되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김원양의 추천으로 공민왕을 만나고부터 나라일을 맡았다. 1366년에 진관후라는 작위를 받았다. 1366년에 문반안 토지매도를 개혁하고, 농민의 권리 보호에 힘써서 국가 재정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왕의 무리한 선관급 이용하여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으며, 1367년에는 귀족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읍을 충주로 옮길 것을 건의 하였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의 반대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려다 들켜 수원으로 귀양가 살해되었다.



초의 강가의 혼신암 석등 신도비

다. 이후 양주의 풍암(豊巖)에서 여생을 보냈다.

1394년(태조 3) 태조 이성계가 좌찬성이 관직을 주면서 불렀으나 거절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충절을 지켰다. 태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은거하고 있는 산을 어래산(御來山)으로 봉하고 청자에 관가정(觀稼亭)이란 편액을 내렸다. 그는 이를 보고 탄식하면서 "산의 이름에 임금이 왔다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이곳에 거처하겠는가!"하고 조견(趙堧)과 함께 송산(松山)으로 옮겨가 살았다. 개경 측 송악을 밋지 못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송음거사(松陰居士)라고 칭하였다. 1414년(태종 14) 9월 71세로 죽었다. 묘는 진건면 용정리에 있다. 여기에 있는 신도비는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권익상(權益相)이 지었다.

## 11. 이단상(李端相)

이단상(1628~1669)은 조선 후기의 학자, 문신으로 이름은 유능(幼能)이고, 호는 정



이단상이 은거하였던 영지동에 세워진 영자동비

관재(靜觀齋)·서호(西湖)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좌의정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손자이며, 대제학 명한(明漢)의 아들이다.

진사시를 거쳐 1649년(인조 2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655년(효종 6) 전라도에 어사로 나가 민정을 두루 살피 기근이 심한 고을을 구제하게 하였다. 그 뒤 효종이 죽자 학문에만 전념하다 잠시 청풍부사를 지냈고 후에 인천부사가 되었다. 1664년(현종 5) 사헌부 집의가 되어 '입지(立志)와 권학(勸學)에 관한 다섯 가지 조목'을 상소하고 스스로 관직을 떠났다. 홍명하·송준길·조복양 등의 명사들이 학문과 덕행을 인정, 경연관에 추천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양주 동강으로 은퇴하였다. 그 뒤 승지와 병조참지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669년 부제학으로 서연관을 겸하였으나 곧 사양하고 물러나 그 해에 42세로 작고하였다.

1680년(숙종 6) 민정중의 건의로 이조참판 겸 경연·홍문관과 예문관제학에 추증되었고, 후에 다시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외직에 있을 때 병을 얻어 양주 영지동에 은거하길 좋아했고 외직 이후의 관직 사양도 병과 관련된 것으로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42세로 죽었으나, 특히 '청요직과 학술 언론직'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을 정도로 학문적 수준을 인정받았다. 평생 청빈하게 학문

에 전념하고 직언을 하여 '청백리'로 불렸다. 석실서원, 인천의 학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대학집람(大學集覽)」, 「사례비요(四禮備要)」, 「성현통기(聖賢通紀)」, 「정관재집」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석실서원은 수석동에 있었다.

죽은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양주의 석실서원에 제향되었다. 이단삼이 영지동에 이거한 후 연못을 만들고 연못 위에 서재를 세워 '정관재(靜觀齋)'라 편액을 걸고 '태극정'이라 새겼다고 한다. 영지동 구거유지에는 2기의 비석이 암석 위에 있다고 한다. 현재 연못은 밤섬유원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곳에 등심석(臥心石), 태극정(太極亭)이라는 송시열(宋時烈)의 필적이 양각되었는데 한국전쟁 시에 파괴되었다고 한다. 원래의 태극정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원 위치에서 4m 아래에 새로 중건이 되어 있는데 높이 8m, 넓이 6.677m이다.

## 12. 변안렬(邊安烈)

변안렬(1334-1390)은 고려 말의 무신으로 이름은 증가(思可)이고 호는 대은(大隱)이다. 본관은 원주이며, 아버지는 증판삼사사(曾判三司事) 양(諱)이다.

원래 변씨는 황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변안렬의 할아버지 순(諱)이 1268년 원(元)에 들어가 심양후(瀋陽侯)에 봉해졌고, 아버지 양이 이것을 이어 받았다. 변안렬은 1351년 원의 무과에 장원급제를 하고, 형부상서에 올랐다. 1352년 공민왕과 왕비가 될 노국공주의 배봉수장으로 서 환국하였다. 공민왕은 추밀원사 원의의 딸과 결혼케 하고 원주를 관향으로 내려주었다. 이로써 안렬은 원주변씨의 시조가 되었다.

1361년(공민왕 10) 흥건직을 격파하여, 이등공신으로 판소부 감사로 승진하고, 이듬해에 개성을 수복하고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후 판밀직사사로 최영과 더불어 제주를 정벌한 뒤 지문하부사·문하평리를 역임하였다. 우왕 때 추충양결선위이찬공신(推忠亮節宣威贊功臣)의 호를 받은 뒤 양광전라도도지휘사(楊廣全羅道都指揮使) 겸 조전원사(助戰元帥)로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고 돌아와 문하한성사로 승진하였다. 이어 이성계의 부장으로 운봉과 황산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개신하였다. 또 단양과 안동의 왜구를 몰아낸 뒤 원천부원군에 봉해지고 영삼사사가 되었다. 1389년(창왕 1) 대호군 김서 등이 이



고려 말의 무신으로 원주변씨의 시조인 변안렬 묘

성계의 제거와 우왕의 복위를 모의한 일에 연루되어 한양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사형되었다.

김천택의 『청구영언』 언락(言樂)에 전해오는 '불굴가(不屈歌)'가 그의 시가로 밝혀져 그의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다. '불굴가'의 내용은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 대한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에 뒤이어 읊은 것으로 무신의 끝은 절개가 절절히 맺혀 있는 충절가라 하겠다. 진건면 용정리에 묘소가 있다.

### 불굴가

가슴팍 구멍 뚫어 동아줄로 마주 꿰어  
 앞뒤로 끌고 당겨 감켜지고 쏠릴망정  
 임 향한 그 굳은 뜻을 내 뉘라고 굽히랴!

### 13. 김창협(金昌協)

김창협(1651~1708)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이름은 중희(仲熙)이고,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좌의정 상헌의 증손자이며,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이고, 이단상(李爾相)의 사위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천시장원으로 급제하여 병조좌랑·사헌부지평·부교리 등을 거쳐 이조좌랑·함경북도병마평사·이조정랑·대사성·병조참지·예조참의·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청송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친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형명에 순거하였다. 1684년 김술옥사 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참의·예조참관·홍문관제학·이조참판·대제학·예조판서·세자우부빈객·지돈녕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평소에 부드럽고 화기가 가득하지만 의리를 저버렸을 때에는 기질(氣節)이 강개하여 담봉(談鋒)을 뱉지 못하였고, 선입견을 내세우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으면 곧 주장한 바를 양보하였다. 후학을 순수히 교화하여 모두 심복하게 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곧아서 구양수\*의 정수를 얻고, 시는 두보\*\*의 영역에 출입하였으나 답습에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하문은 이황과 이이의 설을 절충하였다. 그렇지만 이황·이이 학문의 주요철학인 이기론(理氣論)에 대해서는 대개로 이이보다는 이황의 설에 가까우며 호론(湖論)을 지지하였다.

특히 문장에 능하며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이단상비(文貞公李爾相碑)’, ‘감사이만용비(監司李萬雄碑)’ 등이 있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석실서원, 영암의 녹동서원에 제향되었다.

\* 구양수(歐陽修) 1007~1072 중국 송나라 때의 문체기대까지 문인, 학자이다. 시는 영속, 또는 육필(肉筆)이다. 문장가로서는 당송 문체기의 한 시대로서 고종 부흥에 앞장 섰다. 그리고 역사 부문에서는 『진당서』, 『신요사』를 편찬하는 등 송대 후학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문집 『구양문충공집』 등이 있다.

\*\* 두보(杜甫 712~770)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호는 소림(少陵)이고 자는 자미(子美)이다. 어릴 적부터 궁체(宮體)가 뛰어나 명성을 올렸으나, 23세 때 전사 상황에 맞서고 이항에 나서 민력, 고적 등과 사귀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시풍이 옛 심부 기풍이 현종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만수년의 난 이후에는 생활이 어려워져 처자식을 아끼고 만행(萬行)과 동심포(洞心포)의 배 위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는 실생활 같은 곳의 진실을 읊은 것이 많아 감동과 풍자가 넘친다. 현실을 미는 공상(公相)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이백의 시와는 같은 대조를 이루며, 이 두 사람은 송나라 최대의 시인 용으로 불릴어진다. 대표작으로 『장안(長安)』, 『죽음』이 있다.



김창협이 살았던 삼주삼산각(경재 정선의 그림)

저서로는 『농암집』, 『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箚疑問目)』, 『논어상설(論語詳說)』 등이 있다.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왕명을 받아 교정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고, 석실에 묘소가 있다.

## 14. 김원행(金元行)

김원행(1702~1772)은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로 이름은 백춘(伯春)이고 호는 미호(漢湖)·운루(雲樓)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정승 상헌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의정 창집(昌集)이다. 아버지는 승지 제겸(濟謙)이다.

김원행은 당숙인 승겸(崇謙)에게 입양되어 창협의 손자로 널리 알려졌다. 일찍부터 작은 할아버지 김창협에게 배웠고, 이재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1719년(숙종 45)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 2) 신임사화 때 본가의 할아버지 창집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관형 영정

이 노론 4대신으로 사시되고, 생부 재경을 비롯하여 친형인 성행·탄행 등이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자, 벼슬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725년(영조 1) 본가의 할아버지·아버지·형 등이 신원된 후에도 시골에 묻혀 살며 학문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후 몇몇 칙책을 제수받았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고, 1759년 왕세손을 교육할 책임자로서 영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역시 사퇴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의 김권계층에 속한 노론의 혁혁한 가계의 후예이고, 학문을 있는 존재가 되어 조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의 지위에 올랐다. 당시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산림을 중시하였는데, 그는 우수한 산림의 한사람으로 나라 안에서 명망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사상은 대체로 작은 할아버지 김장협(金長協)의 학설을 답습하여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절충적인 입장에서 있었다. 학설을 종합해 보면, 이황의 주리설과 이이의 주기설을 절충한 김장협 학설의 계승이었다. 나라에서 정통적 학자로 추대받아 산림의 지위에 있었던 그의 문하에는 수많은 순수 성리학자들이 배출되었고, 한편 몇 사람의 실학자도 배출되었다. 그의 학통을 이은 제자로는 박윤원·오윤상·홍대용·황윤석과 그의 아들 김이안 등이 있다.

저서로는 『미호집』 20권 10책이 있다. 이 문집의 간행연대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아마도 저자 생존시에 이미 편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1에는 시 200여 수, 상서 23편, 서 474편 등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사상을 잘 엿볼 수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석실에 묘소가 있다.

## 15. 김용기(金容基)

김용기(1909~1988)는 와부면 능내리(현 조안면 능내리) 봉안마을 출신이며 부친인 만동김씨 김춘교와 어머니 김공운 사이의 5남으로 태어난 농촌계몽운동가이다.

엄격한 가정교육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뿌리가 되었다. 청소년 시절에 몽양 여운형이 경기도 양평에 설립한 광동학교에 입학하여 근대교육을 받았다. 재학시절 내내 우등생으로 일관하여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고 한다. 1929년 김봉희와 결혼하여 1984년 사별할 때까지 55년간 황무지 개척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였다.

1931년부터 고향마을에 훗날 '가나안농장'으로 계승된 '봉안 이상촌'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자금난에 시달려 부채를 얻어 마을 뒷산 황무지를 사서 부인과 함께 땅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몇 년 뒤 1935년경에 자신의 5형제를 비롯하여 친구인 여운형 목사 등과 함께 마을 앞에 '봉안 이상촌'을 건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집집마다 가축과 과수를 심게 하고 과목 사이에 고구마를 심게 하였다. 특히 고구마 농사는 당시 마을 내의 부족한 식량을 해결함과 동시에 농가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당시 시급했던 식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 개선, 식생활 개선, 농업 기술 보급, 상·혼·제례 간소화 등 정신 개조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에도 크게 힘썼다. 또한 봉안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회에서는 농촌 내의 유소년·청년 대상의 교육계몽운동과 야학운영 등을 통해 문맹퇴치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는 이상촌 건설운동에 매진하면서, 몽양 여운형의 영향을 받은 민족의식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1939년 동방요배(東方進拜)를 거부하고 일제 경찰에 구속되었으며, 1940년대 들어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을 수락하지 않거나 일제가 요구한 공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뒤를이 학교가 설립된 곳

을 앞장서서 거부하였다. 이밖에 여운형 주도로 1944년 8월에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의 하부조직인 농민동맹에 양주군 대표로 참석하여 자신의 옛 스승과 함께 항일의지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일제시대 '봉안 이상촌' 건설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 11월 광주군(현 하남시 풍산동)에 '가나안 농장'을 세웠다. 계속해서 1962년 2월 근면·봉사·희생 정신 위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문을 열었다. 이후 타계할 때까지 종교인, 공무원, 군인, 농부는 물론 사회 유력인사를 포함하여 모두 35만 1,000여 명 정도의 다양한 계층을 교육시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8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1973년 '가나안 복민회'를 설립하여 원성군 '제2농군학교'와 '제1농군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민운동의 실천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듬해 '복민주의 연구실'을 설치하여 복민사상의 이론적 실천을 체계화하는 데 힘썼고, 1980년 가나안 농군학교를 수료한 수료생을 중심으로 일가회(一家會)를 조직하여 복민운동의 주체로 키웠다.

타계하기 전까지 「참 살길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심은대로 거두리라」,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나의 한길 60년」,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조상우 신도비

## 16. 조상우(趙相愚)

조상우(1640~1718)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이름은 자직(子直)이고 호는 동강(東岡)이다. 본관은 풍양(豐壤)이며, 예조판서 형(珩)의 아들이다.

영의정 이경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657년(효종 8) 사마시에 합격한 뒤 송준길의 문인이 되었고, 이후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제2차 예송논쟁으로 남인 정권이 들어선 1675년(숙종 1) 송준길이 사후 삭탈관직되자 동문 홍득우 등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남평(南平)에 유배당한 뒤 이듬해 풀려났다. 1680년 경신환국 후에 서용되어 호조좌랑을 거쳐 태인현감을 지냈다. 1682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훈련도감종사관·서학교수·병조정랑을 역임하고, 호남에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 이후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홍주목사 등의 한직을 전전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한 뒤 남구만(南九萬)의 추천으로 사간원 대사간, 승정원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이어 개성유수에 발탁되었으나 가마에 대한 금령을 어겨 파면되었다. 그 후 대사간에 복직하여 양전을 바로하고 군역을 공평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

다. 단종의 복위와 종묘 부묘(宗廟)에 왕이 친림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파직당하였으나 홍문관의 주청으로 용서받기도 하였다. 1700년 이후 형조의 예조의 참관을 거쳐 형조판서에 승진하였으며, 후궁 장희빈을 사시할 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후 대사헌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경도총관이 되어 중국에 사신으로 가던 중 예조판서가 되었고, 좌참찬으로 올랐다. 한성반운을 거쳐 1706년 병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내의원제조를 맡고 있을 때 최석정·서종태의 분란에 휩쓸려 파직당하고, 이어 유득일·정호의 공격을 받아 삭탈관직 당하였다. 후에 풀려나 복직하였고, 1711년에는 우의정에까지 승진하였다. 정승으로 있을 때 담쟁의 폐단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으며, 1717년 판중추부사로 있을 때 세자 대리정정의 왕명이 내리자 이를 반대하는 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는 원래 노론 계통의 인물이었으나, 민년에는 남구만·최석정 등과 함께 온건한 소론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다. 오랜 기간 관직에 있으면서 조세제도·형사제도·예문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건의를 많이 하였다.

글씨를 잘 써서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옥책문을 쓰는 데 선발되었고, 중현서원(忠賢書院)의 사적비 등을 남겼다. 남평의 용감사(龍岡寺)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묘는 현재의 진진면 송능리에 있다.

## 17. 윤허(耘虛)

윤허(1892~1980)는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승려가 되기 전의 이름은 이학수(李學洙)이다. 같이 봉선사에 있었던 춘원 이광수선생의 재종제가 된다.

초년에 고향에서 한학과 현대학문을 배웠고, 1912년 한일합방에 항거하였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21년에는 국내에 잠입하여 합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추적당해 강원도 희양군 봉일사(奉逸寺)로 피신했다. 봉일사의 주지인 절승(絶僧)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독도하였는데, 절승스님은 봉선사의 스님으로서 월초(月初)스님의 제자였다고 한다.

출가한 후 8년간 범어사, 계운사 등에서 교학을 공부하는 한편, 철저히 수행하다가 다시 중국의 살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중국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면서 독



항일독립운동에 매진하였던 문허스님

립군 자녀들의 교육사업에도 전력하였으나, 일본인 경찰의 추적에 동지들이 검거되는 와중에서 겨우 탈출하여 1932년 다시 본국으로 잠입하였다.

귀국 후, 월초화상의 주선으로 봉선사 흥법장원이 개설되자 1936년부터 강석에 앉아 광복되기까지 학인들을 상대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아 봉선사 등 5개 사찰의 재산을 규합하여 1946년 광동학교를 개설하고 교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가 범어사·봉도사·해인사 등지에서 교학을 강의하였고, 그 문하에서 배출된 승려들이 오늘날 조계종 종단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부터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봉선사를 복원하는데 힘써 오늘의 모습을 되찾는 바탕을 이루었고, 1963년에는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을 설립, 고려대장경 번역작업을 추진하는 등 교학을 전공한 학승다운 면모를 보였다. 1980년에 89세 법랍 56에 입적하였다.



만주대비의 아버지인 명철공 한화 묘

## 18. 한화(韓確)

한화(1403~1456)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이름은 자유(子柔)이며,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간이재(簡易齋), 시호는 양절(襄節)이다. 고려 시종 강(康)의 후손으로 순창군수 영정의 아들이다. 누이가 명나라 성조(成祖)의 후궁이 되어 명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지내면서 수 차례 모국과 왕래하면서 국교를 원활히 하였다.

현재 한화의 묘는 능내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정남향하고 있는데,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어 있다. 봉분은 원형으로 용미가 없는 대신 활개를 갖추고 있다. 묘 앞에는 2기의 묘비가 있는데, 우측 것은 옛 것으로 글씨가 마모되어 있다. 비좌와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비좌의 하단은 안상무늬를 장식하였다. 왼쪽의 비는 옛 것을 모방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묘비 앞의 상석과 좌우의 망주석은 새로 만든 것이다. 상석 앞에는 향로석이 있고, 묘 중앙의 장명등은 높이 220cm의 웅장한 모습이다. 좌우의 문인석은 높이 201cm로 대체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조선 초기의 석물에서 보이는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준다.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서향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비각 내에 보존되어 있다. 총높이 370cm로서 장방형의 화강암제 비좌 위에 대리석의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 글씨는 성종의 사돈 임사옹이 썼는데 서체는 부드러운 송설체\*이다. 비문에는 그의 누이가 명(明) 성조(成祖)의 후궁이 된 뒤 수차 왕래하며 국교를 원활히 했던 그의 행력이 기술되었고, 그의 자녀와 인수대비 소생인 성종·월산대군·명숙공주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19. 조말생(趙末生)

조말생(1370~1447)은 조선 초기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근초(謹初)·평중(平仲), 호는 화산(華山)·사곡(社谷)이다. 서운관정(書雲觀正)의(愼)의 아들로 1401년(태종 1)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이조정랑, 형조판서, 영종추원사(領中樞院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재임 중 태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세종의 즉위 시 주문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38년에는 경상·전라·충청 등 도순문사로서 축성을 감독했다. 1439년 궐장을 하사받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1446년(세종 28) 영종추원사가 되었으나 다음해 돌아갔다. 그는 대학자로 특히 글씨에 뛰어났는데,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조말생의 묘는 현재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고 수석동 서원마을의 조말생 사당인 영묘재 바로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에 한강을 굽어보면서 동남향하고 있다. 양주조씨 묘중에 제일 상부에 안장되어 있으며 부인 평산신씨와의 합장묘이다. 본래 묘역은 양주군 금촌면 금곡리 묘적산(현 금곡동)에 위치했으나 1900년 9월 이곳이 고종의 능으로 봉표되자 현재의 묘비 왼쪽 언덕에 이장하였다. 홍유릉터에서 이장시 원형의 호석(74cm×57cm)을 둘러 잘 정비하였으며, 봉분의 호석에는 16면에 새문양과 꽃

\* 송설체(松雪體) : 중국 원나라 때의 조맹부(趙孟頫)의 글씨체. 그의 서자 이름이 송설재(松雪齋)란 데서 이 이름이 생겼다. 그의 글씨는 왕희지의 글씨체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필법이 굳세고 아름다우며 정밀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신비롭고 화려한 편이 많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사제가었던 조말생 묘

문양을 조각하였다. 봉분 좌측에 묘표가 있는데, 총높이 156cm로 비좌와 비신 원두형의 비이다. 봉분 앞에는 장대석·상석·향로석과 향로석 앞 좌우로 양석(羊石)·말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향로석 앞 중앙에는 새로 만든 장명등과 봉분의 좌우로는 상부 연봉 모양의 높이 38cm인 차양석 2기가 있다.

묘비는 조말생 묘역에서 우측의 아래에 동향하여 화강암 귀부와 백색 대리석의 비신 및 화강암으로 팔각지붕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원래 묘비는 숙종 33년(1707) 묘소 앞에 건립되었으며, 1938년 5월 묘 이장시 현재의 위치로 같이 옮겨 왔다. 귀부는 거북이의 머리 모양이 고개를 내밀고 본래의 자리인 홍룡을 바라보고 있어 이장을 예견하고 만든 것 같아 특이하다. 전면 중앙에는 직경 8cm의 큰 탄흔이 1개소 있다.

신도비는 영묘재 뒤 조말생 묘역의 입구에 북동향하여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말생 묘비를 향하고 있다. 비좌와 비신 및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건립연대는 1756년(영조 32)이다. 옥개석은 처마가 '일(一)자'로 뾰족하나 끝을 약간 반전시키고 있으며 하단부에 '정(井)'자문을 하였다.

## 제2절 500년을 지켜 온 광릉숲

### 1. 광릉과 광릉숲

#### 1) 광릉의 조성

오늘날 광릉숲은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림(自然林)으로 그 보호가치는 매우 크다. 광릉의 자연림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세조의 능이 풍양 직동(直洞)으로 정해져 광릉이 조성되면서 가능하였다. 이에 능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환으로 주위에 소나무를 심거나 화소(火巢)를 만들어 능 주변 조경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즉 세조가 진접을 직동에 묻히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울창한 수목이 보존되게 되었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며 모비(母妃)는 심씨(沈氏)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심온(沈溫)의 딸이다. 1417년(태종 17) 9월 병자에 태어났으며, 부인은 정희왕후(貞禧王后) 윤씨(尹氏)이다. 세조 14년 9월 8일 수강궁(壽康宮)의 정침(正寢)에서 숙환 끝에 승하하였다.

이에 따라 왕이 묻힐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먼저 정인지(鄭麟趾) 등으로 하여금 영릉(英陵) 근처를 살펴보게 하였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마땅한 장소가 없자 원릉(園陵)으로 쓸 만한 땅을 의논하였는데 그 의논대상지 중 하나가 광주(廣州)의 이지직(李之直) 분영(墳塋)과 풍양의 정흠지(鄭欽之) 분영이었다. 이 두 곳을 살펴본 결과, 정흠지의 분영이 좋기는 하지만 '오른쪽 팔뚝이 좁고 주혈(主穴)이 기울어져서 흙'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능지로 연희궁(衍禧宮) 뒷산, 여흥(驪興) 권총(權聰) 부모의 묘자리, 박은(朴溫)의 묘자리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정흠지의 묘자리가 가장 좋은 것



600여 년 동안 보존되어온 자연림인 광릉의 숲길

으로 판단되어 예종이 직접 풍양에 가서 자리를 살펴보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다시 길종(吉宗)과 절을 지을 터를 살펴게 하였다. 이후 광릉이 있는 곳이라 하여 양주부(楊州府)를 목(牧)으로 승격시켰다.

## 2) 금산정책과 광릉숲의 보존

### (1) 금산정책

국가에서는 왕릉이나 특별히 지정한 곳에서 나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것은 풍수적인 면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를 공급받기 위하여 서울 주변의 사산(四山)과 각종 능 등에서 나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현종대에는 사산에서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죽은 소나무를 베어가자 한성부로 하여금 순찰케 하여 좋은 재목이면 영선(營繕)에 사용하고, 재목이 못 되는 것이면 기와가마에 쓰게 하였다.

금지된 곳에 나무를 베어가는 자는 처벌하였는데 인조대에 사직단 내의 소나무를 몰래 베어간 사람이 있자 유사에게 명하여 다스리게 한 예가 있으며, 권세가인 명양군(崩

陽君)·인평위(寅平尉)·동평위(東平尉) 집의 노예들이 사산의 소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산지기가 막자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겁박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국가에서는 그 주인을 파직시켰다.

이러한 엄한 법을 적용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만드는 관서의 땔나무를 베는 사산(柴山)의 작별인(斫伐人)은 엄하게 처벌하였는데, 이들 작별인이 원릉(鴈陵)의 수목을 도둑질한 죄로 도예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 장릉(長陵)의 나무를 베는 사람 가운데 소나무나 회나무 열 그루 이상을 베는 자는 효시(梟示)하는 형벌을 감정(鑑定)하여 3차의 엄중한 형벌을 가한 뒤 먼 변방(邊方)에 형배(定配)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산(四山)의 소나무를 베는 백성들을 단속하지 못한 관리들을 월봉(越奉) 3등에 처하거나, 각 능의 수목 도벌을 살피지 못한 능관(陵官)을 나척(拿處)하게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능원의 소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도벌되었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지금 만약 전부를 법으로 다스린다면 능관으로서 무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도벌이 심하였다. 강력한 금산정책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도벌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 (2) 광릉숲의 보존

우리나라에서 수목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릉숲이다. 광릉숲의 나무들은 능이 조성된 이후 인공적으로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본래부터 이 곳에는 산림이 울창하였다. 특히 봉선사지역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노비들로 하여금 숲물이를 하여 마치게 하였었다. 또한 한명회는 풍양궁 근처에 자주 사냥하여 짐승을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광릉에 짐승이 많아서 곡식에 해를 미친다고 할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다.

이러한 능 주변의 수목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였다. 광릉의 경우 이익업(李益業)이 집을 짓기 위하여 강제로 수릉군(守陵軍) 및 능 밑에 사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능 안의 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한 일이 있었는데 이일로 인해 이익업과 그 관계자들은 문책을 당하였다. 한편 궁가(宮家)의 사나운 종(從)들이 능에 심어 놓은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막지 못한 광릉의 시임(時任) 참봉(參奉)이 태기(汰去)되기도 하였다. 양반기에서 집을 짓기 위하여 벌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광릉의 경우는 농침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숲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3) 광릉수목원의 조성

#### (1) 화소(火燧) 설치와 수종

화소는 능지 주위에 폭 1.8m 정도의 도랑을 파고 그 안쪽으로 돌을 구축한 방화선이며, 동시에 능역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경계 내외 부근 도로변에 직송, 잣나무, 전나무 등을 이식하였으며, 역 내에는 경작과 매장을 금하고 향을 놓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옻나무까지도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삼림보호제도는 대단히 확박하였다.

광릉시험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온대 중부에 속하는 지역으로 소나무·잣나무·전나무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류·서어나무류·단풍나무류·참나무류 등의 낙엽활엽수가 혼요된 천연림으로 계승되다가 1913년 시험지로 지정됨에 따라 1916년에 인공조림을 처음 실시하였다. 1929년 제1차로 경영연에 편성된 후 천연림의 임상을 개량할 목적으로 잣나무, 낙엽송, 잎갈나무, 전나무, 리기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등 주로 침엽수 인공조림이 계획적으로 실시되었다.

#### (2) 일제시기의 광릉숲

광릉에 중부임업시험장이 창설된 것은 1912년 4월에 '시험포'와 '광릉시험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며, 1922년에 '임업시험장 광릉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임업시험장 태동의 뿌리는 조선시대로부터이다. 즉 광릉시험림은 원래 세조가 둔한 '광릉부속림'의 일부분이다. 460여 년간 엄격히 보호되던 광릉부속림은 1911년 왕실에 특수한 연고가 있는 능묘 부속지를 제외한 화소구역 대부분이 광릉시험림에 포함되었다.

1912년 11월부터 산림의 일부를 개간하였고 다음해 4월에 시험묘포와 광릉시험지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소규모의 양묘소립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1924년에는 삼림보호감시를 위한 '보호주책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진접읍 장현 3리 장승마을 입구 주재소 자리에는 '농용가든'이 들어서 있다. 옛날 노인들이 흔히 '감수창'이라 부르던 곳이다.

광릉시험장이 조림과 이용·시험 등 임업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29년 중앙임업시험장 광릉출장소(기사 1명, 기술 3명, 교원·임업수 기타 18명)가 정식으로 설치되고부터인데, 조림이용시설 등 임업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울창한 숲이 조성된 광릉수목원의 산책로

### (3) 해방 이후의 광릉숲

우리나라 임업 발전의 태두로서 자주적인 산림개발의 뜻깊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은 1949년부터이다. 이후 한국전쟁 때에 각종 시험시설물들이 완전 소실되었으나 다행스럽게 광릉림만은 치명적인 전화에서 벗어나 오늘의 시험림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광릉시험림이 보존되기까지는 많은 시련들이 뒤따랐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는 조직적인 도벌이 성행하였다. 이 시기는 국가경제나 가정살림이 가난했던 시기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직적인 도벌도 기승을 부렸던 때이기도 했다. 1967년 산림청 발족으로 광릉출장소가 중부지장(中部地場)으로 승격되었다.

광릉수목원과 산림박물관사업이 착수되면서부터 임업시험장 기능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1987년 12월 현재의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이 발족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관리과, 종자배양 및 양묘와 육림(育林), 기계임업과 임도개설을 연구하는 시험과,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관리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을 연구·복원하는 수목원과 등 3개 과의 직제로 편성되어 있다. 중부시험장이 관리하는 시험림은 약 672만 평이다.

## 2. 광릉숲 개관

### ○ 위치·지형

광릉숲은 남양주시 진경읍과 별내면, 포천군 소흘면과 내촌면, 의정부시 민락동과 낙양동의 2시 1군에 걸쳐 있다. 숲의 규모는 동서 약 4km, 남북 약 8km에 달한다.

광릉숲은 우리나라 중앙부를 종으로 관통하는 광주산맥의 한 지맥이 이어져 이루어진 곳으로 최고봉인 죽엽산(해발 600.6m)을 비롯하여 제2의 봉우리인 소리봉(해발 536.8m), 황푸대봉 등이 모여 이루어졌다.

### ○ 토양

광릉숲의 토양은 화강편마암을 모체로 하여 생성되었고, 층위의 발달은 산성토양으로 분화가 잘 되었다. 유기질이 풍부한 갈색토양이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침식토양과 암석지이다. 1971년 임업연구원에서 산림토양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광릉숲의 토양형은 갈색 산림토양 4개형, 침식토양 1개형, 암석지토 분류되었다.

### ○ 수계·수질

광릉숲을 관통하는 314면 지방도를 따라 봉선사천이 이 숲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다. 포천군의 무림리를 발원지로 하는 지류와 이곡리에서 합류하는 지류가 합쳐져서 봉선사천 본류와 만나게 되며, 봉선사천은 비교적 자연형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봉선사천은 유흥업소의 밀집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데, 생물학화산소요구량(BOD)과 용존산소량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질 등급 2급수에 해당한다.

### ○ 광릉숲의 면적 변화

광릉숲의 면적은 1913년 시험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2286ha이었으나, 1939년의 국유림 편입, 1941년 임지교환 등을 통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그 후 용도 폐기, 국방부 및 임업연수원 부지로의 이관, 개재지 교환 등으로 면적이 줄어들어 현재는 2240ha이다. 이 중 천연림·인공림 등 임야 면적은 2223ha이고, 시험 묘포, 각종 시설부지는 17ha이다. 임야를 다시 재분하면 시험림이 1723ha, 수목원이 500ha를 차지하고 있다.

### ○ 광릉숲의 구성

광릉숲은 온대 중부 산림대에 속하여 소나무·잣나무·천나무 등의 침엽수와 신갈나무·졸참나무 등의 참나무류, 서어나무류, 단풍나무류, 물푸레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혼효된 천연림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 후 1913년에 시험지로 지정됨에 따라 1916년부터 인공조림이 실시되었다. 인공조림은 주로 잣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광릉숲의 임목축적량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아서 1995년 현재 광릉숲의 임목축적량은 1ha당 210m<sup>3</sup>에 달한다. 특히 침엽수림의 경우는 1ha당 축적이 240m<sup>3</sup>에 달하는데, 이는 멀리서 숲을 바라볼 때 침엽수의 짙은 색이 검은 색으로 보인다고 하여 흔히 흑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은 대체로 7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녹지자연도 등급으로 환산하면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8등급 이상에 해당하여 개발을 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 ○ 광릉숲의 천연림

광릉숲의 천연림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림은 각종 전쟁 혹은 남벌 등에 의하여 훼손된 후 다시 생성된 2차림인데 반하여 광릉숲은 450여 년간 능림으로 철저히 관리되다가 시험림 지정 후에는 학술보존림으로 지정하여 자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된 숲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릉숲은 천연림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학술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광릉숲의 천연림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높이에 따라 좀더 자세히 구분하면 숲의 가장 높은 부분인 상층에는 졸참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서어나무, 까치박달나무, 팔배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다. 숲의 중간 부분인 중층에는 까치박달나무, 회나무, 국수나무, 산딸나무, 당단풍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으며, 숲의 바닥부분인 하층에서는 풀·여름·가을의 구분 없이 애기나리와 단풍취가 가장 우세하였다. 그 외에도 선밀나무, 고깔제비꽃 등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층 식생은 상층 및 중층에 자라는 나무들의 잎이 나오기 전인 초봄에 특히 그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화려한 꽃들의 모습 때문에 광릉숲의 사계 중에서 초봄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 ○ 광릉숲의 인공림

광릉숲은 시험림 지정 이전에도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천연생 식수가 도로변, 시설물 주변 등에 소량으로 이식 조림되었는데, 현재 농 부근에 보이는 소나무, 잣나무 등의 노령목과 농 앞 도로 양쪽의 잣나무, 전나무 등은 이때 심어진 것들이다. 특히 이 중에서 전나무는 봉선사의 기록에 의하면 오대산 전나무의 후예라고 한다. 즉, 세조의 능림인 광릉이 지금의 자리에 정해지고 능으로 들어 가는 무미차길을 표시하기 위해 오대산에서 전나무들을 옮겨타 심었으며 지금의 나무들은 그 나무들의 자손을 심은 것이라고 한다.

시험림 지정 이후 본격적인 조림사업이 실시된 1913년부터 1930년까지 침엽수 45종, 활엽수 60종을 184.6ha에 식재하였는데, 침엽수 45종 중 국내산 13종은 모두 현존하고 있으며, 도입수종 32종 중 16종만 현재까지 생육하고 있다. 1993년까지 1387ha에 걸쳐 149종이 식재되었는데, 이때 넓은 면적에 걸쳐 심어진 종은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뽕크스소나무, 전나무, 잎갈나무, 소나무 등 주로 침엽수였으며, 활엽수로는 상수리나무, 밤나무, 졸참나무 등의 수종이 많이 심어졌다.

### 3. 광릉숲의 이용과 보존

#### 1) 시험림으로서의 광릉숲

##### ○ 시험림의 가치

광릉숲의 인공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무는 잎갈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무는 백두산에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는 나무이다. 하지만 남한지역에서는 자연상태로는 자라지 않고 모직 광릉숲에만 1919년에 심어진 이래 지금까지 큰 숲을 이루고 있다. 광릉숲의 인공시험림에는 잎갈나무 외에도 우리나라의 각처에서 자라는 나무들 중에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또한 이러한 수목들은 천연림 임상의 개량 및 침엽수 인공조림을 위한 기술 개발, 묘목 육성 등을 위하여 제공되어, 우리나라 산림자원 조성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 ○ 광릉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광릉숲의 인공시험림에서는 산림생태계의 물 및 양분 순환 고리를 밝히기 위한 실험, 적절한 입도 건설을 위한 시험, 그리고 좋은 숲을 가꾸기 위한 시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연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광릉수목원

### ○ 면적 및 구성

광릉숲 전체에서 광릉수목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00ha에 불과하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보존지역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지역이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10ha 정도가 완전 공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광릉수목원은 목적과 식물의 특성에 맞게 나누어진 15개의 전문수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산림사료, 표본 등을 전시한 국내 최대의 산림박물관, 야생동물원, 삼림욕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 ○ 보유식물의 종류

광릉수목원에는 목본 1660종류, 초본 1186종류 등 총 2931종류의 식물들이 수집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수가 사천여 종임을 감안할 때 작은 면적의 수목원에서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식재, 관리되고 있는 잘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고 있는 1968종은 물론 외국에서 도입된 식물도 963종류 포함되어 있다.

### ○ 광릉수목원의 중요한 기능

일반적으로 수목원의 역할은 식물을 전시, 관리함으로써 자연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외에 훨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의 상당수가 희귀식물이다. 수목원은 전국의 희귀식물보존사업, 야생식물 탐색·자원화 연구, 곤충·동물·식물·재감 버섯 등의 생물 표본 수집, 분류, 동정, 소장하며, 생태계 조사, 여러 분야에 걸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등 다양한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하는 자연체험학습인

그린스쿨(녹색수업 : Green School) 운영 및 숲과의 만남 등 많은 자연환경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 ○ 전문수목원

습지원은 광릉수목원의 초입에 있는 관찰원으로 물속에 뿌리를 박고도 살아 가는 낙우송을 비롯한 여러 습생식물들을 심어 놓아 불과 가까운 식물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이다. 또한 육림포의 위쪽에는 자연적으로 어울어진 수많은 습생식물들이 자라는 생태적인 습지원이 조성되고 있다.

관상수원은 일반적으로 정원에서 많이 쓰이는 반송이나 철쭉 그리고 등과 어울어진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정원과 공원 등에 심어진 나무들을 정원양식으로 재현하여 전시한 것이다. 이 관찰원의 명물로는 계수나무의 수벽(水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구살나무, 철쭉, 소나무, 조팝나무, 백송 등이 있다.

만목원은 딸굴섬 목본식물들이 다양한 형태의 질체 구조물을 타고 올라 자라고 있는 곳으로 수목원 중앙광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표적인 산과일 으름, 머루, 다래, 오미자는 물론 다양한 으아리속 식물과 품종들이 수집되어 있다.

난대식물원은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데, 유리온실의 모양도 산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져 있다. 온실건물 내에는 증식온실이 있는데 이곳은 연구 목적으로 특별히 키우거나 증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전시온실은 기후대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뉘어 있다. 먼저 만나는 곳이 이열대식물원으로 주로 외국의 이열대지방 식물들 가운데 주요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곳은 난대식물원으로 우리나라의 남부 도서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중점적으로 수집해 놓은 곳이다. 이열대 식물원에는 백악기에 번성했던 나무고사리를 비롯하여 커피나무, 아자수와 같은 아열대나무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파초일엽, 문추란이나 금새무늬, 자란과 같은 희귀식물, 오죽을 비롯한 대나무류도 모여져 있다. 난대식물이 심어진 칸으로 건너 가면 여러가지 동백나무들이 있고 천연기념물 팔손이, 후추 대신 이용했다는 영굴식물 후추등, 송악, 멸불 등과 격음이 되도록 잎이 지저 않는 상록이지만 넓은 잎을 가진 각종 상목관엽수들을 구태어 말려 남부지방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다.

맹인식물원은 광릉수목원의 특색가운데 하나로서 국내 유일의 장애인을 위한 식물원이다. 이곳은 관찰보 바닥면이 도움하고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볼록 튀어나온 곳에 다르면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서 나무에 대한 필자한 설명을 읽고 동시에 나무를 맛,

촉감, 향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곳이다.

외목원은 꽃나무들을 품종별로 모아 놓고 있다. 품을 알리는 매화(매실나무)만 해도 흰꽃, 분홍꽃, 검꽃 등 40품종이나 되고 그 밖에 명자꽃나무원, 철쭉원, 복숭아나무원, 모란원 등의 다양한 품종(cultivar)들을 수집한 작은 정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생식물원은 한반도 모양을 본따서 설계되었으며 아주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수면에는 대표적인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을 비롯하여 수련, 왜개연꽃 등이 있고 그 가장자리로 고랭이, 창포, 꽃창포 등 습지나 강가 혹은 저수지 주변에 살고 있는 수생 종의 식물들이 구획별로 구분되어 심어져 있다.

관목원은 걸어 다니기에 그리 쾌적한 곳이 못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지만 식물을 전공하는 이들은 우선 이곳부터 찾는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웅만한 나무들이 대부분 있고 아주 귀한 흰진달래, 산개나리, 만리화, 장수만리화, 개느삼과 같은 희귀식물들도 여럿 있다.

한편 비공개식물원으로 고산식물원, 약초원, 식용식물원, 활엽수원, 지피식물원, 침엽수원 등이 있는데, 연구와 학생들의 특별한 자연학습을 목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관찰이 가능한 곳이다.

외국수목원은 외국 수종들을 심어 놓은 곳으로 작은 숲처럼 보인다. 만주자작나무를 비롯하여 구주소나무, 서양측백, 독일가문비 등 다양한 외국수종들이 1912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처음 이곳에 심어졌고 국내 적응시험을 거쳐 이제는 널리 퍼져 나갔다.

활엽수원은 국내에서 자라는 낙엽활엽수 가운데 교목류를 중심으로 조성된 관찰원이다. 유사한 분류군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어 나무를 연구하기에 매우 유용한 곳이다. 하층에는 다양한 자생초본 군락을 조성 중이며 이것이 모두 정리되면 공개할 계획에 있다.

침엽수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도입되어 심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침엽수들을 모아 전시한 곳이다. 구상나무, 잣나무, 눈잣나무 등의 자생수종과 독일가문비, 화백, 구주적송 등 유명한 외국수종이 다양하게 있다.

지피식물원은 잔디를 대신하여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녹지공간에 심을 수 있는 자생초본류를 선정하여 생태적으로 적합하게 전시한 곳이다. 광릉숲의 대표적인 식물인 피나무를 비롯하여 바람꽃류, 둥굴레, 앵초, 물봉선 등이 있다.

고산식물원은 고산식물 특유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곳으로 한국 특산식물인 금강초롱을 비롯, 솔다리(한국에델바이스), 모데미풀, 섬남성 등의 식물들이 울릉도, 계방산, 설악산 등 산지별로 식재되어 있다.



산림박물관 전시실 전경

### ○ 산림박물관

산림박물관은 수목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국민들이 숲을 잘 이해하고 자연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1987년 개관하였다. 외부는 국산석재인 화강암, 내부는 잣나무, 낙엽송 등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주제별로 나누어진 총 5개의 전시실과 표본관, 시청각실, 도서 소장고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총 1만 3000여 종, 3만 3000점의 전시물과 5760종, 1만 5311점의 동식물 표본이 소장되어 있다.

박물관 내의 제1전시실은 '산림과 기술'을 주제로 한다. 자원이 되는 여러 원목들과 각종 도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원목들은 우리나라 산림에 조림을 권장하는 23개 대표 수종이며 재질, 특징, 용도 등이 설명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산림과 환경'을 주제로 한다. 그 동안 인간이 산림과 함께 쌓아온 역사를 비롯하여 나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구 등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전기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3전시실은 우리나라의 임업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4전시실은 산림의 생태계를 주제로 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숲속의 생태계를 알기 쉬운 그림과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

는데, 장수하늘소나 크낙새와 같은 귀한 표본, 500여 종의 갖가지 곤충, 새와 동물의 모형 등 볼거리가 많다. 또 표본실, 우리나라의 각종 목재로 만든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특별 전시실, 석재(石材)전시장 등이 있다.

#### ○ 야생동물원

야생동물원은 급속하게 없어진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멸종을 보존하고 증식하여 더 이상 멸종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는 백두산 호랑이와 반달곰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산양과 원앙이, 멧돼지, 독수리, 노루와 같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으로 한때 이곳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으나, 너무 많은 관람객에 의해 야생동물을 번식시키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 현재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 3) 광릉숲의 동식물

우리나라의 동물상은 세계 동물분포상 구북구에 속하며, 구북구는 다시 지형과 지세 기후에 따라 시베리아아구와 중국아구로 구분되고 있다. 광릉숲은 남부인 중국아구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생물종수는 1997년 현재 2만 9828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물이 1만 8029종, 식물 8271종, 균류 1625종, 원생생물 736종, 원핵생물 1167종이다. 동물 중에서는 무척추동물인 곤충이 가장 많아 1만 1853종에 이르고 있다.

광릉숲에서 기록된 생물은 척추동물 244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종의 17%, 곤충류는 2384종으로 20%, 거미류는 198종으로 17%, 고등식물류는 841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광릉숲의 수계에 서식하고 있는 담수어류는 7과 12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어류는 버들치이고, 그 다음으로 독종개, 밀어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썩지, 쏘가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동물상에 비하여 어류는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서류·파충류의 수는 41종으로 매우 적다. 광릉숲에는 이 중 24종이 분포하여 전체의 59%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한 구렁이와 보호 야생동·식물로 지정



우리 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크낙새

한 멧봉이, 까치살모사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릉숲의 생태계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광릉의 숲에 사는 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새는 크낙새이다. 크낙새는 천연기념물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지정한 희색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새이다. 광릉의 숲에 크낙새가 등지를 뚫 수 있는 것은 오래되어 죽은 고목들과 크낙새의 박이기 되는 풍부한 곤충들 때문이라고 한다. 크낙새는 '클락 클락' 하고 울기 때문에 크낙새라 불리운다. 광릉의 숲에는 이 밖에도 원앙, 소희새, 솔부엉이, 붉은배새매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7종의 새와, 솔개, 조롱이, 삼광조 등 많은 희귀조류들이 날아 들어 오래된 나무와 숲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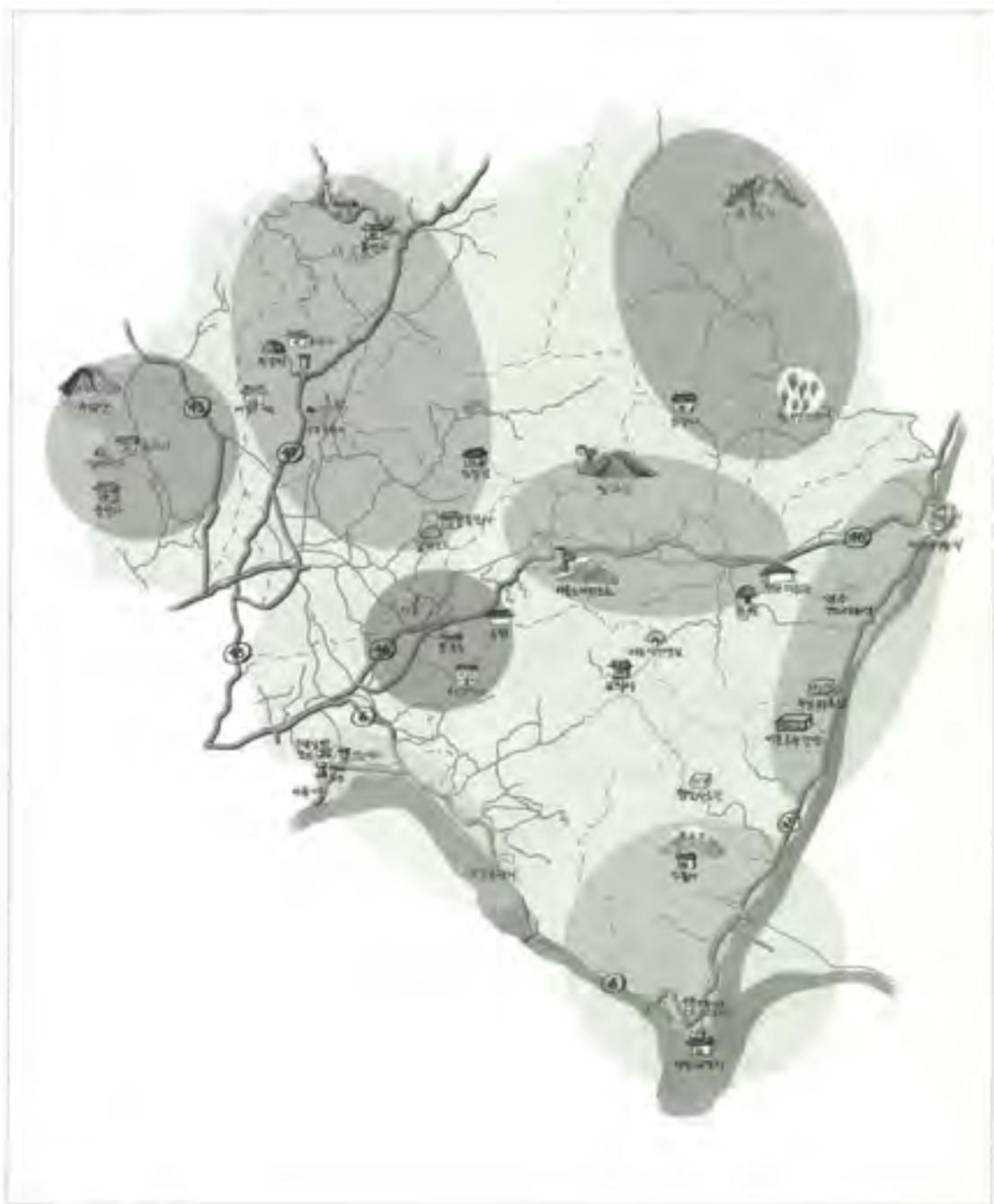
광릉의 숲에서는 청솔모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고슴도치나 멧도끼, 너구리 등을 볼 수 있고, 1970년대 말까지는 담비, 오소리 등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늑대, 여우, 표범을 포함한 12종의 동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광릉숲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하늘다람쥐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늑대, 여우, 표범, 보호야생동·식물인 살(살개이), 대륙목도리담비 등이 자라고 있으며, 그 외

에도 희귀동물로 알려진 고슴도치가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곤충류는 광릉숲에 총 17목 203과 2384종이 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국내 미기록종 곤충 51종이 발견되고 있어서 희귀곤충의 보고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곤충의 다양성은 속리산·설악산지역 보다도 많기 때문에 광릉숲이 천혜의 자연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광릉숲에 사는 곤충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수하늘소이다. 장수하늘소는 까맣고 반짝이는 몸체에 커다란 뿔을 이고 있는 장수처럼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길이가 10cm에 달한다. 이 종은 1970년 이전에는 풍부했으나 광릉숲이 개발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에는 광릉수목원 산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표본으로만 그 위용을 짐작할 뿐이다. 이외에 수많은 종류의 나비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릉숲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은 총 841종류로서 광릉물푸레나무 등 215종류의 목본식물과 광릉갈퀴 등 626종류의 초본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광릉숲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느리미고사리, 참주름조개풀, 참나래새 등 특산식물 13종이 자라고 있으며, 광릉요강꽃, 광릉물푸레나무, 광릉나비나물, 광릉골무꽃, 광릉말털이슬, 광릉개고사리 등 이름에 광릉이 붙은 식물들도 많이 있다. 광릉의 숲은 이름 그대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칭할 만하다.



남양주시 권역별 관광안내도

## 제3절 관광의 명소

### 1. 다산유적지권

#### 1) 다산유적지

다산유적지는 현재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정약용이 태어난 남양주시 조안면 농내리 마현마을에 있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이익의 학문과 서학을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관



정약용 묘

적에 오른 뒤 서중기와 녹로(도르래)를 만들어 수원성을 쌓는 등 여러 업적을 남겼다.

유배생활 동안 조선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러 사상과 학문을 검토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1818년(순조 18) 유배생활에서 풀려난 후 마현마을 고향집으로 돌아와 저술생활로 평생을 보냈으며 1836년(헌종 2) 75세로 생을 마쳤다.

다산유적지는 정약용의 묘(경기도 기념물 제7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묘는 받치 아래를 짊싸고 돌아 흐르는 두물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듯한 얇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묘 앞에는 비석과 상석, 그리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열되어 있다. 용분은 단분이며 숙부인 풍산홍씨와의 합장묘이다.

문화관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으며 다산 관련 강연회와 학술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다산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사계절 내내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 2) 수종사

수종사는 남양주시 조안면의 운길산 정상 아래에 있다. 이 산자락에 자리한 수종사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빼어나다.

옛말에 의하면 세조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올 때, 뱃길로 한강을 따라 환궁하는 도중에 이곳 양수리에서 물 위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운길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를 듣고 다음날 사람을 보내 숲속을 조사해보니 천년 고찰의 폐허가 있었고, 바위 벽에는 18나한상이 줄지어 남아 있는데 그 바위틈에서 돌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들은 세조는 매우 감동하여 지금의 이 자리에 절을 복원하게 하고 절이름을 '수종사'라 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현재의 절은 대부분 1974년부터 증진된 것들인데 대웅보전과 나한전·산신각·약사전·동진전·요사채 등의 전물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석조부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와 팔각오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호)이 있다.

한편 수종사 대웅보전 등편의 불이문 앞에는 500여 년이나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 무그루가 있어 수종사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세조가 절의 중창을 마친 기념으로 심었다고 한다.



한학 묘

### 3) 한학 묘

양절공 한화(1403~1456)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그의 누이가 명나라 성조의 후궁이 되어 명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지냈는데 여러 차례 모국과 왕래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원활히 하였다. 그 후 서성부원군으로 우의정에 올랐다가 다시 좌의정에 올랐으며 서원부원군으로 개봉되었다.

묘는 남양주시 조안면 농내리에 있으며, 묘비와 장명등·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가 어려운데 비는 한학이 타계한 지 39년 후인 1495년(연산군 1)에 조성되었다.

## 2. 북한강권

### 1) 서울종합촬영소

서울종합촬영소는 조안면 삼봉리에 있으며 40여 만 평의 부지에 지난 1998년 8월 문을 연 종합영상지원센터이다.

영화는 물론 비디오, 애니메이션, CF촬영 등 각종 영상물의 제작기능을 갖추고 있고 영상지원관, 특수촬영스튜디오, 중형스튜디오, 대형스튜디오, 영상관, 전통한옥운당, 현상실, 녹음실, 기계대여실, 시사/자료실 등이 있다.

특히, 영화문화관의 영상실에서는 일반극장에서는 관람할 수 없는 특수효과영상, 우수단편영화 등이 정기적으로 상영되고 있다.

### 2) 두물위크샵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로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두물위크샵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의 강변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연중 내내 음악회와 건축전, 미술전시회,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두물위크샵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250석 규모의 소극장과 자료실,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식사와 토론모임을 위한 카페가 있다. 소극장은 기업연수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3) 새터유원지

새터유원지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으며 서울 근교의 종합 레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북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금남유원지, 강변유원지, 강변수상스키장은 하나의 권역을 이루면서 독특한 레저문화를 이끌고 있다.

대학생들의 단체 야영이나 MT모임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새터유원지는 보트장,



종합영상지원센터인 서울종합촬영소



복합문화공간인 무릉위크샵

수상스키장, 야외예식장, 노천카페, 방갈로, 오토캠핑장, 단체용 빌라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계절 레포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세터유원지는 빈손으로 찾아와 가볍게 즐기는 것에서부터 매니아의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차원높은 레포츠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는 전문음식점과 호텔 등이 있어 쾌적한 휴식을 제공한다.

#### 4) 양주컨트리클럽

서울에서 구리, 팔당대교를 거쳐 양수리에서 춘천쪽으로 좌회전하면 양주컨트리클럽을 만나게 된다. 눈부신 초록빛 숲과 반짝이는 한강을 배경으로 30여 분에 걸친 환상 속의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천혜의 자원과 어우러진 양주컨트리클럽에 도달하게 된다.

18홀의 층급 높은 비즈니스공간과 휴식공간은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북한강변을 향한 장쾌한 드라이브 숲과 함께 골프 매니아들에게 각광받는 리버사이드 콤플렉스가 자랑거리이다. 산과 강, 그리고 푸르른 잔디가 펼쳐지는 자연의 마노라마가 장관이다.

#### 5)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는 1920년대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전통민속예술이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분포,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로는 예오개(아현동), 늑변, 사직탈, 구피탈, 노들(노량진), 송파, 퇴계원 등지의 산대놀이가 대표적이다.

조선 광해군 때 조정에서는 산대놀이를 관장하기 위해 산대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으며 산대를 만들어서 주로 외국 사신들을 영접할 때 공연하였다. 그밖에도 나례 의식, 왕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참배할 때, 왕실의 각종 행사나 궁중잔치 때, 왕후의 입태를 축하할 때, 지방장관을 환영할 때 등에 공연되었다.

이 산대놀이는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소멸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그 전승작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통민속놀이인 퇴계원산대놀이에서 사용되는 탈

### 3. 묘적사권

#### 1) 묘적사

묘적사는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의 묘적산 골짜기에 있는 호국사찰로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주요 문화재로는 대웅전 앞의 팔각칠층석탑(향토유적 제1호)이 있는데, 이 탑은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과 인근에 있는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그 양식이 동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팔각다층석탑으로서 조선 초기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 2) 이순지선생 묘

이순지(1406~1465)는 조선 초기의 천문학자이다. 1427년(세종 9) 문과에 급제하였고 세종의 명으로 역법을 연구하여 정인지, 김담 등과 함께 『칠정산내외편』을 지술하였다. 이후 김담, 장영실 등과 함께 앙부일구(해시계)와 자격루(물시계)를 제작하였다.

이순지는 산학, 천문, 음악, 풍수 등 여러 방면에 능통했으며, 그의 묘(경기도문화재자료 제54호)는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데, 부인 영월 신씨와 합장한 묘로 한 봉분 앞에 각각 묘비와 상석이 따로 놓여져 있다. 묘비는 500여 년의 풍상을 겪어 부식되어 단출한 모습을 하고 있다. 신도비는 근래에 건립해 큰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 거북모양의 돌비석받침들을 갖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 3) 향토사료관

조안면 시우리의 송촌초등학교 시우분교를 개조하여 활용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금석문 테마박물관이다. 향토사료관은 지난 1998년 12월 19일 문



국내 유일의 금석문 테마박물관인 향토사료관 전사실

을 열었으며 현재 70여 점의 탁본자료와 귀중한 유물사진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는 초중고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석문 탁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4. 천마산권

### 1) 천마산

천마산은 남양주시의 한가운데에 우뚝 자리잡고 있는 높이 812m의 산으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산세가 험하고 봉우리가 높아 과거 임궽정이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마치고개를 주무대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계곡을 따라 나 있는 등산로 주변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곳곳에 물맛이 좋은 약수터가 있어 당일 등산코스로 최적지이다. 정상에서 남쪽으로는 마치고개 넘어 백봉이 자리하고, 북쪽으로는 주금산·축령산 등이 솟아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



건천후 레저타운인 천마산스키장



문화관광명소인 모란미술관 야외조각공원

한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곳 천마산에는 천마산스키장이 산의 남쪽에 개설되어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슬로프가 설치된 전전후 레저타운으로 야간스키는 물론 사계절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스키학교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 2) 모란미술관

모란미술관은 화도읍 월산리에 위치한 문화관광명소로 야외조각공원에는 국내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실내전시실에는 평면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입체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소장자료는 350여 점이 넘으며 전시시설 외에도 넓직한 야외무대와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쾌적함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3) 도자골 달외

도자골 달외는 남양주시 화동읍 월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작업장 및 실기시설을 갖춘 전문적인 도자기 실습장이다. 지난 1998년 3월 문을 연 도자골 달외는 유치원생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미반과 전공반으로 나누어 전문강사진들이 도예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정기 전시회를 가져 수강생들의 작품과 초대작가들의 작품을 일반에 선보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는 주말가족반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도자체험반도 운영하고 있다.

### 4) 홍선대원군 묘

홍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은 나라 안팎이 복잡하던 시기에 중앙집권적 통치기강을 확립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밀려오는 서구 열강의 개국압력에 강력한 해국정책으로 맞섰다.

홍선대원군의 묘인 홍원(경기도 기념물 제48호)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의 모란공원 인근에 있는데 원래는 1898년(광무 2) 고양군 공덕리에 장례되었다가 1906년(광무 10)에 파주군 대덕리로 이장하였으며, 1966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 5) 종합가구단지

종합가구단지는 마석 성생가구단지와 오남가구단지가 있다. 경춘국도변과 천마산스키장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마석 성생가구단지는 약 400여 개의 공장과 80여 개의 공장 직영매장이 있어 국내의 유명한 가구업체로 납품되는 고급가구를 공장도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밤섬유원지 인근에 있는 오남가구단지 역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마석 성생가구단지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로의 배달서비스와 충분한 A/S를 제공하고 있다.

## 6) 서울스키리조트

서울스키리조트는 평내동에 위치하며 1개월 레지타운으로서 서울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유리한 시장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량이 풍부한 배봉산 정북 방향에 슬로프가 위치해 있어 겨울내내 눈이 녹지 않는 최상의 조건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삼림욕장, 씨름장, 실내외수영장, 연수실,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볼링장, 실내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등이 마련되어 있어 사계절 워터파크로서 손색이 없다.

## 5. 축령산권

### 1) 축령산 자연휴향림

축령산은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걸쳐 있는 해발 879m의 산으로, 숲이 울창하고 계절이 아름다운 산이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사냥을 왔다가 산 정상에 올라 제를 지낸 후 멧돼지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부터 고사를 올린 산이라 하여 축령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지난 1995년 7월 10일 문을 열어 현재 경기도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축령산 자연휴향림은 수동면 외방리에 위치하고 있다. 50년생 잣나무림이 잘 가꾸어져 있는 7721m의 넓은 산림에 삼림욕장, 체육시설, 물놀이장, 야영장, 자연관찰장 등이 있어서 가족 단위의 휴양공간으로 손색이 없으며 하루의 산행코스로도 적합한 곳이다.

### 2) 수동국민관광지

축령산맥이 서남을 향하여 즐기즐기 뻗어 내린 아늑한 골짜기마다 울창한 수림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산촌의 한가로움을 감싸고 있다. 석수대는 수동유원지의 첫째가



50년생 잣나무림으로 조성된 흑령산 자연휴양림



경관이 빼어난 수동계곡

는 증경인데 이 곳의 압반에는 약 300여 년 전의 각자로 추정되는 쇳귀가 있다. 죽령산의 등산코스도 이 곳을 찾는 도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풍부한 산나물과 수십종의 산과를 비롯, 버섯·터덕·도라지·고비·고사리·두릅 등의 보신탕과 보종꿀·밤·잣 등은 이 곳의 명품이다. 주금산, 서리산, 죽령산에 둘러싸인 수동국민관광지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계곡이 어우러져 경관이 빼어나며 특히 관리소 위쪽 1.5km 지점부터는 마위가 맑고 숲이 무성하여 여름철에 절경을 이룬다. 1983년 약 6만 8천 평의 부지에 2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게소, 상가, 식당, 기타 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 3) 보광사

보광사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천마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봉선사의 말사로, 고려 초인 949년에 해거국사가 창건했다. 조선 후기에 명의청을 지낸 이유원(1814~1888)이 당대의 고승 화담선사를 위해 절을 증진했으며 자신의 원찰로 삼았다고 한다. 이유원이 초상한 화담선사의 진영은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보광사는 1894년(고종 31) 불성화상이 증수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큰 방 20칸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1960년에는 대웅전이 역시 화재로 소실되어 거의 폐허가 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화담스님이 부임하면서 보광사는 그 모습을 일신하여 사세를 대폭 확장하였는데, 현재도 옛 보광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불사가 한창이다.

### 4) 계명주

보통의 전통보축주들(탁주·동동주·약주 등)이 일주일 이상의 숙성 필요기간을 거치 않았을 의으면 먹는 것과는 달리 계명주는 밤에 술을 담궈 그 다음날 새벽 닭이 울때면 먹을 수 있다. 급하게 술을 빚을 필요가 있을 때 만들었던 속성주로서 일일주, 삼일주, 계명주 등이 여기에 속하고 일명 잇탁주라고도 한다.

잇탁주란 일반적인 탁주와는 다르게 고두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와 수수, 멧기름으로 죽을 두고 여기에 누룩과 술일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계명주

계명주는 원래 차좁쌀로 담근 술로 잡쌀이나 차좁쌀을 재료로 사용하면 빨리 삭고 술이 맑아진다고 한다. 좁쌀은 북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어 주로 북쪽지방에서 빚어졌다.

현재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에 살고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최옥근씨가 시어머니에게서 그 비법을 전수받아 대를 잇고 있다. 그 맛과 향이 독특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 6. 광릉권

### 1) 광릉

광릉은 조선 제7대 왕인 세조와 왕비인 정희왕후 윤씨의 능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으며 사적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조와 그 부인인 경희왕후가 묻힌 광훈 전관

세조(1417~1468)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진평대군에 봉해졌으며 이후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문종이 승하하고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계유정난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세조는 14년의 재위 기간 동안 군제를 정비, 국방을 강화하고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으며, 토지제도와 관제를 개혁하는 등 치적이 많았다.

광릉은 “내가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세조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능을 조성하는데 들던 인력과 비용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왕릉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능으로 오르는 길에 펼쳐진 200여 m의 숲 터널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좋은 산책로이다.

## 2) 광릉숲

광릉숲은 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의정부시, 포천군의 내촌면과 소흘면에 걸친 약

2,240ha의 광대한 면적의 입야로 한국 제일의 원시림을 자랑하고 있는 산림의 보고이다. 1468년 세조의 능림으로 지정된 이래 철저히 보호·관리되어 온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가치를 지닌 천연림이다.

광릉숲의 임목축적량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으며, 이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은 대체로 7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광릉 숲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현재 총 841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75과 244종의 척추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천연기념물 18종과 희귀동물 22종도 포함되어 있다.

광릉숲에 사는 새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새는 크낙새이다. 크낙새는 천연기념물 제 197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지정한 적색자료목록에 올라 있는 새로,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다.

한편 지난 1988년 광릉숲 일부 지역에 광릉수목원이 조성되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광릉수목원은 이용객의 급증으로 인해 하루 5,000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평일에만 개방하고 있으며 5일 전에 미리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입장이 허용된다.

### 3) 봉선사

봉선사는 진접읍 부평리 운악산 기슭에 자리잡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다.

봉선사는 고려시대인 969년(광종 20) 법인국사 탄문이 창건하였는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운악사이며, 경기지방의 으뜸 사찰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세조가 승하하자 예종은 운악산에 광릉을 만들고, 1469년에 세조의 능침사찰로서 이 절을 중창하였다.

봉선사에는 봉선사 동종과 괘불, 미타상 등 귀중한 유물들이 남아 있다. 봉선사 동종은 보물 제397호로 한국전쟁의 심한 폭격 속에서도 아무 손상 없이 살아남은 봉선사 유일의 보물이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5호로 지정된 괘불은 1735년(영조 11)에 이씨 상궁 성애가 정조의 어머니인 영빈 김씨를 위해 화사 각종 등을 시켜 그린 비로자나삼신불화이다.

봉선사 들머리 오른쪽 비석거리에 보면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광수



대웅전이 '견방암'으로 쓰여진 봉선사

는 1950년 남북되기 전까지 봉선사 인근에 은거하며 작품활동을 하였다.

#### 4) 봉영사

봉영사는 진접읍 내각리 천정산 기슭에 있는 봉선사의 말사이다. 588년(진평왕 21)에 창건되었으며 처음에는 봉인암이라 불렀다고 하나 이를 고증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1755년(영조 31) 선조의 후궁인 인빈 김씨의 묘가 순강원으로 승격되면서 이 절을 인빈의 원찰로 삼았으며 이 때 절 이름을 봉영사로 바꾸었다.

봉영사에는 대웅보전과 명부전, 승방, 요사 그리고 사적기와 혜경선사 공덕비 등이 있는데 모두 근래에 건립된 것이다. 대웅전에 있는 아미타불화는 1853년(철종 4)에 조성되었고, 신중도와 산신도는 1903년(광무 7)에 각각 조성되었다.

## 5) 순강원

순강원은 사적 제356호로 진접읍 내각리에 있으며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1555~1613)이 묘소이다. 순강원에는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을 비롯해 재실터, 정자각 등이 있으며 묘 좌측에는 인빈 김씨의 둘째 아들 신성군의 묘가 있다.

## 6) 대궐터

대궐터는 현재 진접면 내각리에 풋말로만 남아 있다. 기록에 따르면 1400년(충종 2) 왕위를 동생인 정안군(태종)에게 양위한 정종이 현 남양주시 진접면 내각리로 옮겨와 휴식을 취하였다고 한다. 그후 그의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도 와서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듯 내각리 대궐터는 정말 대궐이 있던 자리는 아니다. 다만 태상왕 이성계와 상왕인 정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머물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 7) 여경구가옥

여경구가옥은 진접면 내곡리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가옥으로 18세기 경기지방 사대부집의 특이한 공간구성을 잘 보여주는 전통한옥이다.

비교적 옛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편인 이 집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기슭의 동남편에 자리잡고 있다. 대문은 서북향을 한 솟을대문이며 외양간과 행랑방이 좌우에 있다. 안채는 특색 있는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경기 중부지방의 안채는 안방이 대청의 서편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에는 그 반대편인 동편에 있다. 안방에 이어 동편으로는 방 두 개와 헛간 한 칸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뒷방은 보기 드문 편이며 여경구가옥의 특성으로 손꼽을 수 있다. 안방의 남쪽으로는 3칸 너비의 부엌이 설치되어 있고, 사당은 사랑채 뒷편의 한 단 높은 터전에 따로 자리하고 있는데 처마는 흠처마이고 지붕은 기와를 이은 맞배지붕이다.

## 8) 광해군 묘

조선 제15대 왕인 광해군과 부인 유씨의 묘로 진건면 송능리에 있으며 사적 제363호로 지정되었다.

광해군(1575~1641)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1608년 왕위에 올랐다. 그는 전란으로 어러웠던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펴나갔다.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며, 양전을 실시해 국가재원 확보와 함께, 권화로 손실된 경희궁, 인경궁을 증건하였다.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대포를 제조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기도 하였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능란한 양면외교 솜씨를 보였다.

묘는 대군의 예장에 준하였으며 미석, 상석, 망주석, 문민석이 배치되어 있다. 우측 망주석은 원부석이 파손되어 있고, 장명등의 중간에 꽃부늬가 있으며 옥개석은 밀착지붕이다.

## 9) 견성암

견성암은 봉상사의 법사로 진건면 송능리 천마산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견성암은 원래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동양조씨의 시조인 조맹이 은거하면서 수양하던 바위굴이었다고 한다. 조맹이 만년에 이곳에서 수양하던 중 약사여래를 친견하였다고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의 유적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 중엽에 절을 장건하고 약사여래를 친견하였다는 의미에서 견성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전하는 기록은 전하지 않고 유물도 남아있지 않다.

견성암의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건물양식으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아미타후불탱화를 비롯하여 1862년(고종 19)에 조성된 불화가 여러 점 봉안되어 있다. 약사탱화 등도 봉안되어 있으며 산령각에도 1882년 조성된 독성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불화들은 견성암의 사격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이밖에 견성암에는 수양굴과 독정이 있다. 수양굴은 앞에서 대웅전 뒤편에 있고, 독정은 조맹이 수양굴에서 혼자 수행하며 마셨다고 해서 붙여진 우물로 가뭄에도 물의 깊이가 터파거나 덜함이 없이 항상 일정하였다. 그 맛 또한 차고 단맛이 나는 갈로수로 지금까지도 음료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절을 '독령이굴'이라 부르고, 이 마을을 '독정리'라고 부른다.

## 10) 봉인사

봉인사는 진건면 송능리 천마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대한불교 원효종에 소속된 절이다. 창건했던 시기와 인물은 알 수 없으며, 1619년(광해군 11) 중국에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셔오자 이듬해인 1620년에 광해군이 사리탑을 세우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해 부도암을 봉인사에 창건했다고 한다.

사리탑은 사리와 함께 1907년 일본인 손에 들어가 일본의 오사카시립미술관으로 옮겨졌다가, 1987년 소유자가 한국에 기증하여 현재 중수비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앞 뜰에 복원·전시되고 있다. 한편 사리탑과 사리장엄구 6점은 보물 제928호로 지정되었다.

## 11) 밤섬유원지

밤섬유원지는 진접읍 내각리 왕숙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1만 9162평의 섬이다. 풍성한 숲과 잔디밭이 조화를 이루는 강변유원지로서 보트를 타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등나무길을 따라 들어가면 조선 중엽 세운 태극정이 운치를 더해주고, 스텝을 느



단체수련장으로 손꼽히는 밤섬유원지

깎수 있는 출렁다리도 있다. 이곳은 밤나무·포플러가 숲을 이루고 있고, 활터·탁구장·축구장·배구장·보트장이 마련되어 있어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체수련 장소가 되고 있다.

## 7. 수락산권

### 1) 불암사

불암사는 밀내면 화정리 불암동 불암산 자락에 있는 봉선사의 말사이다. 기록에 따르면, 불암사는 신라 지증국사가 824년(헌강왕 16)에 창건하고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중건하였으며 무의대사가 배허화된 것을 중창하였다고 한다.

현재 불암사에는 대웅전·관음전·칠성각·범종각·경판고와 삼층석탑 등이 있으나 월성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래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 경판고에는 보물 제591호로 지정된 『식씨원류용화사적책판』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경판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불암사 경판은 총 34종 587판으로 대개 1635년(인조 13)과 1795년(정조 19)에 간행되었는데, 이 때 불암사의 사세가 활발하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불암사에 세워져 있는 진신사리탑은 1989년에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해와 봉안한 것이다.

### 2) 흥국사

흥국사는 밀내면 덕송리 수락산 아래에 위치한 봉선사의 말사이다. 선조가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원당을 건립하면서 흥덕사로 사액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세가 많이 확장되었다. 1626년(인조 4)에는 절 이름을 지금의 흥국사로 바꾸었다.

흥국사는 근세 화승들의 본거지로서 손꼽히는 화사양성소로 기능하였다. 특히, 조선 말에는 이곳에서 화승들에게 그림수업을 시킴으로써 절출한 화사승들을 많이 배출하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글씨인 흥국사 현판

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로 나가 자신들의 기량을 발현시켰다.

흥국사 대웅보전(문화재자료 제56호)은 팔작지붕으로 된 다포식 건물로 내부에는 여러 불화와 괘불이 봉안되어 있다. 영산전은 다포식 건물로 이곳에 봉안된 16나한상은 비교적 작지만 그 형태가 완전하고 기법이 뛰어나 조선 후기에 조성된 나한상으로는 우수한 것이며, 영산전의 바깥 기둥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쓴 주련이 걸여 있는데 '흥국사', '영산전'이라는 현판도 그가 쓴 것이라고 한다.

### 3) 덕흥대원군 묘

덕흥대원군은 중종과 창빈 안씨의 소생으로 태어나 1559년(명종 14)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70년(선조 3)에 대원군으로 추존되었는데 이때부터 대원군제도가 시작되었다.

묘는 경기도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었으며 별내면 덕송리에 있다. 흔히 덕흥대원군의 묘는 '덕릉'이라고 부르고, 덕흥대원군의 원찰인 흥국사를 '덕절'이라고 부른다. 덕

홍내원군 묘가 있는 별내면에서 서울 상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지금도 '턱뽕고개'라 불리고 있다. 묘역에는 신도비, 강명동 등이 있고 아래에는 아들 하원군의 묘가 있다.

#### 4) 수락산유원지

수락산 유원지는 별내면 청학리에 위치한 수락산 계곡 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 근교의 도봉산과 함께 양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산세가 웅장할 뿐 아니라 깊은 계곡의 수려함과 산 전체가 석벽과 암반으로 되어 있어 도처에 기암괴석이 있다. 수락산 계곡에는 속칭 '마당바위'로 불리는 유원지가 있어 여름 한철 피서지로서 손색이 없다. 그리고 곳곳에 울창한 활엽수림으로 가을 단풍이 유명하며 유서 깊은 홍국사, 불암사를 감상하고 있다.

### 8. 미음나루권

#### 1) 팔당유원지

팔당유원지는 와부읍 팔당리 일원으로 팔당댐에서 덕소에 이르는 한강상류 연안 일대를 말한다. 중앙선 철도와 강릉선 국도가 나란히 이곳을 지나고 있고 서울에서 24km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이곳에는 1974년 5월 24일 준공된 팔당댐이 있어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 댐으로 인하여 댐상류의 양주·광주·갈평을 연천 1100만 평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 2억 4400만 톤의 물을 저장하는 인공호수가 만들어졌다. 담수어족인 잉어·쏘가리·장어 등이 서식하여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는 이들 어족의 은련 또한 일품이다.



수석리토성 표시

## 2) 수석리토성

수석리토성은 '토미제'라고 부르는 한강 옆 해발 82.3m 야산에 위치하고 있는 토성으로 수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 서면 서쪽으로 아차산, 남쪽으로 이성산과 남한산, 동쪽으로 천마산, 북쪽으로 수락산이 보이고 마을 앞 미음나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지세는 이곳이 한강을 중심으로한 전략적 요충지대였음을 알게 한다.

성의 모습은 반달형이며 전체 둘레는 140.5m이다. 성벽은 흙을 다져 쌓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높은 것을 깎아 다져 만들었으며, 높이는 4~5m 정도 된다. 삼국시대 성 중에서 백제의 성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을 조성하였는데 이 성도 그와 같은 경우이다.

성 안에는 높은 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우묵하고 불에 탄 돌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를 달리하여 봉화를 올렸던 자리로도 보인다. 성 안의 깎인 곳이나 패인 곳에서 발견된 삼국시대의 회청색 경질토기 조각들은 성을 쌓은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석실서원도(경재 장신의 그림)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볼 때, 수석리토성은 삼국시대에 한강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가 조선시대에는 봉화를 올리는 통신기능을 지녔던 곳으로 추정된다.

### 3) 석실서원지

석실서원은 문충공 김상용과 문정공 김상헌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656년(효종 4) 지방 유림의 뜻을 모아 창건한 조선 후기 대표적 서원이다.

현재는 수석동에 '석실서원지'라고 새긴 화강암 비석만 남아 있다. 석실서원은 창건된 이후 양주를 비롯한 경기 일원 유림의 근거지이자 조선 후기 경기 학문의 중심지로서 많은 명현들을 배출하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명소였다. 안동김씨 가문의 선영이 있었던 이곳은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충절과 진경문화의 산실인 석실서원지역을 복원하여 교육과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 4) 조말생 묘비

조말생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양주이다. 1401년(태종 1)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태종의 총애를 받아 항상 그 측근에서 보좌하였다고 한다. 대학자로 특히 글씨가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수석동 석실마을 인근 언덕에 있는 조말생의 묘(남양주시 향토유적 제8호)는 본래 금곡동에 있었는데 그곳에 홍유봉이 조성되어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한강을 내려다 보는 묘소에는 원형의 병풍석이 봉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묘비와 석등이 있고 장명등, 망주석,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 5) 미음나루

미음나루는 수석동의 미음마을에 있는 나루터로 남양주시와 하남시 미사리를 건너던 한강나루이다. 안동김씨 후손의 호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나루로 지금은 모터보트와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인근 야산에 축조된 수석리토성과 함께 삼국시대에는 한강변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의 일환으로 중요시되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이곳 미음나루 주변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음식점, 레저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어 철에 따라 변화하는 강변의 풍광과 한강의 야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9. 흥 · 율령권

#### 1) 흥릉

흥릉은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민씨의 합장릉으로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었으며 금곡동에 자리하고 있다.



홍릉의 문인석



홍릉의 무인석

홍릉의 능제는 명나라 효릉을 본뜬 황제의 능으로, 종래의 제도에 비해 매우 특이하게 조성되었는데, 그 형태를 보면 종래의 정자각 대신 침전을 세웠고 그 앞에 문인석과 무인석을 세우고 이어 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 등의 순으로 석수를 세웠다. 홍릉의 문인석은 금관을 쓰고 있으며 키가 3.85m나 되어 역대 왕릉의 문인석 중에서 가장 크다.

문인석과 무인석 모두 성장을 강조하였으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18대 현종 이후 보이지 않던 병풍석은 연화목단문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봉분을 감싸고 있으며, 난간석·상석·망주석·장명등이 배치되어 있다. 문인석과 무인석, 석수들이 모두 침전 앞으로 나가 봉분 주위는 침전의 웅장함에 비해 단출해 보인다.

## 2) 유릉

유릉은 조선왕조 마지막 왕릉으로 제27대 순종황제와 순명황후 민씨, 계후(李后) 순

정황후 윤씨의 합장릉이다. 금곡동에 홍릉과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릉은 홍릉과 비슷하게 조성되었는데 문인석과 무인석 등 석물들의 조각이 홍릉보다 매우 사실적이며 개성적이다.

### 3) 사릉

사릉은 조선 제6대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능으로 사적 제209호로 지정되었으며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에 소재하고 있다.

사릉은 대군부인의 예로 장사지낸 뒤 나중에 왕후의 능으로 추봉되었기 때문에 다른 능들에 비해 조촐하게 꾸며졌다. 능 주위가 소나무 숲으로 둘러져 있어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

### 4) 궁집

궁집은 조선 제12대 왕 영조의 딸 화길옹주의 시집으로 18세기의 목조기와집이다.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으며 중요민속자료 제1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조가 왕명으로 나라에서 목재와 목수를 보내어 지어주었다고 해서 '궁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집은 화길옹주가 출가하여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으로 절대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궁집은 산 기슭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다. 예전에 문간채가 있었음직한 자리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으며 사랑방 앞에도 여러 종류의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다.

### 5) 김교각기념관

김교각기념관은 와부읍 읍성리의 대한불교 조계종 백천사에 있다. 통일신라 성덕왕



18세기 목조기와집인 궁궐 내부 전경



백천사에 있는 김교지기념관

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홀홀단신 중국으로 건너가 구도의 삶을 살다 입적한 지장왕보살 김교각을 기념하기 위한 곳인데 지난 1998년 9월 20일 문을 열었다.

김교각은 황자의 신분을 버리고 당나라에 건너가 지장이란 법명을 받고 승려가 되어 중국 대륙을 두루 돌며 구도행을 계속하다 내란의 와중에서 지장보살에 귀의하였다. 그는 양자강 남쪽 구화산의 한 동굴에서 수행을 계속하였는데, 수행력이 증진되면서 그를 찾아 모여든 제자들과 함께 화성사를 창건하고 구화산을 지장도량으로 만들어 지장신앙을 전파하였다. 그는 당시까지 중국사람들에게 아직 낯설었던 지장신앙을 널리 전파해 구화산을 중국 4대 불교성지의 하나로 자리잡게 하였다.

김교각기념관에는 현재 그가 입적하기 전에 사용했던 신발과 모자, 그의 발자국을 담고 있는 돌 등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등신불이 되기까지의 전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다.

## 제4절 우리 고장의 특산물

### 1. 감칠맛 나는 꿀배 - 먹골배

먹골배는 일명 '꿀배'로 불릴 만큼 당도와 수분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배의 대명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주민들이 비료 대신 설탕을 뿌린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예전에는 궁중 진상품 1호로 손꼽혔다.

먹골배는 4월 중·하순 과실이 열려 크기가 콩알만하게 되면 하나의 송아리에서 제



우리나라 배의 대명사인 먹골배

일 크고 굵은 것 하나만 남기고 속아 준다. 만생종은 이때부터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봉지 씌우기를 해 주고, 최종적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수확한다. 즉 '가지 1 열매'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배에 비해 알이 굵고 둥글며 꼭지 부분이 다른 품종에 비해 깊숙하고 윤기가 흐르는 얇은 황금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먹골배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과거에 낙방한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 생계유지 수단으로 먹과 붓을 팔면서 배를 재배하였다고 해서 이곳을 묵동으로 칭하고 여기서 생산된 배를 먹골배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곳이 배의 고향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토양이 점성이 많은 진흙으로 배 재배에 알맞고 기후 및 일조량이 최적이라 배가 영그는 데도 안성마춤이기 때문이다. 먹골배는 남양주의 대표적인 향토특산물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 2. 고로쇠수액

남양주의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고로쇠수액이 있다. 고로쇠수액은 '백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인 골리수(骨利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지리산에서 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하늘과 산에 제사지낼 때 고로쇠나무 수액을 올렸다고 한다.

고로쇠수액은 수동면 내방 2리(일명 고로쇠마을) 주금산 근처의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다. 경칩과 춘분 사이에 해발 6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채취되는 것으로 수액은 봄철 한정된 기간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수액은 나무에 상처를 내어 흘러 내린 즙으로 한방에서는 이노, 변비, 위장병,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습진, 신경통, 산후통, 폐질환 환자에게 특효가 있다고 한다.

고로쇠수액 이외에도 포도, 수동면 장뇌삼(일명 산양산삼), 영지음료, 화훼작물 등이 있다.



남양주의 특산물 고추치수에 해취 모습

### 3. 새벽닭 소리 들을 때 마시는 계명주

계명주는 보통의 전통 토속주(탁주, 동동주, 약주 등)들이 일주일 이상의 숙성·발효 시간을 거쳐 알맞게 익으면 먹는 것과는 달리, 밤에 술을 담궈 다음날 새벽닭이 울 때 먹는다 하여 '계명주'라 불린다. 예전의 우리 조상들은 잔치와 제사 등을 지낼 때면 음식과 함께 술을 직접 담궈 사용했는데, 이렇게 만든 술을 오늘날 전통주라 부른다.

전통주는 보통 곡류(쌀, 보리, 옥수수, 수수 등)를 가루로 만들어 물·누룩과 함께 항아리에 넣은 후 뚜껑을 덮어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 원액을 만든다. 이를 다시 자루에 넣고 비틀어 눌렀을 때 나오는 액체(진한 술)를 먹기 좋게 물에 타서 항아리에 모아 두고 먹는다. 누룩은 김금(풍밀을 짤 때 튀워 말린 것)을 멧돌에 갈아서 물을 넣고 반죽한 다음, 메주 모양으로 영어리를 만들어 숙을 배에 깔고 따뜻하게 해서 띄운 후 (발효과정), 덩어리 속에서 곰팡이가 생기면 다시 젓별에 말려서 딱딱해지면 뿔아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탁주는 고두밥(되게 찰밥)에다 누룩을 섞어 빻은 술을 오지그릇 위에 정자 모양의 걸치개를 걸고 채로 막 걸러서 뿌옇고 텁텁한 것을 그냥 먹게 만든 술이다(일명 탁걸



계명주를 만드는 모습

리). 일반적 방법으로 술을 만드는데 7일 이상 걸린다. 계명주는 본래 차좁쌀로 담근 술(참쌀, 차좁쌀을 사용하면 빨리 삭고 술이 맑아 짐)로, 담근 다음날 닭이 우는 새벽녘에 먹게 된 데서 붙은 이름이다. 좁쌀이 북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어 주로 북쪽지방에서 빚어졌다. 이러한 속성주는 길어야 일주일 이내로 만들어졌으므로 순내주라고도 표현했다. 계명주의 별명은 이당주, 일명 옛탁주이다. 이 술은 쌀이 아닌 옥수수과 수수를 재료로 엿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며 그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술을 담기 5~7일 전에 누룩을 엿물에 담궈 흡수시킨다. 옥수수과 수수 등의 재료보다 3배 정도의 물을 넣고 백아를 잘 삭을 때까지 약하게 가열한다. 그 후 자루에 넣어 거르고 이를 다시 끓인 다음, 끓는 것을 차게 식힌다. 식힌 재료에다 엿물을 흡수시킨 누룩에 술잎을 잘 배합해서 독에다 담은 후 25~28°C로 7일간 발효시킨다. 이것을 거른 것이 옛탁주이다. 알콜 농도는 10~12도이다.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수동면 지둔리 최옥근씨가 시어머니의 비법을 전수 받아 전통명주의 대를 잇고 있다.

## 찾아보기

### ㄱ

|              |         |
|--------------|---------|
| 카오실          | 148     |
| 가운뎃 선사 집자리   | 23      |
| 가재울마을        | 101     |
| 거목골          | 151     |
| 견성암          | 342·324 |
| 견성암 대웅전      | 242     |
| 견성암 석조약사여래좌상 | 244     |
| 견성암 수양굴      | 243     |
| 계명주          | 318·338 |
| 고려장          | 162     |
| 교리쇠수맥        | 337     |
| 고송오류문        | 211     |
| 고종           | 184     |
| 골의노          | 25·136  |
| 공빈 김씨        | 194     |
| 광릉           | 319     |
| 광릉수목원        | 292·297 |
| 광릉숲          | 289·320 |
| 광릉장          | 172     |
| 광암           | 153     |
| 광해군          | 182     |
| 광해군 묘        | 182·324 |
| 구민화          | 222     |
| 구양주          | 278     |
| 굴집           | 219·333 |
| 굴계울          | 139     |

|           |         |
|-----------|---------|
| 금대마을      | 149     |
| 금석문 테마박물관 | 312     |
| 김교각기념관    | 333     |
| 김변        | 48      |
| 김상용       | 209·214 |
| 김삼용 충효문   | 215     |
| 김삼현       | 209·213 |
| 김식        | 50·270  |
| 김용기       | 281     |
| 김원행       | 279     |
| 김육        | 272     |
| 김종직       | 164     |
| 김항협       | 278     |
| 김효원       | 268     |

### ㄴ

|        |     |
|--------|-----|
| 남정     | 29  |
| 남선     | 204 |
| 남양주경찰서 | 64  |
| 남양주교육청 | 65  |
| 남양주문화원 | 67  |
| 남양주시의회 | 61  |
| 남양주시청  | 60  |
| 남이바위   | 160 |
| 남재     | 216 |
| 내원암    | 240 |

|           |         |
|-----------|---------|
| 내원암 석불입상  | 241     |
| 능성위       | 222     |
| 능원대원군     | 199     |
| 다산문화제     | 67·120  |
| 다산유적지     | 305     |
| 대궐터       | 28·323  |
| 대이산봉수     | 222     |
| 덕동        | 153     |
| 덕릉        | 327     |
| 덕릉마을 산신각  | 102     |
| 덕릉산신각 상량문 | 98      |
| 덕소        | 137     |
| 덕흥대원군     | 198·327 |
| 도선석실려     | 211     |
| 도연명       | 212     |
| 도자골 달땀    | 315     |

## ㄷ

|       |     |
|-------|-----|
| 독정    | 157 |
| 동학굴   | 151 |
| 두물머리  | 47  |
| 두물위크샵 | 308 |
| 두보    | 278 |
| 득실이고개 | 138 |
| 딕수    | 137 |

## ㄹ

|            |        |
|------------|--------|
| 마석 성생가구단지  | 59·315 |
| 마석우        | 147    |
| 마석우리장      | 174    |
| 만도기계 중앙연구소 | 59     |
| 망세정지       | 208    |
| 매바위        | 148    |
| 매봉재        | 141    |
| 먹고개        | 147    |

|            |         |
|------------|---------|
| 먹골배        | 336     |
| 명성황후       | 184     |
| 모란미술관      | 314     |
| 묘적사        | 244·311 |
|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 245     |
| 묘적사 활터     | 246     |
| 묘정비        | 211     |
| 문곡         | 139     |
| 미읍나루       | 223·331 |

## ㅂ

|                |         |
|----------------|---------|
| 박원종            | 202     |
| 밤나무고개          | 140     |
| 밤섬유원지          | 325     |
| 벌우개            | 140     |
| 벼락소            | 146     |
| 변안렬            | 276     |
| 보광사            | 249·318 |
| 보광사 화답선사       | 250     |
| 봉선사            | 246·321 |
| 봉선사 대종         | 248     |
| 봉선사 하마비        | 248     |
| 봉선사기           | 246     |
| 봉안 이상촌         | 282     |
| 봉영사            | 250·322 |
| 봉인사            | 226·325 |
| 봉인사 사리탑 중수비    | 228     |
| 봉인사 풍암취우대사비    | 229     |
| 봉치기            | 118     |
| 불굴가            | 277     |
| 불암사            | 237·326 |
| 불암사 경판         | 239     |
| 불암사 사적비        | 240     |
| 불암사 석씨원류옹화사적책판 | 238     |
| 불암산            | 44      |
| 비각마을           | 142     |

人

|            |         |
|------------|---------|
| 사릉         | 333     |
| 시마천        | 262     |
| 사자밭        | 79      |
| 산림박물관      | 300     |
| 삼년상        | 84      |
| 3·1운동      | 31      |
| 새끼공차기      | 118     |
| 새터유원지      | 308     |
| 서울스키리조트    | 316     |
| 서울종합촬영소    | 308     |
| 석실마을       | 48      |
| 석실서원       | 209·330 |
| 석천암        | 251     |
| 선돌마을       | 100     |
| 설불         | 158     |
| 설묘         | 194     |
| 세조         | 179     |
| 송백당유허비     | 213     |
| 송익필        | 261     |
| 쇠부너        | 145     |
| 수동국민관광지    | 316     |
| 수락산        | 45·328  |
| 수레넌이교개     | 150     |
| 수빈 박사      | 189     |
| 수석동 선사 집자리 | 23      |
| 수석리토성      | 329     |
| 수세지루기      | 78      |
| 수재비 떠먹기    | 119     |
| 수종사        | 233·306 |
| 수종사 부도     | 234     |
| 수종사 소탑     | 236     |
|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 235     |
| 순강원        | 187·323 |
| 순명효황후      | 186     |
| 순정효황후      | 186     |
| 순종         | 186     |

|    |         |
|----|---------|
| 신돈 | 273     |
| 심선 | 164·208 |

〇

|          |         |
|----------|---------|
| 만골마을     | 48      |
| 한빈 이씨    | 195     |
| 야생동물원    | 301     |
| 약물터유적    | 24      |
| 양주(楊州)   | 26      |
| 양주컨트라클럽  | 310     |
| 여경구가옥    | 217·323 |
| 여덟배미     | 144     |
| 여유당      | 261     |
| 역촌       | 143     |
| 일두바람     | 114     |
| 엇따주      | 318     |
| 명빈 김씨    | 196     |
| 명왕 이은    | 192     |
| 영원       | 192     |
| 오곡밭 흥취머기 | 118     |
| 오남가구단지   | 59·315  |
| 정숙천      | 47      |
| 용진나루터    | 234     |
| 운허       | 284     |
| 유광       | 206     |
| 유릉       | 186·331 |
| 윤인순      | 31      |
| 의안태군     | 208     |
| 이단상      | 274     |
| 이덕형      | 262     |
| 이병현      | 201     |
| 이백       | 262     |
| 이보       | 199     |
| 이순지      | 312     |
| 이초       | 198     |
| 이하용      | 190     |
| 이화       | 208     |

|            |     |
|------------|-----|
| 인빈 김씨..... | 187 |
| 양어집이.....  | 114 |

## ㄸ

|              |         |
|--------------|---------|
| 장례.....      | 78      |
| 장현장.....     | 173     |
| 전문수목원.....   | 298     |
| 정순왕후.....    | 181     |
| 정약용.....     | 257·306 |
| 정효준.....     | 264     |
| 정희왕후 윤씨..... | 179·289 |
| 조말생.....     | 287·331 |
| 조병.....      | 242     |
| 조상우.....     | 283     |
| 중부입업시험장..... | 292     |
| 점루.....      | 118     |

## ㄹ

|             |               |
|-------------|---------------|
| 천마산.....    | 43·52·313     |
| 천마산의 맥..... | 69            |
| 초혼부르기.....  | 78            |
| 최청.....     | 273           |
| 축령산.....    | 44·51·101·316 |
| 취석비.....    | 212           |

## ㅋ

|          |     |
|----------|-----|
| 크낙새..... | 302 |
|----------|-----|

## ㅅ

|          |     |
|----------|-----|
| 태극정..... | 325 |
| 토미재..... | 329 |

|              |            |
|--------------|------------|
| 퇴계원산대놀이..... | 69·111·310 |
|--------------|------------|

## ㅈ

|             |            |
|-------------|------------|
| 팔당 바당이..... | 139        |
| 팔당담.....    | 47         |
| 팔당유원지.....  | 328        |
| 평구역지.....   | 224        |
| 풍덕.....     | 29         |
| 풍양궁.....    | 27·142·215 |
| 풍양들.....    | 143        |
| 풍양현.....    | 27         |

## ㅎ

|               |         |
|---------------|---------|
| 하마비.....      | 215     |
| 하상태.....      | 265     |
| 한상경.....      | 266     |
| 한화.....       | 286·307 |
| 향토사료관.....    | 312     |
| 홍릉.....       | 184·331 |
| 화길옹주.....     | 219     |
| 회갑례.....      | 75      |
| 휘경원.....      | 189     |
| 홍국사.....      | 230·326 |
| 홍국사 대웅보전..... | 231     |
| 홍국사 만월보전..... | 232     |
| 홍국사 시왕전.....  | 232     |
| 홍국사 영산전.....  | 232     |
| 홍선대원군.....    | 190     |
| 홍선대원군 묘.....  | 315     |
| 홍원.....       | 190     |

## 이 책을 만든 사람들

### 편찬위원

최종원 남양주문화원 부원장  
우영숙 남양주문화원 부원장  
임병규 남양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민경조 남양주문화원 전통민속예술연구소장  
변대용 남양주문화원 감사  
윤원하 남양주문화원 이사·사친작가  
최상인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  
장희홍 남양주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향토사랑회 남양주시초등학교사역사연구회원

김수남(장현초)·안병복(덕소초)·구자신(가양초)·이택상  
(양지초)·김희인(동곡초)·권호철(오남초)·박기철(화결초)·  
이상호(미금초)

남양주시 역사 문화 50년

## 우리 고장 남양주

발행일 : 2000년 5월  
발행인 : 조원근  
발행처 : 남양주문화원  
경기도 남양주시 규곡동 한 74-3  
10346-592-0687  
기획 및 원고 : 최상인·장희홍(주성지)  
사 진 : 윤원하  
권 김 : 도서출판 큰기획(02-2268-6822)  
디자인 : 장은경·신미연  
교열교정 : 채치용

---

© 남양주문화원, 2000  
값 10,000원

